

# CBETA電子佛典集成

---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85n1587

## 正源略集

清 際源·了貞輯 達珍編

中華電子佛典協會



#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南嶽下三十四世](#)
    - [磬山天隱修禪師法嗣](#)
      - [京口夾山林臯本豫禪師](#)
      - [杭州南澗理安箬蒼問禪師](#)
      - [湖州報恩玉林通琇禪師](#)
      - [南嶽綠蘿山茨際禪師](#)
      - [陽山松際印中通授禪師](#)
    - [雪嶠信禪師法嗣](#)
      - [杭州積翠唯一潤禪師](#)
      - [越州雲門徹崖宏歇禪師](#)
      - [衢州明果形山宏淖禪師](#)
      - [廬山開先山鳴弘璐禪師](#)
  - [耆原下宗鏡三世](#)
    - [幻休潤禪師法嗣](#)
      - [北京大覺慈舟方念禪師](#)
    - [廬山忠禪師法嗣](#)
      - [建昌黃龍壽昌無明慧經禪師](#)
  - [耆原下宗鏡四世](#)
    - [大覺念禪師法嗣](#)
      - [越州雲門顯聖湛然圓澄禪師](#)
    - [壽昌經禪師法嗣](#)
      - [信州博山無異元來禪師](#)
      - [建州建陽東苑晦臺鏡禪師](#)
      - [建昌府壽昌闡然謐禪師](#)
      - [鼓山永覺賢禪師](#)
  - [耆原下宗鏡五世](#)
    - [湛然澄禪師法嗣](#)
      - [紹興府明因麥浪懷禪師](#)
      - [龍門佛日石雨方禪師](#)
      - [越州顯聖三宜孟禪師](#)
      - [紹興府東山爾密復禪師](#)
      - [紹興上虞香雪菴具足明有禪師](#)

- [洪都百丈瑞白雪禪師](#)
- [博山來禪師法嗣](#)
  - [信州瀛山雪關閻禪師](#)
  - [鬱州嵩乳道密禪師](#)
  - [福州長慶宗寶獨禪師](#)
  - [江寧獨峯竹山道巖禪師](#)
- [東苑鏡禪師法嗣](#)
  - [江南天界寺覺浪盛禪師](#)
- [鼓山賢禪師法嗣](#)
  - [福州鼓山為霖道霽禪師](#)
- [南嶽下三十五世](#)
  - [林臯豫禪師法嗣](#)
    - [天壽謐融元禪師](#)
    - [潤州夾山蘧夫一禪師](#)
  - [筓蒼問禪師法嗣](#)
    - [潭州瀏陽黃曇曉蒼尊禪師](#)
    - [黃梅五祖千仞罔禪師](#)
    - [淮安淨居汝風泉禪師](#)
    - [杭州理安梅谷悅禪師](#)
    - [松江金澤頤浩子山如禪師](#)
    - [瑞州黃檗一蒼月禪師](#)
    - [蘄州廣教天章玉禪師](#)
    - [杭州錢塘理安天竺珍禪師](#)
    - [蘇州常熟勝法斯瑞法禪師](#)
    - [潤州金山鐵舟海禪師](#)
    - [南澗理安濟水洸禪師](#)
    - [邱山雪谷古石藏禪師](#)
    - [杭州理安六吉謙禪師](#)
    - [蘇州常熟勝法雲峯授禪師](#)
  - [山茨際禪師法嗣](#)
    - [潭州石霜爾瞻尊禪師](#)
    - [吉州安福臺山日蒼芻禪師](#)
    - [邵陵金峯紫雲密巖剛禪師](#)
    - [楚黃陂\[山\\*廣\]山玄慈謙禪師](#)
    - [粵西全州香林宗玄旨禪師](#)
  - [松際授禪師法嗣](#)
    - [潭州神鼎雲外行澤禪師](#)
  - [大覺琇國師法嗣](#)

- [湖州報恩退蕃重禪師](#)
- [荊溪善權白松豐禪師](#)
- [南嶽高臺不退勇禪師](#)
- [湖州報恩骨巖峯禪師](#)
- [湖州武康報恩棲雲行岳禪師](#)
- [杭州圓照\[菴-凡+卫\]溪森禪師](#)
- [湖州武康報恩美發淳禪師](#)
- [報恩西堂寂蕃行洽禪師](#)
- [蘊荊行璧禪師](#)
- [杭州天日山全蕃行進禪師](#)
- [宜興磬山雲居行嶺禪師](#)
- [杭州良渚崇福濟芝行覺禪師](#)
- [潤州夾山竹林六解行恒禪師](#)
- [新安道仁行本禪師](#)
- [侍者曉雲行謀禪師](#)
- [書記響雪行澄禪師](#)
- [西堂琴水行詔禪師](#)
- [常熟拂水地藏洪濟演禪師](#)
- [萬安法海祖山地禪師](#)
- [五峯學禪師法嗣](#)
  - [潭州大滄養拙正明禪師](#)
- [漢月藏禪師法嗣](#)
  - [蘇州三峰梵伊致禪師](#)
  - [杭州兜率一默成禪師](#)
  - [潤州焦山問石乘禪師](#)
  - [無錫華藏大樹證禪師](#)
  - [蘇州瑞光頂日徹禪師](#)
  - [杭州顯寧澹予垣禪師](#)
  - [杭州徑山具德禮禪師](#)
  - [蘇州鄧尉山剖石壁禪師](#)
  - [蘇州靈巖繼起儲禪師](#)
  - [蘇州華嚴干槃鴻禪師](#)
  - [常州祥符慧刃銛禪師](#)
  - [杭州安隱潭吉忍禪師](#)
  - [湖州高峯碩機聖禪師](#)
  - [孝廉劉道貞居士](#)
- [破山明禪師法嗣](#)
  - [楚南武岡雲山勝力燕居德申禪師](#)

- [成都昭覺丈雪醉禪師](#)
- [大竹百城著禪師](#)
- [寂光豁禪師](#)
- [豐都二仙覺城明柱禪師](#)
- [射洪清果不會法禪師](#)
- [鳳山興隆深省純禪師](#)
- [四川寶光笑宗行密禪師](#)
- [重慶崇因慧覺行衣禪師](#)
- [雙桂福國雲橋水禪師](#)
- [衡州開峯密行寂忍禪師](#)
- [重慶華巖聖可玉禪師](#)
- [費隱容禪師法嗣](#)
  - [福州黃壁隱元琦禪師](#)
  - [嘉興金粟百癡元禪師](#)
  - [湖州武康資福靈機觀禪師](#)
  - [杭州慧雲本充盛禪師](#)
  - [杭州長安覺王千峯立禪師](#)
  - [鄧州興陽獨冠敬禪師](#)
  - [嘉興金粟石菴行瑋禪師](#)
  - [福州羅山法海白嵩俊禪師](#)
- [朝宗忍禪師法嗣](#)
  - [贛州寶華諾諾行導禪師](#)
- [石車乘禪師法嗣](#)
  - [嘉興金粟息乾元禪師](#)
  - [吉州龍須資國眉菴秀禪師](#)
- [萬如微禪師法嗣](#)
  - [荊谿龍池素巖淵禪師](#)
  - [無錫南禪古鏡符禪師](#)
- [木陳忞禪師法嗣](#)
  - [明州五磊達變權禪師](#)
  - [明州五磊拙巖懷禪師](#)
  - [越州平陽天嶽本書禪師](#)
  - [台州廣潤巨靈幅禪師](#)
  - [嘉興金粟天岸昇禪師](#)
  - [漳州龍牙雲叟住禪師](#)
  - [臯亭佛日山曉哲禪師](#)
  - [揚州興化龍珠森鑑徹禪師](#)
  - [金陵天寧古田元禪師](#)

- [黃州黃陂素山冲然義禪師](#)
- [廬山西林以夫可禪師](#)
- [蘇州虎邱節巖琇禪師](#)
- [桐城清泉靈遠應禪師](#)
- [信州章巖獻可寂禪師](#)
- [湖州道場山神山瀛禪師](#)
- [越州烏石南雲暉禪師](#)
- [洪州寶峯大雷慶禪師](#)
- [越州翠峯懷光燦禪師](#)
- [新州龍山國恩曠圓行果禪師](#)
- [金陵蔣山芥菴大禪師](#)
- [石奇雲禪師法嗣](#)
  - [台州淨居湛菴常禪師](#)
  - [明州大梅法幢幟禪師](#)
  - [處州椒山律牧制禪師](#)
  - [明州雪竇宏遠紹禪師](#)
- [牧雲門禪師法嗣](#)
  - [蘇州西華秀峯岫雲行瑋禪師](#)
  - [嘉興祖燈崇己峻禪師](#)
  - [越州明覺寶堂雪厂道白禪師](#)
  - [金陵蔣山佛國南音言禪師](#)
  - [蘇州無量可生慈禪師](#)
  - [南嶽法輪石隱貞禪師](#)
  - [廬山圓通崇勝雪堂耜禪師](#)
  - [德安孝感獅子古鑑圓禪師](#)
  - [廬山直指尼圓鑑玄禪師](#)
  - [如如懶人方為戒居士](#)
- [浮石賢禪師法嗣](#)
  - [極樂獨癡口禪師](#)
  - [江西寶藏範圍澤禪師](#)
  - [海寧東寺洪衍灝禪師](#)
  - [潁州弘戒鈍斧濊禪師](#)
  - [太平澄心寄菴潔禪師](#)
- [林野奇禪師法嗣](#)
  - [荊谿芙蓉白閒覺禪師](#)
  - [台州鴻福慧日昇禪師](#)
  - [蘇州太倉香林佛果聞禪師](#)
  - [溫州護國古泉清禪師](#)

- [廣德崇化了悟能禪師](#)
- [天台萬年無礙徹禪師](#)
- [桐鄉寂照芥子彌禪師](#)
- [香巖宕山遠禪師](#)
- [青原下宗鏡六世](#)
  - [瑞白雪禪師法嗣](#)
    - [弁山龍華久默音禪師](#)
    - [瑞州洞山孤崖聰禪師](#)
    - [舒州三祖破闇燈禪師](#)
    - [南昌百丈石澗泐禪師](#)
    - [寧州雲巖元潔瑩禪師](#)
    - [荊谿善權百愚斯禪師](#)
    - [蘇州金僊蕃光瓌禪師](#)
    - [衡州大義山日拙訥禪師](#)
    - [南嶽荊紫峯萬仞壁禪師](#)
    - [湖州烏程獨園玄素體禪師](#)
    - [嘉禾福善寺雲松品禪師](#)
    - [越州梅山歷然相禪師](#)
    - [衝陽西山窳谷源禪師](#)
    - [天台護國眠石蘊禪師](#)
    - [虔州崆峒不溢滿禪師](#)
    - [虔州崆峒謂斯教禪師](#)
    - [虔州興國獅子岩中也慈禪師](#)
    - [湖州佛燈白巖博禪師](#)
    - [越州蕭山道林離愚智禪師](#)
    - [贛州鳳日本珠玕禪師](#)
    - [青谿西水菴丹溟幢禪師](#)
    - [佛川離言義禪師](#)
    - [紫梅淑安周禪師](#)
  - [麥浪懷禪師法嗣](#)
    - [越州彌陀寺無迹敏禪師](#)
  - [石雨方禪師法嗣](#)
    - [古盧象田即念現禪師](#)
    - [劔浦無量來雲現禪師](#)
    - [龍塘遠門柱禪師](#)
    - [杭州白巖位中符禪師](#)
    - [餘杭南山普寧天愚寶禪師](#)
    - [杭州徑山夢菴律禪師](#)

- [杭州錢塘淨性紫仙陽禪師](#)
- [爾密復禪師法嗣](#)
  - [紹興山陰清化惟岑嶸禪師](#)
  - [紹興嵊縣明覺寧遠地禪師](#)
  - [杭州仁和菩曇白若深禪師](#)
  - [越州融光白聞音禪師](#)
- [具足有禪師法嗣](#)
  - [越州寶泉素端衡禪師](#)
- [三官孟禪師法嗣](#)
  - [嘉善慈雲佷亭挺禪師](#)
  - [苕溪鳳山多福林妙叶啟禪師](#)
  - [山陰保寧端實巖禪師](#)
  - [越州大能仁寺盟石息禪師](#)
  - [越州上虞龍田栢子地禪師](#)
  - [嘉興東塔為則範禪師](#)
- [嵩乳密禪師法嗣](#)
  - [淮安清江浦洪福靈燄燭禪師](#)
  - [淮安檀度南蕃依禪師](#)
- [宗寶獨禪師法嗣](#)
  - [廬山歸宗天然昞禪師](#)
  - [千山龍泉剩人可禪師](#)
- [覺浪盛禪師法嗣](#)
  - [金陵棲霞竺蕃成禪師](#)
  - [杭州崇光觀濤奇禪師](#)
  - [吉水龍華梅逢忍禪師](#)
  - [金陵天界巨音選禪師](#)
  - [廣東曹溪石濂汕禪師](#)
  - [吉州青原嘯峯然禪師](#)
  - [江寧天界方融璽禪師](#)
  - [建昌壽昌其天浩禪師](#)
  - [新城福山石潮寧禪師](#)
  - [吉州青原無可智禪師](#)
  - [杭州虎跑大慈石公瓊禪師](#)
- [附諸尊宿](#)
  - [杭州雲棲蓮池祿宏大師](#)
  - [紫栢達觀直可大師](#)
  - [瑞州黃蘗無念深有禪師](#)
  - [夔州白馬寺儀峯方彖禪師](#)

- [廬信鸞湖養菴心禪師](#)
- [杭州直寂聞谷廣印禪師](#)
- [湘鄉荊紫峯無學幻大師](#)
- [韶州曹溪憨山德清大師](#)
- [江西雲居顓愚觀衡禪師](#)
- [江西泐潭元白可禪師](#)
- [衡陽豪山大辯道焜大師](#)
- [金陵寶華山見月體和尚](#)
- [祠部黃端伯海岸居士](#)
- [開府余大成集生居士](#)
- [南嶽下三十六世](#)
  - [爾瞻尊禪師法嗣](#)
    - [潭州石霜碧眼開禪師](#)
  - [千仞岡禪師法嗣](#)
    - [黃梅五祖直慧無絃琴禪師](#)
    - [蘄州黃梅五祖直慧綠雨蕉禪師](#)
    - [黃梅五祖山直慧天澤霖禪師](#)
  - [鐵舟海禪師法嗣](#)
    - [金山可達杰禪師](#)
    - [金陵香林法乳樂禪師](#)
  - [天竺珍禪師法嗣](#)
    - [杭州理安夢菴格禪師](#)
    - [滁州琅琊樗關直禪師](#)
    - [杭州理安越鑑徹禪師](#)
    - [杭州理安獨超方禪師](#)
    - [邵州龍華龔舟元禪師](#)
  - [天章玉禪師法嗣](#)
    - [蘄州訥菴辯禪師](#)
    - [金陵迴龍南愚玠禪師](#)
  - [六吉謙禪師法嗣](#)
    - [東山伯嶽惺禪師](#)
  - [不浪勇禪師法嗣](#)
    - [山西沁州銅鞮永慶尺木休禪師](#)
  - [棲雲岳禪師法嗣](#)
    - [杭州天目南谷穎禪師](#)
  - [骨巖峯禪師法嗣](#)
    - [武康匡齋來禪師](#)
  - [苕溪森禪師法嗣](#)

- [天日獅子正宗形山寶禪師](#)
- [京都賢良如川盛禪師](#)
- [姑蘇怡賢蓮峯源禪師](#)
- [京都覺生秀山成禪師](#)
- [美發淳禪師法嗣](#)
  - [天日晦石琦禪師](#)
- [養拙明禪師法嗣](#)
  - [潭州大瀉慧山海禪師](#)
- [頂日徹禪師法嗣](#)
  - [雙泉眉山霽禪師](#)
- [具德禮禪師法嗣](#)
  - [能仁微旨朗禪師](#)
  - [維揚巨渤恒禪師](#)
  - [江西雲居晦山顯禪師](#)
  - [泰興慶雲碩揆志禪師](#)
  - [杭州雲林諦暉輅禪師](#)
- [繼起儲禪師法嗣](#)
  - [蘇州字雲蹤禪師](#)
  - [蘇州月函子禪師](#)
  - [國清翼蒼鄩禪師](#)
  - [資福童碩宏禪師](#)
  - [靈瑞尼祖符禪師](#)
- [丈雪醉禪師法嗣](#)
  - [青城鳳林竹浪生禪師](#)
  - [佛窟超綱禪師](#)
- [雲橋水禪師法嗣](#)
  - [東川蒼碧聰禪師](#)
- [易庵師禪師法嗣](#)
  - [南陽法海林我鑿禪師](#)
- [聖可玉禪師法嗣](#)
  - [崇隆碧露夢禪師](#)
- [密行忍禪師法嗣](#)
  - [滇楚九臺山知空蘊禪師](#)
- [百癡元禪師法嗣](#)
  - [京師海會敦璞性聰禪師](#)
- [靈機觀禪師法嗣](#)
  - [湖州資福明心鑑禪師](#)
  - [湖州資福德水洧禪師](#)

- [石庵瑋禪師法嗣](#)
  - [杭州仁和佛日璿鑑衡禪師](#)
- [天嶽書禪師法嗣](#)
  - [廬山開先心壁淵禪師](#)
- [山曉哲禪師法嗣](#)
  - [杭州佛日法持毅禪師](#)
- [靈遠應禪師法嗣](#)
  - [襄州洞山普慧漢水浩禪師](#)
  - [天童石吼徹禪師](#)
  - [桐城慧山魯璠魯禪師](#)
  - [六安大悲祖幻寧禪師](#)
- [節崖琇禪師法嗣](#)
  - [蘇州虎邱洞明照禪師](#)
  - [湖州吳山廣壽宇亭尹禪師](#)
  - [揚州福緣濟生度禪師](#)
- [祥光吉禪師法嗣](#)
  - [揚州淨慧破愚智禪師](#)
  - [揚州淨慧允中微禪師](#)
- [薪傳灑禪師法嗣](#)
  - [淮安龍興靈潔源禪師](#)
- [博凡可禪師法嗣](#)
  - [江州西林仲泉空禪師](#)
- [天岸昇禪師法嗣](#)
  - [徐州雲龍興化谷庵朴禪師](#)
- [懷光燦禪師法嗣](#)
  - [京都覺生雪鴻信禪師](#)
- [文弱盈禪師法嗣](#)
  - [終南蟠龍子肅遠禪師](#)
- [古鏡符禪師法嗣](#)
  - [無錫南禪吼松澄禪師](#)
- [介為舟禪師法嗣](#)
  - [漢陽曇華碧雲天禪師](#)
- [冷堂林禪師法嗣](#)
  - [越州蕭邑城山大拙理禪師](#)
- [萬因聖禪師法嗣](#)
  - [福州護國鐸夫凡禪師](#)
- [環一韶禪師法嗣](#)
  - [潤州鶴林雲屋音禪師](#)

- [龍喜\[汁\\*\(十/甲/寸\)\]禪師法嗣](#)
  - [龍王山清涼千智幢毅禪師](#)
- [彌壑漕禪師法嗣](#)
  - [南陽雪乳律禪師](#)
  - [東京相國曇紹杲禪師](#)
- [雲峨喜禪師法嗣](#)
  - [西安興福敷休乾禪師](#)
  - [汝州風穴白雲雪兆性禪師](#)
  - [河南金粟冲涵恒禪師](#)
- [無礙徹禪師法嗣](#)
  - [天台萬年紀安經禪師](#)
  - [天柱永慶念予恒禪師](#)
- [蘧夫一禪師法嗣](#)
  - [潤州夾山竹林辯言海禪師](#)
- [道安靜禪師法嗣](#)
  - [聖感霽崙永禪師](#)
- [敏樹相禪師法嗣](#)
  - [辰州龍山穎悟秀禪師](#)
- [太白雪禪師法嗣](#)
  - [明州育王法鐘覺禪師](#)
- [采商榮禪師法嗣](#)
  - [鄂州向上具瞻仰禪師](#)
- [南嶽下三十七世](#)
  - [慧山海禪師法嗣](#)
    - [邵陵大梅與峯智禪師](#)
    - [潭州大滄山密印古梅冽禪師](#)
    - [潭州大滄易菴應禪師](#)
    - [潭州大滄揆菴空禪師](#)
    - [潭州上林月敷權禪師](#)
    - [邵陵龍山月堂湛禪師](#)
    - [邵陵上梅雄山千如一禪師](#)
  - [穆文德禪師法嗣](#)
    - [鳳林雪圃修禪師](#)
  - [晦山顯禪師法嗣](#)
    - [雲居九屏燕霄鵬禪師](#)
  - [諦暉輅禪師法嗣](#)
    - [杭州雲林巨濤果禪師](#)
  - [得定運禪師法嗣](#)

- [迴龍水月圓禪師](#)
- [止水源禪師法嗣](#)
  - [崇仁天乘參禪師](#)
- [穎悟秀禪師法嗣](#)
  - [沅州太和長明旻禪師](#)
- [佛窠綱禪師法嗣](#)
  - [昭覺竹峯續禪師](#)
- [浪山嶼禪師法嗣](#)
  - [嘉興福巖具官開禪師](#)
  - [嘉興普明赤潭珠禪師](#)
  - [濮鎮龍潭福善壽堂成禪師](#)
- [德水洧禪師法嗣](#)
  - [湖州翔鳳資福也間潛禪師](#)
- [四航海禪師法嗣](#)
  - [杭州龍泉匡源洪禪師](#)
  - [湖州靈山具如奇禪師](#)
  - [維揚天寧紫松彭禪師](#)
- [玉山博禪師法嗣](#)
  - [秦郵臨川普度古門裕禪師](#)
- [馮山藏禪師法嗣](#)
  - [黃山慈光中洲嶽禪師](#)
- [漢雲曇禪師法嗣](#)
  - [李山澄光繩木林禪師](#)
- [吼松澄禪師法嗣](#)
  - [無錫九峯三明灝禪師](#)
  - [宜興龍池汛帆裕禪師](#)
- [紀安經禪師法嗣](#)
  - [金粟山禹門宗禪師](#)
  - [天台萬年豁然緣禪師](#)
  - [金粟慧海源濟禪師](#)
  - [浙江金粟悟心達禪師](#)
  - [天台萬年止先定禪師](#)
  - [福州法輪觀月光禪師](#)
  - [嘉興金粟道三本禪師](#)
- [具瞻仰禪師法嗣](#)
  - [鄂渚南溪向上雙溪定禪師](#)
- [允中微禪師法嗣](#)
  - [揚州靜慧述先預禪師](#)

- [谷庵璞禪師法嗣](#)
  - [徐州雲龍興化天池鵬禪師](#)
- [石吼徹禪師法嗣](#)
  - [寶應一粟默菴言禪師](#)
- [祖幻寧禪師法嗣](#)
  - [潁州覺林徧知學禪師](#)
  - [六安香林曉南杲禪師](#)
- [天培鑿禪師法嗣](#)
  - [南嶽祝聖曉堂哲禪師](#)
- [心壁淵禪師法嗣](#)
  - [廬山秀峯猗蘭操禪師](#)
- [濟牛度禪師法嗣](#)
  - [維揚福緣超宗智禪師](#)
  - [維揚福緣福國傳禪師](#)
  - [武林聖因大徹永禪師](#)
- [月柯澄禪師法嗣](#)
  - [吳江聖壽阿耨禪師](#)
- [念予恒禪師法嗣](#)
  - [天台永慶天喜卓禪師](#)
- [法鐘覺禪師法嗣](#)
  - [明州育王南溟碧禪師](#)
- [碧眼開禪師法嗣](#)
  - [石霜熬峯南翁慧禪師](#)
- [辯言海禪師法嗣](#)
  - [荊州萬佛祇園朗徹印禪師](#)
- [法乳樂禪師法嗣](#)
  - [金陵香林月潭達禪師](#)
  - [潤州金山量聞銓禪師](#)
- [天澤霖禪師法嗣](#)
  - [黃梅槽廠東禪海潮音禪師](#)
- [夢菴格禪師法嗣](#)
  - [京都大覺迦陵音禪師](#)
  - [京都萬壽調梅鼎禪師](#)
- [越鑑徹禪師法嗣](#)
  - [杭州理安佛日義禪師](#)
- [南谷穎禪師法嗣](#)
  - [杭州崇福靈鷲誠禪師](#)
  - [杭州無幻施居士](#)

- [晦石琦禪師法嗣](#)
  - [杭州天日澹如永禪師](#)
  - [如臯菩提化導啟禪師](#)
- [形山寶禪師法嗣](#)
  - [杭州聖因悟修明慧禪師](#)
- [永覺盛禪師法嗣](#)
  - [杭州聖因大恒中禪師](#)
- [宇亭尹禪師法嗣](#)
  - [金陵吉祥朴菴修禪師](#)
- [可達杰禪師法嗣](#)
  - [吳陵三昧不物震禪師](#)
- [青原下宗鏡七世](#)
  - [破闇燈禪師法嗣](#)
    - [鹽城永寧式衡權禪師](#)
    - [平山受宗智旨禪師](#)
    - [潤州焦山古樵智先禪師](#)
  - [元潔瑩禪師法嗣](#)
    - [衡陽雲峯佛國頻吉祥禪師](#)
  - [百愚斯禪師法嗣](#)
    - [松江青龍隆福寒松操禪師](#)
    - [終南靈源紫谷覺禪師](#)
    - [和州含山褒山天鑑暹禪師](#)
    - [盤山拙菴智朴禪師](#)
  - [目拙訥禪師法嗣](#)
    - [端州月山洞初度禪師](#)
  - [萬仞壁禪師法嗣](#)
    - [龍華湘翁云禪師](#)
    - [蘄州歷化雪逵照禪師](#)
  - [淑安周禪師法嗣](#)
    - [濟寧彌勒院白獅純禪師](#)
  - [蕃光瓌禪師法嗣](#)
    - [吳興金峯古佛燈道驤超禪師](#)
  - [窾谷源禪師法嗣](#)
    - [楚衡西山不韻音禪師](#)
  - [靈燄燭禪師法嗣](#)
    - [淮安清江浦洪福隱知闡禪師](#)
  - [南菴依禪師法嗣](#)
    - [淮安清江檀度天根本禪師](#)

- [天然是禪師法嗣](#)
  - [廣州海幢阿字無禪師](#)
- [竺菴成禪師法嗣](#)
  - [金陵棲霞楚雲源禪師](#)
- [觀濤奇禪師法嗣](#)
  - [杭州皇亭山顯孝淇園泉禪師](#)
- [梅逢忍禪師法嗣](#)
  - [吉水龍華子愚喆禪師](#)
- [巨音撰禪師法嗣](#)
  - [金陵天界靈潤機禪師](#)
- [即念現禪師法嗣](#)
  - [曹溪南華大休珠禪師](#)
- [盟石息禪師法嗣](#)
  - [越州寓山青蓮乾裕曾禪師](#)
- [蔗菴節禪師法嗣](#)
  - [都城安定關華藏癩翁馮禪師](#)
- [惟岑嶼禪師法嗣](#)
  - [越州乾峯雲怡轄禪師](#)
- [夢菴律禪師法嗣](#)
  - [禹杭寶壽尊道揀禪師](#)
- [青原下宗鏡八世](#)
  - [焦山古樵智先禪師法嗣](#)
    - [鎮江焦山鑑堂德鏡禪師](#)
  - [平山受宗旨禪師法嗣](#)
    - [棲靈道宏德南禪師](#)
  - [頻吉祥禪師法嗣](#)
    - [會龍藉菴重禪師](#)
    - [廣州浴日能禪師](#)
  - [洞初度禪師法嗣](#)
    - [端州法輪自明珩禪師](#)
  - [拙菴朴禪師法嗣](#)
    - [五州遠林德進禪師](#)
  - [湘翁沩禪師法嗣](#)
    - [天然喆林吉禪師](#)
    - [湖州弁山澄照紫瑋\[王\\*巨\]禪師](#)
    - [山西汾州華嚴雪崖德睿禪師](#)
    - [蘄州後山白巖鐵菴清禪師](#)
  - [克歸宗禪師法嗣](#)

- [漢陽歸元白光明禪師](#)
- [紫谷覺禪師法嗣](#)
  - [陝西西安慈恩敷月圓禪師](#)
- [隱知聞禪師法嗣](#)
  - [桐城慈濟侶石清禪師](#)
- [阿字無禪師法嗣](#)
  - [廣州海幢雲菴雲禪師](#)
- [南嶽下第三十八世](#)
  - [迦陵音禪師法嗣](#)
    - [京都大覺佛泉安禪師](#)
    - [廬山歸宗佩璋璫禪師](#)
    - [江西歸宗果宏德禪師](#)
    - [京都大覺正宗道禪師](#)
  - [調梅鼎禪師法嗣](#)
    - [磬山崇恩法南勝禪師](#)
    - [京都拈花恢慈仁禪師](#)
    - [京都萬壽粹如純禪師](#)
- [南嶽下第三十九世](#)
  - [佛日義禪師法嗣](#)
    - [薦福德山海禪師](#)
    - [南澗理安智朗月禪師](#)
  - [古雲沛禪師法嗣](#)
    - [劔溪永鎮樸夫拙禪師](#)
  - [祖燈紹禪師法嗣](#)
    - [嶽州印慧勝禪師](#)
  - [月潭達禪師法嗣](#)
    - [鎮江金山大曉徹禪師](#)
  - [不物震禪師法嗣](#)
    - [泰州慈濟白聞悅禪師](#)
  - [澹如永禪師法嗣](#)
    - [杭州天華有干成禪師](#)
    - [杭州天日聞學定禪師](#)
    - [天日桂巖立禪師](#)
    - [天日道謙智禪師](#)
    - [南屏淨慈在衡權禪師](#)
  - [悟修慧禪師法嗣](#)
    - [杭州淨慈振一宗禪師](#)
  - [曉蒼濯禪師法嗣](#)

- [潯陽能仁秀林俊禪師](#)
- [景樹幢禪師法嗣](#)
  - [杭州淨慈指遠近禪師](#)
- [靈鷲誠禪師法嗣](#)
  - [維揚高旻天慧徹禪師](#)
  - [武林崇福道明信禪師](#)
  - [金壇東禪寶勝萬光篆禪師](#)
  - [杭州崇福智巖昌禪師](#)
  - [杭州崇福朗融照禪師](#)
  - [杭州孤舟山谷聲聞禪師](#)
  - [大雄崇福訊機鋒禪師](#)
- [百靈然禪師法嗣](#)
  - [湖廣古帆令禪師](#)
- [海山明禪師法嗣](#)
  - [萬杉大楚圓禪師](#)
- [古梅冽禪師法嗣](#)
  - [潭州大瀉天翼翔禪師](#)
- [巨濤果禪師法嗣](#)
  - [杭州雲林玉山琳禪師](#)
- [赤潭珠禪師法嗣](#)
  - [繡州濮鎮宇存順禪師](#)
  - [嘉興白蓮慎初暹禪師](#)
- [具官開禪師法嗣](#)
  - [興化時思道安經禪師](#)
- [具如奇禪師法嗣](#)
  - [維揚天寧侶松楷禪師](#)
- [竹峯續禪師法嗣](#)
  - [四川昭覺潛修悅禪師](#)
- [中洲岳禪師法嗣](#)
  - [德清吉祥大文相禪師](#)
- [南溟碧禪師法嗣](#)
  - [育王嵩來荅禪師](#)
- [默菴言禪師法嗣](#)
  - [寶應一粟嶧岫旭禪師](#)
- [曉堂哲禪師法嗣](#)
  - [長沙白霞信賢遐禪師](#)
- [異日宗禪師法嗣](#)
  - [饒州龍溪正覺堯蒼治禪師](#)

- [天池鵬禪師法嗣](#)
  - [徐州雲龍興化李章平禪師](#)
- [止先源禪師法嗣](#)
  - [休林遠岫堂主](#)
- [青原下宗鏡第九世](#)
  - [鑑堂鏡禪師法嗣](#)
    - [潤州焦山碩菴行載禪師](#)
  - [道宏南禪師法嗣](#)
    - [揚州平山麗杲行導禪師](#)
  - [浴日能禪師法嗣](#)
    - [京都大千佛道權高禪師](#)
  - [主峯崑禪師法嗣](#)
    - [漢陽歸元日熬拙禪師](#)
  - [自明珩禪師法嗣](#)
    - [端州月山惺學敏禪師](#)
  - [遠林淮禪師法嗣](#)
    - [京口五州淨因宗一直禪師](#)
  - [紫瑀岨禪師法嗣](#)
    - [京口乳山熬如行秀禪師](#)
  - [侶石清禪師法嗣](#)
    - [桐城投子慈濟竺風聖禪師](#)
    - [金陵靈谷道揆守禪師](#)
- [青原下宗鏡十世](#)
  - [碩菴載禪師法嗣](#)
    - [潤州焦山敏修福毅禪師](#)
  - [麗杲導禪師法嗣](#)
    - [揚州棲靈善初禪師](#)
  - [宗一行直禪師法嗣](#)
    - [京口五州淨因運德輪禪師](#)
  - [惺學敏禪師法嗣](#)
    - [洞山普利梵雲徹禪師](#)
  - [熬如秀禪師法嗣](#)
    - [鎮江乳山得一善禪師](#)
  - [竺風慎禪師法嗣](#)
    - [桐城慈濟熬幢惺禪師](#)
  - [道揆守禪師法嗣](#)
    - [金陵靈谷玉潛璞禪師](#)
- [青原下宗鏡十一世](#)

- [敏修毅禪師法嗣](#)
  - [潤州焦山碧巖祥潔禪師](#)
  - [揚州平山拙樵堅禪師](#)
  - [潤州焦山鐵機印禪師](#)
  - [揚州平山竹堂祥叟禪師](#)
  - [潤州焦山祥雲果首座](#)
- [得一善禪師法嗣](#)
  - [京口乳山廣仁祥能禪師](#)
- [玉潛璞禪師法嗣](#)
  - [金陵靈谷祇園紹禪師](#)
- [青原下宗鏡十二世](#)
  - [碧巖潔禪師法嗣](#)
    - [潤州焦山濟舟澄冰禪師](#)
  - [拙樵堅禪師法嗣](#)
    - [揚州平山秋浦澄朗禪師](#)
  - [鐵機印禪師法嗣](#)
    - [廣陵大聖允超澄輪禪師](#)
  - [竹堂叟禪師法嗣](#)
    - [京口五州山無言澄天禪師](#)
  - [廣仁能禪師法嗣](#)
    - [京口乳山萬壽中誠智禪師](#)
- [青原下宗鏡十三世](#)
  - [焦山濟舟冰禪師法嗣](#)
    - [潤州焦山擔雲清鏡禪師](#)
    - [潤州焦山巨超清恒禪師](#)
- [南嶽下三十九世](#)
  - [天翼翔禪師法嗣](#)
    - [潭州大漁藏庵鋒禪師](#)
  - [奎章平禪師法嗣](#)
    - [徐州草堂允中會禪師](#)
  - [普潤濟禪師法嗣](#)
    - [蘇州珠明諦修本禪師](#)
  - [潛修悅禪師法嗣](#)
    - [成都昭覺守仁定禪師](#)
    - [四川昭覺白光月禪師](#)
  - [巖岫旭禪師法嗣](#)
    - [寶應一粟霽滄霖禪師](#)
  - [休林岫禪師法嗣](#)

- [嘉興圓通心如靜禪師](#)
- [長慶安禪師法嗣](#)
  - [無錫南禪靜菴慧禪師](#)
- [佩璋璜禪師法嗣](#)
  - [廬山瞻雲素芳華禪師](#)
- [大曉徹禪師法嗣](#)
  - [杭州天長天濤雲禪師](#)
  - [金陵佛國湛海宗禪師](#)
  - [鎮江金山江天滄洪注禪師](#)
  - [金陵香林妙巖隆禪師](#)
  - [香林碧雲寶禪師](#)
  - [金山江天超宗榮禪師](#)
  - [常州天寧定悟誠禪師](#)
  - [常州天寧扶功明禪師](#)
  - [常州天寧納川海禪師](#)
  - [常州天寧德洪圓禪師](#)
- [白闍悅禪師法嗣](#)
  - [吳陵三昧見徹明禪師](#)
- [法南勝禪師法嗣](#)
  - [常熟普仁一輪月禪師](#)
  - [常州商山恒悟際剩禪師](#)
- [正宗道禪師法嗣](#)
  - [江西瞻雲萬雲岫禪師](#)
- [德山海禪師法嗣](#)
  - [錢塘鹽官薦福秀崖春禪師](#)
- [果宏德禪師法嗣](#)
  - [江西頭陀微彩星禪師](#)
- [佛泉安禪師法嗣](#)
  - [京都大覺月天寬禪師](#)
- [粹如純禪師法嗣](#)
  - [京都覺生徹悟醒禪師](#)
- [聞學禪師法嗣](#)
  - [杭州天目旅亭會禪師](#)
- [在權衡禪師法嗣](#)
  - [方塔平川舟禪師](#)
- [天慧徹禪師法嗣](#)
  - [揚州高旻了凡聖禪師](#)
  - [揚州興化資福慧皎清禪師](#)

- [錢塘大雄山崇福曉峯良禪師](#)
- [揚州寶輪霽霖源禪師](#)
- [安樂廣修圓禪師](#)
- [金壇東禪道蕃參禪師](#)
- [丹陽嘉山隆慶維圓勉禪師](#)
- [天台省徹悟禪師](#)
- [南嶽下第四十世](#)
  - [藏庵鋒禪師法嗣](#)
    - [芙蓉雙峯若呆慧禪師](#)
  - [天濤雲禪師法嗣](#)
    - [杭州天長守約信禪師](#)
    - [金陵西天妙德起禪師](#)
    - [金山六益謙禪師](#)
    - [杭州天長海宇清禪師](#)
    - [嘉興精巖性愷徹禪師](#)
    - [嘉興精巖琢三勤禪師](#)
  - [滄洪注禪師法嗣](#)
    - [常州天寧覺性是禪師](#)
  - [碧雲寶禪師法嗣](#)
    - [嘉興精巖躬穎義禪師](#)
  - [見徹明禪師法嗣](#)
    - [泰州慈濟湛如直禪師](#)
  - [定悟誠禪師法嗣](#)
    - [常州聚湖寺頓悟禪師](#)
  - [納川海禪師法嗣](#)
    - [常州天寧淨德月禪師](#)
  - [霽靈源禪師法嗣](#)
    - [丹陽嘉山中和禪師](#)
  - [了凡聖禪師法嗣](#)
    - [無錫開利化南宏禪師](#)
    - [高郵善因最初心禪師](#)
    - [維揚高旻昭月貞禪師](#)
    - [維揚秋門陳居士](#)
    - [揚州哲文袁居士](#)
    - [揚州潞園尤居士](#)
- [卷目次](#)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贊助資訊](#)

##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mailto: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南嶽下三十四世

磬山天隱修禪師法嗣(五人)

京口夾山林臯本豫禪師

晚號晦夫。崑山陳氏子。十九。脫白於姑蘇之堯峯。誦金剛經應無所住而生其心句。有省。初參博山來。來曰。未入金籠貯。誰家野鳥兒。師曰。鶴有九臯翀碧漢。馬無千里不追風。來曰。運斤非郢。未免傷痕。師曰。祇如諸方豎拂揚眉。又得什麼邊事。來曰。片雲橫海嶽。樵子盡思歸。師曰。怪來巖下虎。特地暗驚人。次參密雲悟和尚。其日已晚。便問。夜宿投人時如何。悟云。者裏歇不得。師曰。豈無方便。悟拈拄杖。師接住一送云。看破也。便出。後參磬山修和尚。修問。那裏來。師云武林。修云。怎知我者裏。師云。臭名難瞞。修云。汗汝耳。師便喝。修云。喝後何如。師云。猶是不知。修云。老僧不知。汝知箇甚麼。師擬掌。修云。猶弄虛在。師禮拜。一日修云。今時學人。不肯著實用心。所以法門寥落。師云。雖然如是。大約過在知識。如黃龍南公。不得慈明和尚痛折。云何得知道出常情。修云。豈口傳耳授之所得耶。師吐舌。又一日入室。修云。我疑你不會廓侍者與華嚴相會因緣。師云。不但和尚疑某甲。盡大地人疑某甲。修曰。盡大地人疑你則可。莫使老僧疑你。師曰。恁麼則某甲罪過。修曰。只如興化與旻德賓主四喝。化曰。適纔。若是別人三十棒。一棒也饒不得。何故。為他會一喝不作一喝用。那裏是他會一喝不作一喝用處。師曰。放某甲別通箇消息。修曰。不要下語。師遂頌曰。賓主相逢縱奪家。喝下從雲見活蛇。棒頭突出通無犯。豈作親承解撒沙。修然之。師開法中山石湫。乃過報恩謝法。修將如意付曰。此是老僧四十年用不盡底。將去揩磨。不得有忘。師乘如意。入堂曰。者箇是堂上老人。為豫上座。作用不盡底公案。敢問。有同相證用者麼。良久。擊板頭一下。便出上堂。若論此事。心不可求。智不可

學。捏斷百匝千重。於中下機。一時颺却。突出孤危。方教峻峭。都盧收拾將來。非心非色。非如非異。要用即用。要舍即舍。要行即行。要藏即藏。擬思一毫地。便落生死關頭。到者裏。作麼生相救得。復曰。五蘊山頭自在身。了然物物應天真。頓教直下無思議。玄要全分見本人。卓拄杖一喝示眾。十五日巳前。汝諸人放出山水。十五日巳後。汝諸人坐斷柴頭。正當十五日。山僧看破汝諸人一著。要出出不得。要入入不得。出不得入不得。火裏眉毛烏歷歷。自家鼻孔急須參。碧眼胡僧恒面壁。師一日開山次。握枯藤於手。謂僧云。此是曹家女。僧云。却少箇謝家郎在。師曰。但得有女。何愁沒郎。僧云。也要完全始得。師度藤與僧。僧擬接。師即擲下云。却不相當。僧問。三更月落。古殿燈殘。有一箇沒面目人來。如何相見。師曰。笑殺人。笑殺人。曰和尚笑箇什麼。師咄云。問頭也不識。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云。須彌倒卓半虛空。曰如何是透法身事。師云。猢猻吞大象。僧問。如何是虛空。師云。你亦在裏許。僧云。某甲不見虛空。師云。者瞎漢。好與三十棒。示眾。石裏壓油。水中取火。不是動轉勞人。祇貴當陽吐露。趙州老子太惺惺。切忌道青州布衫重七斤。僧問。明月堂前。花開枯木。是賓家句。主家句。師云。石女哭蒼天。僧問。天不蓋。地不載。甚處安身立命。師打出方丈。次日又問。某甲昨日喫棒。今日和尚痛否。師復打出。順治丙戌冬。預計逝日。說偈辭眾。窆全身於山門之右。天童恣禪師。銘其塔。師著。有宗門成範四卷。并語錄。行世。

### 杭州南澗理安箬菴問禪師

吳江俞氏子。父羨長先生。晚憂無子。於鷲峯寺。建無遮大會百日。應禱而生。幼失恃。病甚。飲酒不自好。年十六。始自驚曰。柰何使身心無措足之地哉。奮志讀書。一日偶過山寺。見楞嚴經云。此身及心外洎虛空山河大地咸是妙明真心中物。有疑。特走謁磬山修。教看父母未生前本來面目話。一日修與客立澗邊。提金剛經。師開口。修驚筭云。如何是其心。當時不覺自失。二十四歲。姻事苦逼。竟宵遁至武林。投南澗法雨大師脫白。嘗夜跪佛燈下。單提父母未生前本來面目話。不契。決計參方。聞金粟悟和尚在北禪。腰包趕入吳中。得蒙痛棒垂示。復上磬山。又遇山茨際公。同在山中五更聞得一陣風聲。疑情頓釋。目前淨裸裸地。了無一法當情。直是通身慶快。作偈云。千元萬妙隔重重。箇裏無私總不容。一種沒絃琴上曲。寒崖吹落五更風。呈修。修云。玄妙即不問。如何是不隔底句。師擬對。被棒。者裏却又去不得。修見師疑滯。示

一頌云。千波萬浪隔重重。識得源源處處通。根境脫然全體用。拈來物物始從容。師看頌亦自了了。却是臨機不得活脫自由。一日頌百丈併却咽喉唇吻云。併却咽喉唇吻。三人口潤一尺。夜半露柱相逢。橫吹無孔鐵笛。呈修。修云。露柱還有口麼。師云。熾然說。修云。道得一半。師云。和尚又如何。修云。此問復何來。當時被者一撥。直下如團熱鐵火相似。次日呈似修。修云。不得燒却眉毛。師便喝。修云。却燒却了也。師轉身云。看者老漢一場敗闕。便出。上堂。望剎竿便橫趨而過。猶是不啣[口\*留]漢。電影裏穿針。弓弦上走馬。也須是箇衲僧始得。匙挑不上底。如稻麻竹葦。千筍不回底。亦如稻麻竹葦。截斷天下人舌頭。即不問。如何是汝諸人全身獨脫句。舉拂子云。漫天網子百千重。上堂我者裏禪。無你諸人歇足處。無你諸人依傍處。無你諸人計較搏量處。直下如一團熱鐵火燄相似。你纔擬歇足。燒却脚跟了也。纔擬依傍。燎却眉毛了也。你纔擬計較搏量。自己早打失眼睛鼻孔了也。你若總不恁麼。又有什麼氣息。湊泊也。湊泊他不得。躲避也。躲避他不得。除是你猛烈提取始得。道箇猛烈提取。已是蹉過多時也。到者裏。你諸人作麼生。顧左右擲杖。歸方丈。雪嶠信和尚至問。你是那邊。為甚麼又在者邊。師曰。一點墨水。兩處成龍。信曰。不會興雲作霧在。師曰。今日放大師過。茶次。信曰。我平日。只教人誦金剛經。師曰。多少人錯會大師意。信曰。直饒不錯會。大遠在。師曰。大師莫瞞人好。山門前行次。見狗子吠。信曰。者無佛性底東西。師曰。却搔著大師癢處。信大笑。師亦大笑。大眾作禮次。信左右顧視。眾佇立。信曰。都是老實頭。師曰。大師面前。誰敢出手。山茨禪師問。釋迦掩室。淨名默然。盡屬化門邊事。不落今時。請師道一句。師曰。未問已前答了也。曰阿誰證明。師曰。十字街頭廖胡子。又問。先師不了事。你我共知。作麼生與先師了却。師曰。蒼天中更添冤苦。曰非兄不委。師曰。逢人切忌錯舉。又問。十年同學唱。拍板不相離。此去理安。兄還見我否。師曰。無人處斫額相望。曰渠無面目。望箇甚麼。師曰。草賊大敗。問。拈椎豎拂即且置。斬新條令道將來。師曰。一掌一握血。曰須老兄始得。師曰。是我罪過。又問。談玄說妙。先哲所訶。瞬目揚眉。今時禪弊。去此二途。如何是兄的的為人處。師曰。我不教壞人家男女。曰忒煞婆心。師曰。龍蛇易辯。衲子難瞞。僧問。大悲千手眼。那隻是正眼。師云。急水灘頭下釣絲。僧問。對面不識時如何。師云。刀斧斫不開。問。如何是法身三種病。師曰。灸瘡癩。曰如何二種光。師曰。覷著則瞎。問。大徹底人。本脫生死。因甚命根不斷。師曰。螺螄吞却鴨。順治乙未夏。磬山解制後。師將方丈所有器皿。各具手書。分送諸方為遺念。乃杖錫出遊。至武康報

恩掃塔。晤琇禪師。備托法門大事。預定逝期。於九月二十七日。行至吳江。寓應天寺。如期坐逝。門弟子迎龕。塔於南澗。弘覺恣禪師。為之銘塔。語錄。奏請入藏。外有續燈存稿。行世。

### 湖州報恩玉林通琇禪師

蓉城楊氏子。童子時。一長者。令諸晚學。各閉目一回。反觀念起。眾童子各言。起念畢。師良久云。某甲反觀。無念可得。參天隱修和尚于磬山。命充侍司。隨堂坐香。一夕未開靜。即進方丈。修見云。今日香完何早。師云。自是我不去坐香。修云。見甚道理不去坐。師云。即今亦無不坐。修驀拈案上石屋錄。問云。者箇是甚麼。師云。却請和尚道。修云。你不道。教老僧道。師云。情知和尚不敢道。修云。石屋錄。我為甚不敢道。師云。隨他去也。修云。賊誣老僧。師者裏透不過。直得大淚如雨。一晚目不交睫。立修單側。竟忘入寮。至五鼓。修呼云。不用急。我為你舉則古話。當初有箇龐居士。初見人時。也似你一般。孤孤迥迥。開口便問人。不與萬法為侶者是誰。馬祖當時為甚蹋向前一步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與汝道。師云。某有一頌。修云。汝頌云何。師呈頌云。不侶萬法的為誰。誰亦不立始親渠。有意馳求轉睽隔。無心識得不相違。修云。不問你不侶萬法。要你會一口吸盡西江水。師於言下大悟。迺拂袖而出。自後凡有徵詰。皆當機不讓。修深肯之。師掩關蓉城江干。修遷武康報恩。連書促師云。老僧在報恩。精神日不如前。當知我必不久人世。得書即來。有最要語分付。師得書。破關詣修。不作禮近前叉手云。狂兒國土。父不容過。者箇峯頭。還是老漢住處麼。修云。你且站下脚。與你道。師驀掀倒香案而出。修高聲云。將拄杖來。師遙應云。劍去久矣。次日。修上堂。維那擬白椎。師喝住云。待我問了話白椎。便問云。昔日大唐國裏無禪師。而今國裏還有麼。修拈拄杖作打勢云。看棒。師便喝。修亦喝。師復喝一喝。轉身云。不是狂兒多意氣。祇因曾透上頭關。便出。修喝一喝。師亦喝。遙聞維那重白椎。師乃高聲云。歎死氣。住報恩上堂。拈拄杖曰。奇特因緣。須奇特人拈出。驚羣句子。於驚羣處舉揚。今日既遇奇特人。有奇特緣。真是驚羣處。舉驚羣句。且道。驚羣句作麼生舉。驀召大眾曰。吳中石佛大示眾。舉道吾每執木劍因緣云。吠虎逐塊韓盧。齧著半醒半醉漢子。終不免大家草裏覬。道吾若於者僧纔欲取劍。便一脚蹋翻。儻其知非。不惟令彼頓易皮毛。自亦頭正尾正。那堪不示本分草料。木劍竟成戲具。示眾。透脫末後牢關。雲菴正罵。洞達歷祖綱宗。妙喜猶呵。汝等諸人。趣向者箇法門。大須仔細。前谿水急魚行澀。後

嶺風高鳥泊難 示眾。舉殃崛摩羅產難因緣云。且道。世尊者兩語。是箇什麼道理。得恁麼靈驗。救得人家產難。驀喝一喝云。莫做夢。山僧為汝諸人。說箇譬喻。恰似人來買生薑。世尊乃與他一大把人參。其時將去。竟作生薑受用。帶累人亂齧嚼。吞了吐不得。吐了吞不得。如今者裏。有不亂齧嚼的出來。山僧與汝三十拄杖。何故。世尊當年折本。山僧今日與他上利 示眾。舉唐州大乘遵禪師上堂云。上來又不問。下去又不疑。不知是不是。是即也大奇。師云。其時無量大眾。一時成道 師問行堂。飯桶裏多少達磨眼睛。堂罔措。問火頭。三世諸佛。向火焰裏說法。還端的也未。頭亦罔措。師指旁立一僧云。惟有者箇師僧解答話。便歸方丈 師問僧。樹凋葉落時如何。進云。不隔一絲毫。師云。機不離位。墮在毒海。僧喝。師便打 居士問。明知日用不離者箇。為什麼道不得。師云。知之一字。眾禍之門 僧問。昔日高祖道。海底泥牛銜月走。巖前石虎抱兒眠。鐵蛇鑽入金剛眼。崑崙騎象鷺鷥牽。意旨如何。師曰。好兒終不使爺錢 示眾。山僧說得一篇好佛法。懸在雨花橋上。大眾各自看取。良久曰。伯樂曾三顧。千金誰解增。贈君君不納。完璧倚枯藤 示眾。老窻敗屋。紙帳青燈。此中有人得些子意味否。夜來風色峭。釀雪已三分 僧問。如何是本分事。師曰。管人家烟沖大小 僧問。搥鼓鳴鐘。所為何事。師曰。換人眼睛。師初主報恩。齒最少。道望四馳。順治己亥春。 詔迎入京。命住萬善殿。 御駕親臨。師陞座。舉西余端村裏師子話。下座。上大悅。 賜大覺禪師。紫衣金印。是年。師告假還山。次年秋。上于馬上有省。連 詔敦請至京。日窮玄奧。又 詔師。為一千五百僧。授菩薩大戒。加封普濟能仁國師。康熙乙卯秋。示疾。說偈而化。壽六十二。坐夏四十三。門人奉全身於天目東塢。塔號瑤雲。保和殿大學士王熙。為撰銘。語錄奏請入藏。

### 南嶽綠蘿山茨際禪師

邗之通州李氏子。兒時。父遇相師云。爾子。骨格太清。年未必永。乃捨之出家。初侍東隱若昧法師。聽講有會。禮辭參方。謁金粟悟和尚。一見便問。客散堂空時如何。悟曰。是甚麼時節。師便喝。悟便打。師又喝。悟又打。師禮拜云。今日起動和尚。上磬山參修和尚。問。昔日聞風。今日覲面。覲面一句。請師分付。修曰。你試道看。師便禮拜。修云。也當不得。師轉身便出。一日修問。只如百丈。於馬祖喝下。得箇甚麼。師云。若有得。即鈍置馬祖也。修云。他道三日耳聾聾。師云。某亦不可更作野狐精見解。修乃休去。一日修問。古人道有句無句。子如何會。師云。石長無

根草。山藏不動雲。修云。如藤倚樹聳。師云。吾常於此切。修云。樹倒藤枯。又作麼生。師低頭而出。黃端伯司理。請住東明祖庭。師云。聞居士開先有省推倒廬山。是否。士云。還見廬山麼。師云。待你扶起。士云。乍喚東明。師云。作家作家。士休去。少頃。士問。大師一向在甚麼處住。師云。居士道。山僧即今在甚麼處住。士云。出此門不得。師云。居士還出得此門麼。士擬議。師云。却是居士出此門不得。住綠蘿上堂。山僧者裏。也不論玄。也不論妙。也不論禪。也不論道。只要你們生死心破。生死心若不破。便是閻王老子面前。喫鐵棒的公招。所以云。參須實參。悟須實悟。閻羅大王不怕多語。不勞久立。珍重。住南源示眾。諸方有玄妙禪。有性理禪。有細膩禪。有逐日常進禪。有休去歇去禪。有大法小法禪。與人理會。與人齧嚼。山僧此間。且無如許多禪。只有遠祖百丈大智禪師。留得一把鈍鐵鋤頭。逐日要人使用。使用得純熟。若到力忘於己。手忘於心。目前不見有可開之田。脚下不見有可立之地。忽然鋤轉山河大地百雜碎。露出當人雙眼睛。大眾。即今把柄在阿誰手裏。驀擲拄杖云。當陽拈出大家看。僧問。大死的人。却活時如何。師云。喚來與山僧洗脚。問。如何是學人轉身處。師云。速禮三拜。如何是學人親切句。師云。分明記取。僧問。古人云。三千里外逢人不審。逢甚麼人。師云。不是別人。崇禎戊寅。師登南嶽。愛祝融之勝。止擲鉢峯下。結茅而居。蓋虎穴也。了不為意。桂林王。聞而異之。親至問道。遣內臣侍候。不絕於路。願迎入宮。堅却之不得。輒密跡去。王不懌而焚菴。祝菴前石榴樹曰。南來僧。果有道耶。樹即冬實。未幾。開花且結實。王乃益加敬信。訪師卓錫處。折節步行三百里就見之。復為建菴供養。僧問。如何是超佛越祖句。師豎拄杖曰。向者裏薦取。僧便喝。師便打。僧擬進語。師連棒趁出。僧問。如何是學人安身立命處。師曰。待山僧有安身立命處。即向汝道。僧問。手握利劍。因甚猢猻子不死。師曰。全承渠力。甲申春。流賊蹂躪三楚山中。日食不繼。採薇救饑。悞食野芹。同食二人皆覓療。師曰。何必爾。遂端坐而逝。門人奉全身。塔于綠蘿。箬菴問禪師。銘其塔。語錄奏請入藏。外有南嶽禪燈錄。正法眼藏續集。行世。

### 陽山松際印中通授禪師

烏程嚴氏子。年十七。投道場山脫白。參磬山修和尚。示狗子話。力參久之。一旦聞畫眉聲。有省。趨見修。修豎起拳曰。道道。師曰。板鳴也。請和尚赴堂。修可之。崇禎九年。出住南麻明慶。遷崇義。後繼席磬山。上堂。門對千峯碧。溪沿一逕幽。更求玄妙

旨。撥火覓浮漚。遂下座。師性恬退。以應對繁。未幾辭去。隱於陽山。僧問。如何是和尚悟處。師曰。瞞人不得。又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殿角鶉鳩啼。僧問。雪峯陞座輒出木毬。玄沙捉來安住舊處因緣。師曰。陽山不妨再輒。便入方丈。僧問。二十五聖本無優劣。為甚獨選耳根圓通。師曰。翠為毛死。訣眾偈曰。昔人五十知非。予年五十知止。莫云日出事生。須信分明直指。擲筆而逝。

### 雪嶠信禪師法嗣(四人)

#### 杭州積翠唯一潤禪師

浙之梅東人。族姓楊。年二十三。出家完具。徧參真寂黃檗博山金粟諸老宿。俱有機契。三十五。參雪嶠信禪師於不動軒。言下投機。歷隨匡南開先數載。後信開法禾之東塔。舉師為第一座。送入座元寮。便問。首座何不道取一句。師與一掌。師至匡南。得蒙印可。遂呈心燈續焰偈曰。不動軒中話已遙。開先三度奪高標。福城東畔西風急。一掌酬恩首座寮。丁亥春。信遷雲門。師養病於鹿城祇園。八月信逝。訃至日。師大慟伏枕。草嗣法書。上供座前。順治丁亥九月十九日示寂。塔建菴之後。

#### 越州雲門徹崖宏歇禪師

楚黃游氏子。投廬山西林脫白。參雲門信於開先。一日信謂眾曰。我有一句子。淨盡無道理。黃葉樹頭空。金風到薜蘿。有人下語親切。為雲門第二代。眾下語不契。師曰。不是某甲。幾作話會。信曰。不作話會又如何。師退身曰。罪過了也。信曰。老僧也分一半。信示寂後。請師繼席。信三週。師拈香曰。三年得活真消息。拈出耶溪水逆流。不是嶺南攜去事。快如風雨任人收。過紫雲上堂。過江江浪起。入竹竹竿斜。僧投寺裏宿。賊打不貧家。山僧今日無端著賊。還有共相捉敗者麼。一僧出。師打曰。賊身已露。乃曰。古人道。相見不揚眉。君東我亦西。紅霞穿碧落。白日繞須彌。他古人相見。具相見底眼。山僧。與紫雲十載同參。今日借路經過。相見一句。如何舉揚。紫雲影裏歌聲滑。秦望峯頭和得齊。師示寂於順治丁酉九月初十日。世壽四十八。僧臘二十。

#### 衢州明果形山宏淖禪師

楚安陸陳氏子。參雲門信於徑山。問。如何是佛法大意。信曰。無恁麼事。且坐喫茶。師曰。今日親見明眼尊宿。信首肯之。即題像讚源流付囑。師開法天溪衢州天寧烏石明果紹興大善雲門海鹽鷹峯。上堂。僧問。垂絲千尺。為釣獰龍。猛虎當軒。如何迴避。師曰。照顧性命。曰恁麼則某甲喪身去也。師曰。山僧今日罪過。乃曰。識得一萬事畢。此猶是法身邊事。須知法身向上有事在。雨落地上濕。天晴日頭出。恁麼悟去。猶較天溪半月程。康熙甲寅二月初四日。師於天寧坐脫。弟子迎龕。建塔明果。壽七十六。臘五十三。

### 廬山開先山鳴弘璐禪師

解制上堂。風蕭蕭雨蕭蕭。行脚高流心莫焦。拈來鉢袋從頭看。生涯只在舊時瓢。開先一期解結。且喜太平。結則虛空合聚。解則大地平鋪。一任伊東去西去。又誰管胡來漢來。肩擔日月。脚踏水雲。行行入佛祖家鄉。步步踏祖翁田地。放曠隨緣。逍遙自在。拈棒云。住住。忽遇著箇咬猪狗手脚的。攛出撩天拄杖。當頭把住不放行。又作麼生。良久云。三十年薦取。僧問。參禪貴了生死。生死不了如何。師云參。僧云。謝師指示。師云。屈殺人。

青原下宗鏡三世

幻休潤禪師法嗣

北京大覺慈舟方念禪師

別號清涼。唐縣人。族姓楊。年十歲。投金臺廣德大慈老宿披剃。自念生死事大。受具。歷窮性相宗旨。知非的要。遂往少林。參幻休潤和尚。潤問。甚處來。師曰。北方來。潤曰。北方道法。與此方如何。師曰。水分千派。流出一源。潤曰。恁麼則何用到此。師曰。流出一源。水分千派。潤可之。即命典維那 師掩關五臺。晝則一食。夜則孤坐。久之自念。差別智不可不明。乃肆遊諸方。一切苦行。人所蹙頞者。師皆親歷。後至石城。精厲過分。雙目忽盲。師曰。幻身非有。病從何來。將身心一時放下。硬坐七日。雙目復明 師應請住禾之東塔。豫之雲居匡廬。陞座。打○相曰。會麼。若向者裏會得。不妨穩當。若乃外求。反被者箇礙在。山僧昔在古道處。看他七處徵心。自覺虛豁豁地。若非面壁巖前裂破達磨面孔。未免依樣葫蘆。未有了日。大眾。祇如達磨。是何面目。也須親見一回纔好。于東街西市。說黃道黑。免得遇家裏人露出破綻。且道。阿那箇是家裏人。拈拄杖曰。見面不如聞名。擲拄杖下座。後欲投老臺山。越中緇白。力挽師歸寶林道場。示寂後。法嗣湛然澄公。迎龕塔於顯聖南山之麓。

廩山忠禪師法嗣

建昌黃龍壽昌無明慧經禪師

撫州崇仁裴氏子。誕時難產。祖父誦金剛般若而娩。因名經。初生穎異。長貌蒼古。九歲入鄉塾。便問。浩然之氣。是箇甚麼。塾師異之。長依廩山忠和尚出家。常疑金剛四句偈。必有指據。偶見傅大士頌曰。若論四句偈。應當不離身。不覺釋然。遂辭廩山。隱峩

峯。嘗登絕頂顧盼。而作偈曰。踏上雲頭第一峯。眼中廣博小虛空。當時欲見無由面。今日相逢處處同。結廬三年。人無知者。閱傳燈。見僧問興善。如何是道。善曰大好山。師日夜提撕。至忘寢食。一日因搬石次。堅不可舉。極力推之。豁然大悟。即述偈曰。欲參無上菩提道。急急疏通大好山。知道始知山不好。翻身跳出祖師關。遂往廩山呈偈。忠和尚即為印可。始許薙髮受具。自此服勤左右。日夕溫研。影不出山者二十四年。出住寶方。時年五十一矣。上堂。揮尺一下曰。宗乘中事。難以措辭。大道門庭。爭容擬議。等閒垂一機。如大阿鋒離匣。逢之者。死不移時。似塗毒鼓受槌。聞之者。喪不旋踵。所謂妙峯峻仞。野獸難藏。寶樹晶光。靈禽莫泊。其用也。單趕金毛歸野窟。直追鐵額入深山。掃天下之狐踪。拂人間之孽屑。提墮坑落塹之類。揭迷封滯殼之流。其功也。使法界世界虛空界。一體同觀。俾佛道人道地獄道。萬法融會。雖然如是。猶未為向上事。且道。出格限量外一句。作麼生道。正令不行先斬首。大機一撥聖賢悲。久立珍重。上堂。真正龍象子。有時提得起放不下。有時放得下提不起。不弄死蛇頭。要捋生虎尾。有時跨上金毛背。自然足下清風起。會麼。水不涸兮魚自在。山青幽處鳥安詳。僧參。師問。趙州道。臺上婆子。我為汝勘破了也。畢竟勘破在什麼處。僧曰。和尚今日敗缺了也。師曰。老僧一生。也不柰何。好教你知。若實會。舉似來看。僧擬進語。師打一棒云。者掠虛漢。上堂。有始無終。衲僧活計。有終無始。衲僧常規。有始有終。衲僧家具。無始無終。衲僧巴鼻。透得一句。生死自在。透得二句。來去自由。三句透得。可以為人天師。四句總透得。可以為佛祖師。大眾。且作麼生透。良久曰。五虎凌空攢玉兔。二鸞翀漢趁金烏。僧問。和尚因甚不行脚。師云。木馬休鞭橫兩腿。鐵牛不索莽低頭。白鶴啄魚頸項直。班鳩呼雨嘴頭鉤。會麼。僧無對。師曰。行脚去。上堂。抽筋不動皮。換骨不見血。筋骨一齊空。遊行不倒跌。達磨大師。解滅不解生。釋迦老人。解生不解滅。要知生滅不相干。除是當年乾矢橛。喝一喝。僧問。未相見時如何。師云。今日不答話。進云。相見後如何。師云。向道不答話。僧又擬伸問。師即打云。鈍置殺人。師住寶坊峩峩峯壽昌三剎。別建菴院二十餘所。七旬。尚混勞侶。耕鑿不息。丈室蕭然。惟作具而已。益王。嚮師道德。深加褒美。每歎曰。去聖時遙。幸遺此老。萬歷丁巳臘月七日。師自田中歸。謂眾曰。老僧自此不復砌石矣。眾皆愕然。除夕上堂。曰今年只有此時在。試問諸人知也無。那事未曾親磕著。切須痛下死工夫。復曰。此是老僧最後分付著。大眾切宜珍重。新正十三日示微疾。遂不食曰。老僧非病當行矣。大眾環侍不憚。師以偈諭之曰。人生有受非償。莫為老病死。

慌。可笑無生法忍。將何業識消亡。一時雲淨祥光發。佛祖聊安此道場。十四日。書辭道俗。十六日。作舉火偈曰。無始劫來祇者箇。今日依然又者箇。復將者箇了那箇。者箇那箇同安樂。復命侍者。代為發火宣偈。次晨。取水盥漱拭身曰。不必再浴。廼索筆大書曰。今日分明指示。擲筆端坐而逝。茶毗。火光五色。頂骨諸牙不壞。即於本寺方丈建塔。

## 青原下宗境四世

### 大覺念禪師法嗣

#### 越州雲門顯聖湛然圓澄禪師

會稽夏氏子。母夢僧入室而娠。長為郵卒。因傳符踰期懼受辱。走投隱峯。峯示念佛底是誰。三晝夜輒有省。後謁妙峯剃落。依三載。一日看乾峯示眾話。遂冰釋無疑。即頌曰。舉一舉二別端倪。箇裏元無是與非。雪曲應稀人會少。獨許韶陽和得齊。二老何曾動舌。諸人徒自攢眉。擬議鷄過新羅。刻舟求劍元迷。值大覺慈舟老人說法於止風圖。師趨座。呈所見求決擇。舟問。止風圖向青山近。越王城傍滄海遙時如何。師曰。月穿潭底破。波斯不展眉。舟又問洞上宗旨。師呈頌曰。五位君臣切要知。箇中何必待思惟。石女慣弄無針線。木偶能提化外機。井底紅塵騰靄靄。山頭白浪滾飛飛。誕生本是無功用。不覺天然得帝基。舟曰。語句緜密。不落始終。真當家種草也。參雲棲。棲舉高峯海底泥牛話問。內有一句。且道。是那一句。師推出傍僧曰。大眾證明。棲頷之。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正色厲聲。數其往事。僧作瞋告辭。師曰。且磨者一點著。僧禮拜。駕湖謁問。目前無法。意在目前。其旨如何。師曰。聞令師出關。是否。曰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又作麼生。師曰。請出我要止靜湖。便出。師在雲棲。因師送亡僧回。棲問眾曰。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出眾曰。謝和尚挂念。上堂。老僧沒能柰。行動少自在。齒缺不關風。心直兼口快。昨夜撞倒須彌山。直得帝釋天尊龍牀寶座去了半塊。且道。山僧恁麼舉揚。是何道理。良久曰。大似三江人唱曲。上堂。擎杈和尚。時中擎條木杈。道得也杈下死。道不得也杈下死。一日被人藏過。便雙手托空。張口因地。者老漢。將謂多少奇特。元來離却杈子。便伎倆已盡。山僧即不然。借得人一柄拂子。東拈西弄。今日已被討去了。遂豎指曰。幸有者箇。不從人借的。甚是現成。而復人人有分。未證底證取好。師歷住顯聖光孝徑山東塔諸刹。一日過天華寺。示

眾。後有僧告假。師曰。老僧今晚亦欲起程。至夜半。遂右脇而逝。時天啟六年十二月四日。世壽六十六。僧臘三十八。門人奉全身。塔於顯聖寺南鉢盂山之陰。

### 壽昌經禪師法嗣(四人)

#### 信州博山無異元來禪師

因登廁覩上樹人。大悟。見壽昌。昌曰。近日如何。師曰。有箇活路。祇是不許人知。曰。因甚不許人知。師曰。不知不知。上堂。第一義作麼生觀。佛法二字不可黏著。黏著則埋沒慧命。入荒田不揀草。猶較些子。博山當日在佛法中。頭出頭沒。蒙先師親垂隻手提挈。在淨白地上。仍被淨白為礙。不免將脚跟下一片地。拋向他方不可說不可說世界之外。然後向太虛空翻觔斗。孤標獨立。始得些子實用。今日與諸昆仲相見。譬如白日攫金。諸人歷歷見博山。博山總不見諸人。還信得及麼。諸昆仲。若見明此事。須在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撞破虛空。始能捕空捉影。博山記得親近先師。猶驪龍頷下探珠。猛虎喉中奪雀。今日不免貴買賤賣去也。諸昆仲。還有估價底也無。良久曰。也不可當面錯過。上堂。說箇佛字。好與三十棒。杖頭有眼明如日。說箇法字。好與三十棒。優鉢無根滿樹花。說箇禪字。好與三十棒。分付老盧高著眼。說箇僧字。好與三十棒。莫教流落在天涯。過得瀟湘渡口。便知清白人家。管甚烟雲埋沒。從教黑豆生芽。翻思昔日雲門老。卸却鐵枷。真箇好一棒打殺貴太平。免使兒孫落荒草。諸昆仲。開眼說夢。醒亦是迷。白酒青鹽。我乃是誰。寒冰烈火。痛下針錐。今古幾多伶俐漢。分明辜負一雙眉。復笑曰。博山罪過。上堂。卓拄杖曰。轉山河歸自己。月明當戶照。轉自己歸山河。風冷壓山居。撞鐘撞著老僧心。祥雲從地起鐘聲。為甚麼披七條衣。寶蓋自天垂。總不恁麼道。又作麼生。不是家鄉客。徒勞話歲寒。此五種見地。雖則賞罰分明。也要諸人委悉。有一人。在蘊界屏處。說非法語。有一人。在淨白地上涕唾。有一人。撥草瞻風攙行奪市。有一人。露盤卓犖解作家方。有一人。針撻不見血。火燒不知痛。病在膏肓。不堪療治。有人於此簡辨得出。博山分付拄杖子。一任天下橫行。其或未然。卓拄杖曰。柳[木\*栗]橫擔不顧人。直入千峯萬峯去。崇禎三年示微疾。閻首座問。和尚尊候如何。師曰。儘有些子受用。座曰。還有不病者麼。師曰。熱大作麼。座曰。來去自由。請道一句。師書歷歷分明四字。擲筆而逝。壽五十六。塔全身於本山。

## 建州建陽東苑晦臺鏡禪師

別號湛靈。潭陽馮氏子。生於萬歷丁丑。幼從虎嘯巖。一心受業。後參壽昌經。一日偶閱維摩經。至此室何以空無侍者維摩詰言諸佛國土亦復皆空。豁然悟入。述偈曰。識破不值半文錢。可憐摸索許多年。宗流盡是欺心漢。說甚西來別有傳。昌閱之。即印可上堂。佛法本無多。南辰貫北河。都來三七字。降盡鬼神魔。良久。顧眾曰。會麼。老瞿曇一生。黃金高北斗。買不得箇人笑。及至末後拈枝花。惹發飲光特地覷破。却將從上祖宗家產。一時俱籍沒却。究竟有甚麼風流。我試問你。英靈男子。自有本分。不為人欺瞞的活計。又當如何。除日上堂。僧問。壽昌和尚。臨七十歲夜。示眾曰。今年只有斯時在。試問諸人。會也無。此莫便是老漢先分付的末後句否。師曰。杓卜聽虛聲。熟睡饒譚語。曰在新長老分上。又作麼生。師曰。擊破寒潭月。癡猿何處窺。曰作家親父子。別有不傳傳也。師曰。靴頭綻線。脚指何知。乃曰。百歲翁翁失却父。當堂獨坐沒尊卑。東村王老夜燒錢。打鼓小兒失却椎。到者裏。生死誰知折合。性命作何以歸。蛙盆打破啾啾鬧。莊周夢蝶亂飛飛。噫嘻嘻。燈籠露柱。謾自依稀。上堂。師良久曰。千古萬古事。當不得我眉毛縱一縱。當不得我額頭點一點。當不得我拄杖子卓一卓。當不待我震聲喝一喝。你若不會。燈籠露柱。替你下涅槃堂。且道。為甚麼如此。立地死漢。有甚麼救處。一日示疾。以手指巖下曰。此處可以埋我。有行者問曰。試或死了埋了。又作麼生分發。師笑曰。恰好恰好。者再問。師已脫去。時崇禎三年七月十三日也。壽五十四。塔於所指之巖石下。

## 建昌府壽昌閔然謐禪師

參先壽昌於峩峩峩。示以父母未生前話。一日推磨失手。觸磨盤有省。占偈。有本來面目不須尋。一點靈明亘古今之句。呈昌。昌頷之。師嘗作趙州無字頌曰。泰山傾倒壓蟪蛄。氣絕心灰識浪平。不是泥牛開隻眼。焉知猛虎坐中廳。後祠部海岸黃公。請師繼席壽昌。順治己丑示寂。壽七十一。塔於本山。

## 鼓山永覺賢禪師

幼習儒。年二十。補邑諸生。讀書山剎中。聞僧舉南泉斬猫公案。忽有省。詣董巖。參壽昌經和尚求決擇。昌曰。此事。不可於一機一境上取則。須是百匝千重。垂手直過。尚當遇人。所謂身雖已在

青雲外。猶更將身入眾藏。因勉看雲門乾屎橛語。過十餘年。往壽昌落髮。一日問壽昌。如何是清淨法身。昌振衣而立。師曰。祇此。更別有麼。昌拂衣便行。時身心豁然。如開千重鎖相似。入方丈禮拜。不及啟口。昌打三棒曰。向後不得草草。後過延平津。聞僧誦諸佛警效俱共彈指。頓超前解。乃徹見壽昌用處。作偈曰。金鷄啄破碧琉璃。萬歇千休祇自知。穩臥片帆天正朗。前山無復雨鳩啼。上堂。老僧無伎倆。祇打鼓山鼓。不說禪與道。不論佛與祖。甜瓜現成甜。苦瓜現成苦。露結必為霜。雲騰必致雨。看來萬法仍舊。自然超佛越祖。千聖既皆如是。老僧何用重舉。然有一事報君知。也要大家看取。昨夜捉得石烏龜。天明看時。原是螺江女。聞谷大師入塔。請上堂。師顧眾曰。你等還知聞大師住處也未。莫是鼻孔裏安禪。眉毛下[跳-兆+孛]跳麼。莫是清風度廊下。秋月轉簷前麼。莫是紅霞不離碧落。白日祇遶須彌麼。恁麼說話。似則也似。在則未。在。驀豎起拳曰。元來祇在老僧拳頭上。要與諸人相見。揮案曰。一音演說。隨類各解。收拳曰。忽化作出海金龍。直透青霄去也。你諸人。莫認驢鞍橋。作阿爺下頷。上堂。正脉難通。邪見易熾。超佛越祖。看來總是階梯。妙唱玄提。即此便名窠臼。白雲巖下。多沉出格之英。芳草渡頭。久滯他鄉之客。所以曹洞門下。別設宗趣。金鳳搏空。不止須彌頂上。鐵牛駕浪。偏入大海波心。不犯當頭。猶貴轉身有路。行於異類。直須足下無私。示張二水相國。我宗。無意識領略的禪。無逐段商量的句。直要向全無縫罅處透入。通身脫落後承當。其或未能頓領。始有看話頭等法。蓋是死盡偷心。庶幾天光自發。近日宗風大變。率尚虛頭。師徒授受。專學答問拈頌。甚至飲酒戲笑。自謂。我宗門下。不受繩檢。不拘小節。視吾輩勸勉。直以為老婆禪。嗚呼。魔鬼興妖。靜思良可痛哭。順治丁酉十月十七日示寂。壽八十。塔建本山。

## 青原下宗鏡五世

### 湛然澄禪師法嗣(六人)

#### 紹興府明因麥浪懷禪師

山陰黃氏子。五歲。驅烏天王寺。十七。秉具雲棲。遊講肆有聲。聞宗門事。遂參雲門湛然。門問。見猶離見。見不能及。如何是見不及處。師下語無當。乃再拜求示旨要。門曰。者裏無甚旨要。汝時中但看箇見不及處。自有所詣。師參究之久。愈覺茫然。一日看雲棲舉海底泥牛銜月走話問眾。時雲門推出傍僧曰。大眾證明。師

忽然有省。走見門。門即席拈盤胡桃曰。我用處不換機。你喚他作甚麼。師一掌撲落。門曰。汝適來道。佛祖舌頭。瞞你不得。一盤胡桃。汝便被他瞞也。壽聖師問門。如何是臨濟七事隨身。門答云。師以手掩門口曰。休將閑學解。埋沒祖師心。門大怒曰。汝探頭太過了。師驚疑。定林上座問曰。大德尊號。師曰麥浪。定曰。無風時。向何處安身立命。師於定面上。輕搖一扇。定曰未在。師曰。三尺浪高魚化龍。癡人猶辱夜塘水。門曰。雖然。麥浪善行劒刃上事。若無後語。二人都成布袋裏老鴉。何故。機不離位。墮在毒海。師於此頓釋壽聖之疑。開法梅墅古彌陀寺。上堂。昨日是人日。今朝是穀朝。斬新一句子。莫認驢鞍橋。汝等欲將我新年佛法。償他舊日陳債。好向山僧未陞法座。諸人未到法堂時。一眼覷破。已落權乘。那堪拈椎豎拂。說妙談玄。若有箇漢子出來。掀翻法座。喝散大眾。還可救得一半。其或未然。山僧自救去也。卓拄杖。下座。示眾。篋穿烏龜殼。箇箇空索索。棒打石人頭。擊擊嚮曝曝。獨有衲僧行履。從來不受穿鑿。昨夜泥牛生兩角。師侍湛次。湛曰。靈虛有吹毛偈。汝批判看。師曰。借劒看。靈以手作斫勢。師曰。是白鐵。靈曰。我適纔橋上。見僧打碎了箇鉢盂。師曰。好敗闕。湛曰。且喜靈虛脚跟穩密。其如麥浪氣宇如王。

### 龍門佛日石兩方禪師

初出家。隨老宿專修淨土。一日搗木魚子。笑曰。不特西方可生。東方亦可生矣。宿曰。未是汝到家處。示以三不是話。師鈍置。疑礙橫生。胸痛不止。遂參雲門湛。湛曰。參禪圖大安樂。豈是苦得來的。縱苦得來。也是苦禪。參他作麼。師如暗得燈。自此工夫。踴躍謁博山憨山黃檗諸老。諄諄以死工策勵。再參湛老和尚。結同志不語。限七日徹證。一日聞湛上堂曰。放下著。忽覺疑情冰釋。口占偈曰。平空一擲絕躊躇。轉眼風波徹太虛。會得竿頭舒卷意。放生原是釣來魚。湛問。如何是一口道不盡底句。師曰。晨昏禮拜和尚。也是尋常事。湛曰。趙州道無。意作麼生。師信口頌曰。家家有幅遮羞布。放下便能當雨露。獨怪當年老趙州。擲去頭巾頂却褲。湛大喜。付以斷拂一枝。故師自號斷拂。上堂。舉拂云。此是第二義。復舉曰。此是第三義。百義千義萬義。咄。有甚麼交涉。若是箇漢。纔拈起斧子。從教斧子謳歌。放下鉏頭。直得鉏頭作舞。那管江南江北瓦礫荊棘。如或未然。也要披苔剝蘚。讀殘碑續斷碣。免使碌磚瓦礫。七片八片。泥金剛努目。木羅漢攢眉。上堂。有物先天地。將甚麼作眼。無形本寂寥。舉拂曰。者箇是甚麼。能為萬象主。天際日上月下作麼生。不逐四時凋。瞞歷代老古

錐即得。普明者裏。也有一偈。無物先天地。有形本寂寥。不為萬象主。常逐四時凋。於傅大士邊會得。百鳥銜花。天人送供。於普明者裏會得。腰纏八斗。肩挑擔二。雖然。若得江南風氣暖。梅花何必待春開。上堂。若要舉揚箇事。直須四方受敵。八面當機。鴈過長空。會得橫抽寶劍。雲歸遠岫。明他腦後鉗鎚。若是以言遣言。以理遣理。忽然撞著無手人行拳。無舌人解語。便道是格外之談。無義之語。若要與他施主福慧雙圓。水也消他不得。上堂。選佛場開。只要箇心空及第的人。既是其人。便能善通消息。若一機一境。問答語言。轉身拂袖。以為能事。教山僧何處與汝分箇優劣。你又何處會得舌根談而不談的道理。所以一入門來。便死在佛日語下。要見佛日重輝。也大難在。還要見佛日重輝麼。倒跨黃鶴峯。何須問彌勒。

### 越州顯聖三宜孟禪師

武林丁氏。依真寂脫白。參雲門澄。進堂打七。有省。一日入室。澄問。如何是一口道不盡的句。師曰。問取典座。澄即為印記。上堂。新豐一句。當陽道破。不涉唇吻。已成露布。細雨濛濛。黃花滿路。打失衲僧鼻孔。忘却邯鄲故步。古鏡臺前幾錯悞。顧大眾曰。露。小參。牛頭未見四祖。百鳥銜花。見後野鬼飛沙。堪笑長汀布袋子。却從鬧市作生涯。召眾云。歸堂喫茶。康熙乙巳十月初八日。語侍者曰。三日後吾行矣。者曰。和尚尊候甚安。何云便去。師曰。看老僧登場。一笑而逝。於顯聖前岡建塔。

### 紹興府東山爾密復禪師

會稽王氏子。生而雄偉。力能仆牯。家貧未嘗讀書。然日誦金剛經。不由師訓。似解其理。謁貞白珊和尚於大慈。決志力參。殆忘寢食。偶往德清探友。舟中聞鑼聲。豁然有省。偈曰。鑼震空身世。觀音獨露身。泥牛銜月走。木馬報新春。時年二十七。父兄逼以婚。潛往開元。投貞白大師剃落。服勤數載。領性相二宗。非其好。辭白。參雲門湛老人。恍有宿契。師呈聞鑼因緣。門曰。汝夙有善根。故得隨觀音入道。命充維那。一日門上堂曰。放下著。師因此全身脫落。作偈曰。夜半霜寒月忽低。行人到此盡遲疑。翻身踏著來時路。默默星輝斗柄垂。門嘉其幽玄緜密。適博山開法天界。師謁之。山與論物不遷旨。徵辨竟日。了無窒礙。山曰。江南佛法。洵自有人。住彌陀寺。上堂。未出薔薇洞時。有一句子。從剡溪流出三江鼈子。門外尚有過錢塘。拾得者。不妨人天眾前拈出。

驗看。如無。山僧唱菩薩蠻去也。良久。喝一喝曰。千里烏騅不易騎。時首座出禮拜。師曰。你在弁山。拾得箇陳年楫柁。直饒滿口道盡。拈來好一爐燒却。座曰。者老漢。猶作者箇去就。師曰。也要大家知。

### 紹興上虞香雪菴具足明有禪師

會稽楊氏子。弱齡事親至孝。因父病危。乃割股救之。年二十二出家。便參念佛是誰。謁雲門湛。每承提訓。頗有發明。次年。聞僧舉北斗面南看話。疑情逼抑。一日在殿經行。舉首見前山。豁然大悟。偈曰。虛空粉碎無偏正。大地平沉孰是親。從今了却相思債。石虎泥牛笑轉新。湛見助喜。後出住上虞之香雪。示眾。雲門活口。德山辣手。正眼看來。二俱是醜。驗盡天下衲僧。翻身落人窠臼。不若本色住山。飽食飯了抖擻。休管他家餒殘。但逞自己風度。有問百年已後事如何。阿呵呵。烏龜飛入北斗。石雨和尚問。堪與佛祖為師。佛祖又學箇甚麼。師曰。佛祖響。石曰。與佛祖為師響。師曰。黃山谷後園種菜。石曰。不問佛不問祖。不管你佛。不管你祖。速道速道。師曰。東邨桃樹。西隴梅花。示疾日。即念現禪師問。古人道。病有不病者。如何是不病者。師默然。曰恁麼便是那。師曰。三十棒領出自打。曰臨末稍頭一句作麼生。師震威一喝。曰不會。曰不會會取好。曰會後又如何。師曰。南山雲北山雨。時未有繼嗣。乃以如意法衣法卷。寄石雨和尚。付毒端道上座偈曰。香柏支分秀。隨緣折一枝。花開香雪遠。何必異苗為。後示寂。塔於顯聖之南山。

### 洪都百丈瑞白雪禪師

桐城楊氏子。薙染參雲門。看拖死屍話。疑情逼拶。如挑千觔擔子相似。至廣孝。聞湛上堂。有豎起脊梁生鐵鑄。放下面皮莫回顧。猶如象王脫金鎖。若不如是何劫悟之語。痛哭苦參工夫。遂得成片。一日。湛舉南泉斬猫因緣。師忽領悟。復結制打七。至六日。聞鐘聲大徹。參金粟。適上堂次。師出眾便喝。粟便打。師又喝。粟又打。師曰。者老漢敗闕了也。便歸位。繼席雲門。次移湖之弁山延慶戢山白雀。台之護國。贛之崆峒。後因南昌建安王。欽師道望。請住百丈。上堂。三尺冰河連底凍。數株枯樹盡銀花。太陽一出峯頭外。清潭依舊走魚蝦。見色明心雖好事。撒却時人幾眼沙。莫有清淨寶日不受翳障者麼。出來高鑿看。僧出曰。獅兒獨吼雲門裏。香象羣藏北斗中。師曰。噯。僧拂袖曰。嶺外彰牙爪去也。師

曰。者野狐精 師晚居崆峒時。以禪版東敲西敲。凡有僧請益。亦禪版敲示之。師住百丈。第舉百丈清規。而重撰之時。復荷鍤與作務。明春穀日。示微疾。誨眾益篤。談笑自如。三月十九遲明起浴。謂侍者。扶老僧入龕。日正卓午。吉祥而逝。師生萬曆甲申十一月廿六日戌時。崇禎辛巳三月十九日午時示寂。世壽五十八。僧臘三十八。塔全身於弁山。

## 博山來禪師法嗣(四人)

### 信州瀛山雪關閻禪師

上饒傅氏子。八歲喪父母。依景德寺傅公和尚出家。一日見壇經火燒海底句。疑之。乃參博山來。來令究船子藏身公案。急切提撕。偶入槽廠。見磨鼻拽脫。有省。呈偈曰。直下相逢處。由來絕覆藏。舌頭原是肉。嚼破也無妨。來喜曰。子可參禪也。後作五頌。請壽昌衲衣。來曰。宗門語句。如滿口含冰。不曾道出水字。子風骨太露。更須死心一番始得。師乃掩關窮踐。凡六載。大徹源底。開法瀛山。時山荒圯。師瀟然。作破院歌以自樂 藹八上堂。直下承當。是何話杷。官不容針。私通車馬。須彌高大柱堪題。海天空濶橋難跨。花隄柳巷盡穿開。寶殿珠簾誰放下。雪山夜半覩明星。若到瀛山痛棒打。靠拄杖下座 上堂。九十日期今巳滿。閉門作活事如何。不會捏殺彌猴子。重疊關山未易過。大抵末法禪期。真參罕遇。縱他意樹抽枝。未見心花開片。雖然。冷灰裏豈無一粒豆爆。還有不跨石門。扶豎晏祖門風者麼。如無。且向蘆花深處宿。月明穿過鈎魚臺 唐祈遠孝廉請。上堂。遠問。如何是參禪入手處。師曰。一一踏翻始得。曰如何是參禪得力處。師曰。把定乾坤。遠禮退。又一僧問。如何是參禪入手處。師曰。截千人之頭臂。剗萬人之心肝。曰如何是參禪險難處。師曰。拆佛殿。毀魔宮。曰。如何是參禪得力處。師曰。逆水船出順水風。乃曰。諸兄弟。者些答話。雖是撇他閒骨董。也不曾思索出來。不見。洞山初禪師云。言無展事。語不投機。乘言者喪。滯句者迷。他家是透頂徹底人。臨機應用。灑脫非常。不似今人要句句投機。却被言句礙殺。徑山道。趙州禪。只在口唇邊山僧道。趙州禪。如神廟裏籤。千掣千應。萬掣萬靈。初不曾安排吉凶。使人規避禍福也。方山老人道。得意者所說皆是。失意者所言皆非。若以是非得失。而論古駁今。山僧縮上眉毛。一任諸方貶駁。卓拄杖下座 師。以丁酉秋示微恙。乃謝事南邁。十月朔。行抵瀛山。遺書謝諸檀越。時壽昌閻公。自博山來候問。和尚安否。師曰。你道。我生耶死耶。閻

曰。末後句也須分付。師彈指一聲。微笑而逝。師世壽五十有三。坐三十七夏。門弟子迎歸博山。建塔於蓮花峯之右。

### 鬱州嵩乳道密禪師

泗州唐氏子。年十四。投景會剃染。二十事包笠。初歷講肆。閱楞嚴。至雖得多聞不成聖果句。歎曰。不耽幻身世。反耽幻學耶。遂棄之。參壽昌基隆。次參雲門金粟。復參博山來和尚。一日隨眾採茶。忽覩澗底白雲飛起。有契。遂衝口說偈曰。欲知來去處。好看白雲窩。青山常靠倚。出入也由他。歸舉似來。來見便問。汝作甚麼來。師曰。熟境難忘。來曰。即今一口氣不來。向甚麼處安身立命。師曰。某甲終不通去處。來曰。莫便是你安身立命處麼。師曰。終不作此見解。來曰。作與不作。總不免老僧痛棒在。出住淮安古檀度寺。元旦上堂。師卓拄杖曰。識得一。萬事畢。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君王得一天下平。衲僧得一。鼻直眉橫。設若一亦不立。又作麼生。擲拄杖曰。門簾忽被風吹去。杲日光騰四壁清。上堂。壽昌師翁。搬底是石塊。博山先師。見底是一株樹。瀛山師兄。徑山師兄。一等是口挂壁上。老僧覩白雲底響。顧左右。喝一喝曰。住住。老僧見底。諸人不知。諸人見底。老僧不知。驀起身曰。慧炬三昧。淨光明三昧。連擊拂子。下座。

### 福州長慶宗寶獨禪師

廣州陸氏子。六歲。聞隣嫗發願來生童真出家見性成佛語。遂觸宿因。堅出世志。及披剃。惟事苦參。年十四有省。復參石壓筍斜出。巖懸花倒生話。遂得瞥脫。三十出嶺。參博山來和尚。來與語器之。一日拈騎牛入佛殿話。問師。即呈偈曰。貪程不覺曉。愈求愈轉渺。相逢不是渠。纔是却顛倒。蟻子牽大磨。石人撫掌笑。別有一生機。不落宮商調。來見以為深入堂奧。後辭。來乃囑曰。我愛你見處清白。向後不得辜負。師拜別。出住廬山。次開法廣之羅浮。及長慶等處。上堂。豎拂子曰。我宗無語句。亦無一法與人。既是無語句。華首今日說箇甚麼。既無一法與人。諸上座。今日向華首覓箇甚麼。諸上座。此是徹底相為。莫要錯過。切莫踏步向前。各人照管自己脚跟下。莫要他覓。

### 江寧獨峯竹山道嚴禪師

順慶大竹縣沈氏子。總角。染衣南遊。初預講肆。一日走京口。登凌雲亭。忽身心世界頓然一空。遂罷講。往參博山來於天界。典第二座。山見師領眾當機。動合宗旨。遂授名道嚴。且囑曰。汝當以道法嚴持也。上堂。驀拈拄杖曰。一滴水。作大海之波濤。一點塵。徧大千之境界。連卓三下曰。天不能蓋。地不能載。本分衲僧。只是尋常。無為道者合當如是。畢竟據箇甚麼道理。便得恁麼行徑。良久。擊禪牀曰。對月思玄度。臨風憶謝公。上堂。擊如意曰。姑孰城裏。有大人氣象。白苧山頭。有毒鼓先聲。獨峯與龍象交集。萬象與虛空並會。茶裏飯裏。行時坐時。共轉法輪。世尊陞座。文殊白椎。獨峯上堂。院主拈香。其間還有自肯底麼。良久。顧眾曰。官圩東畔王三老。日日擔薪上太平。

### 東苑鏡禪師法嗣

#### 江南天界寺覺浪盛禪師

建寧浦城張氏子。十九歲。見大父歸寂。自疑曰。者一點靈明。向甚麼處去。一日聞猫叫。有省。走瑞巖剃落。隨師住夢筆。閉關苦究。因見百丈再參公案。頓徹馬祖機用。從前寶惜。冰釋無疑。出關參博山於董巖受具。是冬。謁東苑鏡。苑問。子聞博山提唱維摩經否。師曰曾聞。苑曰。彌勒得一生受記作麼生。師曰。大有人疑著。苑曰。你又恁麼去。師異之。向日次。師問。古德劫火洞然。者箇壞不壞。有云壞。有云不壞。此意如何。苑曰。你又恁麼來。師遂折節過冬。苑細驗其生平參證處。及徵詰五家堂奧差別之旨。師恣意披其所見。苑感歎曰。不期。子乃能深入此秘密法門。吾壽昌者枝慧命。屬子流布去也。隨苑禮壽昌。昌勘問。大奇之。問。東苑曾將子說甚麼。師曰。曾被她賺了一上。昌曰。作麼生被他賺。師曰。者老漢。又恁麼去也。昌笑曰。子作怪那。師曰。是和尚自致得。因復問昌曰。聞東苑當時答和尚一語。如何滿口便許可他。若是某甲。決不輕易放過。昌曰。祇如他道和尚莫作怪在。你當作麼生。師纔開口。被昌劈面一掌。師曰。也是賊過後張弓。昌曰。且喜有人喫掌。自此與昌多有詰問機緣。昌為深喜。住寶筏上堂。向上一路。千聖不傳。本分風光。須自領悟。山僧便恁麼下座。還有親切為人處也無。大眾便恁麼禮拜而退。還有不相孤負處也無。雖然。官不容針。正好添花錦上。石女夜拋梭。文彩煥然滿地。木人朝唱曲。音聲杳而難聞。其中還有正偏兼帶不落是非者。出來唱和看。眾無語。師曰。恁麼則山僧倒騎露地白牛。遊戲十方剎土去也。舉如意曰。會麼。自古輪王全意氣。不彰寶印自然尊

大雄菴上堂。師陞座。擊香臺曰。聞麼。良久。朗聲曰。巍巍獨坐大雄峯。一喝曾教三日聾。今日當陽明舉似。西江吸盡吐東風。且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一僧出眾曰。閣靜不須重借月。三更自有夜明簾。師顧視曰。乾闥婆王。親托出摩尼。光影照三千。更有於光明門頭出身者麼。李太宰出曰。近有提婆達多一頌。平地孤堆最悞人。枉將法座賺冤親。瞿曇自有金針度。認影迷頭又隔津。師曰。何不道提婆別有金針度。太宰拊手曰。此文是老婆勘破。有來繇也。師震威一喝。便下座。問。石頭和尚道。木頭碌磚。此意如何。師曰。藝壓當行。曰或問和尚如何是道。作麼生。師曰。好皮不染皂。曰如何是禪。師曰。好人不債錢。曰此與石頭答。有同別否。師曰。白馬廟前好傘舖。曰不會。師曰。木屐店在對門開。曰恁麼一般要用也。師曰。天晴不肯去。直待雨淋頭。僧禮拜。師大笑。上堂。有情之本。依智海以為源。含識之流。總法身以為體。祇為情生智隔。想變體殊。將山門來佛殿裏。移廚庫在鐘樓上。惟佛與佛。乃能究盡山僧拄杖。驀顧左右曰。咄。莫妄想。上堂。疎雨打牕清夢裏。好山深鎖白雲中。有題最是難藏覆。竹浪蕭蕭一夜風。百草頭上識取祖師。草枯了也。鬧市裏識取天子。市散了也。與諸兄甚處相見。良久。以手拍曰。猩猩。我與你相見了也。

## 鼓山賢禪師法嗣

### 福州鼓山為霖道霈禪師

建安丁氏子。年十四出家。十八參方。首禮聞谷大師於寶善。次參鼓山賢和尚。看庭前柏樹子話。三年無所入。辭遊兩浙。後復歸鼓山。充維那。山一日垂語曰。一口吸盡西江水。馬師此語。只道得八成。還有下得十成語者麼。師進曰。某甲盡力。也只道得八成。山乃呵出。師一夜不安。至四鼓方捲簾出門。了然大徹。次上方丈曰。某甲今日有箇十成語。舉似和尚。山喝曰。汝作麼生。師乃背身叉手向山曰。請和尚鑑。山曰。好與七藤條。師便禮拜。自是入室。商確玄奧。無不脗合。山示寂。遂繼席焉。上堂。庾嶺一舖功德。無盡劫來成就。今日一回拈出。便見光輝宇宙。不須雪點紅爐。一切萬法仍舊。春水盈盈競流。春山疊疊挺秀。春鳥關關和鳴。春樹葱葱鬱茂。若能直下便見。即是瞿曇之後。更作佛法商量。此人却不啣[口\*留]。乃舉拂召大眾曰。見麼。是大神呪。是大明呪。擊案下座。小參。金牛喚人喫飯。趙州叫人喫茶。二老覲面分付。不知誰是作家。或有箇漢出來問。鼓山又作麼生。有願從

來不撒沙 上堂。人人有一天真佛。相好光明皆具足。可惜日用而不知。五陰坑中自埋沒。喝一喝曰。五陰坑。為諸人打破了也。真佛即今在甚麼處。驀舉拂子曰。容顏甚奇妙。又喝曰。切忌捏目。

南嶽下三十五世

林臯豫禪師法嗣(二人)

天壽謐融元禪師

首參博山。看狗子無佛性話。有省。次參林臯豫於夾山印記 上堂。教中道。不應取法。不應取非法。豎拂子曰。者箇是法。那箇是非法。擊拂子曰。者箇是非法。那箇是法。大眾。還有不落是非者麼。良久曰。汝等比丘。知我說法。擲拂子下座。

潤州夾山蘧夫一禪師

宜章李氏子。年十八。投萬松出家。初謁憨山清於曹溪。看萬法歸一話。三年不會。次扣天童悟。棒下有省。後見夾山豫。豫問。甚處來。師曰。浙中。豫豎起拂子曰。還收得者箇麼。師曰。阿誰不具。豫曰。試呈似老僧看。師拂袖便出。未幾。命主石湫。次遷楚之九峯。復主夾山 示眾。山上鯉魚。海底蓬塵。舌頭無骨。眼裏有筋。驀豎竹篋曰。國一欽禪師來也。眼裏有筋的。請出相見。良久曰。本欲期君重話會。誰知覲面不相親。塔於澧陽之大同。

箬菴問禪師法嗣(十四人)

潭州瀏陽黃曇曉菴昱禪師

龍丘葉氏子。幼喪父。母程氏。撫育成立。因閱六祖壇經。知有宗門事。年十九辭母。投天台肇心祝髮。秉戒天童。參箬菴問於南澗。入室每遭棒喝。不能領旨。立誓以悟為期。一夕獨坐。忽然頓豁。乃辭問出山。廬居養母。及母終。仍歸南澗首眾。問欲以院務及之。師遠遁江右之武功山。至甲午秋。始繼席南澗。晚參。盡大地是自己。坐殺千千萬萬。盡大地不是自己。走殺千千萬萬。衲僧

家。踏翻窠臼。別立生涯。逢佛殺佛。逢祖殺祖。說甚麼湘南潭北  
驢事馬事。行便行。坐便坐。修證不無。但莫染污。驀喝曰。依稀  
似曲纔堪聽。又被風吹別調中。頌殃崛托鉢話。師曠之聰不以耳。  
張儀之辯不以舌。接響承虛萬萬千。黃面瞿曇空叫屈。師三會說  
法。挈要提綱。凜然風化。康熙乙丑夏。囑以後事。奄然脫去。壽  
七十九。臘五十。塔於黃曇妙高峯。有語錄行世。

### 黃梅五祖千仞岡禪師

明州王氏子。弱冠。禮靈嶠信斷髮。受具天童。看無字話。有省。  
偈曰。狗子無佛性。莫道說得好。閨女學做媒。自身也難保。後往  
夾山。見箬菴問。舉高峯枕子因緣。言下大徹。呈頌曰。久憶并州  
是故鄉。而今身已到咸陽。若教忘却來時路。不是愁人也斷腸。問  
擊節稱賞。命師分座。出世潤之金山。鄂之黃龍。舒之浮度。陞  
座。春色闌珊三月天。數聲啼鳥落花前。荷因有熱先擎蓋。柳為無  
寒漸脫綿。處處勸畊穀子熟。家家繅繭竹籬烟。分明好箇神仙訣。  
父子雖親不可傳。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花開蝶滿  
枝。曰見後如何。師云。樹倒猢猻散。黃梅祖殿拈香。鉢衣漫與俗  
家兒。骨董渾身欲付誰。看取東山山上水。承恩端在逆流時。陞  
座。鴉鳴鴉鴉。鵲噪鵲鵲。婆餅鳴婆餅。姑惡鳴姑惡。記取枝頭一  
一鳥。何聲不是自家音。師于康熙丙午六月示疾。乃貽書。命大乾  
明公繼席。再訂以次春二月行期。至是月十七。會晦山顯公問疾。  
師囑以後事。至二十未刻。陞座。乃問。眾集否。曰集。又問。晦  
公在否。曰在。遂端坐而逝。壽五十五。臘二十四。塔於東山演祖  
之右。

### 淮安淨居汝風杲禪師

吳門張氏子。依中峯蒼雪法師受業。首參天童悟。值陞座。眾環  
視。悟一唾。便下座。師脫然領旨。乃扣箬菴問於夾山。問舉風穴  
見南院一棒因緣命頌。師曰。師資合處芥投鍼。嶽未為高海未深。  
看取作家鑪鞴在。能消躍冶不祥金。問曰。此則因緣。二十年來。  
罕有契其旨。今日始愜老僧意。遂舉西堂。後繼席南澗。上堂。豎  
起拂子曰。彩鳳舞丹霄。放下拂子曰。鐵蛇橫古路。復拈拂子。拂  
左右曰。翻天關。轉地軸。格外提持。目前包裹。突出無巴鼻。無  
可無不可。康熙戊午正月三日。師往鶴林。與天樹植公訣別曰。衰  
軀不久謝世。至期借重為我了却。植曰。新年頭。何得說末後語。  
師曰。實非戲言。朽骨火後。祈颺大江。無違我願。由是相笑而

別。至廿四巳刻。鄰菴火起。師整衣而坐。侍者曰。火猛已逼。和尚宜速出。師曰。吾時節至矣。者曰。和尚如是。某甲敢離左右。遂同證火光三昧。門人依命。葬骨於大江之龍門。有傳并語錄十卷。行世。

### 杭州理安梅谷悅禪師

婁東曹氏子。上堂。一切聲是佛聲。二三千處管絃樓。一切色是佛色。四五百條花柳巷。聲色堆頭坐。聲色堆頭臥。佛子住此地。即是佛受用。上堂。道遠乎哉。觸事而真。刀不自割。金不博金。聖遠乎哉。體之則神。黃河九曲。水出崑崙。應如是知。如是見。如是信解。開口不在舌頭上。你向甚處辯別。拍膝一下。到江吳地盡。隔岸越山多。師有列祖提綱。正宗語錄。行世。

### 松江金澤頤浩子山如禪師

吳門真豐里人。幼喪母。年十七。因村坊演劇。見目犍連事。即慨然曰。吾欲報母。何讓佛祖。遂棄聘室。至堯峯。禮西脉老宿落髮。參夾山豫。令看無字話。聞鐘聲有省。後謁箬菴問於南澗。澗垂問。師下語不契。輒被麾斥。師方出。至殿廡。忽通身汗下。洞徹玄微。亟趨入室。澗即約住曰。不是不是。師喝曰。這老漢又來相瞞那。於是機鋒迅捷。執侍八載。始獲印記。出住華嚴廣福。繼席南澗堯峯夾山諸刹。晚參。天寒人寒。事無兩般。滴水滴凍。死蛇活弄。空寥寥實曝曝。無位真人難躲縮。嘉州大象忽懷胎。陝府鐵牛夜脫殼。漫承當。休卜度。令人常想老巖頭。鋤斧拈來撒壁角。喝一喝。

### 瑞州黃檗一菴月禪師

廣陵崇川涂氏子。初叩天童悟。棒下有省。辭悟入匡山。刀畊火種者數年。聞林臯豫唱道夾山。師往謁。即舉西堂。豫順世時。箬菴問主喪。一日問舉無雲生嶺上有月落波心語。謂。此事祇須直下承當。原非別有。師深契旨要。問付以源流信物。歷住江上興國豫章黃檗。上堂。金剛圈。栗棘蓬吞底任他吞。跳底任他跳。跳得出也是好手。吞得下也是好口。一任折東籬補西壁。指北斗作南辰。山僧亦不妨袖手看他。良久曰。長江萬里拖銀練。自有人言短與長。

### 蘄州廣教天章玉禪師

陞座。僧問。拈椎豎拂。早成鈍置。瞬目揚眉。落二落三。向未陞座前薦去。猶是鬼家活計。總不恁麼。也是無繩自繫。請問和尚。作麼生指示。師云。却被闍黎奪却鎗。進云。恁麼則白雲峯頂立。西河浪潑天。師云。百禱碎了也。僧便喝。師亦喝。進云。師喝某也喝。意作麼生。師便打。進云。意氣不從天地得。英雄豈藉四時催。師云。識甚好惡。迺云。春日炤高林。春香發幽谷。多少尋春人。偏向春邊逐。空生巖畔草如烟。妙高峯頂錦似簇。大眾。見之不取。思之千里。若是大丈夫。據虎頭收虎尾。落落聲光振天地。如其未委。百花春至為誰開。卓拄杖一下。舉僧問大龍云。色身敗壞。如何是堅固法身。龍云。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師揮拂子云。會麼。昨日是三十。今朝乃初一。展事投機知不知。野老愛閒烟樹立。無限輪椎劈不開。古今空射轅門戟。擬不擬。如山屹。三更半夜過牢關。忠言不避風前泣。

### 杭州錢塘理安天笠珍禪師

雲間陳氏第三子。父仲雍。母金氏。十八出家。行脚參南澗。澗示父母未生前話。疑不去心。圓具後。徧謁知識。過紹興東郭門外。逢殺犯人。血濺衲衣。打失本參。偈曰。活人頭落地。血濺死人衣。不知誰死活。斬斷未生疑。呈南澗。未獲許可。後依南澗過竹林。因僧錯會趙州勘破婆子話。南痛棒打出。復喚回云。與你說箇譬喻。你即是者僧。老僧即是趙州。拈起竹篋云。者便是婆子。那裏是勘破處。僧擬議。澗擲竹篋歸方丈。師在旁。不覺汗下。洞徹古今公案。師呈頌云。幾人不戰便成功。獨許南陽老臥龍。自借東風鏖赤壁。賺他血淚滿江紅。澗云。那裏是趙州勘破婆子處。師震威便喝。澗便打。師禮拜云。勘破了也。便出。後繼席南澗。上堂。抱鋤斧居山。聞名不如見面。著卓鞋住院。見面不若聞名。事到如斯。抑不獲已。颺下鋤斧子。脫却破草鞋。展開驢脚。伸出佛手。菩提路上。扶起刹竿。廣濟道中。重開飯店。不蓄一粒米。不栽一莖菜。令一箇箇飽齣齣地。拈却炙脂帽。卸却鶻臭衫。作赤灑灑淨裸裸漢。若是具頂門眼。懸肘後符。呼喚不回顧。羅籠不肯住。望刹竿而走。見鞭影而行。山僧不妨瞻之仰之。即今還有恁麼人麼。驀卓拄杖云。設有。勘過了打。上堂。大通智勝佛。稽首乾矢橛。十劫坐道場。猴子繫枯椿。佛法不現前。心肝樹上懸。不得成佛道。泥神撫掌笑。此四句中。一句殺人刀。一句活人劍。一句殺活同時。一句殺活不同時。若檢得出。古佛在你脚底。晚參。大人峯頂無根樹。却被賊子偷了去。幾多癡漢守枯椿。業識茫茫無本據。以拄杖一齊趁退。

## 蘇州常熟勝法斯瑞法禪師

雲間上洋瞿氏子 上堂。有一句子。千聖不曾道著。有一妙機。列祖不能提起。若是伶俐衲僧。一舉更不再舉。山僧今日再舉去也。遂卓拄杖曰。箭過西天十萬里 示眾。十方無壁落。山前山後。縱煞馬廝。大地不曾藏。知得甕頭是糟是醬。天一生水。地二生火。俊傑禪流。規行矩武。以拄杖劃曰。是大人相。是不欺力 示眾。眾生被解障。菩薩未離覺。惟有住山翁。胷中乾索索。不愁獨對聖僧。一任皮膚脫落。且道。脫落後如何。是我好兒郎。為我把木杓。

## 潤州金山鐵舟海禪師

新安蔣氏子 開爐上堂。僧問。盡大地是火柴頭。和尚向甚麼處挑撥。師云。照顧眉毛。進云。輕輕一扇。烈焰飛騰。師云。四面誰敢入。進云。且道。火爐潤多少。師便打。問。天隆久不行此令。今日重逢事若何。師云。總是頑銅鈍鐵。進云。忽遇躍冶之金。又作麼生。師云。鉗放一邊。進云。恁麼則缺慈悲也。師便打。乃云。大地火柴頭。撥開飛烈焰。銅頭鐵額漢。精金能百煉。躍冶非種草。鉗來放一邊。你說缺慈悲。正是慈悲現。天隆久不行斯令。今日洪開顯八面。驀拈拄杖擲下。便下座 晚參。人天眾前。激揚箇事。也須是本分衲僧始得。若非本分衲僧。未免遭人怪笑。只如一味打潔淨毬子。抱不哭孩兒。不是遲俊。便是顛頂。有甚本分處。且道。如何是本分處。昨日風雷起山嶽。今朝和氣滿江天 陞座。達磨不會禪。特地泛海來。二祖苦言詮。却覓安心去。透徹本地風光。有甚身纏瘋恙。一任自逍遙。縱橫誰縛汝。栽松能應記。黃梅續法系。放下新州柴擔。真誠負石舂米。喚作一物即不中。打車打牛須自體。南嶽出馬駒。神影踏千里。一喝三日聾。不覺便吐舌。棒下忽翻身。慣作白拈賊。兒孫遍天下。有誰能測得。須是嫡骨兒孫。驅耕夫牛。奪饑人食的好手脚。方可與他話會。驀拈拄杖卓一卓。喝一喝 晚參。但得一萬事畢。達磨大師家風密。阿呵呵。識不識。惟有神光斷臂時。滿天飛雪深三尺。須知是那苦心人。始信眉橫與鼻直。環山有箇廖鬍子。半夜穿靴水上立。揚聲大叫君自知。明早又是臘月一。莫教三十夜到來。雙眼依然黑漆漆 晚參。一僧出禮拜。師便打。僧便喝。師云好喝。進云。莫作喝會好。師云。將謂金牙作。進云。不勞再勸。師云。你無拄杖子。奪却你拄杖子時如何。僧擬議。師便打。乃云。諸兄弟。還有為者僧通箇消息者麼。眾無語。師云。諸兄弟。既是吝慈。山僧不惜口

業。放一線道去也。以拄杖卓一卓。向者裏會去。猶是鈍鳥棲蘆。多見兄弟們。每每臨機下一喝。頓一足。打一圓相。拂袖便行。及至挨拶將來。依舊木雕泥塑。堪作何用。須是竿頭進步始得。豈不見。蓮花峯菴主。凡見僧來。拈拄杖卓一卓云。古人到者裏。為甚不肯住。二十年來。舉似於人。雖有下語。總不相契。後自代云。只為途路不得力。又云。畢竟如何。以拄杖架肩上云。榔栗橫擔不顧人。直入千峯萬峯去。還委麼。拽拄杖下座。謝兩序上堂。人天眼目。靈樹符合。一大藏教。是箇切脚。興化打克賓。瘡病驢駝藥。英靈衲僧。不撥自轉。聽闌鷄鼓翅。看茶銚[跳-兆+孛]跳。雖則金聲玉振。未免平地骨堆。金山門下。稍可穎脫。留雲臺樹孤風峻。曉堂樓閣足知音。上堂。祖師門下。只貴痛快。向未舉已前。一肩擔荷。若停機佇思。了沒交涉。豈不見。德山老漢。在吹紙燭處。徹見源底。遂焚青龍疏鈔云。窮諸玄辯。若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於巨壑。拽條榔栗。湖海橫行。復顧視左右云。有麼有麼。摩霄俊鶻。便合乘時。止灤困魚。徒勞激浪。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百鳥銜花。師云。只在此山中。進云。見後為甚不銜。師云。雲深不知處。進云。牛頭畢竟在甚麼處。師云。天共白雲曉。水和明月流。師生於萬曆己酉十月二十九日。示寂於康熙癸亥五月三日。塔建五峯之陰。

### 南澗理安濟水洸禪師

據室。從上古德。盡向者裏。造瞞天罪過。將大秤大尺。欺一切人。新長老甚是公平。你有半觔。還你八兩。你有十尺。還你一丈。上堂云。峯巒毓秀。溪水滌迴。古木扶疎。殿堂洞啟。秘密寶藏。八字打開。祖父田園。四至分曉。只要箇漢親到地頭一回。便見伏虎高蹤。未泯先師弘範森羅。可謂法法不隱藏。古今常堂堂。雖然恁麼。不免再舉箇舊話。僧問九峯。承聞和尚親見延壽。是否。峯云。山前麥熟也未。師云。者老漢。通身是刃。爭奈罕遇其人。致令勞而無功。今日者裏。有問承聞和尚親見石磬是否。山僧劈脊便棒。他若道且莫盲加瞎棒。更與連棒趁出。何故。一不做。二不休。元旦上堂。問。如來禪祖師機。一總拈過。請和尚道應時及節句。師云。闍黎白椎。進云。祇如威音不先。彌勒不後。中間是誰。師云。高著眼。進云。與麼則慶讚有分。師云。禮拜著。乃云。五更起來。忙忙碌碌。禮拜燒香。念誦祈禱。合山大眾雲集。互相慶賀新正。可曾與無位真人慶賀也未。若也未曾。山僧為諸人。念補缺真言去也。遂顧左右。下座。解制上堂。十月十五一句子。莫道我瞞你。九十日兩手分付了也。有般眼目未辨東西底。便

問。是那一句。是者般底。我也沒有拄杖打他。但與他一緇破草鞋。便下座。觀音誕日上堂。春風笑花柳。徧界獅子吼。欲入三摩地。面南看北斗。看看。觀世音菩薩來也。擡脚云。展驢脚。舉手云。舒佛手。明眼衲僧莫亂走。復顧眾云。信得及麼。未出錢塘門。為汝說了也。下座。

### 邱山雪谷古石藏禪師

示眾。觸目儼然。因何不薦。眨得眼來。風過別院。鵲巢定風柴。鵲眼衲僧試辨看。

### 杭州理安六吉謙禪師

蕭山汪氏子 晚參。秋風生夜涼。壞壁鳴寒蟬。的的祖師意。明明不覆藏。雖然如是。切忌認奴作郎 晚參。老僧口訥。猶如木橛。三五不參。朔望不說。大眾上來。不須饒舌。何故。心不負人。面無慚色。

### 蘇州常熟勝法雲峯授禪師

早參。以手向前指云。者一片地。待來多時也。因甚無人搆去。眾擬議。以竹篋旋風打散。師行履冰操。凡學者來參。皆隨機接待。不厭不倦。臨終豫知報盡。坐化。

### 山茨際禪師法嗣(五人)

### 潭州石霜爾瞻尊禪師

明州唐氏子。六歲。知信佛乘求出家。父母不允。越年。從福泉圓明老宿受業。歷參天童顯聖。後謁山茨際於東明。言下頓豁。隨上南嶽。誅茆綠蘿。一夕圍鑪。際舉僧問夾山。撥塵見佛時如何。山曰。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汝作麼生會。師曰。太費力生。際曰。是夾山費力。者僧費力。師曰。任和尚分別。際曰。情知汝會者話不得。師起身便出。後辭出山。際以偈授師。其略曰。鄭重堅操志。慧命賴持傳。未幾。開法石霜 上堂。未離兜率。版齒生毛。已降王宮。脚不點地。未出母胎。蠅子放卵。度人已畢。鍬作面皮。釋迦老子。從久遠劫來。一片廣大婆心。被石霜一時華劈了也。眾中有不甘底。出來如何若何。山僧一不作。二不休。有

麼。攜取詩書歸舊隱。堊花啼鳥一般春。示眾。以拄杖橫曰。黃鶴樓前吹玉笛。江城五月落梅花。諸人聞麼。若道不聞。山僧今日未遇人在。擲拄杖下座。康熙癸卯九月朔日。師作書遣使。囑曉菴昱公。面托後事。昱不信。令使歸。師曰。昱兄。以山僧為妄語。大眾。今晚莫睡。聚話終夕。至天明。高聲召眾曰。老僧別矣。便坐脫。入龕一七未掩。顏貌如生。昱趨拜淚下曰。吾兄再來人也。塔建石霜圓祖之側。

### 吉州安福臺山且菴芻禪師

上堂。不說有法。不說無法。諸人會麼。拈起少林無孔笛。順風吹又逆風吹。上堂。卓拄杖。喝一喝曰。山僧今日與麼提持。還有共相激揚者麼。僧便出。師便打。乃曰。臺山者裏。明如杲日。有時喝。有時棒。照用同行。殺人刀活人劍。應時拈出。復卓拄杖。喝一喝。鉗錘不動火星飛。眨上眉毛隔遼海。

### 邵陵金峯紫雲密巖剛禪師

茶陵蕭氏子。上堂。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一尺青天蓋尺地。乃曰。機先薦得。落二落三。句下承當。錯七錯八。縱饒得到奔流度刃。疾燄過風。信手拈來。羣機普利也。只是建化門中事。若到自己分中。也是日午打三更。雖然如是。只因梅雪落。又得顯風光。

### 楚黃陂[山\*廣]山玄慈謙禪師

上堂。機先一著。廓爾現前。正眼洞明。本無迷悟。孤峻處峭巍巍。平坦處活鱗鱗。佛祖莫能知。人天不可測。不假修證功。豈資解脫力。明明不覆藏。歷歷絕背向。包今括古。離見絕名。直下透徹本源。不須別處尋討。祇如透聲透色一句。作麼生道。一塵舉處全身現。徧界明明不覆藏。

### 粵西全州香林宗玄旨禪師

除夕小參。世事匆匆。情緣碌碌。節換時移。光陰迅速。看看。又過一年。且喜林下衲僧。自無塵事勞攘。却有溪山可樂。守道安貧。逍遙快活。任從村老燒錢。說甚烹牛納角。人人安帖家邦。箇

箇甘休巖壑。雖然如是。也不可錯過時光。正當與麼時。應時及節一句。作麼生道。圍爐煑瀑消殘夜。也勝諸方五味禪。

### 松際授禪師法嗣

#### 潭州神鼎雲外行澤禪師

婺源汪氏子。年廿五脫白黃山。閱三載圓具。參天童悟。問。如何用心。得箇入處。悟曰。無心可用。是汝入處。師擬進語。悟便打。於是疑情頓發。一夕不覺倚柱失眠。忽聞開門聲有省。呈悟。悟為首肯。後依松際授於磬山。機鋒迅捷。應對無滯。授曰。汝進語都佳。住桶底未脫在。乃發憤力究。一日因風動簾幙墮地。撲簌作聲。忽然大悟。授始印可。出世蘄州老祖湘陰神鼎 上堂。會得也打。不會得也打。良久。喝一喝曰。姪女已歸霄漢去。馱郎猶向火邊棲。僧問。文殊乃七佛之師。為甚麼作釋迦弟子。師曰。鐘樓上走馬。佛殿裏騎驢 問。和尚昔在磬山。得箇什麼。師曰。山僧愛嗔不愛喜。曰如今以何為人。師曰。捏棒呼狗。曰恁麼則圓滿菩提無所得也。師曰。百草頭上薦取老僧。僧禮拜。師接機峻邁。手眼精明。室中嘗舉狗子無佛性話驗人。罕有契其機者。順治甲午。師書偈曰。是非海內展全機。多少時師盡皺眉。此日一言無可付。江南江北大家知。投筆端然而逝。全身塔於神鼎之右隴。語錄十五卷。附楞嚴方冊藏流通。

### 大覺琇國師法嗣(十九人)

#### 湖州報恩退菴重禪師

高安彭氏子。幼喪母。隨父出家。參大覺得旨。呈拈花頌曰。倚天長劔露鋒鋌。拈出何人敢近旁。膽大飲光輕觸著。面門血濺好慚惶。覺可之 示眾。舉黃龍三關語。佛手驢脚與生緣。一箇錮鏑兩箇圈。漁父忙忙貪錦鯉。不知衣角水涓涓 晚參。賣却劫初田地。兄弟同添十字。碎盡列祖沙盆。兒孫義斷真金。寸絲不挂的。卸下鳳袞龍章。寸草不生處。脹破驢胎馬腹。若在飯籬裏叫餓。火聚中畏寒。置而不論。饒伊牙如劔樹。口似血盆。慣向饑鷹爪下分餐。餓虎舌尖奪肉的英靈。要問你。去冬雪裏。轟箇凍雷。今年米作麼生價。滿盤傾不出。大地沒飢人。戊子閏四月廿八日。無病趺坐。說偈而化。塔于寺東大覺潭上。

## 荊溪善權白松豐禪師

鞏氏子。山西平陽人也。年十六。從三元菴出家。納戒於普陀隱光律師。二十九。謁天童悟。扣以向上事。未幾。參報恩琇。問。盡大地是箇火坑。得何三昧。不被燒却。師曰。金不博金。琇可之。後以伽黎授師。及琇退居大雄義母。命師繼席。次遷海會上堂。圓機大用。觸處全彰。格外真宗。隨方顯露。所以道。在天成象。在地成形。在日月為照臨。在四時作寒暑。居谷盈谷。處坑滿坑。有情則動轉施為。無情則森羅顯煥。天人羣生類。皆承此恩力。且道。超羣拔萃。又作麼生道。漠漠水田飛白鷺。陰陰夏木嘯黃鸝。師於萬曆壬子十月三十日生。康熙甲寅九月十九日示寂。世壽六十三。僧臘四十七。塔建海會寺側。有語錄若干卷。行世。

## 南嶽高臺不退勇禪師

錢塘韓氏子。從界山衍雲披剃。隨全菴進禪師。上金車山。參大覺琇。令究未生前語。一日普請次。見僧荷空畚行。有省。次侍琇於方丈。琇問僧曰。轉山河大地歸自己則易。轉自己歸山河大地則難。如何會。師在旁。徹法源底。自此機用超絕。琇以衣拂授之。出世吳興法海。次住高臺上堂。銅頭鐵額諸禪客。肘後橫懸奪命符。尚有火爐吞不下。冰霜肝膽細磋磨。驀然南斗北翻身。赤縣神州火裏坐。小參。三間破屋通天眼。七尺烏藤抹太虛。要明臨濟三玄旨。荊棘林中舞柘枝。昨夜無位真人。倒騎三脚驢子。直上萬仞峯頭。欲與諸人通箇消息。卓拄杖下座。小參。老鴉嘴上挂油瓶。月落寒松著一驚。失口一聲連嘴落。逢人便叫兩三聲。且道。叫箇甚麼。驀喝一喝。下座。小參。醉臉夭桃舒笑口。垂腰衰柳展春眉。堪笑靈雲多浪蕩。驚落枝頭萬點紅。顧眾云。有恁麼見徹者麼。山僧如此舉話。八萬四千毫毛。盡皆拋向諸仁者懷抱裏去也。如或未然。但辦肯心。必不相賺。小參。少林面壁。白玉琢成西子骨。雪庭肘墮。黃金鑄就伍員心。六耳不同謀。一花開五葉。喝一喝下座。小參。赤肉團上。壁立萬仞。世尊摩竭。鼻祖嵩山。豈許九旬聚眾。畫地為牢。若有高鑑。山僧性命。早已不存。有麼有麼。如無。卓拄杖云。此令還是我行。小參。即心即佛。文殊著賊。非心非佛。普賢叫屈。不是心不是佛不是物。觀音菩薩摸著了。一箇毛頭大結。十字街頭。忽然撞著了。大肚子彌勒。放下布袋。呵呵大笑云。青天白日。為甚麼著賊。僧送茶至。師接得便掌。僧云。某甲過在甚麼處。師豎二指。僧擬議。師便打出。師示偈云。狗銜燈盞街前去。老鼠偷鹽咳嗽歸。露柱堂前驚破夢。開門

雪裏放烏龜。順治乙未五月六日示疾。眾請遺偈。師接紙曰。信手拈來。一筆寫盡。都盧丟在大江東。擲筆而逝。壽三十九。僧臘一十有七。塔於江陰敵山。

### 湖州報恩骨巖峯禪師

溫姓。上世山西懷仁縣人。遠祖大司馬祥卿。厥後遷浙之烏程。世以隱德著。師生有奇質。篤信佛乘。投陽山授和尚落髮。參報恩琇圓具。聞琇示眾云。但向父母未生前薦取。自然廣大圓滿。師於言下有省。一日琇問。如何是日中浩浩時作得主。師曰。真不掩偽。琇曰。如何是夜間睡夢時作得主。師曰。曲不藏直。琇曰。正睡著時。無夢無想無見無聞。主人公在什麼處。師答十數語。琇皆不肯。一日答曰。家無二主。琇曰。一箇驢子。繫在槓上。師即頓釋。上堂。蒼翠連天松蔭潤。桃枝紅並李枝白。西來祖意報君知。一二三四五六七。喝一喝。早參。放出南山鱉鼻蛇。齧殺門前子湖狗。豎起秘魔巖下叉。打折俱胝手中指。設有箇衲僧出來道。長老合喫三十棒。却也怪伊不得。師生萬曆己未正月初十。康熙丁丑六月二十六。徧巡各寮曰。老僧不復來矣。至晚。略示微疾。即索筆書偈。侍僧以為師食過飽。作辭推之。師曰。既不將來。他後不得謂吾無偈。遂不復語。越一日不起。眾請說法。師乃轉身。面壁而逝。世壽七十九。僧臘五十九。全身塔於本寺之左。有語錄。行世。

### 湖州武康報恩棲雲行岳禪師

烏程沈氏子。世為望族。少補廩庠。始以居士身。參大覺老人於報恩。順治乙酉。投大覺披削。丁亥秋。事覺於淮北。乞食炊給之餘。覺力為錐筍。一日問覺。空索索地錦艷艷。錦艷艷地空索索時如何。覺云。待你到此境界。與汝道。師禮謝。覺云。者漢多時妄想。今日始斷。師有省。庚子春。侍覺應詔還山。入天台桐栢宮。草衣木食。習頭陀行者。三閱寒暑。癸卯春。覺命繼席報恩。晚參。彌勒真彌勒。起模畫樣。分身千百億。捏目生花。時時示時人。郎當不少。時人自不識。略較些子。召大眾云。還有讚歎分也無。驀豎拂子。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晚參。入秋時節不相饒。西風吹雨池塘暮。古殿松陰宛轉開。鐘聲透過山前路。急回顧。是甚麼。晚參。臨濟大師道。一句具三玄。一玄具三要。汾陽大師道。三玄開正眼。一句破邪宗。所以參禪上士。投崖捨身。立雪斷臂。三千里外。撥草瞻風。二三十年。捍勞執役。祇求

於一句下。發明心地。了畢大事。透脫一句。該攝三句。了達三句。纔明一句。僧問馬祖。如何是佛。即心即佛。僧問雲門。如何是佛。乾矢橛。僧問洞山。如何是佛。麻三觔。僧問風穴。如何是佛。杖林山下竹筋鞭。僧問首山。如何是佛。新婦騎驢阿家牽。歷代祖師。天下知識。出一令立一機。布漫天網子。垂四海玄鈎。今日岳上座。亦有一句。布施大眾。春無三日晴。上堂。舉臨濟三度問佛法大意。及興化在大覺會下被打語畢。乃云。報恩今日不惜眉毛。一時頌出長壽石壁寺盧公一首詩。渴讀即不渴。飢讀即不飢。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海神知貴不知價。留與人間光照夜。晚參。舉陸巨大夫問南泉曰。肇法師。也甚奇怪。解道。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南泉指庭前牡丹曰。大夫。時人見此一株花。如夢相似。昭覺曰。陸巨手攀金鎖。南泉八字打開。直得七珍八寶。並列目前。拈拂子云。天地一指。萬物一馬。通身是眼。分疎不下。師乃召大眾云。報恩。身騎梵天宮殿。穿過諸人觸體。將山河大地。若草若木。情與無情。撒向諸人眼睛鼻孔裏。還知麼。連擊拂子。下座。康熙丙午冬十月二十七日。示寂於報恩方丈。世壽五十三。僧臘二十二。塔於寺之西塢。

### 杭州圓照[菀-凡+卍]溪森禪師

惠州博羅黎氏子。母夢白光入懷生師。眉宇俊秀。如鶴立鷄羣。博覽經史。寓目會心。甫念七歲棄家。從宗寶獨公削染。納戒。出參雲門信。問。紫燕繞華屋。梅子正香熟。如何是西來祖意。門曰。未曾聞著。師曰。恰似錯問。次參大覺琇於大雄。令頌本來面目。師即曰。茗溪屈曲水潺潺。萬疊關山一境閒。乍雨乍晴雲散後。滿天風月到人間。琇頷之。遂舉立僧。接機迅利。衲子響風。出住老祖。開龍溪法席。佛誕小參。從古相傳。釋迦佛今日降生。不知是否。說與諸仁檢點看。南康府裏星子縣。黃梅縣外義豐城。者便是森長老見處。良久云。知客在否。眾答在。復云。內外大眾。今早都念課誦麼。眾云。念。師便入臥室。順治己亥夏。琇應召還山上語琇曰。和尚座下。有可語上首否。琇奏以師。且曰。彼骨硬。惟善遇之。陞座。放下布袋。快活無匹。閒看猢猻偷喫生鐵。阿呵呵。的的的。問甚生前面目。誰論梨花笑日。齋堂有粥有飯。禪和要喫便喫。喫即不無。飽後作麼生。夜行莫踏白。下座。晚參。萬法歸一。一歸何處。呵呵。學人也有趣。和尚也有趣。擊拂子下座。晚參。山門前得的。禪堂裏商量去。進到方丈。不必再舉。何也。天溪不肯辜負汝。室中晚參。問答畢。師乃云。阿逸多笑甚麼。蛇穿耗子窟。普化搖鈴過。嗚呼。小子脚板踏破。癢瘡近火血

沾衣。傷鹽傷醋陳年貨。有人道。慈翁老。有茶請喫茶。無茶滾水好。咄。漢仙琴高騎赤鯉。羲之寫字換鶯兒。良久云。歸堂去。 黻天連雨。師落堂云。大眾。因甚麼迷癡許久不晴。眾無對。師曰。知之為知之。不知為不知。天上雷公叫。地下走虵蜺。呵呵。好場熱鬧。以拄杖畫云。湄。眾茫然。師喝曰。聾牛瞎驢。一齊打散。師問座主。金剛且止。喚什麼作經。主擬議。師便笑。主問。如何是經。師召云。法師。主應諾。師云。好箇座主。主指茶鐘云。者裏有趙州也無。師云。匙挑不上。師問柴頭。無根樹子。斫斷也未。頭無對。次早云。昨夜看無根樹子。聞鑼聲忽然斷去。師指花云。因甚麼喚作海棠。頭擬議。師便掌。陞座。豎拂云。一羣子上來。一羣子下去。殘夢五更鐘。落花三月雨。合掌低頭換步時。進前退後翻身處。有利有害。人無遠慮。歸到故鄉還似客。布穀催耕鳴別樹。叉手句可惜許。一切數句非數句。打一拂云。去。晚參。拂一拂曰。不到雄峯頂。那知竹徑深。樹古石形瘦。木落見山林。月照龍窟底。乾坤點客心。復拂一拂。師於康熙丙辰六月二十七示眾曰。明年此日。能見我於別峯乎。眾罔測。至明年春。師謝事大雄。游武林吳山。見華巖幽僻。謂主人曰。吾欲於此。結一期緣。可乎。主人唯唯。至六月二十四。復謂主人曰。明日吾行矣。主人請曰。願留數日。候集諸子。何如。師曰。諾。至二十七。諸子四集。師沐浴更衣說偈。六十四年。七顛八倒。開口便罵人。無事尋煩惱。呵呵。總是一場好笑。復書封龕語云。[菟-凡+𠃉]溪老[菟-凡+𠃉]溪老。到者裏有什麼不了。咄封却。遂擲筆含笑而化。時異香遠徹。緇素競奔。至七日掩龕。餘香猶烈。迎龕歸龍溪。塔於圓照之右脇焉。世壽六十四。僧臘三十六。九座道場。雍正間。追封明道正覺禪師。語錄賜入藏。

### 湖州武康報恩美發淳禪師

福建延平熊氏子。首參壽昌謐覺浪盛。次參大覺。乞單入堂。覺懸牌垂問云。佛未出世時。道將一句來。師即抱牌入方丈云。和盤托出。覺云。山僧今日困。師禮拜。過一邊立。覺謂師曰。汝者一轉語。可作我維那。次日結夏。即命師綱維首眾。師自謂曰。若不克意來參。焉知有與麼事。所謂悟了不見人。十箇有五雙。杜撰記前。後師為西堂。自此執侍左右。未嘗少間。覺一日以趙州勘婆。白雲入磨房勘五祖話。問師。凡下語。覺輒詬罵不已。一日復舉問師曰。既是拈也拈得。頌也頌得。悟也有悟處。因甚却道未在。師云。粉牌不著白。覺云。說也說得是。見也見得到。祇是未在。師究竟累日。忽見白雲五祖面目。遂舉似覺曰。者回謾某甲不得也。

覺云。更與你三箇未在。師云。恩大難酬。便禮拜而退。辛丑春。師乞假。入閩葬親。度夏蚌坑。於經行次。忽憶百丈囑瀉山。時節若至其理自彰之語。驀然打失布袋。始信大慧禪師云。大悟十八遍。小悟不記其數。非欺人語。出嶺舉似老人。老人云。所謂不住始覺。冥合本覺。參得涅槃堂裏禪。未能透徹此關。自利即得。為人則禍生。今時佛法。蠶腐極矣。能透此關。是不易得。上堂。湘水龍淵浮玉山。廿年冰雪侍師顏。無端推出成狼藉。滿面慚惶何處安。行淳雖親依老漢二十餘年。並不曾參老漢禪。亦不曾得老漢說話。祇是被老漢罵。得徹骨徹髓。身心頑了。一味瞌睡。佛法總未夢見。記得幾箇古人因緣。在肚皮裏安排。今日寶花王座上。闡揚佛祖宗猷。開換人天正眼。不意來到野猫洞口。打一箇噴嚏。都忘却了。一字也想不起來。祇見金輪峻峭。萬象森羅。山青水碧。鶻噪蟲吟。秋風颯颯。秋雨蕭蕭。緇是緇。素是素。鐘是鐘聲。鼓是鼓響。一一現成。一一明妙。一一為諸兄發向上機。一一為諸兄轉大法輪。一一從自己胸襟流出。所謂我本無心。有所希求。今此無盡寶藏。自然而至。大眾。前是山門佛殿。後是方丈寢室。左是齋堂。右是禪堂。且道。無盡寶藏。在甚麼處。驀卓拄杖。下座。晚參。古佛心。千萬世只如今。祖師意。鍼眼魚吞鰲鼻蛇。牆壁瓦礫放光明。演說如來真妙諦。驀拈拄杖卓一卓。召大眾云。現前買賣。不離行市。晚參。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浙西游東魯。梵語讀唐文。菖蒲溪火發。燒著帝釋眉毛。南海波斯。忍痛不禁。轟一箇霹靂。雨似盆傾。咄。我行荒草裏。汝又入深村。康熙十八年九月初。命所服衣履。散諸苦行。至重陽日。自書辭世偈。泊然而逝。世壽六十三。僧臘四十。停龕三日。肉髮猶煖。顏貌如生。以陶龕。塔全身於報恩寺後隴之左阜。

### 報恩西堂寂菴行洽禪師

汝州光邑王氏子。孤苦絕塵。矢志萬行。到處陸沉眾中。尤行業純謹。後參大覺老人於報恩。覺示以未生前話。每徵詰。師無對。覺云。你恁麼參禪。水也消不得。師直得垂淚。同眾坐不臥七。覺問。恁麼物恁麼坐。師云。總沒交涉。覺便打。師無語。覺痛打一頓。中夜釋然。舉似覺。覺頷之。時年二十三。師因看病回。覺問。有氣死人。是你救活了。無氣死人。作麼生救。師指旁僧云。何不祇對和尚。覺云。他已喫我三十棒了。你自道。師云。和尚著甚死急。覺云。念汝看病辛苦。一日覺指楊梅問。一樣楊梅。因甚有紅有青。師云。和尚合取口。覺頷之。覺垂問。道通無礙。因甚一片竹牕關斷月。師云。和尚道甚麼。覺云。須是他喫得棒。覺

問。紫羅帳裏撒珍珠。汝作麼生道。師云。拖泥帶水。覺云。向古廟裏。躲得過時如何。師云。吹毛用了急須磨。一日廟下同不退禪師行次。退驀將一毬擲師。師云。那裏得者箇來。退以毬便打。師

大笑而去。至晚。入退寮。於桌上。畫  云。午後底午後底。復作此[中-口+○]相去。作麼生作麼生。遂將毬子收過。退少間自外

歸。亦書此  云。賊賊把將來。令行者送至師寮。師將毬子付行者云。也是雪峯道底。退又書此○相云。幾人於此茫然。師云。直饒恁麼。也只是弄泥團漢。雖然。若人檢點得出。直須○○○。順治辛卯。示寂於大雄棲賢堂。師十七披緇。僧臘十五。世壽三十二。火化。齒牙不壞。色愈白澤。并骨石。與退菴禪師。合塔於報恩大覺璉禪師放生潭上。

### 蘊荊行璧禪師

楚人。參大覺於崇福。真切體究。未嘗輕發躁露。後坐精進三。次日上方丈。謂覺曰。某有箇見處。覺曰。狗子因甚無佛性。師拳覺肋下云。一向在趙州處落節。今日要和尚處拔本。覺便推出。次日復上方丈。覺云。盡大地火發。得何三昧不被燒却。師云。特來度夏。覺便喝。師呈偈云。圓似滿月圓。寬同太虛寬。歷劫無姓氏。從來絕躋攀。聖凡由此出。剎海任伊安。始終無變異。觸處善隨緣。覺云。還會適來一喝麼。師便出。師土木形骸。悟處穎脫。後竟不知所終。蓋若西山之流亞歟。

### 杭州天目山全菴行進禪師

武林錢塘沈氏子。生數月而孤。年十二。母命投無諍寺隱松老宿出家。芟染後。思求出世正因。往參天童密老和尚。遂進具。嗣往報恩。參大覺琇。問。某甲生死不明。求和尚開示。覺曰。將生死來。與汝開示。師茫然。覺見師誠實。痛下針錐。師自恨障緣深厚。不能一撥便轉。覺北行。不退勇公綱維。見師工夫得力。當眾稱賞。師七終不得透徹。放聲大哭。次早。詣寮致謝。乃流淚不已。勇慰曰。和尚不在家。兄去親近理安和尚亦可。師曰。某在此親近和尚。十來年。如此不青不黃。有何面目。別去見人。者椿大事。必求吾兄為我了斷。某已辦得石米。欲上證果菴。討箇分曉。乞兄早晚提誨。勇大喜。即送師上山。研究一七有餘。忽地春風大作。打開門戶。師當下猛省。喜躍無量。時勇往雲覆菴。師即星夜

越嶺相見。勇曰。全兄何得夜來。師云。某甲捉住了賊來出首。勇云。文殊為甚出女子定不得。師云。莫謗文殊好。勇云。為甚罔明出得。師纔擬議。勇攙前云。喂哈。師茫然無對。值覺回大雄。趨往瞻禮。命充副寺。一日因禪者呈香巖上樹頌觸著。向問勇公。此語咬嚼不破。自謂。此話不透。則從前發揮公案。皆未穩當。遂將拈頌稿。一時焚却。辛卯。老人命師上天目。一夕諸兄弟同在老人室中。因舉上樹話。至虎頭問處。覺厲聲云。什麼虎頭上座。狗頭上座。師當下。礙膺之物。豁然蕩盡。遂當眾頌上樹話。覺大可之。後出世住興化極樂院。既而遷荆溪海會寺。庚申仲夏。應請主持天目。辛未春。復應請崇福。僧問。盡力道不得的句。誰是得者。師叉手云。慚愧。僧云。得後如何。師云。兩粥一飯。進云。忽遇出格人來。又如何相見。師云。打退鼓。僧問。大死底人却活時如何。師云。只得一槩。進云。不許夜行。投明須到時如何。師云。此夜一輪滿。清光何處無。上堂。報化非真佛。亦非說法者。且阿那箇是法身佛。驀豎拂子云。赤骨[骨\*歷]露堂堂。洗清天地一林霜。金烏曉映扶桑國。遍界全彰烜赫光。遂放下拂子。撥開霄云。老僧有幾莖蓋膽毛。示眾。舉香巖上樹話。師云。孔明密排。休生傷杜景死。驚開八門陣圖。若非慣戰作家。自然遭困。還有知音者麼。不奮咬人獅子勇。吠叢逐塊幾時休。癸酉十一月初一日。師示寂於崇福關室。世壽八十三。僧臘六十四。全身塔於天目陽和峯之麓。

### 宜興磬山雲居行嶺禪師

江右臨江楊氏子。聞天童密和尚旺化。往依之。繼參大覺老人於報恩。有一日不作一日不食之戒。司樵十載。克究己事。覺拔為堂司。一日覺問。百丈被馬祖扭鼻有省。如何是他省處。師云。十字街頭遇父親。覺云。何不道打失鼻頭張大口。師云。有理不在高聲。覺云。掩却拜單響。師云。俊鷄撲天飛。覺云。又道有理不在高聲。覺又問。百丈云。即此用離此用。馬祖挂拂舊處。馬祖云。即此用離此用。百丈亦挂拂舊處。為甚馬祖却與他一喝。師云。虎頭虎尾一時收。覺云。百丈已有省。解捲席解挂拂。如何又道於此三日耳聾。師云。不是箇中人不知。覺云。雪竇曰。大冶精金。應無變色。響。師云。千峯勢到岳邊止。萬派聲歸海上消。覺云。張無盡。為甚不肯他。師云。情知他是箇俗人。覺云。大慧為甚却肯無盡。師云。偶爾成文。覺云。你若作大慧時如何。師云。居士更須喫棒始得。覺云。我道。許他各具一隻眼。師禮拜。覺云。你作無盡時如何。師云。某甲今日耳聾。覺云。何不道下官造次。覺次

日又問師。如何是就事藏鋒。師指几上硯云。者硯。盡大地人提不起。覺云。如何是就理藏鋒。師云。虛空裏大千。覺云。如何是理事俱藏鋒。師云。喚作虛空。却是硯瓦。喚作硯瓦。却是虛空。覺云。如何是不涉理事。師云。某甲不識得。覺打出。草堂老人示寂。覺哀毀遇禮。大眾亦封鍋閉厨。覺垂示云。我作那吒太子時如何。師進云。樂則同歡。覺令開鍋。順治乙未秋。荊溪諸檀越。堅懇大覺老人。主持磬山。覺令師代為首眾。至年七十。覺始命陞座開堂。復贈偈曰。年臻七十始開堂。慣自將身入眾藏。今日寶花王座上。烏藤痛處好宣揚。僧問。洪鐘在架。隨扣隨應。未扣時。聲在甚麼處。師云。罕逢知音。進云。某何不聞。師云。怎怪得山僧。僧問。掀翻大海。抖擻虛空。因甚平地上擡脚不起。師云。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僧問。百尺竿頭如何進步。師云。速退速退。進云。退後如何。師云。不快漆桶。康熙丁巳春。眾請繼席天目。戊午歲大旱。明年春。持盃姑蘇。復歸棲水。遂示寂。世壽八十有二。弟子迎龕。塔於磬山之壽藏。語錄十卷。行世。

### 杭州良渚崇福濟芝行覺禪師

四明慈谿王氏子。幼孤苦。及長。每思世界廣濶。不知從何起止。一日偶經講寺。值演金剛般若。即猛念生死。決志出塵。時年二十有二。聞報恩和尚乃大善知識。遂投薙染。令參父母未生前話。一日入室。請益無夢無想無見無聞話。聲未絕。被覺連棒打出。師當下豁然。一日覺問。有句無句。如藤倚樹。汝如何會。師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覺云。樹倒藤枯。又作麼生。師云。狡兔移窠眠嫩草。癡人猶自守枯椿。一日覺又問。趙州道。臺山婆子。為汝勘破了也。且道。有勘破無勘破。師云。有勘破。覺云。那裏是勘破處。師云。用盡自己心。笑破他人口。覺云。怎麼則趙州亦在裏許。師云。知即得。覺笑云。你還覺面皮重麼。師便鞠躬低首。覺云。山僧罪過。師作禮。覺頷之。乃結茆於前谿大聖庵。枕石鋤雲。瀟灑自適。大覺老人示寂。後師應請住崇福。僧參。師問云。你今日念普佛麼。曰念。師云。念佛的是誰。曰不會。師云。漱口去。僧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甚麼。師云。拄杖長七尺。進云。不會。師云。扶過斷橋水。伴歸明月村。晚參。舉昔日大慧禪師云。徑山莊無寸土田。今夏隨宜結眾緣。慵論道懶談禪。拄杖挑來箇箇圓。不用息心除妄想。大家喫飯了瞌眠。瞌眠即不無。倘或夢中有人索飯錢。作麼生。依稀似曲才堪聽。又被風吹別調中。師云。徑山怎麼入草求人。不覺舌頭拖地。檢點將來。大似壓良為賤。崇福則不然。雄峯不置半分田。日給持盂助眾緣。也沒道也無

禪。脫賺方來萬萬千。更有一般好笑處。蚤叮蚊咬觸體穿。阿呵呵。樂不樂。大家相聚喫莖齏。不喚作莖齏也大錯。捉敗千七百箇老古錐。鐵牛迸斷黃金索。喝一喝。擲拂子下座。師生平儉約。謹慎許可。一日忽示微疾。謂門人契真曰。余四十年來。不輕許可。汝當保任此事。即沐浴更衣。眾請偈語。師厲聲云。無偈豈死不得麼。遂坐脫。世壽六十四。僧臘四十二。弟子奉全身。葬于大覺老人衣盃塔之右。

### 潤州夾山竹林六解行恒禪師

江陰劉氏子。弱冠。受業于邑之乾明寺唯心老宿。年二十二。往參磬山修和尚。山示以父母未生前話。因進具。聞鄰僧受食盂鉢作聲。忽然身心踴躍。即入室白磬山。山云。試道來。師擬對。山驀掩師口云。道道。師擬議。山便掌。後山示寂。依大覺老人於報恩。舉一口吸盡西江水話。師下語不契。值渡錢塘江有省。頌云。西江一口直吞乾。蝦蟇魚龍命已安。大丈夫兒全意氣。始從今日肚皮寬。順治辛丑秋。受夾山竹林寺請。一住九載。辛亥冬十月。復住雲陽嘉山寺。僧問。如何是不動尊。師云。驢自去馬自來。僧問。如何一體三寶。師云。一粥兩飯。僧問。一口氣不來。向何處去。師云。不是河南。便是河北。上堂。山河大地。草木叢林。皆是恒沙劫千佛數。刺你眼睛。無處回互。東山水上行。西河火裏坐。驀卓拄杖。下座。示眾。舉世尊臨入涅槃時。因文殊請再轉法輪。世尊召文殊曰。吾四十九年住世。未曾說一字。你請我再轉法輪。吾曾轉法輪耶。師云。文殊被世尊推倒了也。山僧若在當時。待世尊恁麼道。便白椎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康熙丁巳十月十六日。師至潤州八公洞漢隱菴示寂。世壽六十五。僧臘四十四。門人奉全身於漢隱之右。塔焉。

### 新安道仁行本禪師

新安人。參大覺老人於崇福。一日呈二頌。一拈花頌云。佛法本無法。粥飯家常話。以水相澆水。騙人又拈花。一外道問佛頌云。左山右水露堂堂。默付密傳豈商量。悟者方知人骨體。難把虛空作斗量。覺謂。師本不嫻文墨。以水澆水四字。却搔著山僧癢處。發明昔日事。却甚相當。復召師問云。你在靈山見世尊拈花時如何。師云。是他敗闕。覺乃豎拂子。謂眾曰。大眾道看。良久云。一絲寒撒千峯外。漠漠魚龍動地雷。師後開法於新安之華山。石塔在焉。

### 侍者曉雲行謀禪師

楚人。參大覺老人於報恩。發明已事。順治庚子秋。侍覺再奉 詔旨於萬善殿。陞座。師出問。口吞佛祖。還同入泥入水。有主有賓。因甚却在千峯頂上。覺云。正要闍黎恁麼舉。師云。直得宗風永振。萬類瞻依。覺云。過者邊道場圓滿。覺復陞座。師又出問。昔日趙州。今朝和尚。覺便喝。師云。有所譽者。有所試者。覺云。被你兩番鈍置。師云。却是行謀罪過。後歸楚。未出世而逝。

### 書記響雪行澄禪師

姑蘇長洲人。投大覺老人芟染。覺一日問師。如何是三十年不少鹽醬。師云。賣弄不少。覺遂休。

### 西堂琴水行韶禪師

世籍金臺。久歷講肆。參大覺老人於報恩。復侍覺入天目。發明已事。一日覺問。因甚頭角四蹄俱過了。尾巴過不得。即云。坐斷十方猶點額。密移一步看飛龍。覺印之以偈。有教河深入不濕脚。禪域窮幽見日枯之句。後歸金臺。示寂昌化寺。

### 常熟拂水地藏洪濟演禪師

絳州張氏子。隨大覺琇。應召於萬善殿。一日上同琇坐次。上問師。你那裏人。師曰。山西平陽。上曰。出家幾時。師曰。歲半。上顧琇曰。為甚者樣早。琇曰。疇昔願力。上曰。可曾悟道麼。琇曰。已見本來面目。上曰。如何是本來面目。師曰。今日親見陛下。上曰。和尚嚮。師曰。兩重公案。上大悅。為兩錢菴主掩關。小參。盡大地是箇關房。本無出入。盡大地是箇法身。本無動靜。既無出入。又無動靜。為甚麼今日特地。乃舉封皮云。還會麼。劃然坐斷萬重雲。鐵壁銀山須粉碎。

### 萬安法海祖山地禪師

元旦小參。師以拂子打圓相云。一年十二月。一月三十日。一日十二時。年年月月。日日時時。佛殿山門。燈籠露柱。胡張三黑李四。撞頭磕額拜新年。覲面相呈無彼此。放下拂子云。孟春猶寒。伏惟珍重。師問僧云。冒雨衝風去。披星帶月回。如何是塵中主。

進云。朔風滿面。師笑云。有勞闍黎。康熙丙午秋。師示微疾。語諸弟子曰。四大假合。吾不久於世。說偈云。金風颯颯飄黃葉。明月團團徧九垓。一句了然超萬有。不須特地妄疑猜。至十一月五日。集眾開示法要。遂命西堂超頂。繼居方丈。夜分時。趺坐而逝。世壽五十有一。僧臘二十有一。荼毗。獲舍利若干。越數日。猶有於草間得之者。戊申夏。建塔於本山。兵部尚書淮南龔鼎孳。為之銘。

南嶽下三十五世

### 五峯學禪師法嗣

#### 潭州大瀉養拙正明禪師

蒲州常氏祿山之仲子也。自幼慕出世法。二十辭親。薙髮於普陀。首參金粟。棒下不能領旨。一日見僧閱萬峯錄。有一歸何處話。猛力參究。時五峯學。居金粟西堂寮。師往請益。峯以竹篋打曰。眼觀一物即不是。但見絲毫便是塵。師當下心境兩忘。祇有箇事。如擔百觔擔子放不下。一日入室。粟問。你來作麼。師曰。挑水。粟曰。水桶在甚麼處。師擬對。粟劈頭便棒曰。打破了也。師從此發明心要。執役六年。有同參欲偕師住靜。師曰。我有三住靜。一本分事畢。二有兵戈難行。三無善知識開堂。我即住矣。後隨峰住大瀉。師為監院。示眾。大丈夫休擬議。翻身提起吹毛利。大鵬展翅絕遮攔。直透千重萬重去。師順治己丑春示寂。塔於本山之前阜。

#### 漢月藏禪師法嗣(十四人)

#### 蘇州三峰梵伊致禪師

海虞陶氏子。幼從寶巖朗公薙度。參三峰。令看竹篋子話。一夕聞松聲有省。峰問。子今在甚麼處行履。師曰。坐斷石牀鐘夜半。一聲寒鴈破雲來。峯頷之。天啟七年。繼住三峯。上堂。打破無明窟。何處為家。踏翻人我山。阿誰是主。入魔入佛。任運施為。喚馬喚牛。誰人指擬。水自流雲無去。水茫茫天無際。喝一喝曰。那箇是本來常住佛心地。師寂於崇禎戊辰。塔造本山。

#### 杭州兜率一默成禪師

錢塘黃氏子。年二十三。投真如寺薙染。入雲棲受息慈戒。次謁雲門圓具。尋參三峯。經七年不得契悟。時同參澹予垣。策之曰。此

事。因循多年。若不明白。如何折合。師直得愧汗浹背。而不能答。是夕坐至四鼓。垣舉竹篋話詰之。師擬對。垣以手騫掩師口。遂有省。乃曰。我會也。垣曰。會則且置。祇如生死到來時如何。師便喝。垣曰。一喝意旨如何。師曰。截斷老兄舌頭去在。遂趨方丈呈所得。峯頷之。一日侍峯。見僧請益三玄語。峯以手拈紅紙。翻覆示之。師忽然會得兩隻水牯牛。雙角無欄捲之旨。峯為之助喜。命居第一座。後出住橫山。僧問。如何是佛法的灼大意。師以拄杖拄其口曰。急急如勅令。僧擬議。師連打三棒。問。如何是向上機。師曰。虎頭生雙角。師寂於崇禎辛巳。壽六十七。臘四十四。塔於鄧尉。

### 潤州焦山問石乘禪師

竟陵熊氏子。參三峯藏。一日侍立次。有僧問藏。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時如何。藏震聲一喝。師從旁有省。出世海門焦山。次遷九峰。上堂。蓋天蓋地。通古通今。太虛不可喻其大。微塵不可喻其小。邪魔聞之膽裂。鬼怪觸之魂銷。且道。是箇甚麼。三頭木馬嘶風去。獨足泥牛吼月來。師歷主九峰正覺。太平興國。潤之金焦兩山。崇禎丁丑。何相國芝岳。請主白門天隆。數致書問道。己卯。楚王請師至武昌。於洪山小塔寺說法。晚居神山白雲。為逸老計。一日示微疾。集眾訣別曰。汝等當發精進勇猛。則悟理當機。無礙不破矣。乃書偈。趺坐而逝。時順治乙酉八月二十日也。壽六十一。弟子建塔於白雲寺後山之巔。諡慧照。

### 無錫華藏大樹證禪師

本邑朱氏子。上堂。揮拂子曰。指揮白拂。搜空五陰魔宮。拈拄杖曰。拈弄烏籐。打破十方佛國。豎一手曰。伸手而醉象驚回。彈指一下曰。鳴指而毒龍屈伏。此四句中。一句有賓無主。一句有主無賓。一句賓主全無。一句賓主全具。汝等有箇點得出也無。順治三年九月十六日示寂。壽五十九。塔於三峰。

### 蘇州瑞光頂目徹禪師

金陵栢氏子。參三峰藏和尚。因竹椅倒地作聲大悟。峰即助喜。繼主三峰。次遷瑞光。上堂。壁立萬仞處。陷虎機深。箭鋒相拄時。千鈞弩重。即今還有成禡瑞光者麼。一僧纔出。師便打。示眾。劈面一喝。壁立千仞。猛撞著打破觸體。直使石人。攣拳雙足。縮向

牯牛隊裏。驚起木魚。翻身[跳-兆+孛]跳。躍入毒龍湫裏。滿天風雨夜來歇。明月還從海上生。順治戊子九月八日。泊然而逝。建塔穹窿拈花寺右。

### 杭州顯寧澹予垣禪師

姑蘊朱氏子。狀貌豐碩。有玉彌勒之稱。十歲出家於太倉聖像寺。十九參雲棲。問。如何是佛知見。棲笑而不答。師疑之。次見雪浪於西山。及聽講於巢雨二法師。自念無得力處。日夕憂惶。最後參三峰藏和尚。稍有省悟。未得灑然。因與靈隱禮。阻雪長安鎮。屢承策勵。忽得契證。親炙三峰二十年。深入法奧。乃獲心印。僧問。三峰室中。嘗論臨濟三玄要。是否。師曰。三峰無此語。莫謗三峯好。曰和尚何得諱却。師曰。不特謗三峯。又來謗老僧。師住持八載。說法不容記錄。將示寂。僧問。和尚尊候如何。師曰。苦苦。曰善知識。焉得如此。師曰。未離三界外。還在五行中。僧無對。師曰。你道。者兩轉語。那一轉敵得生死。僧擬議。師喝出。書偈坐化。闍維。塔建本山。

### 杭州徑山具德禮禪師

會稽張氏子。幼耽玄術。長慕空宗。投普陀雜髮。旋遊講肆。聞三峰開法安隱。趨見之。力參本來面目話。一日窺鏡猛省。峰未之許。後充圍頭。運糞下山。因轉肩次。匾擔連[喬\*亢]。豁然了徹。機用橫出。叢林有鐵策之稱。峰舉師為維那。綱紀一眾。未幾辭去。及聞峰掩關鄧尉。師亟歸省覲。受最後之囑。崇禎戊寅。出世雲門光孝寺。次遷安隱顯寧及靈隱諸處。陞座。野老門外不留佛祖。正勅既行。佛祖門外不留野老。諸侯避道。所以此事在野老。野老不知。在佛祖。佛祖不會。會麼。文殊出女子定不得。德山不會末後句。驗敵勝於全輸。黃檗耳邊吐舌。臨濟肋下還拳。捋虎鬚於既敗。佛曰者裏。總不與麼。動輒馬前相撲。撲倒便休。還有向馬前相撲者麼。時有僧出。掀倒禪牀。師便下座。歸方丈。示眾。識得自己。用得山河大地萬象森羅。識得山河大地萬象森羅。用得自己。且作麼生說箇識得用得底道理。晚參。山門八字開。日用事成堆。露柱牙如劍。燈籠眼似眉。惡發時。狼心虎面。歡喜時。蜜棗甜梅。更有石敢當橫行直闖。惹得鐵獅子暴跳如雷。且道。為甚麼事。折梅花折梅花。上堂。禪。葉落山空久寂然。道。十字街頭鬧浩浩。佛。雕刻精工勝泥塑。法。看透牛皮無濟拔。良久云。大眾。禪道佛法。一時註破了也。汝等諸人。還在者裏覓甚麼盃。拈

拄杖下座。旋風打散。歸方丈。師住持十刹。行化三十年。而於靈隱獨久。晚居徑山。未幾。揚之天寧再請開法。師欣然往之。既至。衲子雲擁。師應機說法。倍於常時。甫經七日。命設闔山供。是夕。劇談過夜半。方寢。至五鼓。興起易衣。疾呼侍者。頓足一下曰。快。隨我上方去。侍僧亟至。而師已逝矣。時康熙丁未十月十九日也。壽六十八。臘四十七。師化後。挺身端坐。頂門火熱。三日後。門弟子以陶龕封函。迎歸靈隱。建塔於慧日軒。

### 蘇州鄧尉山剖石璧禪師

無錫鄭氏子。參三峯。得印心宗。上堂。有一句子。如青萍出匣逢物便揮。有一句子。如白雲歸洞捲無蹤跡。有一句子。如露地白牛藏頭卷尾。有一句子。如奔雷掣電暴雨疾風。顧左右云。會麼。三醉岳陽人不識。等閒飛過洞庭湖。上堂。臨時眼目千古絕同。或縱或奪。有始有終。電光莫及。石火罔通。若也擬議。白雲萬里。遂歸臥室。行數步而逝。塔建本山華嚴壇後。

### 蘇州靈巖繼起儲禪師

號退翁。上堂。一向與麼去。佛眼覷不見。驀地與麼來。晴空起雲雷。二途俱不涉。玉女正懷胎。拈拄杖曰。是男是女。卓一卓曰。石牛攔古路。一馬生三寅。上堂。黑月不見星。但依白路行。忽然踏著水。冷汗徧身淋。拈起拄杖曰。寶雲若不出隻手。未免道我暗地欺人。師歷主台州能仁國清。興化靈石天寧瑞巖。蘇州靈巖等刹。康熙十一年示寂。塔于堯封之頂。

### 蘇州華嚴于槃鴻禪師

常州蔣氏子。僧問。如何是大法。師曰。雙獅同鞦繡花毬。問。如何是向上事。師曰。猛虎驀頭騎。

### 常州祥符慧刃銛禪師

上堂。藤樹交加仔細參。竝頭拄杖語喃喃。夜深雙影抱明月。鞦作連環玉一團。示眾。石女穿梭織錦章。回文寫出舌蓮香。遙遙寄向多情者。花木春深意轉長。順治己丑七月二十二日示寂。塔于祥符寺之陽。

## 杭州安隱潭吉忍禪師

示眾。拈拄杖卓一卓云。千佛頂[寧\*頁]。與諸人一擊洞開了也。有撩起便行的。脚下好與三十拄杖。崇禎十一年五月十五日示寂。塔于祥符寺東。

## 湖州高峯碩機聖禪師

上堂。拳倒須彌山。趯翻大海水。帝釋與龍王。背負日月走。於一毫端。現寶王刹。坐微塵裏。轉大法輪。喝一喝云。被山僧一喝。直得藏身無地。還有相救者麼。又喝一喝。下座。上堂。拈拄杖云。趙州和尚來也。東門西門。南門北門。土曠人稀。相逢者少。僧問。如何是和尚為人句。師曰。阿誰欠少。

## 孝廉劉道貞居士

字長倩。號墨仙。蜀之印州人。因閱壇經。遂信嚮宗門。已而疊遭憂患。怖死念切。發意參叩。以大慧中峯二錄為指南。恒自鞭逼。每到言語道斷。心行處滅。眼前如銀山鐵壁。愈不放捨。如是者十八年。崇禎辛未。下第南遊。一日因大樹證公。自虞山來。往扣之。忽於言下。心地豁然。述偈曰。妙喜老人。無風起浪。咄哉三峯。添鹽合醬。跳出雲門觸背關。夜懸明月青天上。峯命之入室。乃問。不得有語。不得無語。士撫掌一下。峯曰。速道。士大聲曰。黃鶴樓前鸚鵡洲。峯曰。未在。士以手掣扇於地。便禮拜而出。厥後。峯書法語。并拄杖授之。後歸印州。當張憲忠陷蜀。屠戮無遺。羣議自免。公曰。如何提筆寫得箇降字。被執席地。罵不絕口。頃坐而逝。有問道錄續錄。行世。

## 破山明禪師法嗣(十二人)

### 楚南武岡雲山勝力燕居德申禪師

西蜀忠南李氏子。上堂。捲起簾見天地。鳥語溪聲明歷歷。將東籬補西壁。今日猶然是昨日。有時拈起吹毛劍。萬壑千巖血滴滴。諸仁者且道。利害在什麼處。參。太守楊公請上堂。公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老僧今日上堂。公擬議。師便打。乃曰。識風鼓動巉峨走。一根拄杖不離手。昨日曾打慶陽王。今朝又打楊太守。

諸上人會也麼。直教赤尾化成龍。不許金毛變作狗。卓拄杖。下座。

### 成都昭覺丈雪醉禪師

內江李氏子。襁褓時。禮古字山清然師為徒。性冲澹。于世邈然。因讀法華經。乃至一舉手或復小低頭皆以成佛道。默計曰。成佛與麼易耶。遂質本師。師罔措。圓具後。遍參諸方。至破山問。僧問雲門。如何是佛。門云乾屎橛。意旨如何。山作臥勢云。老僧不參禪。祇愛伸脚眠。師疑駭動靜。如一箇有氣死人相似。一夜。因倒穿了鞵。脚套不上。擬伸手拔。忽然有省。參天童。一日上太白頂拖柴。因竹簽傷足。血迸污地。忽聽榔鳴聲震山谷。忽然大悟。進方丈作禮云。某甲有些暢快。密作聽勢。師便打噴嚏。密打云。那裏失利。來者裏拔本。師又兩喝。密連打云。翻不暢快了。師拂袖便出。復至蜀謁山。山問。你從南方走一回。帶得什麼寶物來。師豎一拳。山曰。別我七八年。一點氣息也沒有。師曰。若有氣息。則不歸了。山肯之。後住成都府雪居禪院。上堂。白牛山裏上堂。東勝神洲打鼓。石頭瓦礫揚眉。草木禽魚起舞。從上先聖頂門。盡是時人窠窟。若也觸途成滯。問取燈籠露柱。晚參。山僧一夏已來。妄談般若。生身墮拔舌犁耕地獄。正與麼時。阿誰隨侍溪聲。首座云。自作自受。師云。我識得你。復云。既是無人替得。冥應眾緣。毫髮不爽。因甚三門廚庫。被蠓蠓蟲吞却。老僧於須臾頃。遊徧一十八重地獄。末後為眾兄弟。撥轉今昔關頭去也。拽杖打散。歸方丈。上堂。斷谷蘆邊繫艇。氣逼華亭。奔濤浪裏揚絲。聲驚歲老。且不犯清波。如何通信。烏雞半夜銜珠去。玄兔天明抱玉回。上堂。物物有密語。直捷直到底。七佛祖師來。兩眸擡不起。林下人十中有九。覷捕不及。時大憨維那一喝。師云。好人不肯做。又去屎裏臥。示眾云。靜明無隔夜禪與人參。復拈拂子云。而今有也。拂一拂云。到與麼也未。

### 大竹百城著禪師

奉節縣沈氏子。出住順慶興國。上堂。運水搬柴只自知。神通妙用總由伊。算來不費些兒力。何必三三兩兩疑。僧云。不疑底人來也。師云。須彌山王。在那一劫中。與你說破。僧沉吟。師便打上堂。劈不成兩。捏不成團。是箇甚麼。指足云。一隻草履。爛却半邊。不得周全。上堂。秋蟬聒耳。黃葉點牀。鬧中取靜。喪我兒郎。畢竟如何。鐘樓對石塔。山門向池塘。師因雪背師兄問。道得

一句。是吾真弟。師打一掌。背休去。師云。不可向鬼窟裏作活計。背呵呵大笑。師云。也未見得。師入堂。楚湘驀抱云。正恁麼時如何。師打一掌。湘沉吟。師又打一掌。師圍爐。湘隨至。問云。畢竟如何。師拈火示之。湘後契悟。師云。你何不謝我。湘拈一粒豆。置師碗中。師云。今日收得一主冷賬。

### 寂光豁禪師

果城南充楊氏子。幼負出塵之志。父母鞿鞜不許。遂持金剛經為業。年三十。父母繼逝。遂投法雨禪師落髮。南詢至漢上。因兵戈阻隔。至一菴。見壁間偈云。求佛在己。須彌在心。要行三岐路。便問去來人。疑曰。作麼生是心。阿那箇是去來人。致疑不已。偶聞瀑布聲有省。後于破山老人座下。了明大事。出世住佛子寺。上堂。拈拄杖云。心若無事。萬象俱空。靈機運轉。森羅齊舞。所以本師和尚云。把住也真金失色。放行也瓦礫生輝。把住放行且置。且道。作麼生是心。良久云。還委悉麼。紅菡萏花三四枝。紫旃檀塔六七級。卓拄杖下座。上堂云。金峯崢嶸秀。疊嶂破雲烟。鷲嶺排空外。直泉瀉碧淵。觀花開夢眼。擊竹悟心源。珍重參玄士。我無道理傳。上堂。舉拄杖云。識得拄杖子。却被拄杖子礙。不識拄杖子。亦被拄杖子礙。識與不識。都來打壞。是法平等。如天普蓋。含靈疏親。頓超三界。

### 豐都二仙覺城明柱禪師

上堂。昨日今朝。元無有定。劈面拈起。如泡如影。坐斷淨名佛頭。倒行摩竭正令。擊拂子曰。野狐窟裏產麒麟。獼猴各佩軒轅鏡。

### 射洪清果不會法禪師

南充楊氏子。上堂。至玄至要。至難指踪。石火弗及。電光罔通。回頭轉腦。喪却家風。一念知非。耳熱面紅。是箇甚麼。為萬物宗。遂舉拄杖曰。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

### 鳳山興隆深省純禪師

佛誕上堂。豎拂子曰。會麼。當日瞿曇降誕。指天指地。即是者箇消息。今日諸人還會麼。擲下云。四十九年說不盡。兒孫不踏葛藤

窠。

### 四川寶光笑宗行密禪師

上堂。不離當處。本地風光。力破重圍。頓超十地。氣吞佛祖。眼蓋乾坤。縱奪隨宜。卷舒自在。所謂以大圓覺為我伽藍。身心安居。平等性智。正眼看來。何異今日。以拄杖一卓云。風流不在搽紅粉。肌骨生成格外奇。上堂。僧問。混沌未分時如何。師良久。進云。分後如何。師便打。進云。分與未分時如何。師連打。乃云。大方無外。大圓無內。今古混融。凡聖同類。瓦礫生光。須彌粉碎。無量法門。百千三昧。卓拄杖云。總在這裏。切忌他覓。摩訶般若。蘇嚕嚩哩。

### 重慶崇因慧覺行衣禪師

上堂。路本平夷。行來即險。眼分明暗。看自成盲。見不及時。眼毫萬丈。行不到處。壁立千尋。脚跟下踏破。地竅天關。隨處通衢直捷。眼睛底刺瞎。傍觀正視。管取見諦精明。到此時節。掀翻漆桶。直步大方。擺手出長安。逍遙諸國土。所以道。不移寸步。遊歷三千。弗越片時。融通今昔。上堂。無屢屢門闢。盡力扣難開。沒關鍵堂奧。放身挨不入。脚下紅絲未斷。手頭瓦子欠靈。一向信二疑三。致令進五退七。是以。只在籬壇外打之遶。不得穩密處坐一坐。諸禪德。可中若有箇通方上士。勇猛丈夫。不顧危亡。[拚-ム+去]著性命。自肯單刀直入。管教坐享成功。倘或三搭不回。一任東西南北。何故。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把手牽伊行不得。惟人自肯乃方親。喝一喝。佛成道上堂。六年忍餓苦辛勤。一點明星刺眼睛。剛道瞿曇成正覺。依前日午打三更。

### 雙桂福國雲橋水禪師

上堂。隴頭梅雪鬪芳開。密把陽春細剪裁。寒盡天清星斗現。無端瞿氏歎奇哉。

### 衡州開峯密行寂忍禪師

上堂。一念未生。全體獨露。止妄求真。迷封覺路。青山綠水。顯揚古佛家風。鵲噪鴉鳴。祖意全彰露布。明明不覆藏。歷歷無回互。

## 重慶華巖聖可玉禪師

上堂。念佛一聲。火急漱口纔起二見。眨鐵圍山。金屑落眼成翳。好事不如無。到者裏。忽有人道。和尚說得盛水不漏。無一針鋒許縫罅。即不無。要契他達磨魯祖藥山維摩。不啻鄭州出曹門。老僧正要問你。藥山維摩。置之不論。達磨魯祖。向你道甚麼。莫向鬼窟中作活計。

## 費隱容禪師法嗣(八人)

### 福州黃檗隱元琦禪師

福清林氏子。甫十歲。仰觀天星有觸。遂銘志出家。薙染黃檗。徧歷講肆。後參徑山容。有省。一日呈百丈再參公案頌曰。一聲塗毒聞皆喪。徧野觸髅沒處藏。三寸舌伸安國劍。千秋凜凜白如霜。容深肯之。上堂。舉熏風南來話。師曰。熏風南來。寒毛卓豎。擬涉思量。無本可據。順治初年。日本國主。嚮師道化。遣使三請。始為日本開宗。佛殿。巍巍堂堂。坐斷十方。正當與麼時。好與三十拄杖。何故。不見道。斫却月中桂。清光應更多。上堂云。今朝十月初一。箇箇鼻孔條直。百千無量法門。卓拄杖云。總在者裏頓入。會則信手拈來。填溝塞壑。不會。且搭在九郎田畔。一任風吹日炙。上堂。金風體露。萬木凋殘。行脚高人。急著眼看。明月灘頭休著脚。蘆花影裏出頭難。驀拈拄杖。卓一卓云。且把一聲歸去笛。夜深吹過汨羅灣。下座。

### 嘉興金粟百癡元禪師

閩之漳浦蔡氏子。參費隱於黃檗。便問。人境雙忘。安身立命在什麼處。容連棒打出。師從此疑情頓發。一日入室。容問。動絃別曲。葉落知秋。汝作麼生會。師呈坐具。容曰。是甚麼時節。作此去就。師擬開口。容便打。師于棒下豁然。佛涅槃日上堂。生不惜莖眉。死猶露雙足。一等賣風流。令人常憶著。休憶著。年年二月十五日。遍地花開紅閃爍。下座。

### 湖州武康資福靈機觀禪師

解制陞座。一冬與諸人眉毛廝結。今日擬欲開交。且道箇甚麼即得。若道去有鉤鉤汝。未免按牛頭喫草。若道住。有錐錐汝。也是

平地起堆。爭如鉤也不施。錐也不用。一條古路。八字打開。一任諸人南天台北五臺。逗到羅紋結角之際。忽然踏斷石梁橋。擊碎玻璃盞。寒拾豐干。非從外見金毛師利。覲面相逢方知。資福一片婆心。為汝諸人徹困。下座 封鍋示眾。山僧今晚封鍋。不為別事。只為諸兄弟。檐囊挈盃。不憚身力。到資福者裏。箇箇盡為參禪學道。了脫生死。然既為此大事急切而來。豈可孤負。故特就此急切處置一問。只如禪作麼生參。道作麼生學。生死作麼生了。若向者裏。著著有出身之路。答得一語相契。不妨依舊開鍋。大家同住。若答不得。便請撿點行囊。各各散去。資福無閒飯與汝喫。虛度光陰。打闕過日。蓋緣邇來祖道衰微。禪風澹薄。正因衲子把參學禪道。了脫生死。一段大事因緣。却成虛設。良可悲哉。故山僧今晚捋下面皮。不避嫌謗。逆行此令。弗圖門庭繁盛。只貴正眼流通。乃顧左右曰。出來道道看。一僧曰。文不加點。師曰。你者一語在禪上著。道上著。生死上著。僧云。和尚撿點看。師曰。情知你未諳落處。慣弄虛頭。僧無語。師以拄杖旋風打散。歸方丈 示眾。驀豎拂子云。者便是當年鷲嶺拈花微笑一著子。箇裏見得。瞿曇頭陀。一肩擔荷。正法眼今古洞然。涅槃心永劫不磨。掃却從前露布。那涉迷悟誘譎。既無迷悟誘譎。汝等眾兄弟。在者裏覓甚麼盃。以拄杖旋風打散。歸方丈。

### 杭州慧雲本充盛禪師

泉州吳氏子 上堂。參禪須是鐵漢。上大人。著手心頭便判。丘乙己。直趨無上菩提。佳作仁。一切是非莫管。可知禮也。審如是。一切障礙。即究竟覺。得念失念。無非解脫。成法破法。皆名涅槃。智慧愚癡。通為般若。雖然如是。更須知有佛祖爪牙。衲僧巴鼻始得。拈拄杖卓一卓曰。還知麼。意氣不從天地得。靈苗豈藉四時催。

### 杭州長安覺王千峯立禪師

開爐上堂。敲冰打凍。須資手眼玲瓏。琢聖陶賢。貴在鉗錘緊密。擲明珠於爛草堆邊。置靈符於死柴頭上。頑金鈍鐵。一鎚打正。利劍剛錐。從頭按過。不用揚塵簸土。更勿帶水拖泥。照用同時也。燈籠起舞。露柱伸腰。人境俱奪也。萬籟吞聲。乾坤失色。猛烈漢當爐不避。央庠主鑿壁偷光。指尖畫出飛禽迹。未是作家。脚頭踏斷流水聲。亦非俊傑。縱饒猛虎口中找舌。驪頰頷下奪珠。千尺井底運機籌。百尺竿頭施伎倆。猶未堪入覺皇爐鞴在。卓拄杖下座。

## 鄂州興陽獨冠敬禪師

王司李至。上堂。腦後圓光。萬別千差俱照徹。驀頭風雨。從教徧界骨毛寒。拋却家珍。掀翻舊案。懸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拍禪牀曰。隔江招手橫趨去。爭似今朝見面親。頌高峯枕头話曰。攜魚沽酒江邊樂。醉臥蘆花不及歸。開得眼來天大曉。一聲欸乃過前溪。

## 嘉興金粟石菴行瑀禪師

崑山楊氏子。解制上堂拈拄杖卓一卓曰。明明無結。何處有解。諸人向者裏明得透得。不起一念心。照察十世古今。不動一步脚。歷徧百億神洲。碎須彌為芥子。散空界作微塵。機不停位。用不停玄。驅牯牛於欄外。曳占波於西瞿。直得五湖四海。同歸皇化。百千日月。不離者裏。大眾且道。正恁麼時。解制一句。作麼生道。春山青。春水碧。芒屨踏斷萬重山。觸破指頭心便息。喝一喝。卓拄杖。下座。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吳王臺畔石嶙峋。曰。學人不會。師曰。橫看成嶺側成峯。

## 福州羅山法海白嵩俊禪師

宜興周氏子。上堂。逆拔拳頭提正令。三世如來齊乞命。一張狗口利如刀。尋常專罵諸方病。要人火急立地搆。拔楔抽釘曾不吝。禿驢若不打殺人。撞著怨家打殺定。何故。誣人之罪。以罪加之。僧問。如何是羅山主中主。師曰。禿掃帚銜金勒馬。曰。如何是賓中賓。師曰。爛麻繩走簸箕方。

## 朝宗忍禪師法嗣

## 贛州寶華諾諾行導禪師

金陵劉氏子。上堂。豎拂曰。大眾會麼。覲面相呈。不須擬議。直下承當。了無忌諱。掉轉鎗旗仔細看。大機大用似兒戲。孤兔盡潛蹤。龍象皆恐懼。掀翻彌勒釋迦。說甚德山臨濟。且道。正當恁麼時。一句作麼生。放下拂子曰。子房終不貴封侯。

## 石車乘禪師法嗣(二人)

## 嘉興金粟息乾元禪師

武原俞氏子。從普淨菴受業。參天童悟。看本來面目話。偶觸飯器有省。上堂。玄機獨唱。截斷眾流。祖印高提。千差頓絕。突出衲僧巴鼻。闡揚諸佛宗猷。萬魔窺覷無門。十地魂驚膽喪。若也放一線道。便乃有賓有主。有事有理。高低普應。左右逢源。大方獨步。自由自在。祇如祝聖開堂一句作麼生。雕弓已挂狼烟息。萬姓謳歌樂太平。

## 吉州龍須資國眉菴秀禪師

號文素。金陵夏氏子。上堂。威音那畔。攜手同歸。十字街頭。相逢不識。十字街頭。攜手同歸。威音那畔。相逢不識。若也個儻分明。一生參學事畢。康熙癸卯。燈節。有弄獅子到山。是晚師陞座。問眾曰。既是假獅子。為什麼亦能跳躍。若是真獅子。為甚不解齧人。眾佇思。師曰。老僧收煞去也。以手左右指曰。真獅子假獅子。都過兩邊著。祇如哮吼驚羣。坐斷真假一句。作麼生道。和聲打觔斗而出。眾皆罔測。越數日。忽示微疾。始知別眾語也。至二十四午刻。沐浴更衣。泊然而化。世壽六十。僧臘三十七。全身塔於本山之後。

## 萬如微禪師法嗣(二人)

### 荊谿龍池素巖淵禪師

頌雲門乾矢橛洞山麻三觔曰。雲門矢橛洞山麻。絞索澆蔬用著他。識得其中奇特處。長來茄子大如瓜。

### 無錫南禪古鏡符禪師

上堂。禪禪。仰之彌高。鑽之彌堅。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是處池中有月。誰家竈裏無煙。雖然如是。不是一番寒徹骨。怎得梅花撲鼻香。小參。若有一法。不成法身。若無一法。不成法身。天際日上下。簷前山高水深。知有的。十箇手指八箇叉。不知有的。有飯喫飯。有茶喫茶。一任行住坐臥。何妨柳巷花街。若有道伴交肩過。此事分明說向他。阿呵呵。會也麼。直饒會得。也不是我同流。何故。南禪不肯撒泥砂。

南嶽下三十五世

本陳忞禪師法嗣(二十人)

明州五磊達變權禪師

上堂云。一代時教。是箇切脚。畢竟正文。無人道著。當的帝都丁。必彬班豹剝。圓通無礙底。七縱八橫。局守一隅底。無繩自縛。義隨文而文隨義。歷歷明明。珠走盤而盤走珠。灑灑落落。卓拄杖云。分明舉似作家。切忌胡穿亂鑿。就中演出妙伽陀。定慧圓明無住著。上堂。劫前運步。孰是知音。格外橫身。誰當辨的。二聽絕聞其響。五眼莫睹其形。直饒威音那畔承當。未免打作兩橛。縱使却來者邊行履。也應難許十全。有佛處不得住。抹過恒河沙國土。春風孰道在花枝。鸞鳳不栖荊棘樹。無佛處急走過。夢鎖關空成險墮。莫守寒巖異草青。休戀白雲深處坐。有無不住絕商量。妙用縱橫迴異常。熱盃晝鳴翻古調。鐵牛夜咭換新腔。螻蛄眼裏放夜市。卓拄杖云。須信吾宗別有長。

明州五磊拙巖懷禪師

示眾。牛頭北馬頭南。突出虛空向上談。大地山河齊起舞。頭陀迦葉也癡憨。前三三後三三。端的無勞宿草菴。卓拄杖曰。還委麼。者裏廓然俱放下。百千剎海一毫端。示眾。不是心不是無不是物。一一為君都拈出。鬢頭垢面老寒山。却是十年歸不得。歸不得。朝朝雞向五更啼。日日從東畔出。堪笑無端王老師。殘花落地無人拾。大眾還會麼。一回雨過一回溼。卓拄杖下座。解夏示眾。問。文殊七佛之師。因甚出不得女子定。師云。你在那裏見他出不得。僧擬議。師打云。十萬八千。進云。罔明乃下方初地菩薩。為什麼出得女子定。師云。切莫錯認定盤星。進云。若恁麼。喚什麼作定。師打云。打破蠲體來。與汝相見。

越州平陽天嶽本晝禪師

楚黃蕭氏子 上堂。冬至陽生好箇令。且衲子工夫。打成一片。露柱搖船。燈籠到岸。光陰一線長。佛法長一線。豎拂子召大眾曰。山僧瞌睡方濃。今日見所未見。擊禪牀下座。

### 台州廣潤巨靈蝸禪師

新安陳氏子 上堂。神機迅捷。蓋是尋常見。徹骨髓未為極則。從上以來。有許多老骨董。向搯[打-丁+(天/韭)]堆頭。拾得一隻破草鞵。在牀子上。撐眉努目。壓良為賤。若是祖師意。不曾道著。返累宗風掃地。乃召眾曰。且道。恁麼有扶持處也無。卓拄杖曰。看看。祇緣生在千峯上。不得雲擎也出頭 示眾。淡雲啼破鷓鴣天。雨後平塘濕柳烟。珍重往來行脚者。莫將玄妙污心田 問。如何是三教。師曰。耕種耘田割稻。曰三教之義。何者為最。師曰。波斯鼻孔下頭羸 落堂示眾。東單下板頭。打鐘黑漆皮。燈籠止靜觸目。若見聖僧。自不辜負露柱。拽拄杖便出。

### 嘉興金粟天岸昇禪師

金壇陳氏子。弱冠。從姚江高原雜染。謁天童忞圓具。參那吒析骨因緣。有省。作華嚴五十三頌呈忞。忞稱善。後繼席青州大覺。及忞奉詔入京。舉師立僧。後遷金粟 上堂。收得蕙江雲。滿載剡溪月。跨鶴度錢塘。賽彩雙白璧。描也描不成。畫也畫不出。佛手驢脚與生緣。趙州輸勝不輸劣。阿呵呵。饅頭餽子齊拈出。餐則任君餐。切忌齧破舌。金牛大笑君何拙 上堂。澗水繞山房。白雲抱幽石。此時林下人。活計天然別。却怪德山臨濟。星布碁列。攬蜆撈蝦。豎拳行喝。好與捉來。朝打三千。暮打八百。因甚如此。清平世界。不容草竊。師寂於康熙癸丑十一月二十四。全身塔於姚江栖雲之右麓。

### 漳州龍牙雲叟住禪師

示眾。紅滿枝綠滿枝。邛邛綠暗與紅稀。黃鸝語杜鵑啼。底事聲聲苦勸歸。春已暮樹不華。狼藉枝頭恨轉賒。擲下拄杖曰。一片何人得。流經十萬家 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折筯攪滄溟。曰忽遇客來。將何看待。師曰。爛炒浮漚滿滿盛。

### 臯亭佛日山曉哲禪師

晚參。不著佛求。不著法求。現成公案。日照山丘。黃鶴峯依然高聳。天衣泉不斷長流。驀拈拄杖。卓一卓云。千年石鼓音重震。却賴桐魚有地頭。晚參。問。清淨行者。不入涅槃。破戒比丘。不入地獄。意旨如何。師云。鐘聲披七條。進云。高沙彌不受戒。軌則安存。佛日寺演毗尼。涇渭可辨。畢竟受者是。不受者是。師云。趙州東壁掛葫蘆。乃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滿口道著。爭柰諸人不肯直下承當。然則畢竟如何。起身云。山僧住持事繁。不暇東西葛藤。藥師佛誕辰上堂。盡十方是箇琉璃世界。盡十方悉成箇網莊嚴。於中山河大地。明暗色空。水鳥樹林。胎卵溼化。莫不皆由藥師本願之所建立。即今恭肅壇儀。一燈一香。一花一果。以至現前一問一答。亦皆藥師本願之所成就。既歷歷如是。畢竟喚甚麼作本願。兩手擎杖云。還委悉麼。燈光燦丹桂香。莫教錯過古醫王。卓拄杖下座。解七。舉天如則禪。師云。金剛圈被人透了。栗棘蓬被人吞了。老倒揚岐。伎倆已盡。天如則不然。禪客相逢。但只道箇咩咩。管取吞不得透不得。師呵呵笑云。恁般舉揚。何異以五十步笑百步。佛日又則不然。禪客相逢。遇飯吃飯。遇衣穿衣。有什麼吞不得透不得。現成公案。各與三十棒。

### 揚州興化龍珠森鑑徹禪師

示眾。衲僧家。立志要堅。卓絕依倚。如獅子游行。百獸絕跡。如孤鶴翔於空外。如片雲點太清裏。無適無莫。視成佛作祖。猶是目翳。豈有他哉正當恁麼。百千善逝。舒金色臂。同聲讚善。爛嚼熱涎啐一面。何故。我王庫內。無如是刀。上堂。正行不踏草。正見無不了。正得不富家。正言不作巧。若人會此四語。則臨濟三玄。玄沙三病。曹山三墮。一時而了。如若不會。須要鏟却案山草。師寂於康熙癸酉十二月。世壽八十四。僧臘五十九。塔於維揚之平山。

### 金陵天寧古田元禪師

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秋蟬鳴翠柳。

### 黃州黃陂素山沖然義禪師

於燕京西山。一僧。戴雲尖帽。穿朱履。著跨鶴衣。拜曰。和尚還識得否。師拈棒曰。不是儒不是道。俗人頭戴僧官帽。連棒打趁。其僧渾身脫却赤體。問曰。和尚如今如何識我好。師亦打曰。脫却

皮毛換却骨。難逃法眼破重迷。僧悲感禮謝而退。康熙壬戌春。師預期辭世。至二月十八午時。上堂訣眾。叉手而逝。塔建本山。

### 廬山西林以夫可禪師

字博凡。姑蘇人。依顯聖脫白。看念佛是誰。默提猛切。一日忽於路次觸石。有省。後謁弘覺忞於天童。始承心印。出住虔州仰坪雙峯。次遷真如西林。小參。談玄說妙。太平之奸賊。行棒行喝。亂世之英雄。畢竟如何。心不負人。面無慙色。晚參。殺人刀活人劍。喝一喝曰。是殺耶。是活耶。一僧出曰。和尚性命也不顧。師曰。果然。僧佇思。師曰。蒼天蒼天。師寂於康熙癸亥八月初二。春秋六十有八。僧臘四十六。塔於虎溪之南。

### 蘇州虎邱節巖琇禪師

小參。毛吞巨海。不撓魚龍。芥納須彌。無傷樹木。且道。是什麼義。戴嵩牛臥綠楊陰。韓幹馬嘶芳草地。晚參。華嶽有頂。洞庭無蓋。臘月蓮花。石人腰帶。文殊乃七佛之師。因甚出女子定不得。低聲低聲。罔明乃下方菩薩。因甚出得。低聲低聲。行盡天涯諳世事。老君頭戴楮皮冠。

### 桐城清泉靈遠應禪師

上堂。師舉當山元白尊宿。示眾畢。喝一喝下座。師云。老尊宿若無末後一喝。洎無合煞。然。此喝中有縱奪殺活之機。驅耕奪食之略。嚇殺曹家女。折却石鞏箭。瓊樓玉殿。直下瓦解冰消。妙法蓮華。管教絕根敗蒂。縱有齧釘嚼鐵者。喪膽亡魂。設或脫死超生底。何處出氣。蓋伊得處鹵莽。親從太白山前大爐鞴中出來。一味承當。本自密師翁棒頭取證。非同掠虜之漢。豈比昧己之流。故乃高揮大抹。起廢興衰。克紹宗乘。丕振家業。恢復泐潭清泉天柱。唱太平華。蓋大寧雖則六座道場。却成千載一遇。然雖如是。且道。者尊宿具何眼目。有如斯作略。喝一喝云。大鵬奮展摩霄翅。那顧奔騰六合雲。五燈全書到山。陞座。五燈發耀。二桂騰芳。肇自世尊拈花迦葉微笑。教外別傳之旨。始此流通。見性成佛之言。亦布華夏。自唐至宋。分為五宗。元明以來。祇存二派。數百年間。其論說不一。或以天王天皇。疑案不決。或以日覺自覺。強捏一人。削五代之源流。排兩世之法祖。蓋因道原當斷。大川欲刪。使頂眼不具者。藉以譌傳。捕風捉影。流妄自穿鑿。俄爾突出聖感

輯成全書。華嚴復參較閱。遭遇 聖恩屈尊鑑定。御制序文 恩賜。梨版刊布天下。使天下學佛徒。知其源委無復紛爭。天王天皇。不告而顯白。日覺自覺。不考而允詳。更使洞下五代之源流。還歸本位。濟宗兩世之法祖。不動如山。蓋以大公無我之心為心。定千古不易之道為道。(臣)僧本應。今日得披全書。知其的據。恭爇瓣香。以酬 聖德。大眾還委悉麼。但見皇風成一片。不知何處有封疆。

### 信州章巖獻可寂禪師

中秋上堂。十五日已前。半開半合。十五日已後。全放全收。正當十五夜。靈機密運。大地平沈。圓陀陀發明本地風光。淨裸裸露出生前面目。無一處不是真乘。統十方咸歸寶所。廣寒虛碧月華新。天桂飄香金井落。以拂子打○相曰。大眾見麼。是處倚欄人盡望。不知秋色落誰家。揮拂子下座。

### 湖州道場山神山瀛禪師

立春晚參。目前無法。泥牛背上霜刀刮。意在目前。額點黃金賀鐵錢。不是目前法。凍折老梅先破臘。非耳目之所到。春風吹動無根草。好大哥。了不了。羚羊挂角無蹤。休向枯椿尋討。擊拂子 晚參。舉五祖頌龐居士問馬祖不與萬法為侶話曰。一口吸盡西江水。洛陽牡丹新吐蕊。簸土揚塵沒處尋。無端撞著自家底。師以拂子指曰。演祖走入牡丹花裏去也。被馬大師一擲粉碎。直得芬菲繚繞。徧界殘紅。龐老迴避不及。突出拂子頭上道。覩透祖師關楸子。妬花風雨更多情。

### 越州烏石南雲暉禪師

楚黃麻城田氏子。上堂。驀卓拄杖曰。珠回玉轉。草偃風行。有眼者見。有耳者聞。烏石巖畔翠竹。全彰佛祖心印。慶壽堂前白日。裂破露柱面門。不妨行棒行喝。揭却衲僧腦蓋。坐斷報化佛頭。一任龍吟霧起。虎嘯風生。直得拄杖子吞却十方世界。敢問諸人。山河大地甚處得來。以杖卓一卓。喝一喝曰。我為法王。於法自在。

### 洪州寶峯大雷慶禪師

鼎州武陵賈氏子。年十五出家。十八受具大瀉。徧參名宿。後謁平陽弘覺恣。機契命充第一座。出世豫章能仁同寧廣福大寧寶峰菩提六剎。上堂。入門便喝。果然佛法無多。劈脊便棒。何關樞機。竭世。攢花簇錦。空闕大道之淵。厭死欣生。未脫識情之表。衲僧家。眼光爍破四天。毛孔橫吞大地。從阿娘肚裏出來。便作獅子吼。猶未是性燥漢。還肯恁麼那。擲拂子下座。

### 越州翠峯懷光燦禪師

上堂。出入同門甚是奇。相呼相應兩相宜。今朝已訴衷腸事。總有旁觀那得知。既有旁觀。為甚不知。乃顧左右云。只為山僧所說一味土音。不能聳聽。教諸人如何辨得。上堂。山僧正欲斂伽黎。戶後松風闌大機。若謂偶然成底事。難陀迦葉皺雙眉。喝一喝。下座。

### 新州龍山國恩曠圓行果禪師

佛成道日上堂。皎潔明星耀碧空。無今無古粲然同。苟能著眼雲霄外。便即橫身宇宙中。寒竹依牕搖瘦影。野梅臨澗度香風。二千年事如何舉。旭日初生海畔紅。喝一喝。下座。

### 金陵蔣山芥菴大禪師

小參。捲簾除却障。閉戶成塞礙。祇者障與礙。古今無人會。無人會。三箇成羣。四箇逐隊。君不見。臺山路上驀直婆。明州市裏憨布袋。晚參。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大眾。如何是你形山底寶。一僧云。月色和雲白。松聲帶露寒。師云。我不答對。不吟詩。只要問你形山底寶。僧禮拜。師云。禮拜且置。雲門道。將山門來燈籠上。又作麼生會。僧擬議。師便喝。一僧拜云。深領和尚者一問。便出。師復喚來云。領後如何。僧云。密不通風。師打云。將謂是南番舶主。元來販私鹽漢。小參。秋風清秋月明。梧桐葉已落。丹桂又香生。長空歷歷雁過。高樹啾啾蟬鳴。說甚西來祖意。太煞十分現成。楊美之郭君建。不依本分。錯路修行。來我興善寺裏。朝三暮四。念他白雲。老子底上大人。乃呵呵大笑。歸方丈。晚參。入院以來一月。人事奔忙不徹。日日愁米愁柴。佛法無暇打疊。大眾。一體人情苦苦。煎逼要說。大似欠他錢債。還本還利無歇。興善雖則臂長袖短。今晚不免盡情抖搜了罷。遂提起衣袖。連抖數抖云。大眾多得不如此少得。少得不如此現得。年

窮歲畢以後。再不要上門上戶來索取。晚參。若起紛飛之心。即究紛飛之處。究之無處。則紛飛之念自除。返究究心。則能究之心安在。正恁麼時如何。抱石投江。

### 石奇雲禪師法嗣(四人)

#### 台州淨居湛菴常禪師

四明鄞邑吳氏子。依金粟悟。得度圓具。隨悟遷天童。因陶瓦乏人。命師執役五載。每求進堂。悟曰。此事不拘內外。貴在篤信。師即矢志不進堂。決於透徹。以作堂外榜樣。一夕閱悟語錄曰。何不向棒頭指處看。忽然知得棒頭落處。悟許之。示眾。一言不相赴。知君太罔措。即此罔措時。便是汝出路。擬向別處討。驢年不得了。年老覺心孤。誰知多落草。康熙甲辰夏。師示微疾。集諸弟子。囑以法門要事。遂怡然而逝。塔於方巖之東隅。

#### 明州大梅法幢幟禪師

溫州瑞安林氏子。崇禎戊辰。舉進士。因謁聞谷大師。令看死貓頭話。有省。祝髮參雪竇。舉一宿覺再來話。竇曰。上座還承當得麼。師曰。承當不是好手。竇曰。迴避不得又如何。師默契其旨。住大梅。人稱常師再來。小參。蒼山碧水。古佛家風。枕石鋤雲。道人活計。只今已辭密印。初到蓮峯。金風吼無畏之音。紅樹鋪十分之錦。蘆鴻嚙嚙。箇中消息全彰。籬菊叢叢。徹底風光漏洩。會則頭頭俱妙。物物皆靈。所以道。烟島雲林。咸提妙旨。霜柯月渚。竝可傳心。何必樓閣門開。方參慈氏。福城東際。始見文殊。既然。如是則老僧七尺烏藤。到此全無用處。正恁麼時。且賓主歷然。全放全收一句。又作麼生。驀拈拄杖曰。有時卓向千峯頂。劃斷飛雲不放高。卓一卓。下座。康熙丁未夏。示微疾。應接如故。八月十二。說偈辭眾曰。七十五年閒打闕。總無奇特出常倫。而今撒手懸巖去。一任諸方說幻真。凡有問者。惟書十三。指以示之。至十三日。吉祥而逝。塔於白門吹臺之麓。

#### 處州椒山律牧制禪師

紹興謝氏子。年二十。禮崇勝悟空老宿得度。看本來面目話。竟無所入。乃往天童乞戒。時石奇雲為闍黎。一日師問。如何是某甲本來面目。雲便掌。師擬再問。雲以手掩師口。忽大悟。崇禎十七

年。雲主雪竇。命師典維那。順治十七年九月。始秉衣拂。出住椒山。次住雪竇 上堂。一九與二九。相逢不出手。楊岐驢子湖狗。踏破虛空顛倒走。只箇渾身沒處藏蹤跡。知他何所有。因甚街頭石敢當。凍得通身白汗流。師晚年退居雲蓋。至壬戌二月十七日中夜。索筆書偈曰。堂堂無去亦無來。體露真風絕點埃。七十一年端的處。漫隨流水入天台。擲筆而逝。塔于雪竇妙高臺側。

### 明州雪竇宏遠紹禪師

族姓王。越之觀海衛世胄也。母一夕夢老人送和尚入室而誕。師總角脫白。參天童悟。看念佛是誰。力究不契。後謁石奇雲於靈鷲。看雲門東海鯉魚話。有疑。一日侍雲次。直旁僧舉問此話。雲便打。僧又問。雲又打。僧再問。雲復打。師見之忽然大悟。乃曰。可惜許三棒也無一點。雲曰。你又作麼生。師拂袖曰。大雨來也。便出。呈頌曰。一棒雷轟雨似傾。翻身倒擲打雲門。如今覲面無回互。東海西江一口吞。雲然之。歷住海岸南廣諸處 上堂。十一月望日。萬里一條鐵。臨濟與德山。是甚乾矢橛。如今藏在乳峯前。為君拔却頂門楔。別別試看。千山凜寒色。師生萬歷丙辰四月三十日。寂於康熙戊辰十一月十九日。壽七十三。臘四十九。塔建東山之陽。

### 牧雲門禪師法嗣(十人)

#### 蘇州西華秀峯岫雲行瑋禪師

長洲顧氏子。年十二。投虎丘西隱房本如披薙。參牧雲門於古南。命師為第一座。一夕晚參。門曰。心生大歡喜。自知當作。只是下面一字。山僧續不來。請大眾續看。師出眾曰。賊。門可之。乃以衣拂源流授之。出興秀峯。次住虎丘興福 上堂。初夏日長。五更月皎。庭前罌粟花。紅底紅紫底紫。池中新荷葉。大底大小底小。山僧睡在牀上。忽聽得鐘聲雞聲。一齊報曉。穿著長衣起來。看看。祖師西來意。狼藉知多少。便下座 小參。舉不顧即差互擬思量何劫悟。瑋上座。即今舉也。新月如弓。霜風如箭。普請諸人。照顧頭面。康熙丙辰六月。師示微疾。二十一日沐浴更衣。留偈曰。吾年六十七。世緣今已畢。長歌歸去來。扶桑日初出。泊然而寂。塔全身於吾家山麓。

#### 嘉興祖燈崇己峻禪師

吳興施氏子。年二十五薙染。參牧雲門於天童。得蒙印可。上堂。寒風凜凜。夜雨瀟瀟。鶴鳴松頂。雲臥山腰。空劫前事。不異今朝。當陽契入。今古全超。不與一切透漏。不與一切動搖。有意氣時添意氣。不逍遙處也逍遙。康熙甲寅夏。師示疾至九月九日。乃沐浴更衣。謂眾曰。此是甚麼時節。眾曰。正午矣。師曰。胥山東北。虛空迸裂。如說而行。正是時節。且道。老僧行到甚麼處去。眾中。還有道得底麼。眾無語。遂大喝一聲而逝。塔於菴之左。

### 越州明覺寶掌雪厂道白禪師

字冷翁。蘇州鈕氏子。上堂。妙辯非干舌。譚玄口不開。鴉鳴及鵲噪。蚯蚓舞三台。百口同一舌。并將致問來。一僧出欲作禮。師曰。拈却門前下馬臺。示眾。半雨半不雨。千峯布袋裏。欲晴不得晴。淡日吐圓睛。我也惺惺。你也惺惺。若也見未徹。新羅昨夜打三更。示眾。臘月過半。風雪如箭。壁破茅疎。撲頭撲面。好段機緣。無人能薦。贏得飢禽牕外來。啄啐梅花三兩片。問。洞山君臣。臨濟賓主。是同是別。師曰。刻空求鳥跡。師歷主梅墅彌陀至大報恩王城法雲。康熙丁巳十月十八辰刻。索筆書辭世偈。并封龕等語。擲筆怡然委順。預建塔于寺之東隅。孫司馬魯。為之銘。有語錄。雪響集。救正錄。及雲門方外志若干卷。行世。

### 金陵蔣山佛國南音言禪師

別號真鈍叟。海寧凌氏子。年十九薙染。尋謁古南門。一日同門泛舟。見岸上桃花盛開。門因舉靈雲玄沙公案詰之。師曰。風吹柳絮毛毬走。雨打梨花蛺蝶飛。門頷之。後歸里養親。以忍大師有養母堂。因名其院。曰黃梅。歷主真相匡菴清溪之圓覺諸刹。上堂。師吐舌曰。還見山僧舌輪上。放大寶光。演摩訶衍法麼。遂喝一喝曰。癡人面前。豈可說夢。便下座。上堂。小暑一聲雷。倒轉作黃梅。風吹兼雨打。愁雲撥不開。忽然撥開時。六月日頭。晚娘拳頭。雖然。不打情理難容。山僧與麼說話。得休休處。且休休作甚。為山作甚牛。擲拂子。下座。師於康熙甲寅九月二十五日。集眾說偈曰。烏龜白玉身。矢橛黃金相。誰悟涅槃空。海門孤月上。泊然而逝。壽五十六。僧臘三十六。塔於黃梅院後。

### 蘇州無量可生慈禪師

歙州程氏子 小參。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即神。如是則全真即體。全體即真。在凡不減。在聖不增。在凡不減。眾生度盡恒沙佛。在聖不增。諸佛何曾度一人。雖然。恁麼且道。山不是山。水不是水。一句作麼生會。卓拄杖曰。自是不歸歸便得。五湖烟景有誰爭。

### 南嶽法輪石隱貞禪師

江西武寧劉氏子 上堂。生擒虎兇。活捉獐龍。驅耕奪食。點鐵成金。若據本分提持。直饒釋迦老子。出廣長舌。也道不得。達磨祖師。用盡神通。也指不出。且道。法輪憑箇甚麼。便開此大口。乃橫按拄杖曰。橫按鑊錐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 上堂。法輪貞長老。恰似打油匠。不管菜子桐子山茶子。一齊收拾榨床上。冷也一撞。熱也一撞。撞得一點氣息也無。翻轉籬來。還要加上兩撞。且道。為甚如此。良久。顧眾曰。是則名為報佛恩。師寂於康熙庚申五月一日。塔建岫嶠峯之頂。

### 廬山圓通崇勝雪堂耜禪師

原字雪田。示眾。風不來樹不動。癩蝦蟆。休鼓弄。良久顧眾曰。會麼。楚雞不是丹山鳳。萬杉僧參問。和尚者裏。有兵過麼。師曰。一箇東瓜如椰子。大重七十觔。僧茫然。師曰。不消鹽蘸。僧問。廬山有多少高。師拈拄杖作量勢。僧曰。畢竟有多少高。師便打曰。恁麼高。僧茫然。師痛打出。

### 德安孝感獅子古鑑圓禪師

本邑胡氏子。從達聞老宿雜染。首參天童悟。次依雪竇雲。經八載。後見古南門。詰其悟處隱密。命居第二座。終夏辭歸。門曰。何不相隨久住。師曰。某甲將古南。歸楚去住。門曰。汝甚有神通。師曰。相隨來也。門喜之。遂題頂像授之。師歷住黃草山龍池獅山等處 結制上堂。法王大寶。本自圓成。頂上髻珠。古今不昧。不須外覓。豈假他求。驀卓拄杖。若向者裏擔荷得去。則知火爐頭畔不費鉗錘。獅子院中愈增光彩。苟或未然。山僧今日翻轉面皮。結却布袋去也。復卓拄杖。下座。

### 廬山直指尼圓鑑玄禪師

邑之曹氏女。幼出家。詣報國受具。嚴持律範。初參金粟悟。禮拜次。即豎拳。悟便棒曰。者箇是甚麼。師曰。千聖不識。悟曰。放下著。師曰。放下箇什麼。悟乃休。後謁古南得法。掩關虞山。黃淳耀進士。一日到關問曰。久慕關主。師曰。貧道總不識。士曰。啟口即是葛藤。要師全提。師曰。放下著。士大悅。錢宗伯夫人問。如何是萬法歸一。一歸何處。師曰。秀水年年秀。青山歲歲青。康熙癸丑二月十一日。無疾忽命剃頭。沐浴更衣。趺坐說偈曰。七十三年假借名。了無一法可當情。而今四大隨機散。曾向檀那致別聲。遂怡然而化。語錄年譜行世。

### 如如懶人方為戒居士

歙州人。韶年。即有志向道。一夕。夢幅巾道者。引至揚州三叉河寶塔下。視塔影欹斜。命士將塔扶正。士開塔門著力。醒來通身汗下。覺身心世界一空。盡古今只是一箇自己。并自己亦不可名狀。述偈曰。夢中作夢宛然真。耳聽何如眼聽親。泡影堆中拈實具。大千活句屬吾人。自此遣妾茹素。求道益切。一日謁牧雲門於鶴林。門曰。不生不滅心響。士曰。弟子今早渡江。門曰。江上風浪惡。如何過得。士曰。舵柄在弟子手裏。門曰。即今登岸。也舵柄響。士曰。本寺伽藍米公做。門曰。米公與你。有甚交涉。士揖曰。即刻拜別和尚。門笑而頷之曰。梅子熟矣。乃付以偈曰。靈山花下別。京口渡頭逢。君今如是去。千載起吾宗。後求雜度。門曰。可構靜室。不必出家。便化同人。堪稱希有。

### 浮石賢禪師法嗣(五人)

#### 極樂獨癡□禪師

示眾。昔汾陽高臥巖穴。士大夫仰慕風采。八請不赴。聞聰公一語。遂幡然而出。以致道滿天下。亦幾曾有定法來。老僧未到極樂。慣自貶駁諸方。既到極樂。且聽諸方貶駁。況肩祖宗之任。可畏法道之難行乎。多見邇來後生晚學。纔入叢林。便不務進道。一味希圖飲食。豐隆寮舍。穩便師家。待之寬厚。蚤得印可。則喜與之認真。鉗鎚則嗔。全不思行解相應。名之曰祖。智過於師。方堪傳授。嗚呼。吾宗至此。誠可痛哭流涕者也。常言。寧可將身替大地眾生。受地獄苦。終不以佛法當人情。廣求利養。取鬧門庭。我報恩老人。初赴海門三山寺請。因僧問如是和尚家風。老人云。老來住箇破院子。有鼓無鐘響不全。僧云。或遇客來。將何款待。老

人云。非惟庫房無茶菓。抑且雲厨少米炊。當年不肖子云。老人何得作者般話語。若是上根利智底。自然守得窮耐得苦。若是小知小見底。又爭怪得他窮廝煎餓廝炊。築著磕著生煩惱。老人云。惟在闍黎三十年後。挽回天童清白家聲。不至墜地。是所願也。親承教益。終不敢忘。昨晚在方丈。挑燈靜坐。已及三鼓。忽然思量老人天覆地載之恩。此生如何報答。惟諸碩德。朝斯夕斯。切磋琢磨。必期造到佛祖極則田地。方成了事。道人之名。誠不愧矣。珍重。

### 江西寶藏範圍澤禪師

吉安五雲人。陳氏子。一日喫飯次。見飯中黑殼蟲。有省。說偈曰。米裏蟲米裏蟲。元來面目與我同。呵呵一笑平生樂。諸佛眾生俱夢中。呈報恩賢。即印可。後繼席天童。上堂。赤肉團上。壁立千仞。只此靈鋒。阿誰敢擬者裏薦得。結解迷悟向甚處著。而今事不獲已。起模畫樣。於無綫續處立綫續。於無繩索處立繩索。要使諸人。九十日中。驀地跳出綫續。迸斷繩索。直得萬象森羅起舞。百川大海騰波。到者箇時節。正好喫寶藏拄杖。何故。太平寰宇斬癡頑。

### 海寧東寺洪衍灝禪師

上堂。吾有一語。未敢輕舉。今正是時。卓拄杖曰。記取記取。上堂。我宗無語句。實無一法與人。雲門紅旗閃爍。臨濟熱喝雷奔。良久曰。剛刀雖快。不斬無罪之人。

### 潁州弘戒鈍斧濊禪師

上堂。生也不道。死也不道。螃蟹橫行。蝦蟆直跳。本分衲僧。不得草草。卓拄杖下座。一日寺僧涉訟。師亦被累。即怡然陞座。說偈別眾而逝。淮徐備兵使者聞之。率同官羅拜。士民集資。建塔于寺後。

### 太平澄心寄菴潔禪師

僧問。色身敗壞。如何是堅固法身。師曰。今日風頭太硬。僧喝。師曰。作家。僧纔拜。師劈脊一棒曰。急著眼戲。僧大笑。師曰。你疑我與你葛藤那。僧又拜。師復打曰。第一不得忘却。

## 林野奇禪師法嗣(八人)

### 荊谿芙蓉自閒覺禪師

蜀之合州徐氏子。周歲失母。父携禮馬山太虛老宿落髮。未幾。父喪。既壯。徧歷講肆。後遊吳越。依天童悟有年。無入處。因見林埜奇於閒住寮。問。參禪不得力。過在甚處。奇曰。莫妄想。師曰。畢竟如何。奇曰。鋪柄長斧柄短。師愈加迷悶。苦心力究。一晚排遣。驀撞露柱。透徹心宗。適奇應廣化請。師隨侍。一日。奇舉興化擯維那。你如何會。師曰。為人須為徹。殺人須見血。奇然之。順治辛丑十二月二十五日。師書偈曰。天上天下。脚頭脚底。撩起便行。將頭作尾。阿呵呵。風流不在著衣多。一曲歸家唱哩囉。擲筆而逝。塔於屏風山。

### 台州鴻福慧日昇禪師

一字妙高。邵武馮氏子。上堂。鴻福好消息。天開百萬峯。山巖呈瑞色。物物展春容。門前石鋸欽禪虎。堦下池歸聽法龍。更有現前諸衲子。相將圍繞箇邨翁。將南作北。指西話東。紫羅帳裏撒珍珠。信手拈來用不窮。簸箕量去渾無別。熨斗煎茶皷不同。上堂。打開布袋口。放出遼天鶻。冲破九重雲。山青與水綠。梅花笑雪。正眼舒開。正恁麼時。解制一句。作麼生道。鬧中拶出橋尸迦。咭噉舌頭三千里。

### 蘇州太倉香林佛果聞禪師

西蜀潼川張氏子。上堂。聲色裏坐。聲色裏臥。冷地商量。早成蹉過。堪笑楊岐三脚驢。踏倒嵩山破竈墮。師善定力。每坐則竟日不起。

### 溫州護國古泉清禪師

上堂。一大事因緣。如天普蓋。似地普擎。歷歷明明。輝今鑑古。一擊效透鐵壁銀山。一彈指啟千門萬戶。或孤峯頂上臥月眠雲。或十字街頭拖泥帶水。發大機顯大用。無一物不彰至理。無一法不示真機。使人人眼光燭天。箇箇脚跟點地。正當恁麼時。格外明宗一句。作麼生道。白雲片片來天外。徧界聲光亘古今。

## 廣德崇化了悟能禪師

蜀之墊江李氏子。上堂。震法雷鳴法鼓。雲從龍風從虎。一毫纔動體全彰。無限真機俱顯露。正當與麼時。且道。承誰恩力。喝一喝。師後遷太平府之昭明。未幾。返石溪。康熙癸卯五月五日。示疾告終。門人因忌此日不吉。乞師另擇以祐後來。師更延二日。復鳴鐘集眾。更衣端坐而逝。壽七十。臘五十二。全身塔於本寺之右。

## 天台萬年無礙徹禪師

荊谿朱氏子。年四十。體達微老宿脫白。謁林野奇於通玄。一夕入室。奇問。人人有摩醯正眼。如何是汝摩醯眼。師震威一喝。奇隨聲便棒。師於棒下頓豁。說偈曰。棒下虛空碎。摩醯眼豁開。者回端的後。從此絕疑猜。奇首肯。後命繼席通玄。上堂。赤手屠龍。空拳搏虎。世間稱為豪傑。若到衲僧門下。且過一邊。果是克家種草。終不向無佛處稱尊。偏於鬧中插足。橫拖布袋等箇人來。紫羅帳裏撒珍珠。捏雙空手。便與八大龍王鬪富。且畢竟如何。拈得寒山秃掃帚。掀翻蜆子酒臺盤。卓一卓下座。上堂。慧刃纔施。羣魔匿跡。獅王一吼。百獸逃形。掃盡野狐涎。掀翻獅子窟。向萬八峯頭上。放出臨濟爪牙。活捉獰龍猛虎。平田淺草裏。重整普岸門庭。從教起鳳騰蛟。是以。風行草偃。水到渠成。坐斷聖凡。全機獨露。到者裏。說甚還丹一粒。點鐵成金。至理一言。轉凡成聖。直饒一莖草現瓊樓玉殿。微塵裏轉大法輪。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猶是奴兒婢子邊事。可中有箇漢。未免道長老會下。能得幾人敢開如許大口。良久云。豈不見道。八萬四千非。鳳毛祥麟。只有一隻角。

## 桐鄉寂照芥子彌禪師

示眾。頌國師三喚待者因緣。一度風光一度新。黃鶯喚醒舊時春。檀郎無限傷心處。不敢高聲說與人。頌大梅即心即佛公案。一領羊裘一釣竿。任他更改漢衣冠。朝秦暮楚何時了。潦倒西風十八灘。

## 香巖宕山遠禪師

上堂。青蘿夤緣。直上寒松之頂。樹倒藤枯。却使瀉山笑轉新。白雲淡竚。出沒太虛之中。萬里無雲。任是青天也喫棒。萬法本閒。

而人自鬧。不涉動靜。端的別是一壺天。諸仁者。祇如香巖。今日還是有生耶。無生耶。應世耶。出世耶。拈草建刹耶。逢場作戲耶。卓一卓云。須知撲落非他物。始解縱橫不是塵。上堂。問。世尊拈花。迦葉微笑。且道。笑箇甚麼。師云。忍俊不禁。問。如何是如來禪。師云。絡索不少。進云。如何是聲聞禪。師云。說那自了漢作麼。乃云。時及黃梅。連日好雨。田中有水。栽秧園裏。黃瓜結瓠。各得滋潤。勃然興起。蝦蟆唱歌。蚯蚓念讚。情與無情。悉皆歡喜。祇有兩件不喜。衲僧家。貼肉汗衫脫不下。通身悶熱。不得慶快回香巖的。俶裝前途。不得到家。且道。如何是到家慶快處。擲下拂子云。即今休去便休去。欲覓了時無了時。師至棗邑。與李文學邂逅次。李言。格物至誠。心正功夫。師云。據吾教中。一念具九十剎那。一剎那具九百生滅。人心如猿猴驛馬。居士。心作麼生正。意作麼生誠。李擬語。師云。居士祇知格物。而不知物格。李罔測。

青原下宗鏡六世

瑞白雪禪師法嗣(二十三人)

弁山龍華久默音禪師

語溪李氏子 上堂。化母動乎煦氣。王孫生於燒痕。鶯梭亂擲軋軋機聲來柳上。燕翦頻開紛紛雲影落風前。春服既成。誰是著者。

瑞州洞山孤崖聰禪師

湖廣應城李氏子 示眾。拈如意曰。新豐洞裏。嘯月臺前。中有一機。覷面渾然。魔外不識。佛祖不傳。全該五位。橫括三玄。翠竹搖風聲細細。清流出谷響涓涓。

舒州三祖破闇燈禪師

桐城汪氏子。目有重瞳。少為諸生。出家閱楞嚴有所得。首謁無異來。尋參弁山。山見便問。那裏來。師曰。金陵。山舉竹篋曰。金陵還有者箇麼。師曰。非但金陵無。即今亦不有。山打一竹篋曰。甚處學得者箇頭來。師曰。適纔新到。尚未洗浴。一日山拈拄杖曰。阿誰是汝本來。師曰。剛被人借去。山曰。何不呈似老僧。師曰。若呈似即在也。山打一棒。師接住曰。棒頭有眼。山曰。子。已後坐斷天下人舌頭去在。小參。春風急野鳥啼。山山水水。綠暗紅稀。會得者。風流滿目。不會者。認影迷頭。果是箇丈夫兒。爭可受人欺。翻身一擲虛空外。鼻孔依然向下垂。上堂。全機敵勝。作者猶迷。曲為今時正偏兼帶。到者裏應須功勳不立。明暗兩忘。活卓卓。倒弄橫拈。虛豁豁。圓常靜應。發明臨濟玄要。照用並行。提掇為仰機輪。渾融境致。點開法眼相義。言前獨露。縱奪雲門三句。北斗藏身。雖則機權互換。要且偏正交羅。妙在功勳不犯之先。用向賓主未立之際。果到恁麼田地。一任橫抽寶劍。伐邪

見稠林。棒喝交馳。掃野狐穿鑿。況比來法門。不古祖道。如殤慧命。有繫卵之危。宗乘有墮地之患。承此任者。夙興夜寐。當以大法為懷。斯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上堂。霜花匝地。泥牛飲盡吳塘月。雪刃攢空。木馬嘶乾九井風。到者裏。威臨剎海。德被神洲。列賓主於棒下。驗正偏於言前。有時奪人不奪境。有時奪境不奪人。有時人境俱奪。有時人境俱不奪。說甚麼德山臨濟。就使文殊普賢到來。亦是茫然。諸昆仲。寒威凜凜。燄燄冰河連底結。山光鬱鬱森森枯木盡銀花。非惟殺活縱橫。亦且與奪自在。師於順治十六年六月十三日示疾。告眾曰。來便恁麼來。去便恁麼去。遂豎指曰。會麼。明月一輪天柱外。摩空老鶴出雲霄。語畢而逝。塔全身於三祖寺。

### 南昌百丈石澗泐禪師

餘姚周氏子。上堂。拈拄杖云。放之則彌六合。橫拄杖曰。卷之則退藏於密。不放不卷時如何。溪山雨過添新翠。又被風吹落短篷。擲拄杖云。迫。上堂。以兩手踞案云。獅子嘖呻。復顧視左右云。象王回顧。震威一喝云。家無白澤之圖。必無如是妖怪。

### 寧州雲巖元潔瑩禪師

江都莊氏子。上堂。苔生玉殿。尊貴未忘古路。悄然話會猶在。縱使拈一機千機萬機頓赴。如刻人糞作旃檀香。舉一句千句萬句朝宗。似持蠡殼量大海水。到者裏。格外超宗底。正好朝三千暮八百。若是抵死十成底。未有喫棒分在。所以道。我宗無語句。亦無一法與人。舉如意曰。道吾舞笏同人會。石鞏張弓作者譜。上堂。正按傍提。是弄獼猴家具。一椎百匝。徒教露柱心空。放風前箭。展末後機。巧不如拙。賊來便打。客來須看。眼不似眉。若論佛法。即使口似懸河。舌如利劍。者到者裏。也不敢舉箇元字脚兒。何故。一任鑽龜打瓦。從教塞壑填溝。

### 荊谿善權百愚斯禪師

上堂。踏翻琉璃瓶。阿誰寶惜。擊碎珊瑚樹。遍地光生。撒珍珠於紫羅帳裏。砌瑪瑙於碧玉階前。不守功勳。渾忘尊貴。所以道。夜明簾外。快且翻身。荊棘林中。那容住足。祇須作而無作。為而無為。世法佛法。併作一團。者邊那邊。混融一致。驀豎拂子曰。大眾。正與麼時。是何人分上事。玉兔月中生彩鳳。金雞架上產祥

麟 解制上堂。江楓乍落秋空老。體露金風涼月皎。滿堂衲子促行裝。頂笠腰包過別島。者山又見那山高。路債區區何日了。若是金毛獅子兒。爭肯隨羣入荒草。快翻身舒牙爪。一聲哮吼震乾坤。野干狐狼踪跡杳。遂喝一喝曰。還有不隨羣逐隊者出來。與山僧拄杖子相見。上堂。溢日好風光。不須更別討。檻外鳥關關。峯頭雲渺渺。人皆愛月夜眠遲。我獨惜花春起早。驀拈拄杖曰。會得也。與三十拄杖。不會得也。與三十拄杖。何故。負恩者多。知恩者少。

### 蘇州金僊蕃光璨禪師

江南朱氏子。出家參弁山。山問。誰與你拖死屍到者裏。師曰。一帶青山藏古寺。山曰。意旨落在甚麼處。師擬議。山痛叱打趁。師通身汗下。憤感曰。真吾師也。次日。進堂逼拶。到寢食無知。心胸難過。忽五更聞遠村雞啼。有省。但心中猶不自肯。出山掩死關六閱月。一日見關後樹果墜瓦上。觸發從前寶惜。遂渙然消解。冬至上堂。六陰逼盡一陽生。困海沉鵬眼略睜。雖然未解垂雲翼。時節相逢俊不禁。諸昆仲。會也無。堪笑趙州老。東壁挂葫蘆。

### 衡州大義山且拙訥禪師

上堂。白椎竟。師曰。即此一句。已是一杓惡水潑人了也。遂作振衣勢曰。山僧者裏。幸無半點交涉。汝等各自照顧。祖師門下。單刀直入。眼目定動。萬里崖州。何況道黃說白。問三答五。堪作甚麼。雖然如是。曲為初機。未免略露些子。助揚法化。伸掌召眾曰。看看。盡法界微塵佛刹。悉在山僧指尖上。不消一捏。便見粉碎。住弁山上堂。一言道盡。猶是半提全體承當。未為究竟。直得塵塵三昧念念無為。祇好作箇了事閒人望。衲僧境界正遠在。到者裏。反著袈裟。倒拈錫杖。推出刀山劍樹。排列馬面牛頭。魔宮佛窟。一齊掀翻。地獄天堂。咸恣遊戲。此時始有語話分。設若起絲毫許佛法知見。脚跟下更要三十棒。何故。我王庫內。無如是刀。

### 南嶽荊紫峯萬仞壁禪師

上堂。僧問。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畢竟喚作甚麼。師曰。鐵蛇穿古洞。曰直下薦取去也。師曰。瞎驢趁隊行。復曰。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大海乾枯。須彌粉碎。臨濟德山。開得眼吐得氣。鐵蛇橫路難迴避。獅子咬人。瞎驢成隊。風前轉憶謝三郎。不愛南山愛鼈鼻。上堂。告眾曰。參禪不能了脫生死。病

在依他作解。障自悟門。所以雜毒入心。醫王拱手。從今不許習學經典。及妄讀古德語言。時中要靠取本參話頭。定圖討見分曉。如違大棒。趁出山門。莫怪性燥。師於壬辰二月初二日。書偈曰。無盡生緣藏黑豆。十五日中俱洩漏。萬里神光今古圓。坐斷生來與去後。偈畢。趺坐移頃而逝。塔於荊紫龍岡之左。

### 湖州烏程獨園玄素體禪師

錢塘單氏子。上堂。日出心光耀。天陰性地昏。不知天地者。剛道有乾坤。喝一喝曰。與麼會又爭得。觀世音菩薩。將錢買餠餅。放下手來。元是箇饅頭。復喝一喝曰。與麼會又爭得。且道。前來一喝。與後來一喝。是同是別。良久曰。幸是無人證明。僧問。年去年來即不問。送舊迎新事如何。師曰。快便難逢。曰向上還有事也無。師曰。西天令嚴。曰梅花幾點相思怨。只許佳人獨自知。師曰。龍頭蛇尾。

### 嘉禾福善寺雲松品禪師

吳江桂氏子。參瑞白和尚。有省。復遍謁諸名宿。崇禎己卯。瑞。應豫章建安王百丈之請。師禮覲。當機撲碎法几上鼈山一座。為丈所稱賞。遂受記荊。示眾。定志凝神。總是鬼家活計。千差坐斷。更須眨起眉毛。正當恁麼時。如十日並照。千古洞明。有甚麼佛手驢脚生緣。還知黃龍老眼光。爍破四天下麼。喝一喝。示眾。穩密處徹頭徹尾。動轉際擒縱卷舒。者裏直下承當。猶是通身依倚。直饒向擊石火閃電光中。坐斷譎訛。更須知懷州牛吃禾。益州馬腹脹始得。卓拄杖曰。靈龜曳尾終成兆。離水鷗鵬宇宙昏。

### 越州梅山歷然相禪師

山陰王氏子。上堂。歷歷神鋒挂眼。明明寶鏡懸眉。變現六臂三頭。宛轉四方八面。直得三乘膽喪。十地魂驚。若非特達英流。對面如盲似啞。是以。過量者千斤不覺重。赤手不知輕。水底播紅塵。山頭翻白浪。且道。得何憑仗。遂拍案以兩手作修羅勢曰。還委悉麼不怕拔肺抽腸纔見出心露膽。示眾。風寒羞露面。日暖愛抽衣。法爾皆如是。知君到不疑。山僧也肯你一半。只如凍雲不歉自在。流泉不怕忙生。却又如何。山僧亦肯他一半。諸昆仲。你道。還有全肯底麼。時有僧出曰。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師曰。效顰不是良家女。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曰。三人擡

不動。曰莫者便是麼。師曰。八箇夜叉扛 問。世尊放光現瑞。智境全彰。祇如未放光前。智境在甚麼處。師曰。瞎。曰還有分明者麼。師曰。米貴柴荒。

### 衡陽西山邃谷源禪師

僧問。如何是歸根得旨。師曰。深崖藏白額。勸子不須行。曰莫便是和尚為人處麼。師曰。射虎不真。徒誇沒羽。

### 天台護國眠石蘊禪師

舒州懷寧潘氏子。別號嘯雲。初參博山天童。俱獲契證。後參弁山。問答罷。山曰。子猶滯功勳在。師疑悶不自安。忽聞雷震。乃大悟曰。信知悟後須得作家煅煉 上堂。者磬上座。大似強與安名了也。更欲山僧指註。豈非枝蔓上重增枝蔓。然。既難以獲辭。只得聊通線道。豎拂子曰。者箇取捨不得。背觸俱非。如大火聚。如吹毛劍。近之則燎却面門。觸之則喪身失命。

### 虔州崆峒不溢滿禪師

義真筴氏子。初參弁山。看拖死屍話。一日山呼茶。師擎茶至。山曰。擎茶者誰。師曰。某甲。山指花瓶曰。他為甚不擎茶。師從此契悟 小參。舉趙州勘臺山婆子因緣。頌曰。野外林禽弄日輝。一聲高調一聲低。東君別有拂人意。吹落殘紅滿釣磯 上堂。豎拂子曰。此事。諸方盡向奇特處會。殊不知羊質犬皮。披文為豹。每日叱佛罵祖。衒賣己才。扯東拽西。牢籠後俊。縱饒見超真俗。機貫古今。若到生死分中。全沒交涉。爭如山僧赤手空拳。閉門緘口。徑接上根。所以我為法王。於法自在。諸方。今日結制說禪。崆峒。今日解制放參。且道。手眼在甚麼處。咄咄咄。何所疑。野鳥叫寒枝。好箇歸家時。擲拂子。泊然而逝。塔於本山五位峯前。

### 虔州崆峒謂斯教禪師

上堂。自別白雲窩。相將半載多。驀拈拄杖曰。見麼。磊磊落落。婆婆和和。有時為道路指東話西。有時上孤峯無背無面。且道。事作麼生。復卓拄杖曰。依然立在烟霞外。畫斷天雲不放高 小參。少林有一機。青山常與白雲齊。曹溪有一語。填溝塞壑無知己。是以。把住則了無涓滴。放行則在處通途。直饒一一分明。正是徐六

擔板。須知把住中有放行。放行中有把住。諸昆仲。且道。過此二途。如何是本分事。時有僧出曰。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師曰。三十棒自領出去。

### 虔州興國獅子岩中也慈禪師

歙縣程氏子。浴佛陞座。今日天上人間。盡謂釋迦老子誕生。都將惡水去潑他。世尊被人潑得沒奈何。走在香烟堆裏道。昨夜夜叉形。今朝菩薩面。菩薩與夜叉。不隔一條線。穀山敢問世尊。只如夜叉形時。菩薩面在甚麼處。菩薩面時。夜叉形又在甚麼處。釋迦老子。被此一問。無言可對。又走在諸人脇下去了。請現前諸公。各各向己躬下摸索看。

### 湖州佛燈白巖博禪師

示眾。苕南佛燈。苕北積善。日照千山。雲摩霄漢。雨灑林邱。溪流白練。處處逢渠。曾無餘欠正。所謂竹籟松濤。露出金針玉線。諸仁者。見不見。打破黃龍關。拗折石鞏箭。青草窩中深復深。黃葉堆頭離背面。拍案曰。會麼。佛燈朗耀正乾坤。萬派從茲歸積善。僧問。如何是弁山境。師曰。兩株古柏勝蒼龍。一對清池如寶鏡。曰如何是境中人。師曰。策杖峯頭擒虎豹。溪邊掬水探驪龍。師示寂時。有貫慈上座。參師甚久。後依佛川義和尚於高峯。主人公話。得徹法源底。遂手書法偈。囑為師嗣。悟載佛川義章中。

### 越州蕭山道林離愚智禪師

示眾。毫釐繫念。三塗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祇如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祇者無字。你道。是何意旨。眾欲下語。師震聲曰。飯袋子。師於甲午季冬示微疾。寓北關紫雲精舍。十六日沐浴告眾曰。後事皆託弁山鏡法兄。只候十八日半夜。為我報知。我當行矣。至時。侍僧失報。師問曰。半夜也未。侍曰。過也。師即命焚香。端坐書偈曰。不出西關門。不入此關限。打破中間底。權且吾著便。擲筆而逝。世壽四十有八。法臘三十有四。塔於道林兜率寺前。

### 贛州鳳日本珠玕禪師

依弁山。苦究七載。一日瀑雨奔雷。師在樓凭窗。漠然不知者半晌。俄聞山上瀑水聲。豁然打徹。陞座。鳳日開場選佛。大家看取題目。不是五典笙簧。亦非三墳金玉。不用錦繡文章。不取琳琅翰墨。不說菩提涅槃。不論禪定解脫。不拈曹洞正偏。不施臨濟棒喝。既總不恁麼。且道。喚甚麼作題目。豎拂子曰。會得山僧素志。千崖把茆獨處。祈雨。師至龍王前。拈起香曰。會麼。若也會得。不敢喚你作龍王。若也不會。伏惟尚饗。拽拄杖便歸方丈。隨後雷雨大作。山主人室禮謝曰。謝和尚說法。天下都有雨了。師曰。莫塗污山僧好。示眾。靈明空廓。活卓無依。向之則背。親之則離。有言不是。無語亦非。雲封雪谷難為喻。月映蘆花類莫齊。搆不上底。墮身荊棘。東奔西馳。搆得上底。貪眠雪屋。忍凍耽飢。盡道迷時無悟。焉知悟處猶迷。祇如有佛不得住。無佛急走過。此人還有措足之地麼。喝一喝曰。切忌向鬼窟裏作活計。示眾。盡十方世界。還有別的法麼。若有。拈取一毫頭來看。若無。為甚麼頭頭顯露。良久曰。雞公嶂走八齋堂。四金剛兩手無措。師生於萬曆甲辰。至順治乙酉。無疾而終。塔於本山方丈。太僕正卿陳玉李公。撰碑。

### 青谿西水菴丹溟幢禪師

陞座。幢上座。於天啟年間。會得法身邊事。惟法身向上事。直至而今無消息。更教說箇甚麼。卓拄杖曰。淑景餘三月。鶯花已半稀。便下座。師示微疾。謂眾曰。努力修行。吾今去矣。泊然而逝。

### 佛川離言義禪師

上堂。有一句子。不居那畔。那畔親聞。嘗在目前。目前難覩。弁山不敢被蓋囊藏。直與當陽揭露。喝一喝。魏徐二公請。師為眾講宏傳序。師曰。山僧不是講師。僧問。如何是妙法蓮華經。師脫履示之。僧愕然無語。師穿履曰。可惜許。又問。如何是佛座高遠。師指先寶善像曰。此真。是甚麼人描底。眾皆罔測。師乃抽身。眾作禮而退。

### 紫梅淑安周禪師

師誕辰上堂。驀拈拄杖曰。不屬虎不屬龍。慣打東西南北風。十地三賢渾不識。造次凡流豈易通。且道。他本命元辰。落在甚麼處。

卓拄杖曰。咩咩 示眾。參須實參。悟須實悟。金鎖玄關。一拳打破。大凡學道之士。必先去其滲漏。且道。作麼生是滲漏。隨聲逐色是滲漏。護善遮惡是滲漏。愛聖憎凡是滲漏。承言滯句是滲漏。背暗投明是滲漏。專事棒喝是滲漏。馳騁機辯是滲漏。任你總不恁麼。亦是滲漏。若盡舉滲漏處。不可勝數。却不是逐件對治他底。只要置心一處。無事不辨。從上古人。盡是打者條路上過的。遂喝一喝曰。山僧恁麼告報。已墮入滲漏了也。卓拄杖下座。

### 麥浪懷禪師法嗣

#### 越州彌陀寺無迹敏禪師

上堂。靈犀玩月。彩鳳翔雲。至人作而萬物咸孚。大德鍾而羣英畢聚。說甚麼絕天維違地紀。擘華嶽逗黃河。稱奇鬪巧。駭俗誇育。總不如演教者裏。毛端現刹。插草成林。塵中能作主。化外自來賓。咳[口\*敕]一聲。也勝他玄音妙義。微塵一點。也當得華藏莊嚴。何故。不見道。大千世界入正定。一微塵中從定起。乃拍案一下。

### 石雨方禪師法嗣(七人)

#### 古虞象田即念現禪師

僧問。如何是佛種從緣起。師曰。香煙書梵字。曰不因修竹傳清籟。爭識孤松吼太虛。師曰。一般萃錦空山裏。霜葉雖紅不是春。

#### 劔浦無量來雲現禪師

越州蕭山汪氏子。年二十二。參石雨方和尚。蒙印記。次謁象田。充第二座。聞田舉竹篋示眾。會得者箇。肯他一半。會得那箇。全不肯他。師於言下釋然 上堂。徧界不曾藏。山河無影象。冉冉白雲流。小鳥啼花上。春去了春去了。細雨綿綿數不休。大悲千手難描樣。分明目前事。不是目前機。若還擬議時。早已龜毛長數丈。到歸菴上堂。白雲無倚。鶴不停機。綠水有舫。扁舟易渡。還有先行不到末後太過者麼。良久曰。分明踏在歸雲上。看到歸雲早已遲。

#### 龍塘遠門柱禪師

上堂。長松蔽日。修竹干霄。薰風入奏。殿閣生涼。任從溽暑蒸人。我者裏六月冷如冰霜。且道與眾苦不到處。相去多少。上堂。僧問。昨夜朔風凜凜。師曰。還覺寒毛卓豎麼。僧停機。師曰。凍殺了也。乃曰。朔風凜凜正嚴寒。葉落空林遍地丹。惟有衲僧一著子。本無榮茂與凋殘。師。著會元續略。行世。

### 杭州白巖位中符禪師

冬至開堂。道窮則變。日長一線。枯椿眼底動生機。小人道消微應驗。好消息急須薦。莫待一九二九。數到沿河看柳。依舊花飛片片。乃卓拄杖三下曰。大眾。向羣陰剝盡處。道將一句來。良久。眾無語。師曰。不妨親切。示眾。舉守廓到華嚴。值嚴上堂曰。今日若是臨濟德山高亭大愚烏窠船子兒孫到來。不用如何若何。便請單刀直入。華嚴與汝證據。見兔放鷹。廓出禮拜。起便喝。見義勇為。嚴亦喝。投桃報李。廓又喝。碁逢敵手不辭再。嚴亦又喝。琴遇知音豈厭三。廓禮拜曰。大眾看者老漢一場敗缺。復喝一喝。拍手歸眾。山當轉折處。幽媚出常情。嚴便下座歸方丈話。到無言際。此心愈見真。時。風穴作維那。上方丈問訊。者漢行年在坎。嚴曰汝來也耐耐。守廓適纔把老僧。扭捏一上。待集眾打一頓趁出。平地上撈甚魚蝦。穴曰。趁他遲了也。自是和尚言過。他是濟下兒孫。本分恁麼喪盡。殘生猶不知。嚴方息怒。水清魚不餌。空載月明歸。穴下來。舉似廓。自首者不足罪。廓曰。你著甚來由勸者漢。我未問已前。早要棒吃得我話行。如今不打。搭却我者話也。未必心頭似口頭。穴曰。雖然如是。已徧天下也。識甚好惡。復拈曰。華嚴攔頭。廓公把尾。鑑照鑑。空合空。唯二老心知之。若夫貪觀雲裏雁。失却目前機者。又何足道。雖然。二老恁麼做處。畢竟成得箇甚麼邊事。曲終人不見。江上數峯青。復喝一喝。師說法近三十年。每念宗風訛舛。遂不顧避忌。翻刻人天眼目考。著祖燈大統。及拈古彙集。頌古摘珠。并偶言諸書若干卷。行世。

### 餘杭南山普寧天愚寶禪師

建昌新城歐陽氏子。上堂。瓶鵝喚出明月。隨夜船而來。夢破指花。白雲依青山而轉。真機現而法法該通。曠劫消而塵塵解脫。了無罣礙。奪縱全超。灌陝府之鐵牛。驟空中之木馬。日暮歸來仔細看。依稀恰似天邊鶴。彈指曰。噯。

### 杭州徑山夢菴律禪師

結制上堂。橫拈玉筯攪龍門。未為通天作略。倒握金鞭趁虎穴。謾云向上鉗鎚。活人便用殺人刀。不過是毫末活計。寒冰中向火。烈焰裏乘涼。小廝伎倆。烏足稱羨。直須知釋迦彌勒猶是他奴。且道。他是阿誰。乃吐舌曰。會麼。向者裏透得去。不妨安居解脫。更說甚麼萬馬千軍。百匝圍繞。脚跟下活潑潑。自有通霄路。擲拂子。

### 杭州錢塘淨性紫仙陽禪師

海寧戴氏子 上堂。偏處不逢雲遮一帶峯巒。玄中不失雪覆萬年松徑。苟能於此薦得。一任靈機密運。展手通玄。寶印昭彰。當風得妙。橫抽玉線。繡出鴛鴦。倒弄金梭。織成古錦 上堂。金烏剗彩。玉兔收光。潛消一色。坐斷十方。正恁麼時。還有共相證據者麼。僧問。打鼓弄琵琶。還他一會家。未審。作家相見。有何言說。師曰。誰許妄通消息。曰豈無方便。師曰。莫嫌春迅速。彷彿過梅花。曰春花到處心花發。月落寒江別一天。師曰。莫錯認定盤星。曰明月峯前獅子吼。三千界外絕知音。師曰。非汝境界。師以年邁。尋遷會龍。為終老計。一日示微疾。垂誠諸子。諄諄懇切。至晚浴畢。書偈坐逝。

### 爾密復禪師法嗣(四人)

#### 紹興山陰清化惟岑巖禪師

荊州松滋縣張氏子 上堂。白雲淡蕩。紅葉飄飄。真機歷歷。古幹迢迢。木人撫掌。石女歌謠。針眼魚躍浪。夏蓋山[跳-兆+孛]跳。驚起廣澤龍王。駕霧冲霄。更有拄杖子。忍俊不禁。出來揚聲大叫。且道。叫箇甚麼。古今一段風流事。無端被人短販一遭 上堂。堪笑枯木老。娶他聾聵嫂。生箇白頭兒。世出世間少。海嶽盡掀翻。乾坤抖亂了。吞却日月光。至今無處討。殃及宇宙人。開眼不覺曉。經曰。是法平等。無有高下。只如破驢脊上蒼蠅。東廁坑裏糞蟲。還具佛法也無。若道有。則淨穢何分。若道無。則聖凡迴隔者裏下箇甚麼語即得。若謂春色無高下。花枝有短長。恁麼見解。更參三十年。也未夢見在。

#### 紹興嵊縣明覺寧遠地禪師

姑蘇馬氏子 上堂。洞山麻三斤。雲門乾屎橛。夜來相看呵呵笑。天明依舊沒交涉。沒交涉。捉得海東三脚龜。看來元是西江鼈。豎拂子曰。看看。拂子吞却乾坤。汝等諸人。向何處安身立命。復擊拂子曰。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覩。本乎天者親上。本乎地者親下。呵呵呵。會也麼。知事少時煩惱少。識人多處是非多。雪菴禪人滿關請上堂。昨日行至中途。聽得村翁說四句話。最妙最玄最親最切。若人識得。可以籠罩古今。凌跨佛祖。千七百則葛藤。到此冰消瓦解。三十二傳曲調。直是熱椀鳴聲。且道。是甚話。得恁麼奇特。良久曰。四九三十六。柴米家常足。後園種芥菜。生箇大蘿蔔。以拂子擊禪几。下座。

### 杭州仁和菩曇自若深禪師

山陰王氏子 上堂。潛身那畔。向上未許全提。炭裏藏頭。正令無煩舉唱。直須轉位就功。無影幕中呈彩鳳。觀頭識尾。太虛脊上畫飛龍。縱奪在手。殺活臨機。正恁麼時。且作麼生。與主中主相見。良久曰。九重深密無窺處。鬧市叢中著眼看。卓拄杖下座。

### 越州融光自聞音禪師

上堂。有僧纔出。師以杖約曰。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汝作麼生會。僧曰。行藏原不屬他人。師曰。孟八郎漢。又恁麼去。僧擬開口。師便打。

### 具足有禪師法嗣

### 越州寶泉素端衢禪師

上堂。維那舉應觀第一義。師驀拈拂子曰。若是第一義。汝等作麼生觀。拂一拂曰。既登虞嶽巔。謾道娥江曲。玄風萬里來。到我清涼屋。分明題唱此宗猷。直下承當轉轆轤。露柱燈籠笑點頭。鐵蛇昨夜生於菟。喝一喝 小參。結制已一七。箇箇眉毛撕結。大地沒處藏身。虛空那容著楔搯。得無位真人。[跳-兆+孛]跳上三十三天。撞入兜率內宮。揚聲大叫道。一切智智清淨。無二無別。驀顧左右曰。你等啗酒糟漢。可曾善別機宜也未。山僧有箇休歇方子。盡情布施也。看看。拈拄杖下座。旋風打散。歸方丈。師於康熙甲辰夏示疾。至五月十五日。聲氣朗然。神色明潤。眾謂。師病已愈。師忽謂眾曰。我以十九日巳時去也。遂命鼎新徒急歸候。至十

九日巳時。乃喚淡如覺曰。與我打鼓集眾。扶我入龕去。淡如曰。和尚未可去在。師痛叱。淡依教集眾。師入龕說偈曰。六十餘年。談天論地。八苦交煎。別展良伎。撲破空花。說甚真諦。寂滅逍遙。等閒難覩。偈畢。端然坐化。世壽六十三。僧臘三十八。窆龕于本寺之右。

### 三宜孟禪師法嗣(六人)

#### 嘉善慈雲佷亭挺禪師

錢塘徐氏子 上堂。尋常道。箇唱和句。也不容易。有般鹵莽禪和。只曉得掀翻法座。推倒禪牀。以為是當機不讓。那知同生同死。能弱能強。放去收來。却自有宛轉機絲之妙。罷罷罷。達磨一宗料想。無人識得。高山流水千年調。白雪陽春萬古心。不是巖頭雪峯。誰與共賡此曲。

#### 苕溪鳳山多福林妙叶啟禪師

家世業儒。投寶壽方披剃。一日壽示眾曰。此事教你沒趨向處。師聞直得行坐不安。遂有省。復徧謁諸名宿。皆蒙器重。後參愚菴孟和尚。一語洞明大法。出住桐川東山妙覺 上堂。確嘴花開。乃得聲騰米價。石頭路滑。方知鋤斧風規。藥山鼓笛韻同音。翻出新豐成古曲。鏡湖波浪滔天湧。流來明聖水汪洋。雖則光演宗乘。只貴大家知有。大眾。山青水綠。蒼松翠竹。雲田可耕。月泉可掬。水足草足。大眾多福。良久曰。且道。是何節拍。擊如意曰。昇平樂 上堂。不是心不是佛不是物。兩手相呈。和盤托出。提起也傾國難酬。放下也分文不值。一百二十歲老趙州。齒不關風。道有道無。黑夜投珠。又何怪按劍相及。諸昆仲可惜許。坐在飯籬裏叫餓。反去胡餅上呷汁。逗到今朝。三七依舊二十一。豎拂子曰。寒山拾得 上堂。唐明皇劍斬紙人。李將軍箭穿石虎。什法師。八歲能舉鐵磬。商邱開。出入水火。所以道。毫釐繫念。鷓過新羅。瞥爾情生。萬劫羈鎖。拈拂絲曰。者些子雖是栗棘蓬金剛圈。會得也不值涕唾。會麼。分明月在梅花上。看到梅花早已遲。

#### 山陰保寧端實嚴禪師

崑山孫氏子 修造示眾。拈如意曰。向者裏努力進前。出得一身白汗。便能拈一莖草。豎起玉殿瓊樓。若未得出身白汗。莖草自是莖

草。玉殿瓊樓。自是玉殿瓊樓。畢竟如何。三臺須要大家催。擊如意一下。

### 越州大能仁寺盟石息禪師

山陰毛氏子 上堂。霜風凜冽。萬木凋殘。覲面之機。如何委悉。直饒會得。猶是時流見解。祇如三世諸佛不知有。鬻奴白牯却知有。日午打三更。面南看北斗。雖是右人向上全提。殊不知。能仁者裏。鐘鼓與市語。互互交參。佛殿與山門。機機相應。一天真。一成現。畢竟諸人分上又作麼生。良久曰。二由一有。一亦莫守。打破趙州關。放出子胡狗。喝一喝 上堂。舉盤山道。向上一路。千聖不傳。慈明道。向上一路。千聖不然。師曰。不傳不然。白日青天。拍案曰。畢竟如何是向上一路。便下座 問。如何是一。師曰。匾擔。曰意旨如何。即曰。挑甕挑瓦。

### 越州上虞龍田栢子地禪師

上堂。釋迦不出世。未見頭可履地。足可指天。達磨不西來。豈是夜能明晝能暗。然。一人整舊如新。一人刪繁取要。只為人人忘失己躬一段大事。不能返本窮源。故。有者箇格調。流布寰中。多少人認奴作郎。證龜成鼈。所以龍田有願。不欲打者鼓笛。何故。今日又作者箇模樣。良久曰。待虛空點頭。與汝道破 上堂。說心說佛。三年陳醋生花。談妙談玄。十里烟墩失火。難同醜婦共春秋。一任盲人分早白。金烏沉夜半。玉犬吠雲中。從教繡出鴛鴦。裏許線痕不露。祇如不通明暗路。坐斷往來機。如何話會。良久。喝一喝。

### 嘉興東塔為則範禪師

姑蘇吳江人 上堂。南天台北五臺。踏破多少草煙。歷過無窮煙水。聽人所說底。盡情吐出。自己肯重底。颺在一邊。如何是諸人親切句。良久云。六六元來三十六。

青原下宗鏡六世

嵩乳密禪師法嗣

淮安清江浦洪福靈燄燭禪師

本郡山陽毛氏子。上堂。僧問。占斷千峯。不假他力。乃上古風規。因甚三聖道。逢人則不出。出則便為人。師曰。賊身已露。曰。應緣化物。方便為智。乃今時樞要。因甚興化道。逢人則出。出則不為人。師曰。龍頭蛇尾。曰。和尚一向把斷要津。不通凡聖。即今開堂。為從三聖。為從興化。師曰。符到奉行。曰。恁麼則百千諸佛。水投水。歷代宗乘空合空。師曰。高枕枕頭春夢少。乃曰。先老人。現神應運。發軔於斯。建法幢立宗旨。鞭龍馴象。點鐵成金。歷來幾度春秋。即今山子湖波翻舌。相逢人不出。出則便為人。洪福莊柳漾金容。逢人則出。出則不為人。一任瞻之仰之。不妨道今佛古佛。如水投水。似空合空。卓拄杖曰。黃河三千年一度清。上堂。節令不相饒。倏忽蠶麥老。不圖十分豐稔。試看農忙舞蹈。風味一旦簇。新歲運依舊。恰好村歌社飲。西歌東倒。驚起拾得遇豐干。向道難難難。吸盡長淮玉影寒。更有寒山子。笑道易易易。一條界破青山色。驀喝一喝曰。有甚麼碑記。

淮安檀度南菴依禪師

上堂。白雲無變識。包裹千差。青山無異心。發育萬有。從上聖人。談經三百餘會。末後拈花。教外別傳。只為會參一貫。令他函谷關前紫氣。橫豎高三千丈。神光老子。依舊覓心。了不可得。今日觀音門下事同一家。騎燈籠入露柱裏。拈露柱卓燈籠上。喝一喝曰。如是之法。我從佛聞。師示寂。命焚香集眾。乃說偈曰。百劫千生。不遺一句。今日為君。重新露布。微笑而逝。世壽六十七。僧臘四十三。塔全身於江浦西華之麓。

宗寶獨禪師法嗣(二人)

## 廬山歸宗天然昞禪師

番禺曾氏子 上堂。大眾。只管將問來問。脚跟下有一段事。浮逼逼地。古人纔開口。便知落處。一棒兩棒。總不回頭底。有甚麼打發處。驀卓拄杖曰。若向者裏。開却隻眼。堪與人天為師。復卓一下曰。若向者裏。瞎却隻眼。堪與佛祖為師。擲拄杖曰。且道。堪作甚麼。若無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 上堂。圓明了徹。猶落今時。聞見俱捐。且居意地。隨流得妙。勉強主張。總不與麼頭角生也。大眾。須有脫身法始得 上堂。心不自心。因契道以名心。道不自道。因無心以名道。所以道絕玄微。心無體量。若言有道有心。猶是把起匙見之識。若言無心無道。依然靈龜曳尾之機。明暗掀翻。非其境界。同時殺活。豈是全提。纔到龍門。已遭點額。汝等諸人。幸自好看。

## 千山龍泉剩人可禪師

上堂。剎竿向汝道了也。三門向汝道了也。四天王向汝道了也。法座燈籠向汝道了也。汝等諸人。還聞麼。若未聞。山僧今日失利 上堂。舉寒山子偈曰。吾心似秋月。碧潭光皎潔。無物堪比倫。教我如何說。本權禪師和云。吾心似燈籠。點火內外紅。有物堪比倫。來朝日出東。山僧不惜眉毛。再示一偈。懵懂真懵懂。我心黑漆桶。何物堪比倫。好似海州接引寺路東角頭盛惡水底大瓦甕。大眾會麼。你若不會。山僧又將第二杓。驀頭潑去也。卓拄杖下座。

## 覺浪盛禪師法嗣(十一人)

### 金陵棲霞竺菴成禪師

湖南人 上堂。老驥伏櫪。志在千里。烈士暮年。壯心不巳。諸仁者。莫謂歲暮年殘解制放參。便乃出入無禮。須知古人云。大事巳明。如喪考妣。方今叢林下衰。師法混濫。許多白頭老翁作準。幾箇黃口小兒。拂子手卷。胡亂打發。社廟城隍。搖唇鼓嘴。不惟正信之士不生信心。且令彼義學沙門。終身埋頭故紙。遂謂我少林宗風不過。也只是者箇意旨。安知一回親見飲牛人。不向溪邊閒洗耳 結制上堂。威音那畔。空劫巳前。直饒會得十萬八千。若向達磨西來。尋踪覓跡。敢保此事。驢年也未夢見在。到者裏德山棒臨濟喝。一場忙亂。其餘念言語漢。到攝山門下。只向他道。汝得恁麼無慚愧生。但向諸方學來的。奇言妙語。峻峭機鋒。直須拋向東

洋大海。此是閨閣中物。不得舉著。若也舉著。誤賺生平。二六時中。各宜剔起眉毛。瞪開眼孔。壁立萬仞。更向飯籬邊廁坑頭。拶斷命根。庶幾不負一向行脚。其或悠悠揚揚。空過一冬。莫怪攝山不相為好。

### 杭州崇光觀濤奇禪師

示眾。舉僧問洞山。三身中那身說法。山曰。吾常於此切。僧後問曹山。吾常於此切。意旨如何。曹曰。要頭斫取去。又問雪峯。峯以拄杖擘口打曰。我也曾到洞山來。師曰。且道。吾常於此切。意作麼生。一僧拂袖便出。師曰。情知你恁麼去。一僧曰。白鷺下田千點雪。黃鸝上樹一枝花。師曰。引不著。曰和尚意作麼生。師曰。試看山僧舌頭在麼。乃曰。吾常於此切。丫角女子齒門缺。要頭斫取去。不祥之事天下諱。我也曾到洞山來。未肯將身一處理。今日分明重舉似。布穀催畊啼深樹。聲聲流血勸農忙。莫待秋來少官賦。

### 吉水龍華梅逢忍禪師

住蕪湖興國 上堂。僧問。如何是衲僧本分事。師曰。赤脚趁麒麟。僧擬議。師便打。乃曰。芭蕉無耳。聞雷而長。葵萼無眼。向日而傾。石獅子眼耳俱足。為甚麼迅雷震天。渠總不驚。紅葉滿地。他亦不顧。當知眼耳非功。聲色無緣。是你諸人。二六時中。應聲應色的。又是箇甚麼。若不藍田射石虎。幾乎誤殺李將軍 上堂。僧問。豁開戶牖。坐斷乾坤時如何。師曰。天共白雲曉。曰和尚又恁麼去也。師曰。善能高鑿。曰我行荒草裏。師又入深村。師曰。偶然撥草。不覺傷蛇。乃曰。從上祖師。信脚行隨口道。後代兒孫。巧生計較剛道。有賓有主。有玄有要。通宗通途。挾帶兼妙。壽昌今日咬定牙關。分明向諸人說。也是灞陵橋上望西川 示眾。獅子兒騰空返擲。俊鷄子不戀舊窠。本分道流。別有生機一路。試請相見。一僧纔出。師曰。不是。僧擬申語。師便打。

### 金陵天界巨音選禪師

上堂。杲日當空。大地生靈。受屈明星出現。瞿曇剛被眼瞞。縱使三七日內。觀想思惟。也只救得一半。更有那一半。從古至今。未有人救得。諸方老宿。不得已應病與藥。於無言說處立言說。只要你歇却馳求心。你若更向伊語句上。尋討轉見。刺腦入膠盆。畢竟

如何得諦當去。卓一卓曰。貪觀天上月。失却手中橈。上堂。一根既返源。六根成解脫。釋迦老子。開了口合不得。十方俱擊鼓。十處一齊聞。觀世音菩薩。拈得頭來失却尾。如何是諸佛出身處。東山水上行。大小祖師伎倆。也祇到與麼地。山僧今日避諱不及。有箇奇特商量處。聊與諸人。旁通一線。良久。驀拈杖卓一卓曰。臨崖看許眼。特地一場愁。

### 廣東曹溪石濂汕禪師

上堂。打開布袋口。飛走天蝴蝶。撞碎太虛空。風光都漏洩。到者裏又說甚麼。不是心不是佛。麻三斤乾屎橛。此非畫餅充飢。也是望梅止渴。既然。古錐南天北地。何妨大汕東話西說。棒不枯不止。舌不爛不歇。累他八臂那吒。十字街頭叫屈。可憐牛過窻櫺。只有尾巴過不得。七期上堂。丈夫兒莫癡坐。又不如提婆達多。者一箇毀法謗佛不甘心。雖在極惡魔中。到有些大丈夫底氣度。你不見。他直至于今。生陷地獄。如登三禪天快樂。到者裏。佛也無可擺布。諸昆季。果是者等不避生死。獨步獨行底。任是魔頭也。算他撐天拄地一箇。顧眾云。若道我認賊為子。不妨自我罪過。

### 吉州青原嘯峯然禪師

鎮江丹徒人。宋倪文節公之後。明天啟壬戌。舉進士。與集生余公。同參狗子無佛性話。一日倚杖忽然定去。不覺念無字出口。忽前後際斷。乙酉。解綬剃染。丁亥。參天界盛於報恩。入室次。界擒住曰。狗子有佛性也無。師曰。道甚麼有無。界曰。汝猶作道理會在。速道。師連聲曰。道不得。界曰。汝為甚又道不得。師曰。領。界打曰。領箇甚麼。師擬對。界復打曰。要汝從者裏親見趙州。師珍重而出。次早。界又問。我昨日疑你者公案。師擬對。界乃呵呵大笑。師忽大悟。方禮謝。界曰。你適來。會得我者一笑麼。師曰。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界然之。上堂。良久。擊拂子曰。然闍黎真可笑。七十從心從所好。佛祖於我如浮雲。疏水曲肱堪自傲。有何禪有何道。聖諦不為階不落。昔年騎虎把尾行。今日騎虎頭先掉。中間弄出類難齊。獨上千峯時一嘯。唱歌須待帝鄉人。新豐曲子非常調。從今洗耳聽清音。回途且看兼中到。珍重。

### 江寧天界方融璽禪師

上堂。釋迦佛成道。拄杖子化龍。惟此一事實好。日多犯重。道得著。與他三十棒。道不著。也與他三十棒。何為如此。不見。世尊覩明星歎曰。奇哉一切眾生。俱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不能證得。拄杖子。既與佛同時成化。當與佛共鼻出氣。會麼。遠離妄想及諸取。令心所向皆無礙。上堂。僧問。狹路相逢時如何。師曰。真對頭。曰當面錯過時如何。師曰。好相識。曰驀直撞著布袋時如何。師曰。與我一文錢。曰者一文錢。有何用處。師曰。換人眼睛。曰還換得虛空麼。師曰。得。曰虛空作麼生換。師曰。北斗面南看。曰果然於法自在。師曰。今日且放過。

### 建昌壽昌其天浩禪師

虔州信豐楊氏子。上堂。我若放開。直得冰河發燄。枯木生花。拽取赭山古寺疊。向興國山門揮洒。同雷電咳唾成風雲。恁麼則冬至月頭。本不曾添一線。夏至月尾。亦不曾減一絲。可以促千百劫於一剎那。可以延一剎那。而洞觀千百劫。

### 新城福山石潮寧禪師

參覺浪盛。命充第二座。一日茶次。聞覺舉壽昌老祖。臨濟三頓棒頌。恍如千層網底跳出。即呈偈曰。黃金宮殿水晶牀。特地迷人者一場。翻轉面門誰是我。看他白晝鬼分臟。覺閱而笑之。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塵塵三昧。門曰。鉢裏飯桶裏水。師曰。連日半晴半雨。風漸急天漸寒。空中霜氣滿。河畔水聲乾。落木巖前。文殊縮項。蠟梅枝上。普賢破顏。是甚麼。不合無端饒舌。上堂。喝一喝曰。清風無透路。烈燄自藏冰。於此脫去。也是鄭州出曹門。況復朝三暮四。何啻掉棒打月。驀豎拂子曰。看看。阿那律。觀三千大千世界。如掌中菴摩羅果。雪峯把大地撮來。如粟米粒。諸人既在此間。須著些精彩。不可到處。被烏豆換却眼睛。東看西看。好是瞎驢逐大隊。拍案曰。我若一向舉揚宗乘。法堂前草深一丈。不得已抑下威光。與汝相見。還搆得麼。又拍一下。

### 吉州青原無可智禪師

桐城方氏子。祖大鎮廷尉少卿。父孔昭。歷官巡撫。崇禎庚辰。師成進士。官翰林院檢討。尋避難遠竄。投昭平仙迴山雜染。順治癸巳。謁天界盛和尚圓具。盛示高峯墮枕話。發其機用。遂閉關高座。久之。深入堂奧。上堂。此是第二義。如何是一。一又作麼生

觀。即心即佛。黃葉啼丹嶂。椎碎了也。非心非佛。露柱笑燈籠。椎碎了也。不是心不是佛不是物。急水拋毬子。椎碎了也。更教說箇甚麼。若能於說箇甚麼處。直下承當。便可耳聾舌吐。如或錯過。不免將先杖人集大成底葛藤。上下四維。打一周由也。

### 杭州虎跑大慈石公瓊禪師

錢塘顧氏子。幼從母。謁雲棲。棲與剃落受具。復謁盛和尚於徑山。盛見便問。入門須有語。師曰。和尚年尊。猶未聞那。盛微笑。命典書狀。一日登藏天樓。將擬致問。盛扭師鼻。負痛作聲。豁然徹悟。上堂。椎鼓擊鐘。早是惡水澆人。禮拜燒香。轉見互相鈍置。從上諸聖。雖向劔刃上橫身。火燄裏垂手。都是勞而無功。那更到者裏。如何若何。巧涉語言。堪作甚麼。汝諸人。見山僧上來。便掀倒禪牀。喝散大眾。略較些子。今既不能總成世諦流布。未免重加一杓惡水去也。汝等。急須嗅著惡水臭氣始得。

### 附諸尊宿

### 杭州雲棲蓮池袞宏大師

郡之仁和沈氏子。年十七。補邑庠。每書生死事大四字於案頭。一日失手碎茶甌。有省。作七筆勾見志。投西山性天祝髮。北遊參徧融。復謁笑峯於柳巷。求開示。峯曰。阿你三千里外。來開示我。我有甚麼開示你。師恍然。辭歸。過東昌道中。聞樵樓鼓聲。忽然大悟。述偈曰。二十年前事可疑。三千里外遇何奇。焚香擲戟渾閒事。魔佛空爭是與非。後住雲棲。侍郎王公宗沐問。夜來老鼠唧唧。說盡一部華嚴經。師曰。貓兒突出時如何。侍無語。師自代曰。走却法師留下講案。遂頌曰。老鼠唧唧。華嚴歷歷。奇哉王侍郎。却被畜生惑。貓兒突出畫堂前。牀頭說法無消息。無消息。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第一。時因饑荒。疫癘盛行。餓莩載道。當道發儲賑濟。命醫救療。與師董其事。銓部虞公淳熙。問慧日點五百病僧因緣。師曰。慧日自是窮子。捨己從人西院。屈陷平民。將生就死。可惜五百僧。只解點著便行。曾無一箇高臥不起。致令慧日顯異惑眾。禍及兒孫。郡主深切民瘼。我山僧急趨時難。倉卒中失帶了竹杖子。不免奮空拳。向居士癰腫上。擘地一下。敢保沉疴潰散。毒血淋漓。萬脈流通。百骸舒暢。雖然如是。云何一人能令眾起。不見道。陽回片葉。春滿千林。者事且止。只如終日把竹杖子。東指西揮。不如一直在木頭上。朝持暮守。守來守去。

忽然枯木重華。便是死人再活。說甚麼竹木。管取盡大地草木叢林。悉皆成佛去也。何以故。青青物外虛空體。即是如來堅實心。問。參禪念佛。可融通否。師曰。若然。是兩物用得融通著。問。世尊默然良久。外道謂。開我迷雲空生。宴坐不言。帝釋曰。善說般若。意旨如何。師曰。良久處。欲望開迷陰霾萬里。宴坐邊。擬聞般若說竟多時。雖然如是。鞭頭得旨。空裏飛華。者畢竟見箇甚麼。示採蕨者曰。心訣。教我如何說。蹉過山前好時節。蕨蕨豎起拳頭向君說。新春示眾。今日賀新春。歲時重換却。昨日作麼生。十二月二十八。師自贊曰。十畫九不像。惱殺丹青匠。庶幾此近之。權留作供養。若道者便是。依然成兩樣。不兩樣三十棒。臨終時。預於半月前。別眾曰。吾將他往矣。人皆莫測。至期示微疾。面西端坐而逝。

### 紫栢達觀真可大師

句曲沈氏子。年十七。剃髮遊方。聞誦張拙偈。斷除妄想重增病。趨向真如亦是邪。大疑之。一日齋次。忽大悟。乃曰。使我在臨濟德山座下。一掌便醒。安用如何若何。北遊京師參徧融。萬曆癸卯秋。忽妖書發。師罹難。先是。神宗手書般若經。偶汗下漬紙。疑當易函。遣近侍質于師。師以偈進曰。御汗一滴。萬世津梁。無窮法藏。從此放光。上大悅。由是注意焉。適見章奏。意甚憐之。在法不能免。因逮及旨下著審而已。拷訊時。師神色自若。持議甚正。以衰老殘軀。備嘗笞楚。抵死不屈。十二月五日入獄。法司定罪欲死師。師說偈曰。一笑繇來別有因。那知大塊不容塵。從茲收拾孃生足。鐵櫬華開不待春。又曰。世法若此。久住何為。乃索浴罷。囑侍者曰。吾去矣。幸謝江南諸護法。復說偈曰。事來方見英雄骨。達老吳生豈宿緣。我自西歸君自北。多生晤語更冷然。語畢。端坐而逝。

### 瑞州黃蘗無念深有禪師

黃州麻城熊氏子。偶遊蕩山。有宿衲謂師曰。十方一粒米。重如須彌山。若還不了道。披毛戴角還。師悚然。又聞僧舉僧問大休。如何是西來意。休曰。黃瓜茄子。師大疑。遂往五臺伏牛。遍叩知識。一夕聞哭笑二聲相觸。有省。又一日。失手櫃蓋打頭。渾身汗流。撫掌笑曰。遍大地是箇無念。何疑之有。往龍湖。同卓吾居士。到駟馬山。會有講主至。士問主曰。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主依文講罷。士顧謂師曰。你試說看。師擬開口。士將師膝

上一推曰。者箇響。師忽大悟。有偈曰。四十餘年不住功。窮來窮去轉無踪。而今窮到無依倚。始悔從前錯用功。僧問。道。果有耶。果無耶。師曰。說有說無。二俱成謗。曰如何即得。師曰。無求即得。曰如何是道之體。師曰。滿口道不著。曰四大離散時如何。師豎起拳曰。者箇不屬四大。問。古人迸却咽喉唇吻。道將一句來。者一句如何道。師曰。我不迸却咽喉唇吻。你且道一句看。僧無對。師曰。你被音聲塞却口。問。見性成佛。是否。師曰。是。曰性是無形底。如何得見。師曰。性是有形底。只你不見。曰請和尚指出我看。師曰。我說汝不見。問。如何出離生死。師召僧。僧應諾。師曰。從者裏出。曰和尚說底話。某甲不曉得。師曰。等你曉得。堪作甚麼。

### 夔州白馬寺儀峯方象禪師

達州羅氏子。參金佛山雲庵和尚。令看如何是鬼神戲不破之機。三年有省。出峽徧謁知識。結茅雙溪。一日午炊。聞甑中作聲。忽大悟作頌。有白雲青峯齊點頭之句。嘗遊浙中。菴居杭之清平。真寂印公。蚤年嘗依之。一日師舉青峯丙丁童子來求火話。詰之曰。青峯恁麼道。法眼亦恁麼道。為甚麼有悟不悟。印曰。初以識心湊泊。所以不悟。後乃直下承當。故能大悟。師遽舉拳揮案一下。厲聲曰。恁麼則汝今大悟耶。印擬議。師便痛罵趁出。印直得汗流浹背。繇茲憤志力參。萬歷壬辰。師歸白馬。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兩頭燒火一頭烟。師手中常執一鼗鼓。一面書轟字。一面書犇字。凡應機多舉而搖之。示寂塔于龍神山。

### 廣信鷺湖養菴心禪師

郡之上饒朱氏子。偶過戚屬。會道者談四生之義。師於言下。洞了物我平等大意。往洛之太平落髮。南還焦山度臘。聞江中推船聲。有省。述偈曰。夜靜江空闊。推船因因聲。不知何所往。擔子半邊輕。謁華山。聞山拈一段生涯六不收話。有疑。猛提七日。身心脫然。尋歸里。住靈山。嘗畫大○相於壁間曰。內寫莫教塗黑。外寫勿使傷白。有人向圈裏圈外。下得註脚者。許汝學道無疑。不然總是懞懞。後遷鷺湖。十年不立座元。無異來參。以趙州無字話相契。請居厥職。贈以偈曰。鷺湖十載虛元位。一旦緣何立少年。兩道眉毛八箇緞。須知佛祖不容前。又嘗置無門鎖。室中以驗方來。偈曰。上古留傳鎖。憑君智鑰開。若無開鎖法。相見不須來。萬歷丁卯二月晦日。上堂說法。置齋作別。復示偈曰。八十餘年幻夢

中。鐵牛耕破太虛空。臨行一句相分付。半夜金烏帶日紅。端坐而逝。

### 杭州真寂聞谷廣印禪師

因參龍池傳。適傳負暄階下。問曰。和尚在那裏。傳曰。恰好不在。師展禮畢。傳命作德山托鉢頌。師頌曰。末後之句有也無。德山父子太譎譎。同條生不同條死。活得三年恨轉多。傳喜之。又謂曰。何不承當此事共相唱和。師不肯。傳送門外。撫背曰。老姪我還疑你在。師曰。甚處疑某甲。傳曰。如何是密啟其意。師曰。今日不打宜興轉。傳呵呵大笑。師頂笠便行。

### 湘鄉荊紫峯無學幻大師

因僧問如何是學人得力處。師曰。如人在家。無事不辦。

### 韶州曹溪憨山德清大師

全椒蔡氏子。幼習儒業。年十二。禮報恩西林公為師。十九芟染受具。與妙峯為友。偶閱肇論。至梵志出家。白首而歸。鄰人見之曰。昔人猶在耶。梵志曰。吾猶昔人。非昔人也。忽有省曰。今日始知鼻孔向下。妙峯曰。何所得耶。師曰。夜來兩箇泥牛。鬪入水中。至今絕無消息。峯笑曰。且喜。有住山本錢。尋往燕都。參笑崑和尚。崑問。何處來。師曰。南方崑曰。記得來時路麼。師曰。一過便休。崑曰。子却來處分明。師便禮拜。後為黃冠所誣。坐以私創寺院。遣戍雷州。至韶陽禮祖。偈曰。曹溪滴水自靈源。流入滄溟浪潑天。多少魚龍爭變化。源頭一脈尚冷然。越十有一年。免戍。留曹溪又九年。始還僧服。乃歸匡廬。結菴五乳峯。作逸老計。數載。復請還曹溪。未幾。忽告眾曰。緣與時違。化將焉託。一期事畢。吾將歸矣。索浴更衣。端坐而化。壽七十有八。臘五十有九。塔全身于天子岡。師嘗過德山禮祖塔。偈曰。堂前閒拓鉢。獅子漫調兒。覲面難回處。低頭不語時。未明末後句。翻使至今疑。為問三年事。因何得早知。山居偈曰。生平蹤蹟任東西。投老那能擇木棲。縱使脊梁剛似鐵。柰何脛骨軟如泥。閒從絕壑看雲起。坐對孤峯聽鳥啼。不必更拈言外句。現前聲色是全提。

### 江西雲居顛愚觀衡禪師

行脚時過雲間。因訪陳眉公。三度通刺。適公有事。未及接見。師乃留偈而去。偈曰。硯池三泖秀。筆架九峯高。堂上讀書子。清風吹布袍。公見偈。急呼舟追至蘇州。師却杜門不見。

### 江西泐潭元白可禪師

拈香。此一瓣香。毗盧師法身主。元是者箇。今日拈來為我先祖。馬大師示寂。一千二百年。大機大用。杳無消息。山僧既據此座。與今日兒孫。開通一線。又拈香云。此一瓣香。我且不言。若要我言。直待來年。據室。一牛欄一虎穴。宏道之區。一毛頭一彈指。得人之際。且道。者裏是何所在。無孔鐵鎚七十九。打風打雨不教休。祖師性命遭毒手。千古含冤一棒酬。立首座小參。東廊也喝。西廊也喝。喝到驢年未有了日。關西有金毛獅子。獨鞦繡毬。豈得不托。文素闍黎看取。立侍者。聲喚聲應。上下相手。拄杖子不在我手。却在你的手。但是不得當堂捲席。立飯頭小參。淘沙去米。淘米去沙。總是飯籬邊事。南泉善喫。金牛善舞。似與轉生成熟處相近。若有此等作用。鐘未鳴一任問將來。鼓未響一任問將來。立化主小參。此去漢陽不遠。黃鶴樓前鸚鵡洲。現成公案。男兒膝下有黃金。不可拜他無眼長老。轉語一下。三十棒任爾將來。

### 衡陽豪山大辯道焜大師

石漣汕問。堂堂獨露脫體無依。是甚麼人。師曰。搭著布單穿市過。曰恁麼則七縱八橫去也。師曰。騎驢踏破洞庭波。曰除此二途。還有向上事也無。師曰。請坐喫茶。

### 金陵寶華山見月體和尚

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芒鞋拄杖子。曰某甲曉得了。師曰。試道看。僧曰。芒鞋拄杖子。師曰。三生六十劫。

### 祠部黃端伯海岸居士

訪雪嶠信於匡山。問。久聞雪嶠。及乎到來。不見一點。信曰。日頭大。公曰。雪融後如何。信曰。春水滿溪流。公曰。大師曾見什麼人來。信點胸曰。雪老。公便拜。

### 開府余大成集生居士

雪關問。閉門作活是如何。士曰。出賣[車\*度]轆鑽。問休去。

南嶽下三十六世

爾瞻尊禪師法嗣

潭州石霜碧眼開禪師

上堂。向上機末後句。坐臥不在聲色裏。趙州十八家業忘。南泉十八解活計。打牛打車。因語識人。磨甑磨鏡。鬼家伎倆。扶起黃檗。踏倒水潦。山僧特地報君知。白雲深處須尋討。

千仞岡禪師法嗣(三人)

黃梅五祖真慧無絃琴禪師

陞座。先聖道。一切智通。無障礙。因甚夜來山僧三昧。枕头不知。枕头三昧。繩牀不知。繩牀三昧。地鑪不知。地鑪三昧。青州布衫不知。布衫三昧。雲門餬餅不知。你等還知麼。若不知山僧開方便門去也。乃云。堂前種鐵樹。鐵樹燦銀花。銀花結蓮蓬。蓮蓬長木瓜。木瓜纔剖出一枚烏芝蔴。遂呵呵大笑。陞座。諸仁者。還會麼。須參了句。莫參未了句。直饒透到前無釋迦。後無彌勒。是未了句。博通大藏小藏。頓漸偏圓。是未了句。洞徹向上向下。全提半提。是未了句。而今有般漆桶。我會也。望剎竿回去。脚跟已喫痛棒。是了句。眨上眉毛。此事尚云錯過。是了句。龐公參馬祖。一口吸盡西江。是了句。呵呵。你若恁麼商量。到驢年亦未了在。卓拄杖。便下座。陞座。東山有柄無星秤。華嶽稱來沒半觔。崑崙兒暗生嗔。背說東山不公平。慣將巨秤稱官物。世出世間未遂心。刮回佛面金千兩。削去鉞頭鐵萬鈞。窮坑究竟何年滿。大千有理也難伸。大眾。惻隱之心。人皆有之。不必如前較重輕。任伊天下樂忻忻。小參。欲知過量事。須是過量人。不是過量人。安知過量事。昔日神秀大師。有株菩提樹子。被嶺南箇無佛性漢折倒了也。自後無人出手扶起。今日琴上座。借路經過。扶起菩提樹。花

開一枝兩枝。懸出明鏡臺。光輝千古萬古。俾盡大地人。於鏡光中。植菩提樹花。見之眼根清淨。聞之耳根清淨。嗅之鼻根清淨。味之舌根清淨。思之意根清淨。觸之身根清淨。所以見聞覺知無障礙。色香味觸常三昧。且墜腰石子還甘麼。顧左右便下座 晚參。露柱懷胎。混沌證明。碓嘴花開。墜石證明。無賓主話。火鑪證明。枕头落地。方磚證明。涅槃堂禪。孤燈證明。啞者得夢。有何證明。以手槌胸云。苦苦。誰肯黃金如糞土 小參。古德云。釋迦彌勒。猶是他奴。且道。他是阿誰。山僧二十年前。聞此語仰羨他。二十年後。聞此語嗔嫌他。何故。見面不如聞名。復頌云。金榜定名外莫知。玉梭忙織狀元衣。胡為誤會張騫面。割斷天孫錦上機。

### 蘄州黃梅五祖真慧綠雨蕉禪師

荊州護國啟真法叔入山。請上堂。少林九年面壁。向雪堆裏。覓得一箇。猶欠一臂。瀉山九年橡栗。從地神報。得阿僧祇劫為守。此山尚屬一夢。蕉上座九年再住。銷骨鑠金。含恥忍垢。從別峯頭。覓得一個。尚屬猶子。才難不其然乎。記得應菴華祖。住歸宗日。大慧杲和尚至上堂。祖舉當山演祖牛過窗櫺話。頭體四足俱過了。尾巴過不得。者箇說話。小姪蘊在肚皮有年。若非法叔老師到來。此生無因拈出。今日何妨移上就下。轉南作北。況青氈本是吾家物。焉用他人借酒杯。然則畢竟如何。大底過了。小底過不得。聽取一頌。久約尋春春已殘。啼鶯聲裏血光寒。英雄有武用無地。不借荊州何處安 師靈塋合尖。上堂。僧出問。多子塋前。曾無異說。曹溪路上。豈有多譚。即今靈塋合尖。有何分付。師云。古今人自老。今古月常新。進云。祇如月落後。又向甚麼處相見。師云。花如解笑還多事。石不能言最可人。僧無語。師連棒打退。乃云。舉手何堪說再來。青山未死已先埋。思從草下求安宅。愧附樗邊永不材。七尺形骸非我有。百年長短聽君裁。蕭蕭白骨無憂殮。珍重高風太守齋。

### 黃梅五祖山真慧天澤霖禪師

上堂。今朝六月六。貓兒狗子俱沐浴。狸奴白牯放毫光。普請念道真言呪。一免寒暑災。二免無明逐。卓拄杖曰。一切情與無情。承此呪力。悉得平等。各各具足。雖然動則穿却鼻孔。不動則平地死漢。具眼衲僧。如何通變 早參。昨夜三更失却牛。天明起來失却

火。三世諸佛總不知。假雞聲韻難瞞我。任是神通自在。也須一一勘過。

### 鐵舟海禪師法嗣(二人)

#### 金山可達杰禪師

小參。即心即佛。癩馬繫枯椿。非心非佛。黑牛沉死水。不是心不是佛不是物。芳草渡頭韓幹馬。綠楊深處戴嵩牛。參 晚參。三拜得髓。一笑印心。圓相著點。鉢水投鍼。袖頭打領。腋下剗襟。速則易改。久則病深。選佛若無如是眼。宗風那得到於今 小參。趁起三聖瞎驢。踏殺元沙猛虎。看取白牯驚奴。一一超宗越祖。

#### 金陵香林法乳樂禪師

上堂。解語非干舌。能言不是聲。長江白浪湧千尋。汝諸人。入一保社。出一叢林。因甚百草頭上不見祖師。拋却家珍。來者裏覓甚椀。以杖旋風打散 除夕小參。臘月三十。好箇消息。觸碎明月珠。大地黑如漆。無手老人夜燒錢。無口童子吹鐵笛。老二少三過殘年。一年三百六十日。大事各自承當。小事替你不得 上堂。揚子江開張大口。廣演秘密章句。妙峯塔豁開正眼。徧照大千沙界。直得石獅哮吼。木馬飛騰。忽然拄杖子奮迅出來。擱瞎妙峯眼。塞却揚子口。三世諸佛。飲氣吞聲。歷代祖師。忘鋒結舌。諸兄弟且道。拄杖子具何眼目。橫拈倒握。千峯上殺活。縱橫得自由 小參。一鎚便就底。未是性燥漢。不假一鎚底。推出山門外。樂上座。具何眼目。便恁麼道。千鈞之弩。不為鼯鼠發機。

### 天笠珍禪師法嗣(五人)

#### 杭州理安夢菴格禪師

蕪湖丁氏子。投金陵劔門和尚落髮。依見月和尚受具。徧參諸方。偶登五老峯。豁然頓悟。有踏破虛空作兩邊之句。即叩天笠珍。呈所得。珍即印可。出住嘉善東禪柏林 早參。五位三墮。是曹洞宗旨。臨濟未免失笑。料簡賓主。是臨濟綱宗。洞山未免掩口。新豐一曲。七事鈎錐。放之徧周沙界。收拾在一微塵。慈雲門下。朝打三千。暮打八百。未肯放過。縱使淨裸裸赤洒洒。沒可把。且居門外。不是渠儂多意氣。出頭天外許誰知 小參。慈明參汾陽。一味

祇是罵。臨濟問黃檗。三回不離打。拄杖嘴唇皮。解索撩天價。今日五更頭。佛殿上習儀。放箇三眼鎗。眾兄弟。還聞麼。各各照顧面門。晚參。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柏林請住持。要我來出手。我本無所長。專使逼人走。及乎到此間。佛法毫沒有。一月四小參。開口便掣肘。究竟沒柰何。老臉難藏醜。記得趙州歌。舉似眾善友。視無腰褲無口。頭上青灰三五斗。比望修行利濟人。誰知變作不唧[口\*留]。師於康熙戊子六月二日示寂。世壽七十。僧臘四十二。塔于仰天塢。雍正間。賜帑重修。

### 滁州琅琊樗關真禪師

落堂晚參。釋迦不出世。達磨不西來。佛法徧大地。談玄口不開。山僧未離平江。此間還有佛法麼。既到此間。喚甚麼作佛法。莫非拈椎豎拂。說妙談玄。是佛法麼。且喜沒交涉。莫非燕語鶯啼。驢鳴犬吠。是佛法麼。且喜沒交涉。莫非行喝行棒。瞬目揚眉。是佛法麼。且喜沒交涉。莫非雨洗澹紅桃萼嫩。風搖淺綠碧雲生。是佛法麼。且喜沒交涉。既總沒交涉。畢竟以何為佛法。驀卓竹篋云。噫。遂出堂。示眾。見見之時見非見。螻蛄眼裏黃金殿。櫻欄莫認夜叉頭。芍藥開非菩薩面。

### 杭州理安越鑑徹禪師

上堂。舉雪峯云。盡大地撮來。如粟米粒。大拋向面前。漆桶不快。打鼓普請看。師云。雪峯一千五百人善知識。被粟米粒換却眼睛。理安則不然。大地撮來無寸土。覓一微塵。了不可得。打鼓普請。看個甚麼。小參。一舉不再舉。更添鑪上火。一聞不再聞。重搥塗毒鼓。爍破趙州無。擊碎雲門普。驚起西河獅子。吞却瀉山水牯。臨濟三玄三要。打雨敲風。曹洞五位君臣。揚塵簸土。阿呵呵休莽鹵。達摩不是西天祖。

### 杭州理安獨超方禪師

上堂。單前椽下費途程。結制安居枉用心。擊竹見桃魚入網。奪人奪境鳥投林。急荐取莫沉吟。邊疆寧靜狼煙息。放馬桃林慶太平。小參。放出露地牛。踏殺子胡狗。掀翻劫初田。獅象忙奔走。文殊普賢。趁入鐵圍。釋迦彌勒。驢前馬後。獨有淨名老人。毗耶杜口。若到理安。劈脊便棒。咄。上堂。平旦纔陞座。中齋又上堂。重重納敗闕。好肉更剝瘡。大眾。無法可說。是名說法。無道可

悟。是名悟道。無禪可參。是名參禪。無佛可成。是名成佛。何故。若參底是禪。是名禪障。說底是法。是名法障。悟底是道。是名道障。成底是佛。是名佛障。要會真禪真道真佛真法。三生六十劫。

### 邵州龍華齋舟元禪師

晚參。一月兩月落不歇。兩師戰退扶桑國。村北村南愁殺人。石頭路滑須防跌。鬪海泥牛不見踪。井底蝦蟆吞却月。諸禪德。瞥不瞥。更有一句最關情。子規啼遍枝頭血。

### 天章玉禪師法嗣(二人)

#### 蘄州訥菴辯禪師

上堂。暮江沙白映蘆花。一望秋光萬頃賒。忽聽鴻傳鄉國信。不疑消息在漁家。要識上大人。便是邱乙己。不用化三千。直下可知禮。南泉與物若為觀。卸却珍衣異類行。頭角未全人覷破。老農孤負一年春。示眾。偉哉首座。貪程太急。一炷清香。坐脫已畢。勇銳還他虔侍者。冰潭不許鷺鷥立。上堂。末後句祇這是。吞人猛虎原無齒。同條生不同條死。天下知心有幾幾。明暗雙雙鑑作家。直饒能弄亦非蛇。撥草瞻風莫容易。未知何日狂心息。叢林往往亦如斯。悠悠今日又明日。心不是佛智不是道。頌。心不是佛。智不是道。蚯蚓蝦蟆。休鑽死竅。打破羅籠鐵鷄飛。白雲影裏呵呵笑。

#### 金陵迴龍南愚玠禪師

上堂。舉華祖上堂。九年面壁。壞却東土兒孫。隻履西歸。鈍置黃面老子。以杖畫一畫云。石牛攔古路。一馬生三寅。迴龍則不然。九年面壁。年老知非。隻履西歸。伶俐有分。殊不知。支那國內。泥猪癩狗。破額癡頑。皆是千佛一數。以拂子搭肩云。山僧之言。不足信矣。

### 六吉謙禪師法嗣

#### 東山伯嶽惺禪師

上堂。拋出雪峯毬。打破鹽官鼓。鞭起楊岐驢。踏煞元沙虎。倒生牙齒嚙青天。大丈夫兒休鹵莽。喝一喝。上堂。四月五月。新蠶乍歇。謝家姊妹恣歡遊。踏歌聲襲楊柳陌。石榴花下鬪樗蒲。鳳凰釵墮無人拾。歸來對鏡斂蛾眉。鼻孔無端高突兀。參。上堂。黃金臺上清風起。五鳳樓前白日懸。喝彩爬竿饒爾弄。不將塵尾說三禪。五陰頓脫忘羈鎖。生死全超出蓋纏。白玉階前垂手立。琉璃殿上捲簾看。吾不識誰之子。和羅飯罷口門喏。引舌曾過大梵天。小參。離此用絕安排。喝下從教正眼開。當陽不說無情法。漫把眉毛眼上栽。麋鹿羣中有令。不妨揮去。靈龜背上無毛。正好刮來。縛煞樹頭風。拋向堂前誰敢覷。揭開紅日而分明。腦後露雙腮。全賓全主。驗龍蛇于立地。有殺有活。驅佛祖以深埋。一任雲封霧鎖。那許柳陌花街。

### 不退勇禪師法嗣

#### 山西沁州銅鞮永慶尺木休禪師

係明宗室。世居金陵。幼能騎射。一日射獵山中遇熊。幾被傷害。忽空中有聲。見金甲神。持杵擊熊。師乃得脫。夜夢神告曰。趁時脫白。勿得遲延。將為叢林雨露。法海津梁。師覺時。宿慧頓開。矢志出家。年三十。依守燈禪師。薙染於雩之龍坑菴。次年。納戒於贛州崆峒。偶至漢口延壽菴。為眾僧收供。適報恩首座不退禪師。將之南嶽。過延壽。內外諸禪客。悉秉贄參請。師獨了不之顧。一日師與眾僧立次。退突至面前云。此位禪客何處。旁僧云南直。退云大邦。師云不敢。退休去。師自念言。一嚮不與此人相見。他今日倒來一招。我若颺在無事甲裏。却成死漢。明日寫一帖子云。昨日撞著箇小老虎。將咱脚跟下嗅嗅。他雖不曾下口。俺亦放過一頓。作麼生是放過處。者裏下得一語。相見有分。若下不得。打飯事忙。退見書。即手裂之。令侍者喚師。侍給師云。和尚甚喜。吾師若見時。須機鋒相讓。莫太觸忤他好。師云。我自方便。遂入室。挺身不拜。退便拈前書示之云。者是你的麼。師擬開口。退驀口打。師欲伸辯。退直打出堂前。打得口裏血出。師無語。歸堂。心自思惟。我二十年用工夫。諸方善知識。見我便好生器重。今日不曾開口。被他折倒一上。定要與他勘辯個明白。決不甘休。次日晚。兀坐間。聞隣單僧云。今日迎春。明日該打春了。師忽然猛省。大叫云。壞事壞事。隣單驚問云。作麼。師瞋目視云。心太狠。手太毒。見人在井邊。推入黃泉路。隣單愕然。退聞之。知師已徹。令侍者召師。乃陞座。師便禮拜。退云。如何是佛

法大意。師云。黃鶴樓前鸚鵡洲。退云。如何是透法身事。師云。昨朝元旦。今日打春。退云。那裏得這消息來。師拍禪牀一下。退便喝。師亦喝。退云。還有麼。師拂袖出去。後出世永慶。榜示十字經於法堂云。一切諸佛。皆從此經出。此經從法王出。遂畫此相



○△[口@易][口@(山/水)]俺復著語云。即深明河洛數者。不

能辯之 示眾。打一尖相  云。直下道得一句。許你有出身處。若道不得。又怎怪得老僧 師將示寂。詣一士人乞陶龕。即自期於二月二日。與遠近緇白辭。至期。畢集乞法利者。咸贈以筆語。遂蛻然坐逝。以所乞陶龕。塔於本寺之側。

### 棲雲岳禪師法嗣

#### 杭州天目南谷穎禪師

江寧上元張氏子。年十六。投本邑彌勒菴別峯師。薙落受具。後參雲居禪師于磬山。不契。過報恩。謁棲和尚。棲舉一火燒却話示之。未幾有省。依止數載。棲示寂。大覺老人過報恩。問云。鐵蛇鑽入海。撞倒須彌山。你如何會。師曰。大家在者裏。覺解頤。遂以衣拂囑為棲嗣。後侍大覺最久。住磬山天目大雄等處 晚參。捏不聚撥不散。曬不乾浸不爛。等閑挂在太虛空。一任旁人冷眼看。驀卓拄杖云。何似秦時[車\*度]轆鑽 端陽上堂。一句全提。了無縫罅。通身是口。分疏不下。五月五日午時辰。盡向鬼門重貼卦。以拂子打圓相。復劃破云。咄 上堂。拳來拳應。踢來踢當。拳踢不到。作麼商量。拈拄杖卓一卓云。六耳不同謀 上堂。兩兩不成雙。三三原非九。鼈咬釣魚竿。雞銜燈盞走。北鬱單越打三更。南閣浮提日當晝 解制小參。常州有蘇州有。擔著草鞋赤脚走。三千里外覓知音。未曾舉步先分割。且道。分割個甚麼。眾擬議。師云。可知禮也 晚參。智鑑圓明。靈機廓徹。非即非離。非語非

默。二祖無端求覓安心。雲門特地拶得脚折。似者般不唧[口\*留]漢。縛作一團。拋在大洋海底。免得令人循途守轍。阿呵呵山僧恁麼告報。也是普州人送賊。師領眾二十餘年。至老不懈。室中日夜身不離七條。甲申秋。說偈而逝。塔于天目雙清右隴之荊門菴。

### 骨巖峯禪師法嗣

#### 武康匡裔來禪師

中秋上堂。庭空月白明如鏡。寒蟄遶砌送秋韻。寒山拾得臥松林。幾人同此趣真境。驀卓拄杖云。了盡凡情即佛性。小參。舉拂子云。向上道即易。向下道即難。何用明修棧道。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任教暗度陳倉。直饒上上根人通天手眼。到報恩這裏。一點也用不著。何故。黃河滾滾流今古。華嶽三峯勢插天。上堂。情見不忘多與少。這等油麻何用炒。識得前三與後三。方見此中不草草。開裏插香。衣中失寶。堪歎浮生心未悄。山中無事若登仙。一種平懷何處討。

### 茆溪森禪師法嗣(四人)

#### 天目獅子正宗形山寶禪師

上堂。清隱不會說禪。森羅萬象同參。寒山却笑拾得。沒却鼻孔半邊。呵呵呵。會也麼。楊岐驢子三隻脚。小樹小皮纏。大樹大皮裏。德山棒臨濟喝。普化為何搖鈴鐸。莫莫莫。風吹石臼念摩訶。設有伶俐衲僧。出來道。長老長老。今日悟公請法。直須舉揚向上宗乘。如何也似三家村裏長老。說幾句淡話便了。遂鞠躬云。山僧今日失利。

#### 京都賢良如川盛禪師

賜號無礙永覺。江南常州人。小參。古人道。大善知識。須具驅耕夫之牛。奪饑人之食手段。方堪為人。盛上座。乏此伎倆。但知助耕夫之牛。與饑人之食。何故。佛不違眾生所願。且道。與古人。還有同異也無。將拂擊几兩下云。山中草木皆光潤。知有寒輝玉在淵。

#### 姑蘇怡賢蓮峯源禪師

早參。者個陳年滯貨。一春不發利市。今日和盤托出。還有酬價麼。一僧纔禮拜。師云。問話不許啟口。進云。陳年滯貨。拈過一邊。師云。汝有新得那。進云。無位真人舉一步。過萬億恒沙國土。因甚又道出不得渠農毛吼。師震威一喝。進云。八面玲瓏去也。師云。多虛不如少實。乃云。昨宵風雨過園林。洗出威音那畔春。無位真人毛骨冷。柳烟榴火一時新。乾隆十年四月二十日。沐浴更衣。望闕謝恩畢。書偈曰。今年過六九。金毛顛倒走。撞倒兩泥牛。笑破虛空口。跌坐而化。世壽五十有五。

### 京都覺生秀山成禪師

直隸龔氏子 示眾。參須真參。悟須實悟。汝等諸人。不可希圖小利。得少為足。中止化城。不求陞進。登山到頂。須要從空放下。入海窮源。更當折合歸來。枯木依寒林。逢春不變心。徒然無用之材。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錯會不少。工夫坐到。如秋潭月影。靜夜鐘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尚是生死岸頭事。何況下此而修。隨人脚轉。狗塵背覺。弄影勞形。如此參方行脚。山僧有棒不肯打你 萬壽上堂。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但能一超直入。管取塵劫凝滯。當下冰消。無邊妙義。一時颺却。得深固根。獲堅凝體。徹萬法源。了諸緣本。坐微塵裏。轉大法論。於一毫端。現寶王剎。一為無量。無量為一。物我融通。理事無礙。即幻而真。隨緣不變。祇如恭祝一句作麼生。 聖壽等南山。

### 美發淳禪師法嗣

### 天目晦石琦禪師

蘇之曹氏子。依美和尚出家。出住報恩。上堂。真心絕朕。妙體無方。神不可知。聖莫能測。處生死流。驪珠獨耀於滄海。踞涅槃岸。桂輪孤朗於碧天。言超象外。道合羣情。苟非鷲嶺鳳毛。那解當陽契證。所以道。事是恁麼事。人須恁麼人。不是恁麼人。何知恁麼事。還見恁麼人麼。遍界且無尋覓處。龍淵千尺漲波濤。上堂。人人有面古鏡。諸佛於中隱現。個個本來面目。殊非長短方圓。作形生之資始。超有象之機先。背之者迷頭認影。悟之者無垢金仙。該因括果。徹底虛元。七處九會舌頭短。五十三人妙不傳。淨智莊嚴功德聚。分明一朵火中蓮。上堂。佛說一切法。應度一切心。我無一切心。何用一切法。三世諸佛。歷代祖師。到者裏。有口惟堪挂壁。若祇恁麼休去。敢保渠農未徹在。直須萬機不到處七

穴八穿。百匝千重時。水灑不著。有時破二作三。有時會三歸一。向無言處演言。無法處說法。頭頭建立輝煌。一一要津把斷。擊拂云。常憶汾陽好言語。菊花遍界耀全提。

### 養拙明禪師法嗣

#### 潭州大溈慧山海禪師

上堂。按拄杖曰。談玄說妙。文殊無地藏身。舉古舉今。普賢有處吐氣。便恁麼去。吳楚未同風。別轉機關。東西十萬里。以拄杖一畫云。牛頭沒馬頭回。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始俊哉。上堂。一燈然出百千燈。大地山河盡斬新。石女雲中歌雪曲。木人水底舞陽春。重重涉入寶林網。剎剎全彰般若因。直下和光都撲滅。爍迦羅眼透金塵。

### 頂目徹禪師法嗣

#### 雙泉眉山霽禪師

上堂。有不得無不得。秤錘捏出黃金汁。是句割非句割。熨斗煎茶銚不同。六六三十六。三尺龍鬚當破布。五五二十五。出門蚊子大如牯。東山水上行。崑前嘯石虎。西園綠竹叢叢。北苑青松楚楚。一人有手無脚。千峯頂上。疾走如飛。一人有脚無手。十字街頭。撫掌歌舞。顧眾云。還有識得渠面目者麼。一僧纔出。師便下座上堂。一不隻。兩不雙。青天撲地。日月無光。東勝神州打鼓。西瞿耶尼插秧。普請雲居羅漢。大家逐隊成行。天台石橋路窄。趙州略約許長。丹霞燒却木佛。院主眉鬚遭殃。道是第一義諦。早已錯過梁皇。至今江上蘆花白。少室峯頭瑞靄蒼。

### 具德禮禪師法嗣(五人)

#### 能仁微旨朗禪師

小參。僧問。學人上來。請師一接。師拈起拄杖。僧擬議。師便打。乃舉僧問雲門。大拍盲的人來。師還接否。門放身倒。師云。韶陽老人。向逐浪隨波處。截斷眾流。要使函蓋乾坤話行。能仁不作者箇去就。大拍盲的人來師還接否。拈起拄杖。擬議不來。劈脊便棒。且道。者話在什麼句中收。小參。白雲一堆兩堆。丹楓三章

五章。無意欲分賓主。有時欸段飛揚。敢問。參方上士。其中可有商量。時有僧出。師云。好沒主張。小參。舉不顧即差互。如何是佛麻三斤。山僧今日如法舉了。幸毋更生差互。隨顧一僧云。汝作麼生會。僧佇思。師云。擬思量何劫悟。

### 維揚巨渤恒禪師

示眾。宗師家。須是杓柄在手。活計通身。任他漢去胡來。難逃一鑑。始可橫拈柳[木\*栗]。高踞上流。卷太虛於毫端。乾坤函蓋。吸滄溟於霹靂。膏澤人天。固是衲僧家本分事。若是單單認得一個無夢無想。不名不物道理。以為極則。便乃開張大口。誑嚇閭閻。誤賺後昆。平沉佛法。乃斯之輩。深可痛憫。陞座。有一句子無。無一句子有。坐斷有無機。一雙窮相手。打破蔡州城。毛端獅子吼。呵呵呵。好大哥。溪西雞齊啼。狗走抖擻口。陞座。目前無闍黎。山河匪礙。此間無老僧。不許夜行。一句中虎踞龍蟠。眉睫間風雷變換。箇是衲僧家尋常作略。直得野老門前。王令稍嚴。牧唱樵歌。聲光烜赫。六識無功的。如水投水。破家散宅的。似空合空。苟能超證。到與麼田地。天寧門下。還須喫棒。昨夜三更失却牛。天明起來失却馬。手不停脚不住。且道。作何事業。一期之中。敢望諸人。道一轉語。通箇真實消息。庶免鐵面老子打算草鞋錢好。

### 江西雲居晦山顯禪師

示眾。雲門鑑報慈隔。頭蓬鬆眼赫赤。虎舌打鞦韆。佛口生荊棘。當陽一箭觸體穿。南海波斯面如墨。小參。三世老黃頭。渾然不知有。吸盡西江。藏身北斗。乾坤暗黑。山河倒走。等閒只為太惺惺。拈得鼻孔失却口。狸奴白牯慣稱揚。雲中盡作獅子吼。小參。今朝六月廿九。一歲已過其半。生死大事未明。急急須教刀斷。慈明引錐刺肱。瑞巖惺惺叫喚。真如圓木驚心。高峯[拚-厶+去]作癡漢。依此四老。修行管取。前程了辦。赤心片片向人傾。剔起眉毛君自看。

### 泰興慶雲碩揆志禪師

佛成道日上堂。僧問。展開關捩子。千聖立下風。即令和尚站在甚處。師云。焦甑打著連底凍。進云。則鑊湯無冷處。師云。放待冷來看。進云。覲面無私句。今朝謝舉揚。師云。千里萬里。進云。

靈山授記。未到如是。師云。不妨伶俐。問。雪覆千山。因甚孤峯不白。師云。別露一家風。問。一念無為。十方坐斷。慶雲寺中。幾人親薦。師云。驢鳴犬吠一般聲。乃云。釋迦老子。於正覺山中。覩星大悟。便道。奇哉一切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不能證得。何似慶雲寺裏。連日彤雲密布。一朝紅日高昇。現前僧俗男女。草木叢林。山門佛殿。癩狗泥豬。悉皆歡喜。異口同音道。也不奇。也不奇。一切眾生。悉無妄想。但以如來智慧德相。不能證得。驀召眾云。咄。

### 杭州雲林諦暉輅禪師

陞座。梅白松青。絲毫不隔。掃却凡塵與法塵。咳[口\*敕]掉臂皆三昧。喝曰。達人面前。豈可不知忌諱。露出人人本有之珍。又喝曰。雖然春滿乾坤。也要東風著力。連喝兩喝。下座 陞座。豎拄杖曰。紀綱滄沓家法。少此爪牙不得。敲擊靈山骨髓。非此鍵槌不可。今有一人。焉能如是知。如是見。如是信解。統御一切。用別萬端。平其不平。不平其平。好手手中呈好手。紅心心裏中紅心。驀卓拄杖曰。其利斷金 示眾。心肝不橫。頭角不露。奇哉眾生。貪程錯路。何如我妙濟院裏。滿徑幽篁風有餘。一池荷葉霜打破。茆堂日出共商量。乃豎拳曰。兩箇拳頭那箇大。

### 繼起儲禪師法嗣(五人)

#### 蘇州字雲蹤禪師

上堂。騎佛殿入山門。釋迦不在先。騎燈籠入露柱。彌勒不在後。其間忽乘師子而來。且請別時相見。或乘象王而至。未便輕易投刺。或現半身。靈崑門下。那許縮頭縮項。倚牆靠壁。或現全身。聽呼指使。不致慢事。自然獲賞。蹤長老今日騎拄杖子。入汝諸仁鼻孔裏去也 小參。句前句後。是諸人難處。著脚一跨跨過。是汝諸人極容易處。崑頭道。百不思時。喚作正句。以手引舌曰。是伊有甚麼用處。拍禪牀曰。親切無過此。

#### 蘇州月函子禪師

上堂。一筆勾下也。胸中穩貼。即便散去情理。不甘者說。眾無對。師云。去又不即去。說又沒得說。我實情耐你不得。遂旋風打散 上堂。大眾。有一句子。言雖粗淺。理實甚深。良久。驀伸拳

云。生鐵拳頭不識人。上堂。你者輩。黏鑊湯漢。青州覓棗。鄭州覓梨。閻老子。是你親。是你眷。堯封今日若不喚醒你。你把阿波波呵咤咤。盡作了祖宗。鐵券慙愧。今日道一句子。塞得住山僧口。不可止一路掀翻几案。

### 國清翼菴鄮禪師

據室。諸佛心量廣一尺。此方地面廣一尺。諸佛心量廣一丈。此方地面度一丈。諸佛法身長一尺。箇條拄杖長一尺。諸佛法身長一丈。箇條拄杖長一丈。踏著此方地面。坐得者箇座子。提起箇條拄杖。開得此箇法門。鐘鐘鳴。鼓鼓響。文殊絕羅籠。普賢脫知解。舉措盡光明。咳唾皆龍象。卓拄杖曰。出手釘得虛空櫬。許汝叢林作榜樣。晚參。驀地草鞋底脫。不管鼻孔[山\*藍]巉。脫向深山角落裏。橫橫豎豎。豎豎橫橫。無不放光動地。脚尖頭踢出來的。是甚麼乾矢橛。小參。汝刺脚與麼來。法華塘。為汝說大事因緣。木魚山。為汝說無聲三昧。解脫門。為汝說智智清淨。七寶幢。為汝說淨光無礙。更來者裏。討什麼椀。擲拂子便起。小參。紅鑪燄裏。拈來片雪。散作普天春色。直得森羅萬象。草木叢林。一時簇綻。於以壯烟雲之色。于以添渤澥之瀾。西來大意。不須煖室商量。少室真宗。何用望空啟告。曩謨佛陀。曩謨達磨。曩謨僧伽。總然將得虛空來。驀擊竹篋云。還教博取虛空去。

### 資福童碩宏禪師

據室。未入門豈容話會。到者裏方許商量。且道。醍醐語毒藥語。達磨是大士化身。直得九年分疏不下。維摩乃古佛再世。亦不敢輕措一詞。莽鹵漢好作等閒。豎拂子云。試看是何標格。上堂。透金剛圈。不在手脚快。便吞栗棘蓬。難在牙齒堅牢。不能與諸塵作主。徒然誇七事隨身。主賓玄要。未分以前反手摸得著。當斷不斷。反招其亂。揮劍處。十字街頭曾無向背。當四山相逼。煞有生機。臨濟面門突出底無位真人。卓拄杖一下云。早已斬為三段。何況虛空畫圓相。水上插紅旗。一向譎訛。無本可據。山僧實頭人。何敢妄語。喝一喝云。切忌巡人犯夜。

### 靈瑞尼祖符禪師

上堂。拈香云。此一瓣香。明逾寶月。瑞勝優曇。若非鼻孔相符。爭得心源共印。爇向鑪中。供養始祖釋迦文佛大和尚。暨禪宗第一

祖飲光尊者。直下諸大祖師。恭願金輪統御一人。端拱御樓中。叡澤[雨/沔]流。四海五湖王化裏。乃云。道者家風。古今不異。三間茆屋。一味安閒。更弗向外營求。隨分有鹽有醬。若是佛法。山僧有口。祇堪挂壁 上堂。無依無欲是能仁。却被明星換眼睛。盡大地人同一見。更將何法度眾生。黃面老子。受山僧一問。直得口似匾擔。汝等諸人。著如來衣。坐如來座。何不道一句與他出氣。以見佛法有人。不然。却是山僧罪過 上堂。拈拄杖。碎得聖凡窠臼。荒草解橫身。提起本分鉗鎚。大地齊乞命。讚之則耳聾眼瞎。毀之則口啞舌禿。不毀不讚。平地陷人。別有機關。鑿空覓路。明明向你道了也。若更不會。莫怪山僧蓋覆 上堂。長廊下與你說底。不是。後架頭與你說底不是。即今法堂上與你說底且道。是不是。學人纔出作禮。師云。似即似。是即不是。下座。

南嶽下三十六世

丈雪醉禪師法嗣(二人)

青城鳳林竹浪生禪師

至節上堂。機輪轉處。草木揚眉。坐斷當陽。乾坤失色。語其動也。徧周法界。語其靜也。泯跡潛踪。所以道。先天而天弗違。後天而奉天時。若以世諦流布。讓伊有分。若約正眼流通。則不然。驀拈拄杖云。看木上座。如何行履。百萬億須彌盧。百萬億日月。百萬億四大部洲。百萬億香水海。一口吞却。且盈虛消息。向甚麼處流轉。諸佛眾生何處安身立命。

佛冤超綱禪師

內江李氏子 上堂。證第一義。異類潛蹤。正印提持。眾流截斷。若存知見。如算海沙。豈不見。少室峯前。低頭難覓地。曹溪路上。擡眸不見天 小參。雷音普震。困蟻羣蘇。捲起簾來。青天白日。露柱笑呵呵。燈籠功不宰。白雲本無心。常自露光彩。豎拄杖云。輒不得動著者箇。何故。願彼觀音行。善應諸方所 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云。昨日雨今日晴。進云。恁麼則與天地同根去也。師云。虛空裏不可安耳躲 問。如何是學人本來面目。師云。春風吹露柱云學人不會。師云。夜雨濕崑花。

雲橋水禪師法嗣

東川蒼碧聰禪師

上堂。懷抱一念虛明。未脫三乘羈鎖。妄認八處見見。埋却自己靈光。直饒當下轉身。竿頭進步。脚跟下未免三十痛棒 元旦上堂。動若行雲。止猶谷神。水中鹹味。色裡膠青。老盧只解踏碓。藥山

一物不為。舟有一尺篷。可使八面風。駕無三尺鞭。難控千里馬。喝一喝。拋出栗棘蓬。誰人吞得下。

### 易庵師禪師法嗣

#### 南陽法海林我鑒禪師

上堂。薰風始拂。炎暑臨時。長稚賢愚。正堪休歇。制毒龍於無相佛刹。調狂象於正覺場中。朗智地於神珍。燦性天之戒月。單刀直入。獨步丹霄。方知牢關把定。異轍同途。相見別峯。傍通消息。驀豎拂子云。還會麼。居然擊碎蟠桃核。者回方見個中人。上堂。看破浮漚化城。了知空華寶所。彼既烏有先生。大都我亦非我。相將下應上呼。却也無可不可。揮拂子召眾云。還會麼。於斯會得。何勞曲唱巴歌。其或未然。拂一拂云。雙桂曾開五葉花。及至寶峯今結果。

### 聖可玉禪師法嗣

#### 崇隆碧露夢禪師

上堂。嫩筍出林。點破青霄。日月蒼松徹蔭。普覆大地乾坤。會則千足萬足。不會日午三更。遂拈起袈裟云。會麼。此是雞足頭陀。待慈氏下生的。秋日上堂。秋風清秋月明。碧天皎潔絕無痕。半夜木雞啼月冷。三更石犬吠花陰。驀豎拂子云。知音有幾人。佛誕上堂。銅鐘易扣。鐵鼓難鳴。事出無由。機扣有方。一言一語。文殊起發請之端。全默全歸。維摩圓不二之門。把定封疆。彌勒陷在兜率。放開一線。釋迦此日降生。到者裏。把住是。放行是。大眾試定當看。

### 密行忍禪師法嗣

#### 滇楚九臺山知空蘊禪師

小參。迦葉一笑傳心。神光三拜得髓。拈拄杖卓一下云。只此一著。了無多子。久參上智。便合乘時。顧盼躊躇。劍去久矣。更說甚鑛中之金。麥中之麩。一場自賺。諸兄弟知也無。若不知。盡情放下。直須絕後再甦。莫待一事無成兩鬢疎。方袍圓頂胡為乎。噓一噓。靠拄杖便起。

## 百癡元禪師法嗣

### 京師海會憨璞性聰禪師

延平順昌連氏子。年十八祝髮。首參鼓山賢。令看萬法歸一話。久無人處。出嶺謁百癡元。即承記荊。命主餘杭法喜。臨安觀音。錢塘廣福。大興延壽。海會憨忠諸刹。順治己亥。應 詔萬善殿。賜號明覺 上堂。佛祖妙道。衍派流芳。選佛場開。鑪鞴洪啟。既以門庭施設。言前的旨控玄機。楷定圓宗。句下搜尋絕了義。劈禪宗之骨髓。標教網之紀綱。隨處建立法幢。須知法無定相。如月印於滄江。似聲傳於空谷。直使百草頭上。常轉大法輪。一毛孔中。現瓊樓玉殿。應是金輪王降世。處處成就菩提道場。作天下人中之主。布德澤三有霑恩。垂慈育羣靈瞻仰。一人有慶。萬民賴之。堯風蕩蕩。舜日熙熙。四海清寧。齊天一統。佛法有幸。興隆祖燈。聯芳續燄。一機感赴。萬善同歸。正當今日開堂。祝聖一句。作麼生道。壽比岡陵等太極。龍棲鳳閣永彌新 上堂。無雲峯頂。徹湧空劫金烏。枯木堂前。暗消剛骨紅影。達者深入闔奧。作家格外權衡。無孔笛橫吹倒吹。破甌子七零八落。寒山拾得不知名。豐干尚且難摸索。擲下拂子曰。諸人切莫亂卜度。康熙丙午臘月十三日。師書偈曰。今年五十七。捏碎孃生鼻。一生受用中。無得亦無失。昨夜泥牛鬪入海。直至如今無消息。真消息。今日西廊打倒東廊壁。放捨傀儡歸去來。莫教特地成狼藉。擲筆而逝。塔於台山安國寺右。

### 靈機觀禪師法嗣(二人)

#### 湖州資福明心鑑禪師

示眾。鉢盂峯下。禹泉亭畔。有一句子。突出難辨。山僧為汝等道破去也。便下座。

#### 湖州資福德水洧禪師

據室。實地之中。不得烏焉成馬。有問佛法心性。劈脊好與一棒。因甚如此。車不橫推。理無曲斷。

### 石庵瑀禪師法嗣

## 杭州仁和佛日璿鑑衡禪師

僧參。師問。甚處來。曰白下。師曰。石頭城[跳-兆+亭]跳上梵天。你還知麼。曰不因師舉。某甲那知。師曰。不屬聲。不屬色。你作麼生知。曰和尚婆心太切。師云。孟八郎漢。又恁麼去也。僧參。纔展坐具。師曰。錯。僧便收坐具。師曰。錯錯。僧復禮拜曰。某甲是本地人。不解梵語唐言。求和尚放過。師曰。正要問你。本地上親切道一句來。僧彈指一下。師曰。是何意旨。僧無語。師曰。者沒地頭漢。直打出上堂。有一句子。密不通風。有一句子。徧周沙界。更有一句。且作麼生道。良久云。吾常于此切上堂。卓拄杖云。龍袖拂開全體現。眉毛上作麼生。又卓一卓曰。象王行處絕狐蹤。脚跟下作麼生。又卓曰。向者裏見得徹去。自然眼蓋乾坤。大方闊步。儻或未然。直須薦取。連卓兩卓。

## 天嶽晝禪師法嗣

### 廬山開先心璧淵禪師

上堂。白雲影裏藏身。祇圖瞌睡。紅塵堆中託跡。隨順世緣。至於佛法兩字。久已拋向他方世界。今日却被當道尊官推。向者曲条木牀上。又且如何施設。賴得雙劍峯巍巍萬仞。門戶潑天。瀑布水滾滾千尋。舌頭拖地。此是從上祖師。轉不退的法輪。說不盡的妙義。新長老。不妨借水獻花。舉似大眾。雖然如是。錯會者多。

## 山曉哲禪師法嗣

### 杭州佛日法持毅禪師

立春小參。正月春臘月春。一歲梅花兩度新。處處泥牛頭角迥。沿街鑼鼓鬧相迎。諸仁者。還識春牛落處麼。良久曰。四蹄踏破天邊月。耕轉虛空滿地金。清明小參。節屆禁煙三月五。家家塚上添新土。雨打桃花冶豔傾。靈雲漫向枝頭覩。今日黃龍見處偏。乘閒密種長生果。無陰陽地好栽培。滿樹花開香朵朵。報諸人休莽鹵。達磨不是西天祖。

## 靈遠應禪師法嗣(四人)

## 襄州洞山普慧漢水浩禪師

佛殿。麗像開圖。宏濟萬品。金容掩色。典御十方。所以貴買無數僧祇。賤賣一時拈出。且道。以何為據。遂拜云。六出天花鋪地錦。占斷風光作主人。晚參。舉朝宗忍和尚。因僧問向上事如何下手。忍便掌。僧擬議。忍踢云。脚下也得。師驀卓杖云。南華老人。將者片真金。三翻兩次。當作頑鐵賣了。山僧今日欲來對眾找價。乃下座。旋風打散。

## 天童石吼徹禪師

越州山陰童氏子。博士弟子員。依兜率院子賢和尚薙染。造真州五臺靜觀律師圓具。參靈遠應。親炙十有二年。遂傳衣寶應一宿。年七十二。值文覺禪師堅請。主席天童。冬至早參。句外明宗。豈屬言詮。劫前運步。不費心力。只在當人能達通變。何必定要分時限日。四序不遷。陰陽不涉。藏冥運於化育之際。無影樹頭宿彩鸞。截羣機於未兆之先。不萌枝上飛春色。若能向頂門上。霹靂轟騰。脚跟下自然紅輪突出。魯公臺上書底。是世法不是佛法。須知不是者箇消息。慈明堂前揭底。是佛法不是世法須知也不是者箇消息。既總不是者箇消息。畢竟是什麼消息。擲下拄杖云。拄杖子吞却祖師了也。教什麼人說禪。還有人救得也無。乾隆戊午五月二十七日示寂。世壽七十七。僧臘五十二。語錄五卷。行世。塔于天童之陽。

## 桐城慧山魯璠奩禪師

解夏上堂。拄杖活如龍。草鞋獰似虎。呼喚不回頭。羅籠不肯住。脚跟下天寬地寬。切忌東去西去。剔起眉毛子細看。寸草不生千萬里。晚參。孤月朗眾星明。突出達磨眼裏睛。看看山門騎鼓角。走入佛堂拜聖僧。喝一喝云。是甚麼。乾矢橛麻三觔。描不成兮畫不成。小參。大地平沉。虛空粉碎。認著依然還不是。前三三後三三。推門落臼。開門見山。還會麼。虛空背上板毛生。萬里山河一條鐵。小參。昨夜金龜脫却殼。無端又被人鑽破。天明石女急尋看。撞倒嵩山破竈墮。顧左右云。下坡不走。快便難逢。

## 六安大悲祖幻寧禪師

金陵劉氏子 上堂。事存函蓋。展全機於聲色堆中。理應箭鋒。顯大用於法界之外。直得陟山起舞。淅水歡騰。露柱揚眉。燈籠發笑。更說甚麼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衲僧家。無固必。行便行。坐便坐。苟能直下薦得。則知德山棒不圖打草。臨濟喝祇要驚蛇。到者裏。自然如龍得水。似虎靠山。縱奪自由。殺活在我。設有所重。便成窠臼。皆是依草附木之流。指鹿為馬之輩。不惟孤負從上宗乘。亦乃笑破衲僧鼻孔。寧上座。雖則一任騰騰。於法無知。終不將斷貫索。穿人鼻孔。只得借路。與眾兄弟。通箇消息。良久。喝一喝 小參。心不是佛。智不是道。卓拄杖云。不許夜行。投明須到。

### 節崖琇禪師法嗣(四人)

#### 蘇州虎邱洞明照禪師

徽州歙縣洪氏子 三門。師云。打葛藤分露布。涉水登山渾不顧。拄杖頭邊車馬多。縱橫不礙毬門路。拽拄杖。便入 佛殿。不禮明行足。只拜竹筋鞭。無人知此意。令我憶南泉 小參。有佛處不得住。一片古青山。白雲侵占去。無佛處急走過。澄潭不許臥蒼龍。枯木寒崑成話墮。有無俱打脫。明鏡正當臺。顧左右云。戶外重增龍象跡。屋中添繡破草鞋 示眾。一口氣不來。何處安身命。老鼠無處尋。貓兒通箇信。咬破鐵棺材。死屍喫不盡 小參。昨日天晴。今朝雨落。門前石烏龜。草鞋蓋覆却。雖然躲得渾身。未免露出頭脚 上堂。頭五岳鼻三巴。半肩斜搭紫袈裟。人來問道無言說。一笑清風捲落霞。

#### 湖州吳山廣壽字亭尹禪師

浴佛示眾。舉藥山。因遵布衲浴佛次。山曰。者箇從汝浴。還浴得那箇麼。衲曰。把那箇來。山休去。師曰。遵老索來。杓柄在握。藥山休去。舌抵上齶。要見那箇。敢保未在。爭如吳山今日莖老宿發心浴佛。尹上座袖手旁觀。不管他者箇那箇。隨例與伊一杓。直得麻三斤乾矢橛。殿裏底牛頭阿旁。有眼無鼻孔。杖林山下竹筋鞭。一齊放光動地。不唯坐斷天下人舌頭。且免大家鈍置 佛誕。靈山會上葛藤根。今日毗藍園裏生。引蔓牽枝二千載。娑婆無路得人行。以拄杖劃曰。今日為諸人。一齊截斷了也。且向何處。見他釋迦老子。武林春已晚。臺榭綠陰深。

## 揚州福緣濟生度禪師

青州張氏子。年十三。投恒晏大師出家。依佛定和尚圓具。後參節崖琇。徹法源底。出住救生金粟祖堂聖因等處 據室。據此室行此令。天下衲僧齊乞命。佛祖直教重鍛過。甌頭瓦礫呈心印。且道。利害在甚麼處。霜刀舉起骨毛寒。利劍揮開天地靜 小參。寒則普天寒。說誠實言。熱則普天熱。是他時節。有箇不被寒熱所轉底。諸兄弟。還知麼。以手托拄杖云。自從隨我下天台。直至如今。七尺還是七尺。一丈還是一丈。上堂。冷靜處却沒滋味。鬧熱處正好商量。踢脚絆手。無非乾矢橛。撞頭瞋額。總是蕪三斤。倘若秤得來。乾坤無剩欠。齷得著。世界總馨香。且道。無鼻孔老漢。又向甚麼處安著。夜來牀薦暖。一覺到天明 小參。昨日打點幾句佛法。欲來為眾小參。被四肢風火燒。得乾乾淨淨。今早又打點幾句。又被一個噴嚏打得乾乾淨淨。今日對眾不可無語。有法無法。單看臘八 師行脚時。因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云。出一叢林。入一保社。後住山。又問萬法歸一。師云。飯後濃煎茶喫了。池邊坐石數遊魚。及住救生。又問萬法歸一。師云。拆東牆補西壁。後住福緣。又問萬法歸一。師云。一喫便飽。一屙便了 雍正丁未八月十八日示寂。世壽五十七。僧臘三十九。塔于福緣之右。

## 祥光吉禪師法嗣(二人)

### 揚州淨慧破愚智禪師

示眾。枝頭拭羽鳥初啼。一一咸明上上機。卓拄杖曰。若向箇中親薦取。擔頭挑得好春歸。

### 揚州淨慧允中微禪師

小參。古德道。日出心光耀。天陰性地昏。不知天地者。剛道有乾坤。諸人簇簇上來。山僧瞌睡特甚。遂豎拂云。成人者少。敗人者多。

## 薪傳瀾禪師法嗣

### 淮安龍興靈潔源禪師

小參。將心是佛。墮野狐窟。謂佛非心。遭無間獄。迴脫中間與兩頭。夜深不向蘆花宿。翻來活眼照寰中。六六元來三十六。

### 博凡可禪師法嗣

#### 江州西林仲泉空禪師

上堂。舉世尊正覺山前覩明星悟道。歎曰。奇哉一切眾生。皆具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師豎起拂云。智慧德相。妄想執著。總被空上座一串穿却了也。正恁麼時。假饒釋迦老子到來。也只得傍觀有分。眾中。還有為古人雪屈者麼。良久云。咄咄咄。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消殞。

### 天岸昇禪師法嗣

#### 徐州雲龍興化谷庵朴禪師

早參。拈拄杖云。莫避喧以求靜。莫自是而非他。莫生聖解。莫存己見。但除揀擇。洞然明白。作麼生是明白底事。卓拄杖。喝一喝云。面山高。主山低。

### 懷光燦禪師法嗣

#### 京都覺生雪鴻信禪師

賜號文覺。姑蘇人。世業儒。于庠序閱金經。有省。即剃染。參懷光燦。印可。小參。向上一機。不是金剛圈。透頂一句。不是栗棘蓬。諸人每日二時。匙箸下鉢盂裏。喫粥喫飯。若是口口不曾咬著米。透得金剛圈。吞不得栗棘蓬。若是口口咬著米。吞得栗棘蓬。透不得金剛圈。直饒吞得透得。祇如藕絲懸須彌山。一手接四天下。是什麼人境界。還知麼。良久云。也只是個沒面目底漢。晚參。行棒行喝。老僧從來沒此閒氣力。眉橫鼻直。諸人幸無些子缺陷。只是上來下去。切忌踏碎堦前者片雪。露出甑頭土塊。努眼睛掀脣舌累汝。眼中突地添箇屑。晚參。數輩枯禪繞病僧。箇箇眉橫鼻直。豈可將佛法鈍置了也。只二時粥飯外。不須別用心力。近日園頭要種菜。田頭要種穀。雖然如是。也須大家照顧。且道。照顧箇甚麼。朝朝犁耙迎風動。翻轉泥來原是土。小參。本來無一物。何處惹塵埃。祖師愛道無。覺生愛道有。山河大地是有。人物男女

是有。身心世界是有。只是要覓絲毫塵埃。了不可得。且道。祖師見處是。覺生見處是。於此辨得分明。許汝具參學眼。乾隆五年。師退處彌陀寺。至十五年示寂。召門弟子曰。將法語焚之。乃吉祥而逝。世壽八十七。塔建本寺。

### 文弱盈禪師法嗣

#### 終南蟠龍子肅遠禪師

無為州趙氏子。母夢僧乘牛車投宿而孕。襁褓喜趺坐。出家後。參文弱和尚。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甚麼。文與劈頭痛棒。後聞空手把鋤頭大徹。一日文落堂。纔據坐。師即出眾。奪取拄杖。拋向人前。文云。者孟八郎漢。來捋虎鬚。師即呵呵大笑。上堂。僧問。文殊是七佛之師。因甚出女子定不得。師云。箇。進云。罔明是初地菩薩。為什麼出得。師云。露。迺云。當機不昧。千眼頓開。知鑑洞明。十方普應。說甚文殊罔明女子入定。直饒瞿曇老漢。也須喪身失命。且道。利害在甚麼處。卓拄杖云。咩咩。

### 古鏡符禪師法嗣

#### 無錫南禪吼松澄禪師

參龍池微。問。如何是萬法歸一。微劈頭便棒。師曰。一歸何處。微復打。師乃呵呵大笑。微曰。見箇甚麼道理。師便喝。微又打。師拂袖便出。後參古鏡。徵師所得。師呈偈曰。萬法歸一一歸何。拿住虛空活切磨。嚇殺白雲飛萬里。清風吹調唱哩囉。鏡可之。僧問。如何是本來面目。師曰。日曬苔枯。雨濕葉茂。曰。不會。師曰。素富貴行乎富貴。

### 介為舟禪師法嗣

#### 漢陽曇華碧雲天禪師

上堂。問。不展鋒鋌。如何得勝。師云。金剛手內八稜棒。僧云。掀倒禪牀。師云。你不是者手脚。僧便喝。師云。峨眉白長老。乃云。梧生鳳隱。霧起龍吟。應無所住。而生其心。者是盧能和尚。遇著碓嘴生花。曳轉孃生鼻孔。山僧忝列末裔。不顧彌天罪犯。將他老古錐底。鍋子大小。杓柄短長。直言便道。只得鶴棲起舞。晴

川攢眉。驚羣句。驚羣人前拈出。奇特句。奇特人前舉揚。收放臨時。與奪自在。設有傍不甘的道。忽遇衝雲破浪者。將何支遣。卓拄杖。喝一喝。下座。

### 冷堂林禪師法嗣

#### 越州蕭邑城山大拙理禪師

上堂。最初一句子。未曾越此時。末後有光輝。今日更誰委。大千沙界掌中揮。大地山河成正覺。眼中花相長短春。幻裏生涯作非作。圓陀陀活潑潑。珠走盤兮盤走珠。一顆寒光永照燭。

### 萬因聖禪師法嗣

#### 福州護國鐸夫凡禪師

上堂。僧出便喝。師曰。古人道。一喝不作一喝用。你者一喝。落在甚處。僧又喝。師曰。前一喝。也有主。也有賓。後一喝。還有賓主也無。僧擬進語。師連棒打下曰。脫空妄語漢。乃曰。德山棒臨濟喝。拈放一邊。若具頂[寧\*頁]正眼。別資一路。猛烈進前。殺活自由。卷舒無礙。豎拄杖曰。祇者些譎譎。多少師僧。到者裏開口不得。今日落在天聖手裏。一任施設。佛來也打。祖來也打。正與麼時。還有為佛祖出氣者麼。震威一喝曰。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示眾。拄杖子。搜翻洞山五位。顛倒臨濟三玄。直得古定光。騎佛殿出三門。撞倒慧明崖。粉骨碎身。驚起積道山。了無巴鼻。是汝諸人。還覺眉毛定動也未。小參。事事無礙。大雲秀聳千林外。法法無差。鴈度澗江素影斜。松濤夜夜和鐘落。梅蕊凝香鐵笛花。君不見。太原孚。草鞋踏破徧天涯。揚州畫角落誰家。

### 還一韜禪師法嗣

#### 潤州鶴林雲屋音禪師

師問新到。向在甚麼處住。僧云。天目。師云。曾見和尚麼。僧云。某住數年。豈得不見師拈竹篋云。天目和尚。何似者箇。僧罔措。師云。更住數年。也夢不見。晚參。菊綻東籬。香浮內院。鴉鳴古木。響答虛堂。明明父母未生前。了了見聞不及處。所以道。

曠劫來事。只在如今。一句無私。靈機獨露。還委悉麼。相識滿天下。知心有幾人。小參。近日諸方據曲彙牀者。說法務要尖新。出語必求玄妙。殊不知。秘魔一向擎叉。禾山只解打鼓。打地和尚。初無棘句鈎章。振鐸阿師。曾不攢花簇錦。汾州只道莫妄想。俱胝惟豎一指頭。更有老鳥窠。但道諸惡莫作眾善奉行。如此朴實禪。今人那肯說。山僧嘗謂。古人說禪如蓮華。花在實亦在。今人說禪。如牡丹芍藥。花有實無。柰何。禾黍不陽豔。競栽桃李春。翻令力耕者。半作賣花人。

### 龍喜[汁\*(十/甲/寸)]禪師法嗣

#### 龍王山清涼千智幢毅禪師

茶話。新茶嫩笋。芳草垂楊。徐步山谷。鐵石心腸。好鳥相喚。其音叮噓。如何白雲飛來滿牀。山下有田。菜麥青黃。山外有屋。烟樹蒼茫。忽來明月崑上生光。誰為侍者。松杉兩傍。橫攬拄杖。擊碎空王。正恁麼時。日出東方。如大火聚。今古文章。山泉自流。清聲勿狂。金毛獅子。哮吼高岡。驚走無路。妖怪狐狼。一喝兩喝。佛祖潛藏。無人可伴。靈樹家鄉。長年受用。百結衣裳。佛祖慧命。伶俐兒郎。吾師授受。時刻不忘。呵呵。且道。是詩耶偈耶。世諦耶。佛法耶。遂舉杯云。總不妨吃茶。

### 彌壑澧禪師法嗣(二人)

#### 南陽雪乳律禪師

小參。一念萬年。萬年一念。一念不生。前後際斷。乃高聲召眾云。大眾。目前無閻黎。此間無老僧。且道。作麼生相見。良久云。任從滄海變。終不與君通。上堂。昨夜南極老人退位。向北斗裏。安閒自在。須彌山子。拍手高歌。四大部洲。一齊唱和。且道。誰是知音者。良久云。摩訶般若波羅蜜。

#### 東京相國曇紹杲禪師

小參。橫按竹篋云。會麼。者箇是諸佛諸祖說不到的。山僧說了也。諸人作麼生。良久云。覲面不薦。如隔千山唯弄光影。大難大難。上堂。摩尼珠人不識。如來藏親收得。召眾云。如何是摩尼珠。喚什麼作如來藏。良久。以手指云。者箇上座肥。那箇上座

瘦。小參。舉東山和尚道。如何是禪。閻浮樹在海南邊。近則不離方寸。遠則十萬八千。畢竟如何。禪禪。相國也有箇道處。如何是禪。三脚蝦蟆跳上天。吞雲吐霧。布雨興煙。有意尋時天地隔。無心用處嘴脣邊。畢竟如何。禪禪。

### 雲峨喜禪師法嗣(三人)

#### 西安興福憨休乾禪師

西蜀龍安胡氏子。上堂。三度與棒。黃檗老徹底婆心。脇下還拳。小廝兒事急則變。顯大用。發大機。明頭合。暗頭合。擒縱互換。照用齊彰。北斗裏藏身。針鋒上走馬。到者裏。釋迦老子口似磔盤。達磨大師眼如木[木\*突]。十聖三賢。讚歎無門。眾生魔外。疑謗不息。獨許超方作者伶俐衲僧。直下了知。端倪不用。明椎玉鼓。暗展鐵旗。在處草偃風行。所向無思不服。正所謂鍾馗醉裏唱涼州。小妹門前暗點頭。巡海夜叉相見後。大家拍手上高樓。結制上堂。金粟舊火爐。深廣莫可測。一道本平等。聖凡元不別。撥出火星時。虛空齊迸裂。寒則普天普地寒。熱則普天普地熱。三世諸佛。於火燄中。轉大法輪。總不相違越。汝等諸人。今日於中坐臥經行。一任麻三斤乾屎橛。都來拋向一邊。總沒干涉。只如不許昏沉瞌睡。若也瞌睡。眉毛被火燎却。也怪金粟不得。

#### 汝州風穴白雲雪兆性禪師

陞座。堪笑當年蘧伯玉。行年五十方知趣。從頭一一細思量。四十九年都不是。欲寡其過未能焉。孔子聞言深相契。某也今年四十九。信手拈來無不是。年年頭上頂青天。歲歲草鞋踏實地。獨有今年業力牽。雲水相從許結制。無端將箇破沙盆。安排累爾諸兄弟。禪道佛法半點無。鬼面神頭無本據。何如撥轉鐵牛機。直入千峯萬峯去。免教扭捏孃生鼻。懸羊賣狗成何濟。大眾。孃生鼻孔。一任扭捏。孃未生時。鼻孔在甚麼處。蘇魯蘇魯。唵唎唵唎。

#### 河南金粟冲涵恒禪師

佛殿。萬德莊嚴。紫金光聚。驀筍相逢。誰敢正覷。乃撒開坐具云。因我得禮你。彼此無本據。遂大展三拜。上堂。僧問。如何是佛。師云。遠親不如近隣。進云。如何是法。師云。多虛不如少實。進云。如何是僧。師云。求人不如求己。師乃以拂子。打○相

云。非瓦礫非珍寶。圓陀陀兮光皎皎。爍破威音雪谷春。照開空劫壺天曉。各努力休潦草。蹉過當陽無處討。遂高聲召云。大眾。眾側聆。師驀拍禪牀一下云。此時不了何時了。中秋上堂。冲虛妙粹。惟證乃知。撲地風光。出突難辨。外離點綴。寧容者也之乎。內絕推窮。討甚單重交拆。還知金粟為人在甚麼處。豎拂子云。見月休觀指。歸家罷問程。

### 無礙徹禪師法嗣(二人)

#### 天台萬年紀安經禪師

湖州高氏子 上堂。直截根源。聖凡罔測。向上一著。佛祖不識。惟貴作家當陽定奪。思量擬議。天懸地隔 上堂。靈鷲拈花。人天百萬。領略者唯飲光。黃檗行棒。龍象一千。承當者獨臨濟。苟恁麼事。須恁麼人。萬年十餘年。布網張羅。東敲西擊。欲覓一箇半箇。以續先宗。爭柰土曠人稀。相逢者少。設有箇漢。聞恁麼道。出來掀翻法座。喝散大眾。把山僧亂槌一頓。不惟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亦免後人遞相鈍置。也須是過量人始得。何故。若無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 秋收上堂。藤條倒握。敲玉露於清晨。鎌子橫拈。斬金野於白晝。百草頭邊全意氣。明明大智神通。一微塵裏轉法輪。歷歷普賢境界。東拋西擲。謾云不是家珍。北走南奔。觸處無非至寶。進前退後。脚跟下蹉過幾箇祖師。左盼右瞻。頂門上失却一隻正眼。通方作者。便合乘時。懵懂禪流。徒勞側耳。

#### 天柱永慶念予恒禪師

江南上元萬氏子 上堂。風吹不入。雨灑不濕。四面八方。渾無欠缺。夜明簾外。任他鶴立枯松。選佛場中。那許狐藏獅窟。門裏人。要出出不得。門外漢。要進進不得。把斷要津。直得天曉不露。豁開戶牖。便見夜半正明。出頭天外底。到此且居門外。穩坐室中底。向來佛眼難窺。若謂門外逍遙。摩竭因何掩室。若謂室中穩密。文殊因甚不肯入門。向者裏檢點得出。便好荊棘林中縱步。毗盧頂上棲真。攝十劫作一念。撮大千為一塵。古今一貫。內外一如。其或不委。莫怪山僧立門戶。須知別有一壺天。下座。

#### 蘧夫一禪師法嗣

## 潤州夾山竹林辯言海禪師

住大同。僧云。如何是大同境。師云。風暖鳥聲碎。日高花影重。僧云。大好一聯詩。師云。作詩會那。僧云。某甲祇作詩會。和尚作麼生會。師云。甜瓜徹蒂甜。苦瓜連根苦。僧近前云。和尚道什麼。師云。風流不在著衣多。僧便拜。師便打。

## 道安靜禪師法嗣

### 聖感霽崙永禪師

立春上堂。鴉則鴉鳴。鵲則鵲噪。眼辨不如手親。行到不如說到。五九盡日又逢春。古屋朝陽寒氣少。除夕小參。毗盧師法身主。無死生忘寒暑。從來使得十二時。不彼十二時辰使。聖義炳然。真風廓爾。喝一喝曰。爆竹聲中百慮除。發機也勝千鈞弩。上堂。山花似錦。一花上一佛土。鳥語如簧。一語中一珠數。千聖同躔。萬機頓赴。躋盛世於唐虞。返淳風於太古。福果端莊。法輪永固。喝一喝曰。當陽驗取目前底。明明歷歷無回互。復喝一喝。佛誕日上堂。世尊剖一。伏羲畫一。乾峯舉一。雲門用一。一字一加橫。八字沒兩撇。此非彼不知。彼非此不識。一會靈山尚儼然。人人具眼誰端的。喝一喝。結制早參。永嘉一宿而覺。高亭招手橫趨。簡點將來。猶為鈍漢。眾中可有越格衲僧。契得我機者。即與證明。驀豎如意云。且道。是第幾機。眾佇立。師擲下如意曰。放待冷來看。晚參。如來密語。祖師真訣。水不自洗。刀不自割。悟須自悟。說自他說。卓拄杖曰。此回重按過。兩口無一舌。師落堂曰。適纔西堂上方丈啟白。堂中悟得兩人。悟的走出來。老僧為汝證明。連問數次。眾默然佇立。師曰。西堂誑語。老僧實語。滿堂菩薩。幸是可憐生。

## 敏樹相禪師法嗣

### 辰州龍山穎悟秀禪師

上堂。至理無言。明眼者鑑。真機獨露。通方者知。若以禪會。特地乖張。不以禪會。當面錯過。

## 太白雪禪師法嗣

### 明州育王法鐘覺禪師

上堂。關頭路口。捷徑要津。時時把住。處處放行。透得過者。却在那邊去。不得的。只在者裏。閏四月八日上堂。一年兩度四月八。不知何日生悉達。淡黃楊柳帶棲鴉。嫩綠池塘藏睡鴨。

### 采商榮禪師法嗣

### 鄂州向上具瞻仰禪師

解制小參。結制以前。鼻孔撩天。結制以後。鼻孔依舊。放開布袋。緊俏草鞋。荒草裏奔逐馬牛。酒肉案頭。醉殺佛祖。若也田地穩密。一任丹霄獨步。假饒漆桶不快。切忌前途路滑。

南嶽下三十七世

慧山海禪師法嗣(七人)

邵陵大梅與峯智禪師

上堂。一畝之田。三蛇九鼠。齧斷麻繩。翻身辨主。南州北縣。任遨遊。虎穴獅林顛倒走。萬別千差盡踏翻。丈夫氣宇衝牛斗。喝一喝 晚參。既得本不愁末。渾身直踞上頭關。空裏磨盤旋八角。東搭西兜。南涌北沒。當陽拋下死蛇頭。十聖三賢眼卓朔。爛嚼虛空當飽餐。誰解臨機道莫莫。

潭州大漚山密印古梅冽禪師

上堂。雨催樵子還家。一步緊一步。風送漁舟到岸。罷櫓停橈。正恁麼時如何。野老不知堯舜力。鑿鑿打鼓祭江神 晚參。蹋破艸鞵赤脚走。縮却項兮露出肘。昨日江上折枝梅。逢人喚作隄邊柳。大似雞羣之鶴。大似喪家之狗。未審。是聖是凡。合取狗口 示眾。拍禪牀召眾云。無人奪你鹽茶袋。庫藏裏須檢點。禍不入慎家之門。有人喚你苦葫蘆。者閑家具。直須颺却。賊不打貧兒家。復拍一拍。

潭州大漚易菴應禪師

上堂。春已半夜猶寒。遲遲煦日上欄杆。清淺聲隨流水濕。輕柔風動野雲翻。晴和暖綠陰繁。花放南枝向北看。大眾。森羅起舞。樂則同歡 示眾。搖風柳眼如青黛。浥露桃腮似火紅。實相深譚梁燕語。袈裟齧破五更鐘 示眾。倒騎鐵馬上須彌。信步披離絕所之。及頂凝眸天外看。百千諸佛下泥犁。

潭州大漚揆菴空禪師

上堂。冲風颯颯。古佛嘉猷。綠水潺潺。道人活計。恁麼會得。釋迦彌勒。站過一邊。其或未然。父母所生口。終不為人說。小參。拈拂子曰。掬水月在手。揮一拂云。弄花香滿衣。擲拂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晚參。老來住邨院。口齒不關風。逢人即便罵。彼此絕疎親。聖凡情量都消盡。方識山僧句句真。

### 潭州上林月愍權禪師

上堂。向上一路。大地無寸土。千聖不傳。徧界有家風。直得頭頭離向背。處處絕遮攔。帝子不知春去也。夜深猶聽樹頭嘯。

### 邵陵龍山月堂湛禪師

開鑪上堂。鉗錘初展。鑪鞴宏開。是聖是凡。乃佛乃祖。總與縛作一束。拋向烈焰堆中。一火煅就。他日鼻孔撩天。眼空四海。不得孤負西禪。上堂。紙窗生白月初來。笑破寒梅白玉腮。古澗幽深人罕至。尋香公子謾疑猜。

### 邵陵上梅雄山千如一禪師

上堂。佛法無人說。雖慧莫能了。即今山僧將一大藏教。千七百葛藤。作一句子。布施諸人。良久云。鷓子過新羅。

### 穆文德禪師法嗣

### 鳳林雪圃修禪師

小參。從上不傳之道。瞞不得具眼衲僧。驀一喝云。且道。者一喝。又從甚處得來。復一喝云。具眼者辨取。佛成道日上堂。朝雲漠漠。鎖斷聖見凡情。夜月沉沉。浸却魔宮佛殿。到者裏。雖無纖毫滲漏。未免冷落從上家聲。豎拂子云。明星現也。切忌大驚小怪。

### 晦山顯禪師法嗣

### 雲居九屏燕雷鵬禪師

陞座。揮拂子云。全提著子。貫徹古今。柳[木\*栗]一條。攬翻途轍。荊棘林中紅爛。剗盡骨髓。活人背後掘地深埋。觸目菩提。神光萬丈。貶向二鐵圍山。于中端倪。作麼生辨。擲拄杖下座。陞座。出門入門。釋迦彌勒。磕額交肩。便稱楊稱鄭。紫羅帳裏。傾國難酌寶珍。可惜作燕石拋散。若是田地穩密。打翻諸聖己靈。出纏漢子。劫前不居正位。不落今時。任運騰騰。風流特地。所以道。威音王己前。無師自悟。是第二句。還我第一句來。拍禪牀下座。

### 諦暉輅禪師法嗣

#### 杭州雲林巨濤果禪師

上堂。教外別傳。是何巴鼻。滿耳非聲。滿眼非色。識得圓陀陀。何須問彌勒。清淨本然。莫生疑惑。纔有希異之心。早已聖凡相隔。今朝十五開鑪。但看空中發燄。饒他玉轉珠迴。也要其中鍛煉。頑銅廢鐵齊收。果是真金不變。心佛與眾生。原不隔一線。錯認定盤星。失却金剛劍。打一○相云。若以智測。未為好手。若以慧照。猶在半途。除夕小參。一年復一年。梅花開放幾鮮妍。一歲復一歲。塵世茫茫醒又醉。爾我出家人。經營除俗累。選佛非選官。切忌墮尊貴。卓拄杖云。惟有拄杖子。寒暑一任推遷。豈肯隨羣逐隊。驗盡花枝短長。那管殘年舊歲。但能順適安和。便是融通三昧。良久云。露地白牛烹也未。

### 得定運禪師法嗣

#### 迴龍水月圓禪師

上堂。當陽一句。獨脫根塵。向上一機。光騰電閃。眨得眼來。已是落二落三。如之若何。白雲萬里。直得千古萬古如斯。前佛後佛無別。寬闊無外。大千沙界箇中藏。寂寥非內。香水海裏浮幢剎。若能無彼無此。非色非心。坐斷要津。不通凡聖。自然常光現前。巴鼻獨露。顯一切神通不思議之力。月籠丹桂遠。星拱北辰高。

### 止水源禪師法嗣

#### 崇仁天乘參禪師

長至上堂。一二三四五。屈指從頭數。數到驢年時。算來無今古。渠不涉春秋。何曾有寒暑。報與參玄人。薦取主中主。且道。阿那箇是主中主。良久下座。

### 穎悟秀禪師法嗣

#### 沅州太和長明旻禪師

上堂。一僧纔出。師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僧拂坐具。師便喝。僧亦喝。師便打。又一僧出云。某甲禮拜是。不禮拜是。師拈棒云。山僧打即是。不打即是。僧退後三步。進前三步。師云。不是不是。乃云。今朝衲子。當機一味。棒喝齊施。強生枝節。要人翻轉面皮。眾中還有翻轉者麼。如無。且看木上座。自翻轉去也。擲拄杖。下座。

### 佛冤綱禪師法嗣

#### 昭覺竹峯續禪師

成都松州沈氏子 上堂。晴雲萬里。處處霑錦江皓月。瑞氣千尋。家家沐四野清風。村歌奏無生之曲。牧女含太古之音。杖頭有眼。定盤無星。諸禪德。薦取鉢盂。幾度朝天。照顧眉毛。覷穿東壁。問。溪聲盡是廣長舌。且道。所談何事。師云。罕逢穿耳客。多見刻舟人 問。喚作一莖蠶。入地獄如箭射。不喚作一莖蠶。入地獄如箭射。如何。師云。口是禍門 問。雪覆千山。因甚孤峯不白。師云。瘦處難滿 問。虎以肉為食。因甚不食其子。師云。無他下口處。進云。魚以水為命。因甚死在水中。師云。隨鄉入鄉。

### 浪山嶼禪師法嗣(三人)

#### 嘉興福巖具宜開禪師

毗陵湯氏子 小參。山僧歷夏經秋。從不與諸人東語西話。樂得口門清淨。耳竅空鬆。你諸人。拚得一期做死漢。活來氣宇吞諸方。佛法貴正不貴勝。人情難契不難多。臨濟大師。住滄沱河側。僅得兩人成褸。建立黃檗宗旨。法昌禪師。住分寧。行脚僧無一箇。不辭依例開鑪。心雄一時。道高千古。不與諸方鬪勝。便與諸方鬪劣。鬪勝也。烘烘鬧鬧。難免瞎驢趁大隊。鬪劣也。古古怪怪。管

教麟角呈祥。正恁麼時。福嚴要與諸方鬪勝。則較劣十倍。要與諸方鬪劣。則較勝三分。如何得道出常情。超羣越格去。卓拄杖云。不可好肉剜瘡。佛殿。指天指地成何事。七步稱尊更可憐。是處池塘皆有月。誰家竈裏火無煙。僧問。水牯牛過窗櫺。因甚尾巴過不得。師云。斫却月中桂。清光應更多。進云。謝師答話。師云。揭諦揭謁娑婆訶。

### 嘉興普明赤潭珠禪師

佛誕上堂。眼前境是生機。口頭語是活句。指天指地。且道。是生機不是生機。雲門云。一棒打殺。與狗子喫。是活句。不是活句。者裏著得眼插得嘴。千七百爛葛藤。縛作一束。燒鍋滾水。正好與悉達澡浴。立秋上堂。秋蟬樹上鳴。秋蟲砌底吟。飄飄楓林葉落。漸漸襟袖涼生。白蘆雪鋪兩岸。紅蓼血染沙汀。誰家拋落金丸。星浮水面。何處輓來玉鏡。月挂天心。歐陽修感時作賦。杜子美乘興狂吟。吳道子描難就。張僧繇畫不成。只要直下心與境合。始知佛祖無法為人。攬下拄杖曰。雲門扇子。拋向搥[打-丁+(天/非)]堆上。趙州布衫。拈來補袖剜襟。樹凋葉落即不問。體露金風是若何。兔角長三尺。龜毛重九斤。

### 濮鎮龍潭福善慶堂成禪師

元旦上堂。春風蕩蕩。春日熙熙。花開笑面。柳展歡眉。無位真人。當陽突出。山門頭合掌稽首釋迦。佛殿裏燒香問訊彌勒。雖然禮數周旋。要且新年頭佛法大意。祇是未在上堂。豎拂子云。只者威音不知其始。彌勒未知其終。迴超名言。不墮諸有。可行則行。不出百千三昧。可止則止。寧忘萬象森羅。若也全身擔荷得去。一任糝糠佛祖。陶鑄聖凡。續千聖不傳之燈。照八面無私之燄。上堂。泗洲大聖。為什在揚州出現。者裏下得一轉語諦當。不但大聖落處。亦且參學眼正。其或未然。大地雪漫漫。春風依舊寒。泗洲見大聖。莫作等閒看。

### 德水洧禪師法嗣

### 湖州翔鳳資福也閒潛禪師

維揚海門胡氏子。除夕。山僧入此門來。惟解刀耕火種。礱米樵柴。禪之一字。無暇舉著。今年年窮日盡。結角羅紋之際。並無一

物與諸人分歲。若者一物可與。即是鈍置。然雖如是。有一件奇特事。不敢囊藏。特地舉似。露柱懷胎。被爆竹一聲驚落。不知是男是女。

#### 四航海禪師法嗣(三人)

##### 杭州龍泉匡源洪禪師

解夏小參。金風扇野。盡大地覓其起處。了不可得。暑氣初降。一毫頭識取端由。絕無影響。有箇漢從天日來。往南海去。分明舉似路頭。說甚九旬度夏。三月安居。未得到家在。以手招眾云。此去杭城三十里。逢人切不得錯舉。中秋小參。此夜一輪滿。清光何處無。古人恁麼去。未必到無疑。寒山比底。依稀似曲。南泉話底。彷彿同音。畢竟如何是真月。展兩手云。團圓有八角。劈破無兩邊。

##### 湖州靈山具如奇禪師

浙江人。上堂。眼不見眼。寧知他目乃自己瞳神。心不悟心。豈謂布毛當諸方佛法。莫道黑如漆。千日避其輝。明如鏡。萬象失其影。因甚有如是奇特。皆從山僧拂子頭上。打過鞦韆來。

##### 維揚天寧紫松彰禪師

佛殿。燈籠是我父。露柱是我子。的的老公祖。覷面沒相識。且道。拜他是。不拜是。顧左右云。逢人不得錯舉。遂拜。上堂。拈香極有來由。詮註不出。沒分曉處。特地昭明。須知桑樹上著箭。柳樹上出汗。未是奇特。炷香云。驗在目前。上堂。有一無口人。時時吞且吐。有一行路人。日日不出戶。驀然拾得三尺紗。仔細看來一匹布。上堂。撞翻彌勒樓閣。拈却淨名方丈。雲水高衲。法爾如然。還須知有向上一竅。始可歸家休歇。坐享太平。有麼。代云。黑漆布衫無兩袖。從君裁剪任方圓。

##### 玉山博禪師法嗣

##### 秦郵臨川普度古門裕禪師

本邑季氏子 上堂。玄關把住。縱然千聖罔通。智鎖掣開。一任萬靈設化。驀拈拄杖云。到者裏。不妨竿木隨身。逢場作戲。直得雲外鳥呼天。水中魚躍樹。高低普應。逆順從緣。當下如戴角猛虎。搖嶽驚羣。奮爪獐龍。衝雲搏浪。正恁麼時。劈開華嶽連天色。放出波濤動地聲。

### 遇山藏禪師法嗣

#### 黃山慈光中洲嶽禪師

上堂。諸方今日安居。吉祥事無一向。他人行處不行。他人尚處不尚。日午慣打三更。箇是渠農伎倆。謾誇奪食驅耕。剖腹剝心保障。直饒問若興雲。須知不肯輕放。從前寶惜填膺。就請一時洗蕩。若戀兔徑遊行。辜負三登九上。者裏不比尋常。佳器須資敏匠。何必口似轆轤。祇要一言諦當。此事真實相為。敢有一毫欺誑。小參。佛是眼中刺甲。法是貼瘡膏藥。祇如僧。又是箇甚麼。顧左右云。放過一著。小參。盡大地是箇盆盂。鹽官今日為你諸人。安箇柄子去也。卓拄杖云。方木不投圓孔。

### 漢雲曇禪師法嗣

#### 李山澄光繩木林禪師

上堂。木人拍板。韻徹清霄。石女吹笙。聲傳幽谷。趁泥牛而含月。踏斷元途。驅鐵馬以追風。衝開鳥道。頭頭迴脫根塵。物物頓忘聲色。於無聲色中。一見一切見。一明一切明。自然靈光獨耀。至體全彰。且無聲無色中。見底明底是甚麼。擊拂子。青山不鎖長飛勢。滄海合知來處高。上堂。古佛心祖師意。以字不成八不是。迦葉問阿難。阿難不會。武帝問達摩。達摩不識。趙州五年分疏不下。魯祖見人只得面壁。德山入門便棒。起陸地之波瀾。臨濟入門便喝。轟晴空之霹靂。更有一事報君知。夜行莫踏白。

### 吼松澄禪師法嗣(二人)

#### 無錫九峯三明灑禪師

臘八上堂。擡頭觸破娘生鼻。情與無情俱漏泄。口吞宇宙不留蹤。拶著虛空頭腦裂。明星夜夜發光華。覩面相逢是誰識。一句奇哉作

話端。出山又見來時跡。眼裏有瞳。舌中無骨。諸兄弟。還有悟道者麼。有則與你痛棒三十。山僧者裏。留你不得。

### 宜興龍池迅帆裕禪師

無錫錢氏子 臘八上堂。一九二九。相逢不出手。臘七臘八。河裏凍殺鴨。山門口金剛。不挂寸絲。佛殿裏羅漢。額上汗出。堪笑黃面老瞿曇。偏向雪山作窠窟。六年凍得眼無光。一覩明星便饒舌。千古兒孫作話端。一年一度揚他拙 除夕小參。今朝臘月二十九。年窮歲盡難遮覆。大家覲面露堂堂。那個男兒不知有。看取長沙岑大蟲。却似西河獅子吼。撞著普化一頭驢。趁去子胡一隻狗。大家相聚團圓頭。八角磨盤空裏走。少傾普請喫年茶。切忌打失娘生口。不失口。來年依舊笑東風。好手手中誇好手 師於雍正元年癸卯五月六日示寂。世壽七十一。僧臘五十九。塔建致敬菴之旁。

### 紀安經禪師法嗣(四人)

#### 金粟山禹門宗禪師

小參。薰風南來。殿閣微涼。無位真人。赤露堂堂。見麼。又逐流鶯過短牆 小參。一尺水興一丈波。是必源頭有據。半幅帆使八面風。又豈易借渠力。且道。渠是阿誰。嫩艸階前初見綠。殘梅帶雪未全消 晚參。天寒日短。那事甚緩。狼藉百艸頭。官物無收管。堪收管。他日諸方問著。當言切莫面煖。

#### 天台萬年豁然緣禪師

上堂。向上一機。澄清巨海。當陽一句。烈燄騰空。三世諸佛。到者裏無處藏身。歷代祖師。到者裏豈容著跡。說甚皇宮兜率。苦行度人。却不為平地跌跤。無風起浪。所以雲門道。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太平。衲僧須到恁麼田地。不屈佛祖兒孫。何故。噉龍須是金鵬子。竭海還他過量人。

#### 金粟慧海源濟禪師

小參。舉大茅和尚示眾云。欲識諸佛心。向眾生心行中識取。拈拄杖。卓一卓。欲識常住不凋性。向萬物遷變處會取。復卓一卓。若

會得者兩卓。大茅和尚。被爾捉敗。若也未會。萬物遷變。換爾眼睛。

### 浙江金粟悟心達禪師

上堂。破一微塵。出大經卷則易。歸大經卷。入一微塵則難。入得一微塵。出得一微塵。自然動無遺照。舉必全真。起七。無隔宿思。可參臨濟禪。有肯諾意。難續楊岐派。殺佛殺祖。須是其人。煅凡煉聖。全憑作者。大丈夫。秉金剛王寶劍。二六時中。行亦斬。坐亦斬。住亦斬。臥亦斬。縱無斬處。亦不得放過。何故。為人須為徹。殺人須見血。中秋。靈山指月。龍像不足致雨。曹溪話月。畫餅安可充飢。馬祖玩月。大開了眼作夢。何故。此夜一輪滿。清光何處無。小參。不是心不是佛不是物。老龍解破蒼龍窟。八萬四千非鳳毛。祥麟只有一隻角。

### 天台萬年止先定禪師

上堂。禾山普化忽顛狂。打鼓搖鈴戲一場。不若少林無孔笛。頻頻吹出妙難量。且道。甚麼曲調。者裏明得。便見昔日末山尼。因僧問如何是末山境。山云。不露頂。進云。如何是末山人。山云。非男女相。進云。何不變去。山云。不是神。不是鬼。變箇甚麼。看。他一問一答。好不勦絕。豈不是無孔笛中吹出驚天動地。諸兄弟。還委悉麼。若將耳聽終難會。眼裏聞聲始得知。小參。新正不如舊歲。寒風雨雪連綿。釋迦不管閒事。彌勒只笑無言。伽藍心中著急。祖師性裏參禪。厨中柴無一擔。庫內穀米將完。直待天晴日出。大家努力向前。喝一喝。

### 福州法輪觀月光禪師

明州秦氏子。示寂偈云。萬物遷變處。常住不凋心。會得箇中意。日午打三更。遂跏趺而逝。通侍者曰。蒼天蒼天。和尚恁麼去。坐在死水裏了也。師復舉目曰。你不肯老僧那。分付聲鐘上堂。拈拄杖云。即此物非他物。還有擔荷得者麼。通出問云。如何萬苦不到處。師云。金不博金。通打一○相。喝一喝立脫去。師云。通侍者與麼去。太鹵莽生。通復舉目云。和尚不可壓良為賤。師即大喝一聲而寂。通云。賊是小人。智過君子。亦立化去。

### 嘉興金粟道三本禪師

小參。大樹生小菓。細藤結大瓜。佛法本尋常。知心滿天下。

### 具瞻仰禪師法嗣

#### 鄂渚南溪向上雙溪定禪師

上堂。靈山密語。歷歷全彰。少室真機。頭頭顯露。裂破佛祖面門。穿過衲僧鼻孔。今日現前一會。坐立儼然。見聞不昧。人人抱滄海之珠。箇箇蘊荆山之璧。果能直下悟得。便乃尊居化外。獨步寰中。有時孤峯頂上。盤結艸菴。有時十字街頭。打開布袋。驅耕奪食。一切臨時。起死回生。不資餘力。不惟南溪法社。千載光生。亦令山僧出世。一期事畢。其或未然。止涸困魚徒激浪。摩霄俊鶻快乘時。開鐘。有大圓音。隱而不發。靜既無虧。扣則普應。此在佛事門頭。足堪取則。若約衲僧分上。聲前薦得。猶落今時。槌下分明。循途守轍。直須透過聲色堆頭。方可證入圓通境界。

### 允中微禪師法嗣

#### 揚州靜慧述先預禪師

本郡甘泉徐氏子。自幼脫白。依隆覺冶牧律師圓具。繼席靜慧。小參。坐斷千聖頂[寧\*頁]。且居門外。踏著向上關楨。猶在半途。汝等諸人。朝三暮四。全放全收。放去即是十尺。收來依然一丈。還是門外。還是半途。試定當看。師一日示寂。偈云。倒騎鐵馬上須彌。踏破虛空兩片皮。萬象森羅齊著眼。看他紅日影離披。端坐而逝。世壽六十六。僧臘四十二。塔于靜慧之右。

### 谷庵璞禪師法嗣

#### 徐州雲龍興化天池鵬禪師

江南桐城方氏子。上堂。即心即佛。萬象森羅明歷歷。非心非佛。十方剝土冷沉沉。不是心不是佛不是物。放之則彌滿虛空。卷之則纖塵不立。雍正壬子四月初六日示寂。塔于龍泉寺左。

### 石吼徹禪師法嗣

## 寶應一粟默菴言禪師

山西汾陽李氏子。參石吼徹。石便問。威音那畔。阿誰作主。師云。爍迦羅眼莫能窺。石曰。莫能窺底是甚麼。師曰。覷著則瞎。石曰。空劫中還有佛否。師震聲一喝。石曰。居何國土。師便掌。石曰。敢來捋虎鬚耶。復舉狗子佛性有無二語徵之。師擬開口。石連棒打出。師忽有省。即呈偈曰。佛性有佛性無。莫顛頂休莽鹵。放出無毛大蟲。咬殺南山猛虎。石頷之。師于乾隆壬申十二月二十八日示寂。世壽六十八。塔于一粟願田之左。

## 祖幻寧禪師法嗣(二人)

### 穎州覺林徧知學禪師

楚漢孝邑黃氏子。依四禪師披剃。年滿受具。後謁大悲寧。舉甘贄設粥南泉打破鍋子語。寧云。南泉打破鍋子。還得飯吃也無。師云。者老漢忘前失後。寧云。畢竟南泉意作麼生。師與一掌。寧云。者裏即得。諸方未甘在。師又掌云。說甚麼甘與不甘。寧云。可做得臨濟兒孫。遂承印可。上堂。若論箇事。人人本具。箇箇不無。眼見耳聞。語默動靜。無不了了分明。停思佇機。即沒交涉。

### 六安香林曉南泉禪師

江南鳳台邊氏子。上堂。豎拂子云。者條斷貫索。慣穿天下人鼻孔。從上諸佛。沒柰他何。歷代祖師。沒柰他何。山僧三十餘年。摩裙擦褲。帶水拖泥。也沒柰他何。今日欲作祖禰不了。殃及兒孫去也。遂拈拄杖點空云。一九二九。袖不出手。

## 天培鑿禪師法嗣

### 南嶽祝聖曉堂哲禪師

吉州楊氏子。到瀋山。藏菴和尚引座。師與阿諾惺友嵩繼四人同陞座。師末結座云。瀋山又出四天王。擡起須彌到處撞。臨濟小廝不解事。一椎擊碎太郎當。且道。臨濟小廝在甚麼處。倚天閣上閒無事。撑起眉毛丈二長。濟生和尚到南嶽。贈師偈曰。昔年銜粟老金雞。又向祝融峯外棲。秋日偶聞新月下。一聲纔唱萬聲低。師歷主

南嶽福巖鴈峯西江禾山象山等處。雍正十二年十一月三十日示寂。世壽六十六。塔于天柱峯下之金雞林。

### 心壁淵禪師法嗣

#### 廬山秀峯猗蘭操禪師

湖南邵陽胡氏子。上堂。石人喫痛棒。木人滴鮮血。聖女感天宮。寶花散不徹。不干鶩子辯。豈是維摩默。文殊與普賢。頭出還頭沒。街頭廖鬍子。隨分得一橛。良久。以手指侍者云。汝號淨月上堂。僧問。如何是學人自己。師云。將謂眾生癡。更有癡眾生。曰學人遠尋。和尚豈無方便。師曰。方便即不無。遠尋即不得。曰恁麼則全因今日事。親見舊時人。師曰。盲者不見光。終非日月咎。問陳爛葛藤即不問。當陽一句請師宣。師曰。日輪正卓午。僧禮拜。師便打。乃拈拂子打○云。若向者裏會得。盲者不見光。終非日月咎。又打○云。若向者裏會得。全因今日事。親見舊時人。復打○云。正當恁麼時。薦取當陽句。日輪正卓午。

### 濟生度禪師法嗣(三人)

#### 維揚福緣超宗智禪師

彭城蕭邑單氏子。幼投觀音庵天習師出家。二十二。受具于佛定和尚。參謁濟生洞明諦暉諸老。後于大雄靈鷲和尚處。作水頭。靈云。你終日到龍潭。曾見龍麼。師于靈前。回旋作奮迅勢。靈打云你在者裏亂做。一日靈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云。寒則普天寒。熱則普天熱。靈云。那裏得者消息來。師云。不向己求。豈從他得。靈命充維那。後復參濟生度。濟云。你向甚處。打野檉來。師云。近自雲林。濟云。飛來峯與你所談何事。師云。未到雲林。早有信來。濟云。只學箇掠虛漢。師云。若有禪可參。今日不再見和尚。濟豎拳云。者箇喚作甚麼。師擬議。濟便打云。大好無禪晚參。日影離離。烟光淡淡。無位真人。露頭露面。左右是廚庫僧堂。前後是山門佛殿。無位真人在甚麼處。偶聽長空鴈一聲。擡頭飛過蕭湘岸。

#### 維揚福緣福國傳禪師

本府鄭氏子。幼投兩文大師薙染。十九詣華山受具。參濟生和尚。一夕聞香板聲。豁然桶底脫落。乃曰。擊碎疑團見古人。而今不用更參詢。頭頭盡是西來意。法法全彰淨妙身。濟頷之。出住泰州龍珠趙州栢林。開鑪上堂。鑪鞴久停。須知寒灰發燄。鉗鎚乍舉。直教死漢翻身。點鐵成金。變河為酪。敲唱雙行。鍛凡鍊聖。祇如無面目漢。作麼生鍛鍊。一椎擊碎太虛空。大地山河無背向。乾隆丙寅。師休養于圓通菴。己巳春示寂。塋于菴側。

### 武林聖因大徹永禪師

江南新安汪氏子。年十八。侍母金山進香。覩大徹堂三字。忽然心如虛空。旋投金山際雲老宿。落髮受具。後參南澗寶壽諸知識。次謁濟生和尚。濟云。南來的北來底。師云浙中。濟云。彼處知識。有何言句。師云無。濟云。你在彼。豈不空過。師便喝。濟便打。師又喝。濟又打。至晚。濟落堂。師出禮拜。濟便打。師云。某甲話也未問。和尚因甚便打。濟云。用你開口。有甚交涉。師于言下頓徹。遂付衣拂。出住梅林。上堂。豎拂子云。諸兄弟。還見麼。如此見得。曠大劫來。不假栽培。蓋天蓋地的。根本徹底呈露了也。更說甚麼物我一如。有無雙遣。大似懷拳石以登泰山。未免傍觀者哂。上堂。衲僧家向銀山鐵壁處。突出金剛正眼。徹見佛祖肝腸。無絲毫滲漏。和他命根。一拶搥斷。然後全主全賓。全殺全活。趁動南山白額。吞却無毛大蟲。不妨鼻孔裏聽聲。眉毛上吐氣。除夕。大道絕遮攔。真機無背向。透得法身句。當仁自不讓。遂召眾云。會麼。今年常住有三椿。好舉似大眾。第一。春夏園中。瓜茄結得好。第二。秋深田上。糧食收割得好。第三。今冬廚庫。年節事件總辦得好。即今臘月三十日到來。內外諸人。向衣鉢下摸索好。

### 月柯澄禪師法嗣

### 吳江聖壽阿蠹禪師

小參。有法說私法。無法說官法。一不立三。二五成十。達磨本西竺國人。何曾少林與神光安心。杖頭隻履是鐵拐。李公藥葫蘆。一時眼花。訛傳千古。南無佛。南無法。南無僧。劫前劫後枯椿。腦蓋大如斗。華嚴期上堂。有真逼窄胸襟。便有最寬廓境界。一華藏海。一逝多林。一彌勒樓。一普光殿。如高如下。亦近亦遙。遮那鼻孔無毛。善財脚底有痣。踏徧一百十城。參見五十三員知識。面

面是新。面面是舊。推詳到未離兜率。未出母胎。八十一卷餘。文從何說。喝囉哆恒楞登室左佗陀。聲韻從何叶來。一訛百訛。鑽故紙者紛紛。如今一總拋開。耳論齋僧功德。南泉打破鍋。金牛放下桶。者似比丘尼三大師素信女。於華嚴期第八日。真心實供鉢盂裏。斗大青蓮花。飲者食者。齒頰俱香。更有可喜。舌尖抵上脣。吐出圓珠箇箇新。十日還他無垢眼。微塵塵盡一微塵。

### 念予恒禪師法嗣

#### 天台永慶天喜卓禪師

本邑胡氏子。上堂。西天四七。東土二三。乃至天下老和尚。拈槌豎拂。冀闡宗乘。何異乎河頭賣水。逆風揚塵。今日山僧先師有未了公案。不得已出來。為他了却。若是宗乘中事。諸人語默動靜之間。未敢錯誤絲毫。豈肯仍蹈前轍。且道。超宗異目一句。如何舉似。便下座。師於雍正十三年人日。無恙而逝。世壽八十有四。僧臘六十有八。塔于寺之南隴。

### 法鐘覺禪師法嗣

#### 明州育王南溟碧禪師

小參。瀉山牛。趙州驢。子胡狗。任他行向異類中。育王一總不知有。爭柰衫兒袖短露出手。以拄杖一齊打散。歸方丈。小參。風鳴條。雨破塊。伶俐衲子。眼被眉蓋。直饒踏向威音前。育王拄杖。也未許在。

南嶽下三十七世

碧眼開禪師法嗣

石霜憨峯南翁慧禪師

佛殿小參。剗却竹筋鞭。趁開三脚驢。颺下乾矢橛。拈退麻三斤。佛嚮。喝一喝曰。幾成話墮。上堂。如來禪祖師意。有來由無巴鼻。十字街頭破草鞋。錦衣公子何曾貴。既不貴。九上三登。欠你錢欠你米。喝一喝。晚參。舉永嘉曰。江月照松風吹。永夜清宵何所為。佛性戒珠心地印。霧露雲霞體上衣。師喝曰。者老漢。在者裏打之邊。拈拄杖。顧左右云。什麼處去也。小參。舉圓通示眾云。少林九年冷坐。剛被神光覷破。如今玉石難分。只得麻纏紙裏。者一個。那一個。更一箇。若是明眼人。何須重話破。師曰。若要應時應節。今日也與諸人。葛藤一上。九冬臘月冷坐。露柱燈籠勘破。手脚一時難藏。那待麻纏紙裏。者一箇那一箇更一箇。阿呵呵。且道。笑箇什麼。三十年後。築著磕著也未可。小參。即心即佛。死鼠作璞。非佛非心。撥火覓冰。不是心佛物。藏得頭來露却尾。三十六峯天外看。遊人只到愚公谷。示眾。盡大地是一口劍。諸人向甚麼處措足。學侍者曰。某甲通身紅爛有分。師曰。太狼藉生。曰和尚作麼生。師曰。黃鶴樓前鸚鵡洲。學便禮拜。

辯言海禪師法嗣

荊州萬佛祇園朗徹印禪師

僧問。如何是學人自己。師云。低頭覓天。僧有省。師云。恁麼會去。走殺闍黎。僧云。不恁麼會。又怎得。師云。離心意識參。僧云。既離心意識。向甚麼處參。師云。甌甑。

法乳樂禪師法嗣(二人)

## 金陵香林月潭達禪師

鎮江丹徒張氏子。幼依中輪和尚剃染。登華山定安和尚圓具。造金山。參法乳和尚。得授信拂。繼席三昧香林 小參。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拈起拄杖云。者是色。見之則瞎。卓一下云。者是聲。聞之則聾。超脫二途。驢前馬後。復卓一下云。各請歸堂。晚參。一大藏教。結角羅紋處。一一透得徹。八萬四千秘密行門。處處踏得著。衲僧分上。喫筇帚柄。未有分在。一僧云。過在甚麼處。師打云。龍象蹴踏。非驢所堪 上堂。日日皆好日。今更是良辰。堆柴兼積炭。打鼓祭鑪神。今日香林無別語。只將約法告同人。但於九十日中。飢時。要你自己喫飯。寒時。要你自己穿衣。事到頭來。要你自己作為。一一不得推張靠李。更有一箇鐵面使來請。要你自己親到。何故。大事替你不得。小事自己擔當 師于雍正己酉示寂。世壽六十五。塔建紫金山之右。

## 潤州金山量聞銓禪師

上堂。壁立孤峯。千山稽首潑天門戶。萬派朝宗。揭示摩醯正眼。提持向上宏規。拈一機則羣機頓赴。示一法則萬法周圓。明如杲日。寬若太虛。大用現前。不存規則。揮金剛利劍。勦除聖凡窠臼。用格外鉗錘。斷送衲子命根。古佛家風再展。大人境界全彰。直得揚子江心。風恬浪靜。妙高峯頂。霧散雲收。日月增輝。乾坤朗耀。正恁麼時。祝延聖壽。翊贊皇猷一句。作麼生道。金輪統御三千界。寶祚綿延億萬年。

## 天澤霖禪師法嗣

### 黃梅槽廠東禪海潮音禪師

示眾。說禪被禪迷。說道被道礙。不如總不提。大家唱箇囉囉哩。且道。是何曲調。良久云。和者煩聽者厭。若要不煩不厭。各人自討方便。遂呵呵大笑。下座 示眾。夫參學者。必須具擇法眼。研究自己本地風光。叢林原為淘汰聖賢。居位者。承當法門。上接七佛以前慧命。下開盡未來際眾生眼目。何等大擔子。必堅其骨苦其節。或接得一箇半箇。自無愧耳 李太守到寺。茶次問。六祖於此舂米得法。有墜腰石一塊在麼。師云在。守云。和尚此間。有僧墜得此石麼。師云。用墜作麼。守云。既為出家苗裔。何得不肯擔荷。師云。怕做祖師。守大笑。

## 夢菴格禪師法嗣(二人)

### 京都大覺迦陵音禪師

瀋陽李氏子。母許氏。夢大日輪墜懷而生。年二十四。投高陽毗盧真一和尚薙染。圓具後。參夢菴和尚。菴問。靈雲見桃花即不問。因甚元沙道未徹在。師云。老老大大。向者裏納敗闕。菴云。是寔相問。師展坐具云。且蓋覆却。菴呵之。即付衣拂。命師首眾。出住千佛理安歸宗 上堂。百尺竿頭踏著。最初一步。自然縱橫得妙。天清地寧。晝明夜暗。移易一些子不得。松直棘曲。鳧短鶴長。增減一些子不得。通方俊彥。不言而喻。稍若回頭轉腦。未免累他。周行七步底。至今坐不得。面壁九年底。至今行不得。今日馬頭截角。將娑婆擲去他方。妙喜移來此土。如壯士展臂。如獅子遊行。更若出來問。何者是建綱宗。何者是振祖風。直須打了。更勘過始得 上堂。諸佛有頂[寧\*頁]一機。威音前薦得。灞陵橋上望西川。祖師有末後一句。樓至後踏著。塹[土\*(天/韭)]堆頭破畚箕。拈一微塵。塞却虛空口。不是不能。直須脫却橐籥。別展神光。爭柰桔槔之士頻逢。抱甕之流罕遇 小參。噓一噓云。三爐力盡。百搭不回。真箇是鐵漢。盡大地人。亡鋒結舌。收拾絲綸歸舊隱。任其成龍者昇天。成蛇者竄草。怎柰竹篋子。心內又憤憤悱悱。吹餘眼似銅鈴。終不肯作蒲盧。不管相似不相似。覓著一箇。便呼之曰類我類我 小參。半千間寮舍。一任經行。百五十火鑪。分開打坐。不論南來北來。普同供養。來者飽食高眠。不用肩擔募化。去者亦不索你九十日飯錢。免得人笑小家子樣。果有一箇。吃栢林飯。屙栢林屎。不參栢林禪。今日七寶布施。金繩界道。以為供養。顧左右云。却是你謾我 小參。拈四大海水歸鉢盂裏。鬼窟中作受用三昧。拈鉢盂歸四大海水。吹餘有力。助汝不得。無師智自然智。牛尾巴。一一分明指示。何用紫羅帳裏撒珍珠。又笑云。寧在有智人前斬首。莫向無智人前得勝 小參。石上栽花。沙裏覓油。心力盡處。自然功不浪施。趙州為沙彌時。德山見龍潭時。玄沙[祝/土]破脚指時。是心力盡處。若問三大老底功行。吹餘祇得將敗壞補敗壞 小參。伎倆不及時。一切處平平坦坦。千人萬人中。不向一人。白馬入蘆花。不背一人。初日照華林。撩鉤搭索。凡聖同居。爭免遞相顛預。欲追紛飛之心。則紛飛之念自息。須知老僧不在明白裏 示眾。三日前棒。克符承當。三日後棒。普化擔荷。正當三日。不為建立宗旨。亦不用諸人成褫。若覷破吹餘立地處。小廝兒棒不虛行。若祇恁麼上來下去。且放諸人箇不抵對罪與不凡大師。人人盡云。今人不及古人遠矣。據實而論。還是古人

不及今人。你看。古人未得見地之先。食惟接氣。日中一食。喫瓔珞。吞橡[木\*栗]。圓木為枕。鶉衣百結。封被去煖。終身不臥。既得之後。水邊林下。甘沉下版。剛被世人知住處。又移茅屋入深山。古人何其愚也。今人未得之先。惟恐食不充口。衣不豐盛。參體面禪。稍不如意。拂袖便去。倒像求他。參禪底一樣。稍得些子。只恨人不知。處處賣弄。眼空四海。妄呵古人。今人何其智也。臨末稍頭。一無得力。暗自悲傷。悔之晚矣。大師。寧為今之古人。不可為古之今人。示冰界侍者。佛佛授受。以法傳法。祖祖相傳。以心印心。今則惟門庭是論。未得入院。如虎視荊州。種種謀為。用勢用力。斷得入院。似虬蛇戀窟。日日撕挨。除死方休。甚至聚訟興詞。無所不至。但看百丈馬祖黃檗臨濟興化。以至龍池幻祖石頭藥山雲巖洞山雲居。以至小山書祖。獨不念護祖庭如眼目乎。何其輕如敝屣。數千里外。毫不關心。山僧退千佛院。交與舊住。攜杖而出。退栢林院。一鉢蕭然。蓋因龍天常住。豈你可以用心用力乎。侍者若要為佛祖兒孫。單於心法上。傳持可也。師晚年。山棲水宿。居無定止。四方徵書交至。槩却之。雍正四年七月二十九日示寂。追封圓通妙智禪師。賜帑造塔于西山之大覺。有十會語錄。及宗鑑法林。行世。

### 京都萬壽調梅鼎禪師

楚黃馮氏子。年八歲。于滙源禮石師薙染。于萬杉受具。後參夢菴和尚。菴問黃鶴樓公案。師擬對。菴驚頭棒云。打破黃鶴樓。師當下脫然。呈偈云。黃鶴樓子遭風折。三千諸佛盡活埋。嚇得丈人峯倒卓。錢塘江上吼風雷。菴頷之。後禮五臺回京。上白塔山。忽見雲中日光。得大自在。出住磬山理安栢林萬壽諸剎。小參。南泉提不起。雲巖按不下。從朝至暮。婆婆和和。祇如提不起按不下。且道。是甚麼。鏡乃醜婦之冤。智者愚人之患。佛成道日早參。六年凍得嘴都盧。伎窮力盡何所圖。摘得毛頭星一顆。半裝門面半遮羞。祇今片雪長空布。上下通明總一般。更要開眼求別見。敢保證取在驢年。早參。入水不動波。入林不動草。因甚踏著南邊動北邊。自代云。住持事繁。乃云。終日東去西去。脚跟下尚未移著一步。連朝說古說今。舌尖上喜無半點。祇如春鳥咸鳴。春風和暢。還當得西來祖意也無。三世諸佛不知有。鬻奴白牯却知有。晚參。世尊夜半明星一覩。迦葉人天拈花一笑。六祖隔壁經聲一聞。者三箇漢。眼見是實。耳聞是虛。口是禍門。汝諸人。離此三處。且作麼生與萬壽契證。三點如流水。曲似刈茆鎌。晚參。品律調於長夏。猶恐禪牀震動。施棒喝於風前。以致法堂前草深一丈。汝諸

人。淨潔打疊上來。面赤不如語直。山門前。禪堂後。蒼松翠蓋之下。石洞清幽之間。抖擻通身臭氣。走出無位真人。池沼觀鱗。波面生紋。隨流得妙。無喜無嗔。年來疎懶無餘說。笑指薰風殿閣生。師七旬。因疾奏退。至旃檀靜養。一日告眾曰。海上橫撐沒底船。神頭鬼面已多年。而今捩轉娘生鼻。一任諸方取次傳。安坐而化。全身塔于磬山。

### 越鑑徹禪師法嗣

#### 杭州理安佛日義禪師

江西陳氏子。投毓明老宿。剃染圓具。後參越鑑和尚。命充記錄。久之。遂承印可。小參。鳴吻運大神通。咬斷佛殿脊梁。醢雞作大佛事。掀翻庫房醋甕。合掌曰。是故我今應當歸命禮敬。多陀阿伽度阿羅訶三藐三菩陀。若曰三大阿僧祇劫而修而證。則吾豈敢。明義造妄業。應招惡報。入阿鼻獄去也。且道。其中還受用麼。揮拂子云。風澹蕩兮。我心暢兮。少間與諸公。坐松巔閣。煮法雨泉。看洛陽春色。各各鬪韻賦詩一首。若無采毫角勝。恐令花返笑人。小參。藥嶠之堂。多時不上。鹽官之鼓。久矣停撾。其柰雲門扇子。一時惡發。[跳-兆+孛]跳上三十三天。鼓黑風澍瀟雨。就向雨點裏。展大法輪。說大法要。不惟淅淅瀝瀝。鏘鏘滴滴。文身粲然。句義炳然。抑且衝衝軸軸。漩漩復復。鏘澎湃灌注河山。終晨夕而不止。遂豎拂云。明義手裏拂子。忍俊不禁。要與攙行奪市。但就十笏堂前。入不動地三昧。掃雲葉而靈天容。只憑少女。御日輪而搖嶽面。惟仗義和。明晨普請。搬出山前大石頭晒眼。小參。一人住於妙高峯頂。却在海底算沙。一人住於金剛水際。却在銀漢泛槎。一人住於半虛空裏。却在舜若多神眼底栽花。三人若到理安。總與三十拄杖。何謂。剪盡霜前竹。臨溪不化龍。小參。一片秋雲薄蟬翼。風高吹貼千尋壁。欲磨堅玉寫微吟。寄與天涯李八伯。八伯八伯知未知。天涯流落露涼時。歸去來須趁早。莫待砧聲催。嚴霜殞秋草。師于乾隆壬申八月十七日示寂。世壽七十。僧臘五十一。塔建蓮花峯之陽。

### 南谷穎禪師法嗣

#### 杭州崇福靈鷲誠禪師

台州寧海謝氏子。年十九。薙染圓具。後參南谷和尚。谷問。作麼生轉得山河大地。歸自己。師云。喚甚麼作山河大地。谷云。放汝三十棒。谷又問。作麼生轉自己。歸山河大地。師云。將甚麼喚作自己。谷云。放汝三十棒。師作舞而出。上堂。世尊在因地中。捨生身而求半偈。山僧有一全偈。若人捨半身。即與他說。忽有人道。我無眼耳鼻舌身意。捨箇甚麼。山僧拄杖。痛與三十。崇福門下。那許坐在者箇境界。佛成道日小參。舉世尊悟道因緣畢。乃云。山僧昨夜亦覩明星悟道。上不見天。下不見地。覓一切眾生。了不可得。覓智慧德相。了不可得。覓妄想執著。了不可得。諸人向山僧悟處薦得。堪與佛祖為師。向世尊悟處薦得。堪與人天為師。向今日說處薦得。自救不了。解二七小參。第一七鳴鐘擊鼓。諸人向鐘鼓聲裏。得箇消息。即今二七圓滿。汝諸人。猛參實究。佛在你前。祖在你後。要行行不得。要住住不得。檢到十分。靈亦十分。高峯老祖道。盡大地是箇火坑。得何三昧。不被燒却。作倒身勢云。明日台山大會有齋。師于康熙六十一年示微疾。偈曰。六十六年。今日為終。來時空手。去亦手空。怡然而逝。塔全身于大雄芝塢。

### 杭州無幻施居士

閱楞嚴。至見猶離見見不能及。有省。參南谷和尚。呈所得。南曰。適來呈所得。是什麼見。士云。甕中走却鼈。半夜放烏雞。南可之。

### 晦石琦禪師法嗣(二人)

#### 杭州天目澹如永禪師

新安俞氏子。依雪崖和尚披緇。參晦石和尚數載。一日于祖塔推門。頓忘身世。呈似琦。琦曰。唱教門中。足可觀光。祖師門下未。在師憶興化在大覺棒下。會得臨濟喫棒處底道理。遂知天下老和尚舌頭落處。復呈琦。琦曰。那裏是趙州趙破臺山婆子處。師曰。趙州亦被我勘破。琦曰。向何處勘破。師喝一喝便出。上堂。法逐心生。心隨法滅。心法兩忘。頭頭漏泄。大花園裏。石笋抽條。四照亭邊。梅枝破雪。庭前露柱已懷胎。情與無情俱饒舌。報君知須辯別。大洋海底起蓬塵。無位真人得一槩。上堂。道本無形。離諸名相。不假修證。豈涉言詮。三世諸佛。望風結舌。歷代祖師。斫額有分。天下老和尚。仰望不及。聖因今日齧定牙關。與諸人和泥合

水。擊拂子云。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擲拂子云。春水春山無限意。不用安心話別傳。乾隆庚子二月八日示寂。塔于本山揚樹坂。

### 如臯菩提化昱啟禪師

上堂。今日乃釋迦老子二千餘年。周行日顧。七步稱尊。賣弄小兒伎倆底時節。後來看箇跛脚阿師道。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看來雲門。也祇知瞻前。不解顧後。啟上座。今日只將三瓣旃檀。一盆惡水。且道。與雲門大師。同耶異耶。具眼者。試定當看。

### 形山寶禪師法嗣

#### 杭州聖因悟修明慧禪師

湖廣人。雍正十年。應 詔入京。賜號悟修。并紫衣杖鉢。命住聖因 上堂。九天閻闔遇恩隆。今日歸來不借功。一片慈雲騰海國。為霖為雨滿蒼穹。驀豎拄杖云。者裏薦得。山僧在汝背後。達磨在汝脚底。皇恩佛恩。一時報得。其或未然。諸人日用堂堂。從何處假借。卓拄杖云。總在吾皇化育中 上堂。正法眼藏。涅槃妙心。日月經天。江河行地。尋常具眼底。說甚金風淡蕩。了然無事。那聞蟋蟀吟哦。正恁麼時。月明簾外。道合洞上君臣。毒鼓堂前。聲震白拈棒喝。道有道無。黃葉止小兒之啼。說是說非。清風引犀牛之扇。普天匝地。無非自己心光。動轉施為。盡是當人妙用。物我不遷。卷舒自在。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於斯會得。靈山一會。儼然未散。

### 永覺盛禪師法嗣

#### 杭州聖因大恒中禪師

桐鄉施氏子。生而茹素。七歲出家。秀水楞嚴寺師祖含明。教之徧讀儒釋等書。穎悟非凡。雍正十年。受 皇戒。後住吉祥院。 恩賜手勅發明本分工夫。及杖鉢如意等物。乾隆四年得法。六年主席西湖聖因。十年移主山陰乾峯。旋歸天竺。十六年。翠華南幸。駐蹕寺中。 御製詩章。命師和韻。并邀 御覽。二十二年。移主淨慈。復遇 南巡。獲蒙賜紫。謝 恩上堂。春雨湖山青不斷。曉風

湖水碧無波。若作境會。白雲萬里。不作境會。萬里白雲。隨緣適性。猶縱浪之輕舟。靜慮虛襟。若凌空之逸翮。意消能所。情斷是非。了了常知。騰騰任運。春波梅嶼。已為解脫之覺場。塔影鐘聲。便是菩提之妙境。且道。淨慈與聖因。還有分別也無。東澗水流西澗水。南山雲起北山雲。起七。不快漆桶。秦時[車\*度]轆。自家鼻孔。阿誰摸索。休向那邊討取。謾從者裏卜度。將心比心。豈非大錯。露柱燈籠。觸著磕著。不是鉗鎚惡辣。貴要皮膚脫落解七。飯裏受飢。湖邊叫渴。山上羅魚。空中釘櫬。沒撈攏無巴鼻。土面灰頭徒費力。庭前栢樹子。止止不須說。乾隆三十三年二月一日。師示偈云。五十八年一報周。謝家活計霎時休。披蓑赤脚千峯去。不問蘆塘舊釣舟。擲筆而逝。僧臘五十一。世壽五十八。建塔慧日峯下。

### 宇亭尹禪師法嗣

#### 金陵吉祥朴菴修禪師

小參。甜瓜徹蒂甜。苦瓜連根苦。不住兜率天。却在江寧府。枉勞心終無補。雲門一曲少知音。辜負臘月二十五。

### 可達杰禪師法嗣

#### 吳陵三昧不物震禪師

佛殿。三寸算子。六尺拄杖。八十種妙好。三十二真相。理上合事上合。丹霞雖非孝子。雲門豈是忠良。小參。山僧一春以來。拄杖邊撥著一箇半箇。雖欲大眾知有。且貴正眼流通。何期露柱燈籠。與泰山石敢當。私相竊議云。長老唱道。未幾便恁麼施為。寧免笑破胡張三嘴唇。黑李四舌根。以拂子指曰。莫道楊岐山勢險。前途猶有最高峯。韋馱放下屠刀。是千佛一數。與麼人來。如何制度。阿呵呵。賓則始終賓。主則始終主。

青原下宗鏡七世

破闇燈禪師法嗣(三人)

鹽城永寧式衡權禪師

設供小參。既然不用巴陵語。何必瑯琊三句玄。報答吾師親切處。虛空鼻孔一時穿。只這四句。有玄有要。有正有偏。不會者。一任天上天下。會得者。管取驢年馬年。忽有箇漢出來道。長老也是因風縱火。山僧只向他說。豈不聞。啼得血流無用處。管他這些杜蠻禪。

平山受宗智旨禪師

據室云。杖卓千峯月。拂招四海雲。垂雙無事手。慣點飛龍睛。且道。作麼生說箇點睛底事。拈杖云。爐鞴初開。三賢膽喪。鉗鎚纔舉。十聖魂驚。任是釋迦相見。難免棒頭商確綱宗。直饒達磨面會。也須掌下發明妙旨。正是好手手中呈好手。紅心心裏中紅心。

潤州焦山古樵智先禪師

真州張氏子。年十一。投焦山松寥閣出家。首參問石乘無得聞。破闇燈初主焦山。乃依之。閱雪巖欽問高峯。無夢無想主人公在什麼處因緣。疑甚。行坐不安。忽一日登山。失足傾仆。豁然大徹。從上一切公案。瞭如指掌。燈命充監院。後燈之三祖。命師繼席上堂。海雲連岫出。江水逐波來。分明都說盡。何必更疑猜。喝一喝。結制。打開爐鞴燄騰騰。烹煉英雄最上乘。頭角猙獰平墮陷。爪牙威猛不須矜。拿雲攫霧橫身透。退水藏麟奮力登。鈎搭不回真錯過。曝腮點額自相憎。擊拂子下座上堂。佛祖大因緣。人天不可測。鯤出海為鵬。自得扶搖力。株守于寒岩。如虬蛇戀窟。峭拔本生成。孤危亦不立。是山野之徹骨。乃從上之秘密。木人笑呵

呵。畢竟是何物。以拂子當空畫○○。復抹却曰。若持此法印中流。江海魚龍何點額。

## 元潔瑩禪師法嗣

### 衡陽雲峯佛國頻吉祥禪師

上堂。白椎畢。維那教你諸人。觀第一義。老僧特為舉似。遂作修羅障日月勢曰。還有善觀的麼。顧視良久曰。滿船空載月明歸。維那結椎竟。師呵呵大笑。歸方丈。小參。淨土諸佛。是赤窮漢。歷代祖師。是白拈賊。三藏十二部。是破故紙。一千七百則。是繫驢橛。山僧不是壓良為賤。只要你諸人灑落無羈作好人去。晚參。以

拂子畫曰。蝸牛角上。添斤著兩。畫○曰。螭螟眼裏。去骨留筋。復畫◎曰。都愛他持妙喜世界。如陶家輪。究竟出○者裏不得。何也。土星犯牛斗。小參。上無攀仰。萬里不挂片雲。下絕己躬。青天也須喫棒。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甚麼繫驢橛子。山僧獨不愛他維摩詰。將箇大千世界。置向螭螟眉睫頭上。從朝至暮。只管呼盧呼盧。有甚快活分。還有為他拈得退的麼。良久曰。試看雲峯拈去。以拄杖一時打散。除夕上堂。今夜舊隨殘雨去。明辰新逐曉風來。三十六旬消算了。到頭無事可安排。格外句是破草鞋。向上機是爛麻索。那管驢字馬字。笊籬木杓。我者裏別有三段奇特。廚房內柴乾水足。僧堂中有香有燭。更有一般響。明早出行放喜炮時。你來聽。上堂。摘虎鈴驚羣動眾。截驪角水湧波騰。山僧。且不現十二面相見。只好平實商量。不見道。明明無悟。有法即迷。向來佛佛祖祖。俱不曾以實法累贅于人。諸人亦不得作實法領悟。你若解綉鴛鴦。我便金針密度。山僧。數千里水陸間關。來此聚首。不為別事。只要諸人直下承當。赤肩擔荷。紅塵犬吠。吐出祖師眼睛。白晝鷄鳴。吞却嘉州大象。臨危不變的。安著者邊。見義勇為的。下風排列。要知新長老令行一半。

## 百愚斯禪師法嗣(四人)

### 松江青龍隆福寒松操禪師

示眾。黃閣簾垂。正不居正。紫羅帳啟。偏不坐偏。正恁麼時。還是正耶偏耶。虛空開口笑。子午不相冲。上堂。舉一明三。目機銖兩。十方坐斷。大地全收。猶是釘椿搖櫓。抱橋柱洗脚。況復言中

取則。句裏呈機。何異鄭州出曹門。南轅而北轍。殊不知當人脚跟下一著子。天地不能包其廣。日月不能並其明。一言迥脫。獨拔今時。塵中作主。化外來賓。雖在途中。不離家舍。是處是彌勒。無門無善財。天中節上堂。一抽三。二抽四。黃牛角向天。八脚垂過鼻。師云。五祖固然逞盡神通。仔細看來。太怯力生。善權不比諸方。水綠山青道泰。千殃百忌無拘。敢教人人瀟灑。何故。家無白澤之圖。必無如是妖怪。

### 終南靈源紫谷覺禪師

上堂。舉拂子召眾曰。見麼這一著子。與三世諸佛同參。和法界含靈共壽。釋迦不先。彌勒何後。未涉化門。早已漏逗。覲面拈來。目前難搆。一心不生。萬法無咎。一念無私。十方通透。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且道。是甚麼。是無上呪。是無等等呪。

### 和州含山褒山天鑑暹禪師

挂報鐘小參。大冶爐中得其本。三世諸佛不知有。萬人叢裏顯其用。狸奴白牯却知有。即今體用雙彰。生佛一貫。任扣擊以無虧。歷羣音而不亂。到者裏。更欠一著子在。大眾且道。欠那一著子。遂擊鐘云。兵隨令轉。將逐符行。

### 盤山拙菴智朴禪師

自幼有出塵之志。博通經史。閱華嚴經。歎曰。已觀大海。回視江淮河漢。如溝瀆耳。即出家秉具。參百愚斯於弁山。問。如何是西來的的大意。斯便打出。師疑甚。又一日如前問。復打出。師汗浹背。至第三度。問未畢。斯將手掩其口師豁然大悟。從上佛祖言教。如鏡照像。遂了徹。出住盤谷。上堂。山河大地。常演圓音。萬象森羅。恒談實相。拈拄杖云。者是甚麼相。卓一卓云。者是甚麼音。於此見得聞得。則知諸人耳朵裏有觀音。眼睛裏有文殊。二六時中。出出入入。放大光明。現大神變。作諸佛事。從無量劫來。未曾間斷。大眾還委悉麼。一道靈光曾不昧。千差萬別盡圓融。康熙間。師受賜紫衣杖鉢。後無疾端坐而化。著存誠錄。行世。

### 且拙訥禪師法嗣

## 端州月山洞初度禪師

上堂。野干鳴。獅子吼。韓獺吠。癡子舞。啞子善唱。盲人解靚。良久云。過小參。香巖聞聲悟道。靈雲見色明心。雲門舉手云。觀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手原來是饅頭。月山則不然。若謂聞聲悟道。須當飯後經行。若欲見色明心。好聲板鳴打坐。且問諸人。月山眉毛還在也無。

## 萬仞壁禪師法嗣(二人)

### 龍華湘翁沩禪師

入院晚參。僧問。本是山中人。來作山中主。上下一和同。春風滿寰宇。如何是山中主。師曰。身上毛不出。頭上角不全。曰如何是主中人。師曰。眼見如盲。口說如啞。曰掃盡諸方老婆禪。傑出春山無二主。師打曰。你未有喫棒分在。乃曰。若說佛法。供養大眾。杜鵑聲裏春陰老。若說世法。供養大眾。苔水環流波浪深。罄情撥撒。徹底剷除。更須知拄杖頭一竅。卓拄杖曰。看看。拄杖子惡發來也。三十棒要打臨濟廝兒。為他纔住箇院子。便乃教人成禡。致令普化克符。連日在屋角頭。傾箱傾籠。漏盡家私。三十棒要打雪峯箇漢。為他纔得些。須供養。便對閩王道。自從先德山石頭以來。傳此秘密法門。帶累後世。攬行奪市。把白馬老枕邊破木櫛。認作他先祖髑髏。更三十棒要打古今知識。為他嚙却常住飯。終日說大法小法。向上向下。山中主主中人。賺引一隊伶俐後生。怖鏡尋頭。無有休歇。諸兄弟。山僧與麼提訓。你道。還有為人處也無。擲拄杖曰。一逕直二週遮。好。眼如何亂撒沙。日勢已晚。歸堂喫茶。上堂。豎拄杖曰。拄杖子。頭帶寶冠。身披御服。先天地而不老。後天地而常存。有時突出人前便見千年一遇。如今混俗和光。共你八十三九十四。教你修省。當機覲面提。與你饒益。覲面當機捷。你若不信。驀呈起拄杖曰。看看。變作觀音大士。走入西王母眉毛罅裏。說阿字法門去也。卓一卓曰。吽吽。

### 蘄州歷化雪逵照禪師

臘八上堂。明星午夜光吞月。累及瞿曇叫不徹。智慧德相普生花。妄想執著紅爐雪。三七猛思惟。頂門重喫楔。法說四十九年。誰肯蹈你覆車之轍。縱饒八萬四千皆鳳毛。三十三人入虎穴。你若到春山手裏。不消一捏。何故。國有憲章。三千條罪。

## 淑安周禪師法嗣

### 濟寧彌勒院白獅純禪師

南陽泌水許氏子。母趙氏。依少拜寺主雜染圓具。于破暗燈之弁山。一日看水潦悟。由會得竹篋用處。呈偈曰。鐵輪舉。大地無寸土。返魂臺重看取。始信黃連滋味苦。破頷之。後住徑山。乘舟順流而下。誤落水中。乃大徹。偈曰。撞頭百雜碎。落水亦無知。船子離鈎意。夾山喫棒時。走呈淑安和尚。即受印記。暉老先德設茶。請因猫說法。師云。現虎豹形容。兼獅兒躑躅。有時牙張爪露。有時尾掩頭藏。能上樹以安身。解幽室而開眼。捕家中賊。知門外賓。辨的處。身世都忘。遇緣時。腥羶不避。密樞應用。而由己真訣。不傳於外甥。縱饒無事安眠。見者猶然驚異。且道是誰。昔年刀下分身去。今與南泉共體來。

## 蕃光璨禪師法嗣

### 吳興金峯古佛燈道驤超禪師

金仙問。情與無情。如何成一體去。師曰。露柱開花。燈籠發笑。仙曰。露柱開甚麼花。師曰。紅白撐空。曰燈籠笑箇甚麼。師曰。南泉道的。

## 邃谷源禪師法嗣

### 楚衡西山不韻音禪師

上堂。齋主當仁不讓。費却許多鹽醬。帶累葫蘆。馬杓特地翻騰。一上九十日中。一任拈匙把箸。但要各人照顧鉢囊。動著也三十拄杖。不動著也三十拄杖。不是西山令嚴。要作叢林榜樣。上堂。第一第二。法法全彰。擬議尋思。翻成途轍。風催柳線添長。雨過山容展翠。自是劫前田地。從來古佛威儀。生與無生。惟我知之。妙用神通。有煩聖眾。然則陽春和寡也。要將勤補拙。再唱箇村田樂。供養大眾去。連敲拂子云。莫怪空疎。

## 靈燄燭禪師法嗣

## 淮安清江浦洪福隱知聞禪師

晚參。衲僧巴鼻。佛祖心印。青山片片。白雲重重。若向者裏。著得隻眼。轉萬象歸自己亦得。轉自己歸萬象亦得。咄咄咄。是何言歟。不可教壞人家男女。召眾曰。屈。

## 南菴依禪師法嗣

### 淮安清江檀度天根本禪師

小參。識得一萬事畢。燈籠沿壁上天台。露柱依舊打瞌睡。山是山水是水。僧是僧俗是俗。如何說得箇一底道理。豎拳云。握則成拳。展則成掌。半斤算來。定是八兩。晚參。天寒地凍。虛空藏菩薩。藏身處沒踪跡。日炙風吹。觀世音菩薩。沒踪跡處莫藏身。只得十方通暢。八面玲瓏。呼牛則應之以牛。呼馬則應之以馬。要騎便騎。要下便下。說甚麼張家杓柄長。李家杓柄短。却要收起大相國寺南廊下王和尚破袈裟。放待春回土暖。黑豆自生芽。小參。諸佛不出世。祖師未西來。佛法遍天下。談玄口不開。卓拄杖云。諸佛出世也。祖師西來也。為甚麼却無佛法一字可得。復卓一下云。上來無限良因。統惟回向鷲奴白牯。新年頭起居萬福。

## 天然是禪師法嗣

### 廣州海幢阿字無禪師

說戒上堂。昨夜燈籠沿露柱。釋迦彌勒相耳語。說道人人此道同。人人日日怪如許。豎拂子云。大眾還會麼。飛塵埃於綠水。撥冰塊於紅爐。象王著刺。獅子哮吼。樹益州之嘉禾。脹懷州之馬腹。無有而有。已看蕭史下瑤臺。有而無有。誰聽陽關吹玉笛。若是逆風鈍鳥。孤負霜林之片葉。須知挂角羚羊。難尋獵犬之孤踪。直得掩室摩竭。杜口毗耶。文殊與普賢。同龕掩耳不徹。惟有優波離尊者。乘時附勢。出來說道。今朝是臘月朔。趁明星未出之時。無佛名無眾生名。不妨且說毗尼。宏通戒法。阿上座。被他抑逼不過。今日作箇順水推舟。然不得攀條引例。良久云。驢字未去。馬字到來。參玄上士。切忌疑猜。

## 竺菴成禪師法嗣

## 金陵棲霞楚雲源禪師

長沙龍氏子。母彭氏。年八歲時。有老僧至。師問。佛名如來。何義也。僧乃摩頂。告眾曰。此曹溪之瑞。非塵世所能留也。順治己丑。師走瀏陽覺恒上人。剃染圓具。後遍參尊宿。師參竺菴成之壽昌。昌問曰。大好山消息如何。師曰。此去杭城三千里。昌云。且道。無明師翁鼻孔長多少。師曰。御龍橋下水潺潺。昌曰。可惜許多草鞋錢。師云。行人更在青山外。師繼席壽昌。後主棲霞。設四問以驗方來。示眾。究理此事。如兩木鋸火。歇手不得。又如千尺井底求出相似。念念無間。方有少分相應。山僧昔年住靜香山。閉關百日。正念堅卓。確乎不拔。曉夜鞭逼。毫無昏散。一夕覓心了不可得。自此胸中洞然無礙。始知萬象之中獨露身。非虛語也。

## 觀濤奇禪師法嗣

### 杭州臯亭山顯孝淇園泉禪師

上堂。橫按拄杖曰。臯亭亞劍相待。有不顧危亡者。便請單刀直入。一僧突出便喝。師便打。僧近前。把住拄杖。師曰。作家作家。莫怪適來造次。僧呵呵大笑。師曰。草賊大敗。連棒打出。上堂。若論此事。如握利劍相似。佛來也斬。魔來也斬。僧出問。忽遇寶劍來時如何。師曰。魔佛潛踪。上堂。汝等恁麼簇簇上來。謂。臯亭實有一法與人。你也沒量罪過。我也沒量罪過。以手自指口云。看看。臯亭舌頭在麼。一僧方答。師咄曰。合取狗口。

## 梅逢忍禪師法嗣

### 吉水龍華子愚喆禪師

上堂。揮拂子云。會麼。聲前拋不出。句後不藏形。筍埋千丈節。花放一生心。眾生心內諸佛。時時說法。諸佛心內眾生。處處放光。拈一機。點出生平活眼。千機迸發。施一用。頓開今古心胸。萬用齊彰。奇言妙諦。宣揚不及。棒喝交馳。祇可傍推。驀豎拂子云。清鏡一輪東畔上。照臨原在翠微中。示眾。詩以道志。書以道事。禮以道行。樂以道和。易以道陰陽。春秋以道名分。祇如一大藏教。以道箇甚麼。諸昆仲。切不可認定箇光影。門頭汨汨放過。他時後日。被語言文字所賺。五欲八風所吹。煩惱無明所累。莫道

佛法無靈驗。龍華不惜口業。更為添箇註脚。有問一大藏教以道箇甚麼。只向道。虛空百雜碎。廓徹太分明。

### 巨音選禪師法嗣

#### 金陵天界靈潤機禪師

晚參。捕春光。爛煮無底鐺兒。鳳凰臺一飽。便忘百饑。招梅魄。直用烏有先生。南山蛇子湖狗。出來開口不得。山僧暫將長干塔作棒。令飽者飽開口不得者。痛入骨髓。直下知歸。且道。無面目漢。還甘麼。王孫歸未得。愁殺踏青人。晚參。人人盡欲出常流。殊不知披其枝者傷其根。咳唾嘻笑。一飯一啄。差毫釐失千里。折合終歸炭裏坐。怎生消繳。乃撫掌曰。將謂放過相隨來也。雞醢蠅蠊。猿啼鵲噪。皆與遮那妙體。均一色相。雖然。水上卓紅旗。那吒撲帝鐘。著甚來由。有僧纔出。師打曰。又來繩上生蛇。上堂。芳草綠落花紅。巧不過是東君。栽者培傾者覆。仁莫大於天地。禪和子家。拋却三經五論。念佛一聲。漱口三日。好不快活殺人。若停思佇意。念佛口可漱。栽者傾者。綠的紅的。怎迴避得及。天界私通車馬。諸人急急著眼。豎拂子曰。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東君巧。離得這箇麼。天地仁。離得這箇麼。若離這箇。當面錯過。

### 即念現禪師法嗣

#### 曹溪南華大休珠禪師

上堂。僧問。清淨本然。業從何來。師展兩手云。清淨本然。業從何來。乃曰。若恁麼問答。直下會得。不落意想。清淨本然。業從何來。然而清淨俱不得。善財彈指見彌勒。示眾。以拄杖擊香桌云。太煞不近人情。動著胡打亂打。未曾讀得古書。不解之乎者也。是以直不藏曲。智者如聾如啞。卓拄杖云。於此薦得。何勞東扯西扯。上堂。姚老今冬六十四。問著生平不知數。自謙老拙百無能。我道其人大智。西天達磨不會禪。東魯仲尼不識字。山僧倒讀梵本書。却把張三喚李四。大眾。為甚麼却把張三喚李四。喝一喝。只許老胡知。不許老胡會。

### 盟石息禪師法嗣

## 越州寓山青蓮乾裕曾禪師

解制上堂。連城之璧。未許稱奇。照乘之珠。何足云貴。拈拄杖云。偉哉拄杖子。驚羣而拔萃。四大海攝入讓鷗池。涓滴不遺。五須彌會歸青玉嶺。了無向背。饒伊結也解也。行也住也。總不易其本位。一顧而山輝。再顧而川媚。歷徧四大部洲。回到八求樓上。閉却前牕後牕。看取撲地高飛孤鴻一對。卓拄杖云。百雜碎 上堂。者邊那邊。應用無礙。堯舜之君。猶在化位。直饒道得分明。漆桶依然不快。陶彭澤聞鐘皺眉。米南宮見石而拜 佛成道日上堂。智慧德相。妄想執著。瞎眼波斯。一串穿却。可憐九轉返魂丹。翻作鰲猫老鼠藥。

## 蔗菴範禪師法嗣

### 都城安定關華藏懶翁遇禪師

上堂。物物皆能轉。法法無差別。雖然。顯密全該。猶是時人饒舌。惟有觀音大士。還較些子。將錢買胡餅。放下手原來是乾屎橛 上堂。惡人無好夢。至人無細情。若自事事了辨得去。方許你眼歸眼位。耳歸耳位。平地上一任橫行。六門頭隨其互用。復云。為甚麼大鼻頭乙字上大人也不知。參 上堂。拈來放去。直教走殺闍黎。掇五拏三拍。拍都皆是令。雖然。密不通風。儘可容車走馬。且道。無著天親。在忉利天宮。七晝夜通說的。是甚麼法。良久云。適來猶記得。

## 惟岑巖禪師法嗣

### 越州乾峯雲怡齋禪師

僧問。未見清化時如何。師云。寶 自生虛壁。曰見後如何。師曰。澄潭影寂寥。

## 夢菴律禪師法嗣

### 禹杭寶壽尊道揀禪師

僧問。如何是法身體。師云。日暮千峯冷。曰如何是法身用。師曰。春回萬象新。

## 青原下宗鏡八世

### 焦山古樵智先禪師法嗣

#### 鎮江焦山鑑堂德鏡禪師

山陽劉氏子。受具後。參焦山古樵和尚。令看父母未生以前話。三年無所得。將辭去。忽一日見同參請益曰。父母未生以前。如何是我本來面目。山叱之曰。豈有不知自己面目。而反問旁人乎。師聞之。當下了然。一向疑滯冰釋。後嗣法主焦山上堂。舉高亭見德山。隔江橫趨而去。師曰。萬派海門直渡。妙在一漚未發以前。孤峯頂上橫身。要具不犯鋒鋩脚手。然雖如是。縱得錦鱗翻浪快。尾邊已惹亂雲橫。上堂。臘已殘。歲云暮。雨雪繚繚不得住。途人無箇不攢眉。我等赤貧真是富。富富富。提起脊梁休放過。上堂。豎拂云。四序密推移。乾坤如橐籥。看看冬到來。即便春風至。晴霽三四九。一雨偈除歲。惟有者一頭。倔強真可貴。寒暑不相侵。聖凡難以類。鼻孔自撩天。通身渾露地。有時狂[跳-兆+孛]跳觸著彌盧碎。驚起虛空入藕絲。文殊急走三千里。小參。風雨連朝。競作夜來。何事更惡。雷奔電掣。乾坤霧鎖雲籠。海嶽忽爾炎暑清涼。正好討箇安樂。咄。人人飽足觀光。參取秦時[車\*度]轆。

### 平山受宗旨禪師法嗣

#### 棲靈道宏德南禪師

據室。拈杖云。據此室行此令。鉗錐雖舊。爐鞴斬新。佛祖來參。難饒痛棒。其餘中下二機。權放一著。諸仁者。還知麼。乃卓拄杖云。隨例但拈筇篙柄。拍盲治爾野狐僧。上堂。爐鞴開而風生大野。鉗錐舉而聲震虛空。到此直教三世諸佛。退身有分。歷代祖師。進覲無門。所謂鉗錐在手。殺活自由。有時開一線道。有時絕斷羣機。其開也。竿頭有路通車馬。其絕也。棒下無生解祖翁。諸仁者。祇如不開不絕一句。又作麼生。遂卓拄杖一下云。欲透禹門三級浪。須承棒下五風雷。

### 頻吉祥禪師法嗣(二人)

#### 會龍藉菴熏禪師

上堂。古柏庭前秀。梅花嶺外香。分明祖師意。何用更商量。兔角拄杖。卓倒正覺山頭。露出明星朗月。龜毛拂子。掃除妄想執著。掀翻智慧德相。石女解吹笙。木童能撫掌。擎起陝府鐵牛。[跳-兆+孛]跳上三十三天。觸著帝釋鼻孔。轉過身來。恰是嘉州大象。大眾還會麼。

### 廣州浴日能禪師

解夏小參。敲空擊木。已涉言詮。喝下承當。猶為鈍漢。所以一夏以來口如扁担。祇管日長喫飯。夜短打眠。任他風動塵起。鳥飛花落。雖然如是。忽遇雷奔電捲時。又作麼生。良久云。大海若不納。百川應倒流。

### 洞初度禪師法嗣

### 端州法輪自明珩禪師

示眾。你有我有。大家出手。踢翻大海。氣吞佛祖。合水和泥。拖枷帶杻。小參。出息入息。猿猴上樹。將欲到尖。樹倒藤枯。

### 拙菴朴禪師法嗣

### 五州遠林德進禪師

首住盤山。上堂。昔盤山道。向上一路。千聖不傳。慈明道。向上一路。千聖不然。乃云。二尊宿。大似假借豪門虛彰聲勢。若是向上一路。依舊拈掇不出。盤山。今日要與諸人覲面拈出。擲下拄杖云。看看結制。拄杖活如龍。草鞋寧似虎。牢關把住誰能覲。只將大地作紅爐。管教凡夫成佛祖。

### 湘翁沅禪師法嗣(四人)

### 天然喆林吉禪師

示眾。雪覆萬年松徑。雲遮一帶峯巒。一色功邊。不堪駐足。威音那畔。安可容身。直饒懸崖撒手。猶在半途。句下承當。未能通變。若是不動步到家底。自然頭頭顯露。物物全彰。信手拈來。隨

緣應用。只如折旋俯仰。喫飯穿衣。還是動步不動步。良久曰。待鉢盂峯點頭。即向你道。

### 湖州弁山澄照紫瑀[王\*巨]禪師

上堂。雪峯鞦韆。禾山打鼓。虛空畫彩。泥裏洗土。臨濟三玄。掣風掣顛。洞山五位。成羣成隊。若也會去。南北東西。依位而住。若也不會。二六時中。如藤倚樹。參參參。悟悟悟。生鐵秤錘被蟲蛀。上堂。臨濟喝德山棒。昨日今朝無兩樣。三脚蝦蟆著錦襠。風雷鼓送桃花浪。投子提油。趙州轉藏。千古風流是難比。況堪笑當年馬簸箕。殷勤遠寄三瓶醬。筋夾不起。匙挑不上。月落寒潭徹底輝。淡烟疎雨籠青嶂。山僧恁麼檢責。也是葛伯仇餉。上堂。展開驢脚。踢翻香水海。臨濟老師。不名性燥。伸出佛手。築碎須彌廬。黃龍小叔。且過一邊。驀拈拄杖曰。天中天聖中聖。千祈千靈。萬叩萬應。適來卜得純乾。如今變成重巽。報君知好生聽。人從天台來。接得杭州信。且道。是甚麼信。擲拄杖曰。分付直歲來。朝不得普請。上堂。百匝千重處。水泄不通。四方八面來。針筭不入。直饒轉得身。吐得氣。猶是門外活計。且親到其中一句。作麼生道。萬緣遷變渾閒事。五月山房冷似冰。一僧入門便喝。師曰。納敗作麼。僧又喝。師曰。轉見不堪。僧作掀禪床勢。師曰。拄杖子不在。筇篙柄聊與三十。

### 山西汾州華嚴雪岸德睿禪師

湖廣景陵費氏子。母李氏。年十六。禮南廬澍村師出家。二十二。投六堂和尚納戒。參湘翁云和尚。途中忽憶牛首未見四祖。百鳥銜花。見後為甚杳無消息。欣然頌曰。土偶當年嘯碧天。賺他羣鳥意茫然。黃昏一陣西風雨。識破原來不值錢。湘頷之。元旦上堂。冰封蟄戶枯木不許龍吟。玉剖梅胎。瑞草咸知花發。新年頭舊年尾一句子。非玄非要。非正非偏。薰然似春回萬壑。煥乎若日照千山。會得的。與他一錠金。不會的。亦與他一錠金。因甚如此。元旦啟祚。萬物咸新。冬至上堂。朔風翻曉木。凍玉鎖寒條。巖石抽冰筍。千峯湧雪濤。這猶是放行句。且如何是把住句。葭管不許灰飛。冰河不許燄發。陰不許消。陽不許長。晝不許長。夜不許短。直得天地易位。聖人無功。化機既已坐斷。密運誰敢通風。當此之時。作麼生轉得青陽之律。行得東君之令。良久曰。五九盡日又逢春。冬至寒食一百五。不萌枝上花開。無影樹頭鳳舞。捉得踈山木蛇。却是大雄猛虎。喝一喝曰。莫莽鹵。小參。不屬青黃與赤白。

惟證乃知難可說。堪笑一種守株人。也要紅爐去拾雪。棄却家拋却業。依舊狂馳心不歇。繫驢橛上牢拴定。朝打三千暮八百。情關震開。識鎖爆折。跣足針鋒[拚-ム+去]命行。錯腳踏碎澄江月。熱處拈來冷處看。却似汾州城東天寧寺北王木匠鑿就的一塊生鐵。

### 蘄州後山白巖鐵菴清禪師

上堂。牢關把定。語默難通。祖令親行。情思頓絕。果肯全身放下。從他月照寒潭。若得伎倆消融。誰道雲生室內。到者裏。雖則萬機休罷。千聖不携。若教白巖檢點。正是髑髏前妄想。陰山下活計。要得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除非別有生涯始得。顧左右曰。眾中莫有恁麼人麼。饒你八面四方。總被山僧拂子穿却鼻孔小參。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直下便承當。又落第二義。且作麼生是第一義。拈拄杖卓一下云。寧可截舌。不犯國諱。

### 克歸宗禪師法嗣

### 漢陽歸元白光明禪師

上堂。歸元開建多年。並無一字可說。諸方浩浩談禪。者裏家風迥別。向來弄瓦搬磚。勝過雲門念七。今朝緊把繩頭。拶得諸人骨出。豈容立地承當。轉身一步始得。失脚踏破疑團。稱鎚肚裏流汁。波斯拊掌讚揚。翁仲慚顏屈膝。大眾且道。翁仲知何過咎。豎拂云。會麼。悟後自當明白。

### 紫谷覺禪師法嗣

### 陝西西安慈恩憨月圓禪師

上堂。打開無盡寶藏。運出自己家珍。信知佛法無多子。眉下人人有眼睛。上堂。即心即佛。背負乾坤遇野火。非心非佛。懷胎石女害相思。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道是什麼。是大神呪。是大明呪。

### 隱知聞禪師法嗣

### 桐城慈濟侶石清禪師

楚州唐氏子。年二十。禮本邑洪福寺隱知和尚出家。受具于華山定菴律師。徧參諸方。後受洪福印可。雍正癸丑冬。特召入京。論曹洞宗旨。賜紫衣盂杖。明年春。奉命住鍾山靈谷寺。次遷慈濟新剎上堂。佛是乾矢橛。無你下口處。佛是蕪三斤。無你下手處。無下口處。言說議論不行。無下手處。捏聚放行不得。不行不得。福足慧足。擬議思量。千隔萬隔。老僧恁般說話。也是胡亂差排。你更顧佇停思。豈止白雲萬里早參。昨夜說真方。今朝賣假藥。立效比金丹。百病能除却。取利亦輕微。功用實寬廓。信得及。捨手傳名。包管全愈。信不及。諱病反常。自取狂瘡小參。佛法現成。要說即有。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若有纖毫欺誑。我脚何似驢脚。我手何似佛手。直饒透過三關。也是癡狂外邊走。顧左右云。南斗七北斗八。生薑酸梅子辣。東震旦國說禪。西瞿耶尼笑殺。且道。笑箇甚麼。曼倩善滑稽。觜也沒處插小參。東山水上行。不是諸佛出身處。庭前柏樹子。不是祖師西來意。非敢好異立奇。實在有憑有據。且道。憑據在甚麼處。卓拄杖。下座。師於乾隆丁巳八月二十三日示寂。世壽七十三。僧臘五十三。塔全身於陶冲之採藥菴旁。

### 阿字無禪師法嗣

#### 廣州海幢雲菴雲禪師

上堂。輝煌寶鏡。照萬象以無私。燦爛天花。灑眾緣而獨耀。撩天鼻孔。糞掃摩金。特地波瀾。虛空閃電。縱得金而塵滿。假縛電而影閒。一鏃穿關。分明箭後之路。三臺按拍。依稀似曲之聲。認著即差。呈時不露。惟有藤條[跳-兆+孛]跳。不違萬有真機。塵尾飛騰。喚醒千秋噩夢。誰堪燈續燒破面門。若箇途迷挈開漆桶。勿圖斷一寸之絲。且教挽千鈞之弩。忽然中的。慶悅平生。立地掀翻沉淪消息。須知有從上恁麼事。莫辜負當下之己靈小參。夜間聞得鬚張三黑李四。兩箇撞著。痛打一場後。說道。你若無心我也休。不須逞氣各風流。大家普入華嚴界。一向杭州一汴州。仔細聽來。却是蟋蟀雙雙鳴草砌。

南嶽下第三十八世

迦陵音禪師法嗣(四人)

京都大覺佛泉安禪師

湖廣人 示莊主。百丈展開兩手。善說大義。只得其體。不得其用。仰山立地插鋤。善於應對。只得其用。不得其體。若欲體用全備。事理雙彰。且看。大德逐日機用。尋常作略。有時一犁耕轉乾坤種。出廬陵白米。一任飽餐。有時一鋤翻轉大地。收得鎮州蘿蔔。由人齧嚼。既有如是神通妙用。佛祖亦甘立下風。試問。無陰陽地上。種箇甚麼。若向者裏道得一句。祖父田園。一時分付。

廬山歸宗佩璋璜禪師

楚南衡州楊氏子。投悟禪師剃落。依友嵩和尚圓具。後參迦陵音。音問。那裏人。云。湖南。音云。南嶽山高多少。云不露頂。音云。知解禪和參堂去。一日入室。問。那箇是你本來面目。師云。若呈上則不中。音云。學語之流。令看無佛性話。三七日。忽明情與無情煥然等現。白音。音不顧。師云。學人有三十棒。要打趙州。音云。過在什麼處。師云。舌頭無骨。音頷之。隨音南北二十餘年。後賜紫。命住歸宗夾山雲居等處 小參。以竹篋畫○云。者是諸佛頂[寧\*頁]機。錯了也。又以竹篋畫○云。者是祖師末後句。錯了也。者兩錯。有一錯。鋸地獅子。亦如金剛王寶劍。有一錯。有照有用。能縱能奪。能殺能活。若分疏得下。功不浪施。若分疏不下。山僧亦錯。闍黎亦錯。師年逾八十。靜住雲居西室。一日喚侍者云。丟去罷。書偈云。生也沒得說。死也沒得說。打破太虛空。陽春與白雪。怡然而逝。塔于寺西安樂橋側。

江西歸宗果宏德禪師

住瞻雲。拈香云。當年承慈訓。已[拵-厶+去]著活埋。打開無盡藏。拖出死屍來。大死之人今又活。老人頭上舞三台。

## 京都大覺正宗道禪師

小參。適纔山門外佛殿裏。已是狼籍殆盡。諸人上來下去。還嫌少那。陽氣發來無硬土。無根樹子發生也。崖前枯木糝華也。諸人。還覺眉毛重麼。上堂。今朝十月十五。大地山河齊吼。樂奏乾闥婆王。伶俐迦葉起舞。擊著須彌鐘。搗破虛空鼓。演出無字經。唱作蠻腔譜。不是譚玄說妙。亦非生老病苦。大家同赴華筵。面南須看北斗。覲面直截提持。擬議失却何有。果能直下承當。始知不住劫數。其或彌封滯殼。棒折何能歇手。小參。綠柳隄邊。水足艸足。青山崖畔。東觸西觸。不耕那畔田。豈踏今時路。嘯月吟風。餐霞飲露。有時放下玉簾。佛眼覷不見。有時突向金輪。大地藏不住。有權有實。有照有用。放之自然體無去住。不如隨分納些些。何須齎下書五字。

## 調梅鼎禪師法嗣(三人)

### 磬山崇恩法南勝禪師

上堂。未離兜率降皇宮。公案何曾有兩重。千古毗藍今日事。一枝杓柄活如龍。釋迦老子生也。一花現瑞。千葉流芳。雲門大師來也。一棒揮空。十方通暢。佛佛祖祖。全提斯旨。七十二傳。未嘗少易。良久云。開口不在舌頭上。白洋河抄化回。示眾。破施主慳貪。磨自己種性。須是過量人。遇著血性漢。不然易說難行。山僧昨日將者兩步工夫。親歷一番。向九曲黃河邊。往來兩月。麥麩粥[米\*差]子飯。滋味徧嘗。看他三回四回。只云不在要。彼一文兩文。如割身肉。非關古井淵深。自愧汲長綆短。只得撩起便行。且把馳求心。歇歇歇。者般鼓笛莫輕敲。甘守門庭三尺雪。

### 京都拈花恢慈仁禪師

據室。既登獅子座。須效師子吼。若有法可說。笑破虛空口。畢竟如何。家堂穩坐渾無事。終日面南看北斗。上堂。千聖頂[寧\*頁]上。可容剎海。衲僧命脉中。不許商量。休向言中取則。莫於句下承當。大展通天活路。打開被蓋囊藏。明歷歷毫無間隔。光灼灼獨露真常。入得不二法門。處處無非佛事。出得五陰區宇。頭頭總是道場。毫端上。羅列真空妙有。芥孔中。莊嚴清淨寶坊。小參。真機纔動。妙用全彰。靈通莫測。感應無方。果然無手能行拳。千手

萬手。一時頓現。無目能舒光。千眼萬眼。當下豁開。拈提格外生涯。洞達幽玄活計當處圓融無礙。等閒蓋色騎聲。

### 京都萬壽粹如純禪師

順義黃氏子。禮本邑觀音寺悟上師出家。依貫文律師具戒。遍參宗匠。次謁萬壽調梅和尚。親炙數載。日窮底蘊。始授記荊。出住梅檀廣通等處。上堂。昨夜紛紛大雪。鏡外狂心頓歇。舉頭冷眼遙觀。萬里山河一色浪。禪和無交涉。踏著方磚撞倒牆。觸著露柱打失鼻。識取不為冤。止止不須說。直饒虛空粉碎。大地平沉。到者裏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何故。絕後再甦。欺君不得。小參。一任法堂前艸深一丈。不曾山門外垂手接人。不是調高和寡。亦非價重難酬。且道。意在于何。釣竿可換鉤難曲。你但無心我便休。小參。輦路橫門外。西山峙寺旁。說法雲興。瓶瀉論文。鳥語花香。直饒拈燈籠露柱。也是折東壁補西牆。分明舉似。切忌承當。自古韓盧多逐塊。從來好肉不剝瘡。諸仁者。還知山僧舌頭落處麼。良久云。一番雨過一番涼。佛誕。一年一度。徒增塗污。者箇那箇。有甚分別。杓柄子不問長短。拈來便澆小廝兒。也知伎倆放過不可。且道。渠還甘受也無。須知遠烟浪。別有好商量。小參。舉僧問千巖長祖。如何是和尚家風。祖云。無力豎拳頭。老祖恁麼說話。大似隔靴將棒槌搔癢。有甚受用處。設有人問萬壽如何是和尚家風。劈脊便棒。待他擬議。連棒打出。因甚如此。重賞之下。必有勇夫。小參。隔江招手橫行。脚跟下好與三十。望見剎竿回去。脚跟下好與三十。且道。半青半黃。七上八下的。脚跟下合打多少。有人道得好轉語。別炊甑飯與他喫。乾隆甲午七月二十日示寂。世壽六十一。僧臘四十二。全身塔于本寺之後園。

### 南嶽下第三十九世

#### 佛日義禪師法嗣(二人)

#### 薦福德山海禪師

小參。鄭州梨青州棗。萬物無如出處好。阿呵呵。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珍重擔囊行脚人。一念偏枯錯到老。示眾。舉玉國師云。禪林秋晚。學道之士。貴乎一一真實。崑為生死。不爭人我是非。是發心真實。切問近思。不學虛頭。是參學真實。胸襟流出。蓋天盖地。是酬唱真實。好賢樂善。成人道業。是領眾真

實。省虛文務誠敬。是禮貌真實。誠虛華崇節儉是。日用真實。明因果識罪福。除害去弊。是任事真實。遠奸佞親仁厚。是交接真實。甘淡薄恥謀求。是家風真實。更有一處真實。一發與汝諸人道破。大抵還他肌骨好。不搽紅粉也風流。師云。國師心肝五臟。和盤傾出。怎柰無人識取。而今冷地思量著。三十三天被火燒。下座 同參至上堂。舉雲門示眾云。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是好手。時有僧出云。與麼則堂中第一座。有長處也。門云。蘇嚕蘇嚕。師云。過得荊棘林是好手。若到薦福門下。腿筋打斷。也不肯放過在。須要通身是箇金剛圈栗棘蓬。教一切人。吞跳不得。諸人還委悉麼。問取我同參去。

### 南澗理安智朗月禪師

白門李氏子。年十九。投慧開老宿脫白。受具于六安曇瑞年和尚。後詣靈峯素蓮法師。習天台賢首諸經論。徧參諸方。于佛日和尚處。投機印可。示眾。參禪須參活句。活句薦得。永劫不忘。作麼生是活句。驀舒手云。我手何似佛手。復垂足云。我脚何似驢脚。有漏箆籬。無漏木杓。覲面相呈。分付典座。一等蝦作眼者便作。言發非聲。色前不物。會去。何止笞帚柄三十 示眾。德山棒是瞎棒。臨濟喝是瞎喝。正偏已屬繁辭。顧鑑那堪再說。壩子橋頭。來千去萬。忠清巷裏。驢奔馬蹶。一天真。誰敢動著。雖然。王和尚底袈裟。因甚七零八落 小參。獅子嘯呻。象王回顧。要行便行。要住便住。是名大丈夫。不枉打艸鞋行脚。若乃不死不活。癡心妄想。成佛作祖。豈不大錯。三歲孩童抱花鼓。莫來攔我毬門路 小參。大樹大皮裏。小樹小皮纏。庭前紫荊樹。無皮也過年。世出世間法。時至理俱圓。看看。山腰白雪雖凝凍。溪上紅梅已破顏 小參。風不鳴條。雨不破塊。買有處買。賣有處賣。人人有喫有穿。各各無灾無害。饒他千佛到來。一齊推出門外。何故。堂上不張白澤圖。人間何自有妖怪 小參。摸螺螄搭好伴。刺繡文看好樣。年荒病久倦開爐。無可如何著須炭。眉毛鼻孔。各自照管 小參。有大蓮華。忽然出現。豎拂子云。見麼。善財童子參德雲。麥裏何曾不是麩。一旦相逢在別峯。空裏雲飛知幾片。乾隆辛卯八月初十日示寂。世壽六十一。僧臘四十三。塔于蓮花峯之陽。

### 古雲沛禪師法嗣

### 劔溪永鎮樸夫拙禪師

入室。書頭教娘勤作息。書尾教娘莫瞌睡。坐斷中間。不落窠臼。未免法報化身叫屈。摩竭陀親行此令。毗耶離已現神通。還委悉麼。以拄杖卓一卓。喝一喝。上堂。鶯啼燕語。水綠山青。人人懷滄海之珠。箇箇抱荆山之璧。龜毛拂子拂。兔角扇子扇。又誰管你米裏有蟲。麥裏有麩。盞子撲落地。碟子成七片。狗子佛性無。問伊是誰見。見不見。倒騎泥牛入佛殿。

### 祖燈紹禪師法嗣

#### 嶽州印慧勝禪師

開堂。金剛正體。充塞十虛。智眼圓明。包羅萬有。百千法門。因此而建立。無量妙義。因茲而流通。赤洒洒騎聲蓋色。峭巍巍越古超今。到者裏說箇大唐國裏無禪師。瞎却鎮州一城人眼。總是靈龜拽尾。拂迹迹生。當晚小參。揮拂子云。諸佛心印。非從人得。列祖綱宗。豈假言傳。所貴俊俏衲僧。向把捉無踪時。詮註不及處。一連入手。自然理事全彰。諸兄弟。且入手後如何。岳陽船子洞庭波。擊拂子。歸方丈。中秋。秋風涼秋夜長。途中客思故鄉。星河燦燦。蟾桂飄香。一輪孤月轉長廊。萬家砧杵應寒螿。敢問大眾。祇如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忘。復是何物。擊拂子云。自是不歸歸便得。五湖烟景有誰爭。

### 月潭達禪師法嗣

#### 鎮江金山大曉徹禪師

崇明陳氏子。依天語和尚。出家圓具。後入終南山。澗飲木食數年。憶洞山參雲門公案。忽見電光徹證。乃述偈曰。奇哉奇哉甚奇哉。閃電光中正眼開。明暗兩條生滅路。誰知無去亦無來。即出山。參月潭和尚。得蒙印可。繼席香林。次遷金山天寧等處。早參。逼塞太虛。了無空缺。燈籠用盡神通。[跳-兆+孛]跳不出。露柱使盡伎倆。藏身不得。百億須彌暗點頭。萬象森羅笑不歇。且道。笑箇甚麼。眉毛眼上橫。鼻孔大頭垂。小參。金山一夏來。無法可商量。饑來要喫飯。飽時絕思想。倦來要打眠。一覺到天亮。動轉及施為。十方盡通暢。了了全非見。堂堂無背向。但只恁麼過。還有為人處也無。明眼人前。不得錯舉。小參。不是心。耳聲眼色甚分明。不是佛。暑氣侵人誰不熱。不是物。電光石火空狼籍。畢竟是什麼。冬瓜直儻侗。瓠子曲彎彎。若向者裏會得。一生

參學事畢 早參。有一人六根不具。四大皆空。體周法界。行住無蹤。洒洒落落。任西任東。問伊佛法禪道。全然一法不通。且道。此人有長處也無。試道看 僧問。既是金山。因何惟見土石。師云。是你見處。云和尚又作麼生見。師云我不曾眼花。云謝師答話。師云。放汝三十棒 僧問。隔江招手而去。過在甚麼處。師云。不守本分。云恁麼不用行脚也。師云。只恐不是玉。是玉也大奇 上堂。佛祖玄機。人天罔測。大用現前。不存軌則。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施雷轟電掣之機。展殺活臨時之用。直下全提。凡聖路絕。若是明眼衲僧。向棒喝未施已前。貫通古今。猶較些子 小參。即心即佛。芍藥花開菩薩面。非心非佛。棕櫚葉放夜叉頭。不是心不是佛不是物。猿抱子歸青嶂裏。鳥銜花落碧巖前。恁麼會得。猶是陝府灌鐵牛。嘉州打大象。莫若業識茫茫去。一條白練去。無明煩惱去。一念萬年去。雖然如是。毫釐有差。天地懸隔。毫釐無差。天地懸隔。師示微疾。說偈而逝。世壽七十三。僧臘四十九。塔于金陵紫金山之麓。

### 不物震禪師法嗣

#### 泰州慈濟自聞悅禪師

徐州蕭縣盛氏子 上堂。華藏界香水海。重重無盡善法。堂樓閣門。門門無礙。只貴當人信得及。一拶便入。始知虛而靈。寂而妙。高揖釋迦。不拜彌勒。婢視聲聞。奴呼圓覺。正所謂我為法王。於法自在。雖然如是。開堂一句。作麼生道。但願好風齊著力。一時吹入我門來 佛殿。漱口三日。吾不喜聞。是光明藏。是最上乘。展具云。丈夫自有衝天志。豈向他人行處行 結制。九十日已前。鈎子鈎你。九十日已後。錐子錐你。正當九十日。開潑天潑地爐鞴起烹佛烹祖火燄。釋迦彌勒。擬議則眉鬚墮落。文殊普賢。顧鑑則燎却面門設有箇漢出來道。長老云何修學。云何取證。與麼見解。拄杖子不在。笞箠柄聊與三十。

### 澹如永禪師法嗣(五人)

#### 杭州天華有于成禪師

誕日上堂。釋迦老子。未離兜率。成上座。早已脚踏閻浮。釋迦老子。指天指地。成上座。早已成等正覺。不是為他閒事長無明。豈肯自輕而退屈。三十年前。驅耕奪食。誰敢當鋒。三十年後。灰意

忘情。甘心下劣。修禪入定。讓與他人。喫飯安眠。隨緣度日。曾憶母胎中有一轉語。告報諸人。卓拄杖云。來朝一一為君說。

### 杭州天目聞學定禪師

松江上海張氏子。年二十。出家受具。閱六祖壇經。如獲古物。參澹如和尚。問。一歸何處。澹云。南高峯頂浪滔天。師不會。後上天台。雲霧四塞。忽見日輪湧出。身心廓然。夙疑冰釋。上堂。蘭吐春山。梅開玉樹。是處全彰正眼。頭頭漏洩家風。何必重陞此座。鼓兩片皮。說黃道黑。然則事豈無因。道由言顯。十字街頭廖胡子。何妨觸著磕著。三家村裏泥土地。從來有感有靈。鎔瓶盤釵釧為一金。攪酥酪醞醐成一味。還他作者。入荒田不揀。信手拈來艸。誰是知音。須彌山。突出諸人額角邊。大海水。灌入諸人鼻孔裏。即且置。前三後三三。又明箇甚麼邊事。良久云。三級浪高魚化龍。癡人猶辱夜塘水。上堂。事存函蓋合。理應箭鋒拄。鼻孔與眼睛。今古長相對。拈却事。去却理。孟八郎漢無措足地。令人轉憶謝三郎。一絲獨釣寒江雪。冬節上堂。天無私蓋。地無私載。鐵馬驟冰稜一句。迥超千聖外。事無礙。理無礙。打破相呈。漆桶依然不快。剝盡羣陰。一陽來復。即且置。優波離尊者。因甚昨夜酒醉。喝一喝。早參。如來說一合相。即非一合相。神光三拜後。熊耳一峯高。風聲水聲。驢聲馬聲。任運流入薩婆若海。而總不見得。無位真人。是什麼乾屎橛。且逐雞聲過板橋。早參。明頭合暗頭合。銜鐵負鞍。瞎驢成隊。佛法僧三寶。匙挑不上。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菩提場中一千七百箇。喫鹽止渴漢。作盡不良人。總未具透關眼在。西峯今日吐膽傾心。是汝諸人。何妨拍拍是令。乾隆戊戌正月初三日示微疾。謂弟子曰。今日是何日。答曰。甲子。師曰。吾行矣。乃起坐說偈而逝。世壽六十七。僧臘四十四。

### 天目桂巖立禪師

上堂。金烏飛玉兔走。盡未來際盡。蝦跳不出斗。乾坤大戲場。好手手中呈好手。胡張三黑李四。千年桃核裏。原是舊時仁。釋迦文殊是他奴。說箇成佛作祖。大似不識羞底莽鹵漢。顧眾云。汝諸人行甚麼。驢脚馬脚。達磨擲瞎你眼睛。文殊拔却你舌頭。山僧恁麼告報。已是不堪。何故。好兒終不使爺錢。

### 天目道謙智禪師

江西建昌南城縣人。上堂。以拂子畫一下云。摩竭提國。親行此令。即此用離此用。馬師父子。移花兼蝶至。買石得雲饒。說甚向上向下。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祖師西來。大似賣老鼠藥底客人。汝等諸人。切忌誤用。用則傷人。西峯恁麼說。是真語實語。不二語不誑語。還信得及麼。良久云。罕逢穿耳客。多遇刻舟人。其遇人銘曰。佛法無多。得鼻失口。若說罷參。真箇漏逗。急須見人跳出窠臼。一念不生百拙千醜。大地同行。虛空把手。道無不無。道有不有。有無不二。簸箕熨斗。釋迦彌勒。難出其右。緇素銘曰。正體非覺。孤光爍爍。正覺非體。乾坤莫比。比智不忘。非愚即狂。徹底掀翻。獨露堂堂。劈心剗腹。換骨洗腸。金剛栗棘。百世遺光。痛棒熱喝。飯熟羹香。耳聾蒿拂法乳親嘗。權衡銘曰。末後牢關。說與徧參。黑花猫子。面門已班。瓜直儻侗。瓠曲彎彎。通玄峯頂。不是人間。長慶曰差。水潦曰奇。明得下載。分清水泥。我天爾狗丹鳳楚雞蕩盡閨閣。悟中之迷。師世壽六十三。預知報盡。端坐說偈。大喝一聲而寂。

### 南屏淨慈在衡權禪師

海寧錢氏子。依天台道源和尚。薙染受具。後謁澹如和尚。命看狗子無佛性話。一日聞梆聲。打失鼻孔。遂蒙印可。出住南屏聖果華頂興勝等處。示眾。道慚未克繼先宗。俛首時時省己躬。珍重後賢須策勵。莫將心地自朦朧。小參。欲覓覓不得。要推推不開。拳頭無縫罅。眉毛領下栽。面壁九年猶不識。手攜隻履自西歸。淨慈恁麼道。却被露柱在旁呵呵大笑。且道。他笑箇什麼。良久云。參。乾隆己丑初夏示微疾。五月二十九日。說偈而逝。世壽五十四。僧臘三十四。塔于華頂之西塢。

### 悟修慧禪師法嗣

### 杭州淨慈振一宗禪師

佛誕上堂。人人共道。今日世尊降誕之辰。試問諸仁者。世尊未降誕前。向什麼處見。只在當人眼裏耳裏口裏鼻裏。諸人還見麼。擊拂子云。吽吽吽。

### 曉蒼暹禪師法嗣

### 潯陽能仁秀林俊禪師

上堂。全身擔荷。赤體提持。不向言前薦取。不從句裏承機。顯揚臨濟宗猷。掀翻報恩窠臼。正恁麼時如何。拍掌云。教外何曾有別傳。

杲樹懂禪師法嗣

杭州淨慈指遠近禪師

開鐘板小參。兵隨印轉。將逐符行。觸著磕著。萬象皆新。以椎擊鐘云。蝦蟇何勞努眼睛。

靈鷲誠禪師法嗣(七人)

維揚高旻天慧徹禪師

臘八日上堂。今日乃釋迦成等正覺之辰。若恁麼道。喪我兒孫。若不恁麼道。亦喪我兒孫。且道。作麼生始得。若是明眼衲僧。聞恁麼舉。便攢眉而去。未免也是靈龜負圖。自取喪身之兆。揮拂云。黃面老。大似夢眼見空花。常州有蘇州有。當臺寶鏡分妍醜。輝天鑑地大光明。須向面南看北斗。放出楊岐三脚驢。踏殺衢州子胡狗。栴檀林內栴檀香。獅子窟中獅子吼。山意衝寒欲放梅。岸容待臘將舒柳。曾識大經不勞塵剖。西走東行。南行北走。呵呵大笑云。相見每施三盞茶。貴圖人識高旻口。上堂。雨洗紅衣。濯濯清芬可掬。風搖翠蓋。亭亭松柏堪觀。無不是生機。無不是妙用。所以東山道。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恁麼會則不是。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恁麼會方始是。方外原無剩語。劫初那有閒名。當機即色即空。軼格非同非異。咄。白晝裏瞌睡。有甚麼限。上堂。三箇月開爐。九旬日取則。香板與蒲團。都盧最親切。山僧誠實言。諸人瞽不瞽。張三未必胡。李四何曾黑。水底烏龜吃鐵鞭。山頭玉兔吞明月。彈指北淮達帝都。一口西江連底吸。茱萸灣步步蓮生。天中塔層層彩結。大地掀眉。虛空吐舌。三十三天撲帝鐘。誕生內外驚一跌。[○@母]東勝神洲。西瞿耶尼。北鬱單越。南閻浮提。○[(○\*○)/○]芒鞋懸向月。晚參。香巖上樹。全身獨露。聾者瞽者。徒勞顧佇。不顧佇。三岔河邊。官塘大路。早參。拈拄杖。寫[○@烏][○@焉][○@馬]。一番雨過一番風。雨



雨風風白月中。條令斬新端的旨。頂門迸出一輪紅。以杖寫。下座。早參。夜來木馬旋空走。天曉泥牛露地眠。誰是騎聲蓋色者。東君有信借相傳。早參。菊綻籬邊。朵朵發明空劫外。鴈鳴天際。聲聲透出威音前。時節若至。其理自彰。情與無情。煥然等現。喝一喝。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復喝一喝。若是陶淵明。攢眉便歸去。佛涅槃早參。今日有明日無。欲滅度不滅度。捉敗伊何處去。金棺裏一足露。二千七百餘年前。黃面瞿曇。半生半死。竟無伸救底人。今日雄峯遠孫實徹。直下伸救一上。揮拂云。收。

### 武林崇福道明信禪師

佛誕上堂。盡法界身。本無出沒。大悲願力。示現受生。眾中。還有法界身者麼。卓拄杖云。一切處。是他受生出現處。一切時。是他成等正覺時。雄峯已為諸人。下箇註脚了也。早參。舉定山疎山論生死中有佛無佛。一僧云。生死中有佛。不迷生死。一僧云。生死中無佛。無生死。爭之不已。全上大梅。梅云。一疎一親。定

云。誰疎誰親。梅云。親者不問。問者不親。雄峯看來二僧各具隻眼。何故。過河須用筏。到岸不須舟。若論佛法商量有佛無佛。颺在他方世界。再來雄峯喫棒。

### 金壇東禪寶勝萬光篆禪師

上堂。洞山參雲門。曾喫三頓棒。世尊成正覺。惟見一天星。亮座主人山不見。豐干老騎虎相迎。唇上碧斑迸逼豹。嘴邊當的帝都丁。小參。未打臉時。說甚生旦。淨丑既已出臺。便是長幼貴賤。坐立儼然。各知所守。不是藥山閒曲調。所貴人人得知有。如何是知有底事。達磨大師鼻孔。廚籠烟衝。釋迦老子眉毛。糞箕筓帚。

### 杭州崇福智巖昌禪師

上堂。冰凍三尺。非一日之寒。證悟一朝。非一時之功。禪發疑而漸悟。道無執而頓通。所以劫前運步。非心力之所到。句外明宗。豈言詮而可徹。若是伶俐漢。向未舉已前領略。猶較些子。若乃如何若何。則劒去久矣。卓杖云。艸鞋踏斷處。不索別商量。

### 杭州崇福朗融照禪師

藏經到山。上堂。無始以來。有一大藏。本不曾開。實未嘗關。不立一法。不捨一法。盡情供養諸人了也。而諸人能知能覺。所以不知不覺。豎拂子云。者裏又有一大藏。且道。地甚麼處。擲拄杖下座。

### 杭州孤舟山谷聲聞禪師

臨終自云。我見靈鷲和尚。得箇歇處。便住此山。直至如今。五十二年。未曾移脚。今朝事不獲已。闊步大方。門人問。和尚何往。師云。到青陽余姓家。汝可為我更衣沐浴。門人請偈。師云。五十餘年住此山。且無閒話落人間。今朝無事山前去。大似楊花去復還。分付留龕勿化。即跏趺含笑而逝。廿年後有。青陽余居士來。山移龕火塋。

### 大雄崇福迅機鋒禪師

上堂。信手拈來艸。猶是門外句。其他三藏十二部。一千七百則。是甚麼。展抹爛艸衣。德山棒臨濟喝。是趕狗底家具。山僧今日吐露心肝。若向我者裏會去。也是逐塊韓獪。擬議之間。千里萬里。所以古德云。悟即不無。爭柰落在第二頭。若是第一頭事。三世諸佛。有口祇堪挂壁。歷代祖師。祇可自知。釋迦老子。四十九年。祇說得濁邊過患。汝諸人。要明第一頭事麼。若是箇漢。向山僧未啟口前會得。便可與佛祖為師。顧眾云。已遲八刻。上堂。拈拄杖云。拈起也。乾旋坤轉。放下也。海晏河清。衲僧分上。料掉沒交涉。曲為今時。由人施設。舉為山禪師云。有句無句。如藤倚樹。為泥壁次。香巖問云。忽然樹倒藤枯。句歸何處。為放下泥盤。呵呵大笑。師云。為山雖然。笑裏有刀誰不知。被香巖一推推倒。直至如今起不得。若是山僧則不然。有恁麼問。但向道。今日普請。且道。為山底是。山僧底是。良久。委悉麼。見義不為。是無勇也。

### 百靈然禪師法嗣

#### 湖廣古帆令禪師

上堂。老僧確辭不上堂。茲為眾人一段誠懇。不得不出來。舉則奇特因緣。阿逸多。滿腔疑情。請問善現。須菩提。一肚糊塗。啟白於佛。佛云。此事年代深遠。暫時忘却。可問會中長老。老云。我不是不解答。但答不在問處。諸公不是不解我意。柰問不在答處。言無展事。語不投機。祇如目前者株無根樹。非干雨露。不涉春秋。摘花剪麗。可以換諸人眼睛。直截根源。可以穿列祖鼻孔。黃面聞之快歎。奇哉。空生領旨。極贊希有。獨有山門箇漢。未免笑脫下頷。還有為渠拍得上者麼。拈拄杖一卓云。三會龍華。齊成正覺。

### 海山明禪師法嗣

#### 萬杉大楚圓禪師

據室。拈拄杖云。祖父不傳之義。人天共仰之宗。今日豈敢囊藏蓋覆。復卓一下云。爍破面門。小參。臨濟喫棒三頓。有口難言。雲門拶折一足。有路難行。誰知睦州是喝水取魚。黃檗是覆巢探卵。臨濟之命根不斷。雲門之仇讎不結。若要與古人雪屈。直須翻轉面皮始得。遂拈拄杖。旋風打散。便歸方丈。

## 古梅冽禪師法嗣

### 潭州大漉天翼翔禪師

上堂。廣大祖庭。宗風浩蕩。三玄要旨。迥出言詮。無賓無主。山僧今日廓闢十智門庭。倒跨三脚驢子。卓拄杖云。他人行處我不行。他人住處我不住。

## 巨濤果禪師法嗣

### 杭州雲林玉山琳禪師

解制小參。山僧于舊歲十月十五。布箇漫天網子。收取徐十三郎頭上破網巾。趙州行脚底破艸鞋。南泉刀下死猫頭。玄沙叱沙斑面虎。柏樹子枯樹椿。秃苕帚破簸箕。向七尺單前長廊下。受盡雲蒸霞蔚。霽月光風。要伊箇箇翻身[跳-兆+孛]跳。吐氣揚眉。未免眉毛撕結。做盡對頭。向冷水裏浸殺。火爐邊燒殺。山僧縱有九轉還丹。開瞽金針。要伊眼目定動。令彼衝霄底衝霄。入淵底入淵。有一句子。至緊切要話。切記切記。蚯蚓跳上梵天。蝦蟇過東海。不得辜負雲林。

## 赤潭珠禪師法嗣(二人)

### 繡州濮鎮宇存順禪師

立兩序小參。建立賓主。須仗兩堂齊下喝。舉唱宗風。全憑一句定綱維。抽却克賓鉗鎚。不用東山圓相。若要少室宗風聲振。滄沱正脉長流。只須禪歸海經入藏。拈起布毛。燈盞燎亮。貴賣生薑。敢保的當。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

### 嘉興白蓮慎初暹禪師

晒藏經小參。者卷真經。不從世尊宣揚。亦非慶喜結集。龍宮海藏未嘗收。梵語唐言豈能譯。大眾。還見真經麼。展手下座。

## 具宜開禪師法嗣

## 興化時思道安經禪師

祝髮於海昌慶善寺。圓具後。參福嚴具宜和尚。有省。出世住普明。未幾遷時思上堂。阿含十二。方等八兩。手無端鳴聒聒。二十二年般若談。杜鵑枝上血斑斑。法華涅槃共七年。何須醫裏又加鹽。華嚴最初三七日。千古秤錘俱生鐵。時思慣為東話西說。拗直作曲。哆哆和和。截鶴續鳧。昨夜拄杖子。將山河大地。及如來一大藏教。一口吞却了也。且道。今日畢竟說箇甚麼。八十婆婆鬢抹油。不搽紅粉也風流。師示寂。後四十年。嗣孫悅心。始茶毗建塔。道俗送者數千人。咸謂。師之德行所感也。

## 具如奇禪師法嗣

### 維揚天寧侶松楷禪師

解制。師云。十五日巳前。滴水滴凍。十五日巳後。融雪融霜。正當十五日。春雨蒙潤。萬物滋生。諸人到者裏。正好把住繩頭。單提向上。討箇分曉。不為分外。設使脚頭無眼。任你南天台北五台。走遍四大部洲。拄杖子。終不肯放過。何故。日月燈明佛本光瑞如此。起七。扇起兇勇爐鞴。放出惡辣鉗錘。逼得陝府鐵牛。汗流浹背。打得西河獅子。躑身無地。驚動憍陳如尊者。將虛空一擗粉碎。擲竹篋云。撲落非他物。縱橫不是塵。遂拈竹篋云。起小參。師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且道。一作麼生舉。彈指一下。古佛過去久矣。

## 竹峯續禪師法嗣

### 四川昭覺潛修悅禪師

陝西鳳翔縣李氏子。母黃氏。夢白鶴投懷而生。卅歲出家。遊西安金繩寺。圓具後。參竹峯於昭覺。得授信拂。遂繼席焉。解七。一七工夫。用盡許多閒力氣。仔細看來。大似金剛與泥人揩背。金剛累得汗出。泥人晝夜鼾睡。烈燄紅爐。鉗鎚惡辣。總當等閒遊戲。人人飲木楂羹。口口吞來無滋味。是誰轉得古乾坤。一擦頓入獅羣隊。挂角羚羊不用尋。藏身之處無踪跡。際融史居士。問。弟子此生姓史。不知一氣不來姓箇甚麼。師喚云。際融。士應諾。師云。姓甚麼。士無對。師便歸室。

## 中洲岳禪師法嗣

### 德清吉祥大文相禪師

上堂。天空雲淨。九臯之鶴高飛。浪靜波恬。四海之龍穩睡。今日來昔日去。善知識之脚跟。本無固必。用則行。舍則藏。大丈夫之肝膈。自有權衡。況乃靈山的旨。迥絕思惟。少室真傳。不拘文字。思惟迥絕也。且懸河之辯。啟口無由。文字不拘也。縱饒奪錦之才。縮手有分。拈花示眾。已是畫虎成狸。立雪安心。何異指鹿為馬。從此分枝別葉。列燄聯燈。競顯神通。各呈伎倆。或露半面。或現全身。或憑華座而答龍象。或閉松扉而馴猿鳥。總之曲垂方便。誘引童蒙。山僧道德荒蕪。固是匙挑不上。無端也闖入這羣隊裏。只得隨例簸土揚塵。拈椎揮塵。以拂子畫[○/○/○]云。試看合浦珠還日。自有清光照九州。上堂。粗言及細語。皆歸第一義。釋迦老子。姪房裏宿夜。酒樓上看戲。肉案頭午。齊墮在阿鼻大地獄中。永無出期。鹽官念一道真言。為他結箇般若緣。多他阿伽陀三藐三佛陀。釋迦老子出來了也。試看即今在甚麼處。良久云。過。上堂。喝一喝云。虛空粉碎。大地平沉。你這隊喫自在飯底漢。向那箇壁角頭。門扇後打瞌睡。

## 南溟碧禪師法嗣

### 育王嵩來荃禪師

小參。即心即佛。月落不離天。非心非佛。蝦跳不出斗。不是心不是佛不是物。嚙嚙蟬聲在高柳。擊拂云。還知落處麼。江南兩浙。春寒秋熱。

## 默菴言禪師法嗣

### 寶應一粟嶧岫旭禪師

鹽城潘氏子。幼投本邑法興院不違和尚剃染。依石塔瑞律師圓具。次歸本師。印可。師於乾隆丙申。示微疾。眾請說偈。云老僧末後無言。倩取虛空代說。揭開劫外春光。指出一天明月。端坐而逝。塔於本邑之松園。

## 曉堂哲禪師法嗣

### 長沙白霞信賢遐禪師

元旦上堂。喝一喝云。春光滿握。撒向梅梢。和氣一團。別開世界。不待磨塵刮垢。轉見耀古騰今。如日在天。普使具眼凡夫。一時瞻仰。得其半者。可以定國安邦。得其全者。可以轉凡成聖。上下安居。不敢攙匙亂箸。尊卑異位。何須越俎代庖。要用豈假思惟。會得總成靈妙。復喝一喝。人人萬福。

## 異目宗禪師法嗣

### 饒州龍溪正覺堯菴治禪師

陞座。釋迦老漢。於無量阿僧祇劫。修習心地法門。向雪山頂上。明星現處。一時打失。于今二千年。後轉向正覺山前。明星現時。且道。心地法門。作麼生會。彈指圓成八萬門。一超直入如來地。

## 天池鵬禪師法嗣

### 徐州雲龍興化奎章平禪師

早參。興化結制安禪。龍象競頭來參。本來無法可說。帶累四海高賢。祖師西來大意。恰似火裏紅蓮。冷地若還覷破。正好和衣打眠。更有向上一路。只是千聖不傳。不落理事兼帶。亦非三要三玄。就中有恁麼舉。便與掀倒禪牀。喝散大眾。三十棒。一棒也較不得。何故。有功者賞。晚參。水不洗水。金不博金。西來大意。直指人心。恁麼會去。轉見病深。不恁麼會去。無處討尋。畢竟如何。喝一喝。

## 止先源禪師法嗣

### 休林遠岫堂主

嘉善王氏子。投萬年明之和尚出家。圓具後。瓢囊行脚。徧參尊宿。後謁止先源。止問。涉水登山。所為何事。師云。不為別事。止拈棒。師云。鷓子過新羅。拂袖便出。未幾。蒙印可。命充堂

主 小參。把住則鐵壁銀山。通天活路。放行則隨流得妙。水洩不通。且道。把住是。放行是。復舉僧辭趙州。州云。何處去。僧云。諸方學佛法去。州豎起拂子云。有佛處不得住。師云。無毛鷄子撲天飛。無佛處急走過。師云。倒騎鐵馬上須彌。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師云。燈籠與露柱。商量浩浩地。僧云。恁麼則不去也。師云。笑殺南鄉泥土地。州云。摘楊花摘楊花。師云。石虎叫時山谷響。木人听處鐵牛驚。岫上座。著與麼語。一任諸方檢點。

青原下宗鏡第九世

鑑堂鏡禪師法嗣

潤州焦山碩菴行載禪師

吳陵段氏子。祝髮於州之曲塘清淨菴。受具後。參焦山鑑。一日夜起。見電影過牕前。有省。衝口說偈曰。聽之不聞。視之不見。裂破虛空。無背無面。遂充西堂。受心印。繼住焦山。結制上堂。僧問。烈燄紅爐。光騰徧界。到者裏。還假鉗錘也無。師打曰。少者一槌不得。僧擬開口。師又打曰。莫待冷來看。僧作禮。師乃曰。東弗于逮打鼓。西瞿耶尼上堂。今日海門結制。一時把斷封疆。拈將折筯攪滄溟。只要魚龍知性命。鯤鯨赤尾應不待言。祇如蝦蜆泥鰍。總教伊直下翻身。始知焦山心不負人。中秋示眾。拈如意曰。無物可酬佳節。一句報於禪德。各各本有光明。無物堪能比得。雖則如是。若不真實參究。只恐認在清淨境上。以當平生。後來大有事在。示眾。天氣不寒。人力困倦。大事未明。時光易換。要得覷體相應。須是出身白汗。出後又且如何。健則經行。饑則喫飯。

道宏南禪師法嗣

揚州平山麗泉行昱禪師

晚參。祖道荒涼。人根尠劣。佛法二字。置之高閣。山僧今夜。用長虹作竿。新月為鈎。向揚子江心垂釣。莫有搖頭擺尾底赤尾鯉魚麼。有則出來。衝波躍浪看。如無。且聽山僧唱一漁父詞。以供大眾。乃拈拄杖。作搖櫓勢云。鼓枻烟波一釣翁。自南自北自西東。銀絲直釣寒江雪。鐵笛橫吹別浦風。紅蓼岸白蘋叢。水光山色有無中。農家不管塵寰事。欸乃一聲天地空。

浴日能禪師法嗣

京都大千佛道權高禪師

冬至上堂。渠今正是我。我今不是渠。睡眠瞳人踢玉毬。昔年驢覷井。今朝井覷驢。嚼破舌頭怕合口。千佛不從陰陽而至。脚底生毛長似線。臘八上堂。修行三大阿僧祇劫。成佛作祖。造業於正覺山前。咬盡人間猪狗。赤眼觸碎明星。銜著舌頭打失口。無所從來。猛虎饑鷹爪牙下。何曾啣[口\*留]上堂。通身羅綺皂靴。荊棘林中。安眠有地。赤體不挂寸絲。明月堂前。轉身無門。奪得壁上鍾馗寶劍。一任橫揮豎揮。直得露柱閃爍。瓦礫生光。百億須彌。百億日月。萬象森羅。一時顯現了也。報化佛頭。圓妙等覺。九種十類。都盧是箇自己。恁麼會是有相。不恁麼會是無相。作麼生是實相。眾無語。復曰。明朝後日。切莫違時失候。

### 主峯崑禪師法嗣

#### 漢陽歸元且憨拙禪師

佛成道日上堂。咄哉黃面老。午夜覩明星。帶累閻浮客。重添眼上塵。山僧。今日向瞿曇頂[寧\*頁]上。展演爪牙。眾生眉睫間。掀翻窠臼。將智慧德相。拈向一邊。妄想執著。掃置一壁。威音非始。樓至非終。孤迥迥光吞萬象。峭巍巍雄蓋大方。到者裏。通身是眼覷不及。渾身是口讚莫窮。

### 自明珩禪師法嗣

#### 端州月山惺學敏禪師

上堂。遇水架金梁。莫讓他人爭作。撥沙填滑路。豈肯袖手傍觀。羅睺羅之密行。釋迦佛讚莫能窮。觀世音之慈心。二乘人空生仰望。興隆梵剎。一肩擔荷莫辭勞。輔弼叢林。全副肝腸歸淨域。勿謂事之難成。總怪力之不足。既為佛子。當報佛恩。擲拄杖云。莫謂清早起。更有夜行人。

### 遠林進禪師法嗣

#### 京口五州淨因宗一真禪師

上堂。舉拂子云。無偏無正。無主無賓。門外剎竿。一任踢倒扶起。匣中寶劍。何妨豎弄橫拈。葉續花聯於不萌枝上。鳳舞鸞翔於無影林中。不涉功勳。得大自在。且道。是甚麼人。手握金鞭問歸

客。夜深誰共御街行。佛誕上堂。未離兜率降王宮。未出母胎度人畢。何必指天更指地。一春紅雨花狼藉。

### 紫瑀峽禪師法嗣

#### 京口乳山憨如行秀禪師

興化卜氏子。幼而穎異。胸次蕭爽。髫年祝髮。秉具後。即瓢囊行脚。至弁山。謁紫瑀峽。機契。命掌記室。閱數載。遂承印可。辭去。同蔭乾法兄。道出京口。愛江山之勝。偶過乳山萬壽寺。見峯迴水繞林茂寺荒曰。者箇破落院子。正合我意。乃卓錫焉。上堂。座右烏藤七尺。靠倒虛空。牀頭白拂一枝。挂殘破壁。二六時中。但使一頭牯。長耕八畝田。把空手鋤。耘無根草。灌引曹谿之水。穿雲絡石。成熟廬陵之米。匝地普天。將此供養十方大眾。以及三世諸佛。總向者裏。飽滿一如。山僧恁麼為人。一任諸方檢點。良久云。雙手扶犁雲過膝。泥牛耕破水中天。僧參問。千七百位老凍儂。向甚處去了。師豎起拂子曰。鼻孔總穿在者裏。僧云。千七百則舊公案。都請判斷了。師揮拂子曰。今日郊天大赦。盡情發放去也。乾隆壬午秋。示微疾。偈曰。四十餘年住此峯。了無一法與人通。倒騎石馬嘶風去。葉落霜林滿地紅。擲筆端坐而寂。世壽七十二。僧臘六十二。塔全身於寺左。

### 侶石清禪師法嗣(二人)

#### 桐城投子慈濟竺風聖禪師

維揚海陵人。七歲於金陵地藏菴。依玉白法師出家。秉戒於雲林諦老和尚。後參誕登。遂承記荊。晦日小參。月當晦兮逢小暑。香不拈兮讚不舉。日落西峯吞火團。露柱通身汗如雨。平田麈鹿忽成羣。阿誰能辯塵中主。晚參。卓拄杖云。拄杖子一往。得箇乾巴見識。不怕風吹。不怕雨打。孤迥迥峭巍巍。正與麼時。忽現神變。[跳-兆+孛]跳上三十三天。撞著行雨龍王。攔頭一棒。當下瓦解冰消。主風神忍俊不禁。解開風囊。颼颼颼颼。頃刻間。吹得雲收雨散。依舊日光明照。見種種色。復卓一下云。摘楊花摘楊花。胡盧架上生冬瓜。明朝喫了早粥後。大家努力檢新茶。上堂。崖桂發龍門。折來供投子。滿院散天香。簪向銀瓶裏。賓主方歷然。問答從此始。以我為隱乎。吾無隱乎爾。臨濟四料簡。古今人莫辯。透過金剛圈。與君通一線。卓杖一下云。盞子撲落地。碟子成七片。

## 金陵靈谷道揆守禪師

浙江烏程凌氏子。小參。山僧一往口門窄。者也之乎不愛說。若問西來意若何。白棒倒拈頭打裂。不是絕人情。亦非無德澤。肝腸如火臉如冰。從來鍾阜家風別。祇如知音底人到來。又作麼生。相將把手步秋林。笑指霜楓紅似血。小參。日日日東昇。夜夜月西沒。昇沒不停機。又值黃花節。砧敲夜月寒。雁叫霜風冽。楓葉嶺頭紅。蘆花江上白。是聲非聲。是色非色。祖意西來。了然無別。既無別。因甚有會有不會。只為忒分明。翻令人不識。晚參。禪不假參。道不假學。祖師西來。祇堪洗脚。蔣山恁麼說話。自擱一擱云。絡索。晚參。東邊來的。東背西向。巍巍堂堂。西邊來的。西背東向。濟濟鏘鏘。可中有箇漢。不落東西。不存向背。且道。是何面目。良久云。認著依然還不是。師住靈谷三十餘年。三接翠華召對。賜紫。乾隆丁亥八月十一日示寂。世壽六十七。僧臘四十六。塔于本山。

## 青原下宗鏡十世

### 碩菴載禪師法嗣

## 潤州焦山敏修福毅禪師

湖廣武昌李氏子。年十九。禮荊州承天寺恒印老宿祝髮。抵漢陽歸元受具。志慕宗乘。包挑行脚。至焦山參碩菴。命看無字話。十餘年無所入。乃徧參名宿。大病幾死。忽猛省曰。狗子佛性無。乾坤一火爐。擬議剛半步。徹底盡焦枯。返焦山呈所得。蒙印可。住弁山上堂。僧問。如何是正中偏。師云。金烏夜半海門懸。進云。如何是偏中正。師云。白髮女兒照古鏡。進云。如何是正中來。師云。雲中石女夜懷胎。進云。如何是兼中至。師云。象王跨上泥牛背。進云。如何是兼中到。師云。黑漆濃潑烏紗帽。進云。洞上五位蒙師指。弁嶺家風試展看。師云。明向道破。還來亂統。僧禮拜。師乃曰。問答分明也罔然。莫將知解認為禪。祖師那有西來意。只把空拳立正偏。解制。開爐十月中。罷爐正月半。目前是何物。打鼓普請看。豎拂子云。看看。古佛一真燈。十方悉照徧。三世諸如來。皆從影裏現。各各不相借。光明莫可見。大眾。既是古佛。因甚莫可見。無油乾紙撚。不同騰烈燄。我見燈明佛。本光瑞如此。喝一喝。師垂問。洞山門下。永絕滲漏。為甚不波亭外流水

滔滔 師六坐道場。乾隆二年。重住焦山。潤州大旱。師至廣陵。募米三萬餘石賑飢。師無疾而終。全身塔於潤之黃山之南。

### 麗泉昱禪師法嗣

#### 揚州棲靈善初禪師

示眾云。諸仁者。此事。只貴卒地折爆地斷。淨躲躲絕承當。赤洒洒無回互。若是久參先達。纔聞舉著。撩起便行。猶較些子。

### 宗一行真禪師法嗣

#### 京口五州淨因運德輪禪師

上堂。垂萬里鈎。駐千里馬。布漫天網。打衝霄鶴。固是從上老古錐底作略。祇如有一人。佛祖呼喚不回。三界羅籠不住。古聖不安排。至今無處所。畢竟作麼生授受。震威一喝云。莫謂龍華消息斷。桃花依舊笑春回 示眾。南來三楚客。北至五臺僧。望見五州山。早喫三十棒。踏著迴龍橋。已落第二路。況入淨因門。有甚相見處。樓臺風月。近來幾箇知音。古殿青燈。日下果然失照。將謂老僧空過闍黎。誰知闍黎錯過老僧。

### 惺學敏禪師法嗣

#### 洞山普利楚雲徹禪師

誕日上堂。世尊臘八成道。徹上座。先世尊三日。世尊眼中著屑。徹上座雪上加霜。休云兩彩一賽。總是熟境難忘。喝一喝云。分付山門頭大漢。切莫笑他坭塑金剛。以拂子打  相云。事無一定。理無一向 小參。無明長我志。煩惱助我能。推倒無影樹。更上第一層。良久云。舉頭天外看。誰是我般人。

### 憨如秀禪師法嗣

#### 鎮江乳山得一善禪師

本郡元氏子。幼失怙恃。投萬壽寺。依憨如秀出家。秉具于寶華文海律師。時念。出沒閻浮。將何敵他生死。即叩夾山翠巖海天海門諸處而返。參拖死屍的是誰話。久無入處。一日定中聞禪板聲。豁然透脫。即呈偈曰。北斗面南看。西江一吸乾。抽開白霜刃。凜凜倚天寒。秀接得。以火燒却再索。師展兩手。秀曰未在。師云。和尚莫瞞人好。中秋上堂。中庭地白樹棲鴉。冷露無聲濕桂花。今夜月明人盡望。不知秋思在誰家。靈山指曹溪話。馬祖翫寒山比。畢竟那箇響。試檢點看。殊不知貴在自肯承當。不可傍他門戶。打○相云。汝等諸人。切忌錯認定盤星。僧問。如何是迥出黑山鬼窟一句。師云。石壓筍斜出。問如何是不犯化門一句。師云。崖懸花倒生。問如何是衲僧本分一句。師打云。者裏檢點得。

### 竺風慎禪師法嗣

#### 桐城慈濟憨幢惺禪師

姑孰鳩茲毛氏子。年十六。參金山天濤和尚。問生死事大話。機不契。造夾山。禮麗杜多於首座寮。遂求薙染。是冬受振南和尚具足戒。年二十。參竺風慎於投子。巾瓶九載。方膺合。授受洞上源流。未幾。遂繼住焉。清明。祖堂上供。趙州曾此訪同流。今日何人識賣油。回首夕陽坡下望。荒烟蔓草不勝愁。大同當日謂。趙州只識賣油翁。且不識投子。惺上座則不然。趙州只識投子。究竟不識賣油翁。要見賣油翁麼。柳暗花明風物好。小齋無事足淹留。解夏小參。秋初夏末諸兄弟。足比飛蓬了無繫。投子堂中人不多。規模特與諸方異。以大圓覺為伽藍。以悟為期無改易。即教萬里無寸草。未許脚跟輕點地。雖然如是。須知增上慢人。不在此例。畢竟如何。荊棘林中容不得。無事界中間位置。

### 道揆守禪師法嗣

#### 金陵靈谷玉潛璞禪師

浙江烏程沈氏子。解制上堂。九十日期。風不搖草不動。前面案山。後面靠山。石頭大的大小的小。松樹長的長短的短。出大經卷於一微塵。湖海禪流。十方共集。觀音依舊淨瓶。勢至別開生面。靈谷今日解開布袋頭。百城烟水五十三人。一任東南西北。小參。舉一僧問三尊宿云。二龍爭珠。誰是得者。一曰。得即失。一曰。老僧只管看。一曰。誰是不得者。師云。得即失。夜短睡不足。日

長飢有餘。老僧只管看。易分雪裏粉。難辨墨中煤。誰是不得者。含元殿裏。更問長安。師住靈谷十載。乾隆丁酉六月初七示寂。世壽五十一。僧臘三十。塔于本山之西麓。

## 青原下宗鏡十一世

### 敏修毅禪師法嗣(五人)

#### 潤州焦山碧巖祥潔禪師

池州青陽人。自幼喜趺坐。祝髮於金陵清涼。聞弁山法道之盛。往受具焉。至黃山。禮中州和尚。看父母未生以前話。久無所得。過焦山。參敏修和尚。修問。甚處來。師云黃山。修曰。曾到天都峯麼。師云。若不到即不來也。修曰。將得黃山松來否。師云。早已呈似了也。修曰。脫空妄語漢。參堂去。一日放參後。師問。既是萬里不挂片雲。為何青天也須喫棒。修便打。師即豁然。及修赴弁山之請。命師繼席。結制上堂。紅爐大啟。選佛場開。無論是凡是聖。一齊拶入。輓作一團。鎔作一塊。期以九旬為度。果能於威音那畔更那畔。轉得身來。方可向毗盧頂[寧\*頁]上。揚眉吐氣。不妨拈烏豆換人眼睛。於赤肉團上。剝人汗衫。事雖恁麼事。人須恁麼人。諸兄弟。還信得及麼。卓拄杖云。選佛若無如是眼。宗風那得到於今。住弁山上堂。佛祖關楨。壁壘精嚴。當機一著。透骨徹髓。不見四祖大師道。百千法門。同歸方寸。河沙妙德。總在心源。若也如此見得。傾湫倒嶽。只在鍼鋒。跨海擎天。不資餘力。今日山僧。略借諸祖威光。敢與諸人。通箇消息。且道。是箇甚麼消息。携得海門一滴水。洒來弁嶽四時春。乾隆三十年。師復主焦山。乙酉八月朔示微疾。至初七日。天未明。聞啼鳥聲。起坐沐浴。索筆書偈曰。去年八月初七來。今年八月初七去。海雲樓外木犀香。林鳥一聲天欲曙。擲筆瞑目而逝。世壽六十三。僧臘三十五。茶毗。建塔於五州山。

#### 揚州平山拙樵堅禪師

徽州歙縣吳氏子。遂之棲霞落髮。慈應秉戒。首參敏修毅。值庭梅大放。毅曰。汝識此香乎。師曰。味不雷同。毅曰。不同在甚麼處。師隨頌曰。無樹枝頭花正開。靈根透處絕塵埃。無香無色真奇特。者段風流說不來。上堂。山頭翻白浪。海底起紅塵。會得箇中

意。鐵船水上行。上堂。至道無難。唯嫌揀擇。把住放行。雲騰雨致。擬議思量。徒增意識。不意識。楊岐驢子脚三隻。

### 潤州焦山鐵機印禪師

上堂。僧問。如何是本分事。師曰。巧不如拙。僧曰。謝師答話。師曰。誰教你恁麼。僧擬議。師曰且去。乃曰。盤山道。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亡。復是何物。洞山道。光境未亡。復是何物。若論如來禪。盤山不道全無。若論祖師禪。洞山亦未夢見。爭如焦山者裏。三詔洞。燒丹井。羲之崖。[序-予+((瞭-口)-小)-日+土)]鶴銘。雙峯閣。不波亭。青玉塢。海棠屏。且道。是心耶境耶。俱亡耶未亡耶。若人檢點得出。始知巧不如拙。

### 揚州平山竹堂祥巽禪師

上堂。祖意教意。胡餅呷汁。洞徹元微。眼中著屑。到者裏。直饒三世諸佛。累代祖師。天下老古錘。有口只堪掛壁。何故。水流澗底太忙生。雲在嶺頭閒不徹。

### 潤州焦山祥雲果首座

因僧入室。師問。汝是甚處人。僧曰江西。師曰。龐公吸盡。意旨如何。僧曰。當初只嫌茅長短。燒了原來地不平。師曰。上座脚跟未穩。僧曰。謝師證明。師便打。

### 得一善禪師法嗣

### 京口乳山廣仁祥能禪師

本郡陳氏子。禮得一善得度。造夾山圓具。遍參諸尊宿。一日隨眾灌禾。登車踏水。驀然打脫桶底。歸呈偈曰。昔年尋劍事徒勞。八字眉分眼上毛。驀地踏翻關棧子。胸中流出自滔滔。善曰。猶欠棒在。師曰。和尚自喫。善拈拄杖。師轉身便出。善領之。上堂。獨坐幽篁裏。彈琴復長嘯。深林人不知。明月來相照。橫杖於膝。作彈勢云。諸仁者。聞麼。琴上無絃曲。知音自古難。踏破天下人草鞋。足不出戶。截斷天下人舌頭。話不出口。殊不知狹路相逢。豈為知己。從門入者。不是家珍。擊香案一下云。向者裏得箇入處。

恰好全收珍藏。異窮子之疾馳。道到寶山。無化城之暫息。能上座恁麼道。且喜沒交涉。顧左右云。丈夫自有冲霄志。莫向他人行處行。師登大殿。僧問。如何是入門一句。師云。磬口仰天。鐘口俯地。僧罔措。師云。大扣聲大。細敲聲細。師生于乾隆丙辰正月十三日。至乙巳三月初一日示疾。全身塔于乳山之陽。

### 玉潛璞禪師法嗣

#### 金陵靈谷祇園紹禪師

池州銅邑余氏子。母吳氏。年二十五。禮九華之天臺真如菴洪渡師祖出家。復投徽歙黃山雲谷寺介菴和尚圓具。徧參知識。後受玉潛印記。出住六合之長蘆。九江之龍池。小參。紫金山石頭。塊塊是精金美玉。解珍重者。惟有白雲兒。常能守護。庭前八功德水。滴滴是醍醐上味。解吞吐者。惟有竹管子。得些受用。其餘光搖玉帶。嚮音空堦。五月松風。涼生殿角。流觴曲水。玉級五層。諸仁者。日日喫靈谷飯。入靈谷室。切忌眼橫鼻直。自瞞瞞人。良久云。沒機用漢。直饒恁麼去。何日得有恁麼事。貼單。結制繫林古例。貼單諸方舊規。正恁麼時。直饒臨濟德山。且居門外。雲門趙州。拈過一邊。何故。好漢不用多。一箇是一箇。復呈票云。舉起字義炳然。免得當面錯過。

### 青原下宗鏡十二世

#### 碧巖潔禪師法嗣

#### 潤州焦山濟舟澄洮禪師

湖廣武昌梁氏子。號灑然。依報德寺慈雲師脫白。受具歸元寺。杖錫遊方。參碧巖之龍華。作第二座。巖問。堂中事作麼生。師云。太行山下賊。南嶽嶺頭雲。巖云。更別有麼。師云。一段鴛鴦錦。霜刀剪不開。師服膺三年。從巖主焦山。聞江濤聲。徹法源底。偈曰。醉騎白鶴上揚州。夢繞笙歌十二樓。酒醒眼開渾不見。長江今古向東流。巖閱之。方脗合。解制。十五日以前。客帆當檻落。江鳥背人飛。十五日以後。覓火和烟得。擔泉帶月歸。正當十五日。動用揚古路。不墮悄然機。其捏聚也。星馳電捲。海竭山崩。其展演也。光風霽月。海晏河清。若能掀翻鳥道。截斷玄關。迥超階級。不落有無。向此轉得身吐得氣。一任定光招手於金地。智者點

頭於江陵。只如二具不涉。又作麼生。青山橫谷口。綠水繞江干。衲子須珍重。春風透骨寒。上堂。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六般神用空不空。一顆圓光色非色。永嘉此語。大似不會洞宗金針玉線之功。正偏回互之旨。今日焦山。亦有舉似。摩尼珠誰不識。豎窮橫徧無倫匹。六門晝夜放光明。輝古耀今囊空色。設有箇漢出來。索取摩尼珠。焦山如何抵對。遂展兩手。下座。師三主焦山。一住弁山。無不以本分事接人。晚年多[口\*敕]。庚戌秋逾甚。八月初十。晨起沐浴更衣。眾請說偈。師笑曰。拄杖子早已分付了也。何必臨行而更饒舌。翌日遂逝。塔於黃山之麓。侍讀學士茅元銘。為銘其塔。

### 拙樵堅禪師法嗣

#### 揚州平山秋浦澄朗禪師

至平山。參拙樵。久嚮高風。趨師一鑑。山目視之曰。汝猶帶苞苴在。師曰。若有即不來也。山曰。前村烟浪裏。別有好商量。師禮拜而出。解制示眾。從前牢關把住。水泄不通。今後鞭杖放開。重門大啟。其把住也。驅耕奪食。休來瞬目揚眉。其放開也。獎愛憐嬰。饒汝轉身吐氣。正當今日。盡十世古今。統無邊剎海。總是汝諸仁一具舊閣閒田。汝欲往東弗於逮。也在裏許。往西瞿耶尼。也在裏許。乃至兜率內院。色究竟天。也在裏許。自餘烏石嶺。望州亭。廬山五老峯。天台石梁橋。無有不在裏許者。諸昆仲。只如古人吹布毛一事。又作麼生。乃拈拄杖云。扶過斷橋水。伴歸明月村。

### 鐵機印禪師法嗣

#### 廣陵大聖允超澄輪禪師

上堂。咄咄。金剛腦後三斤鐵。油油。細抹春風滾綉毬。也不咄也不油。一箭落雙鷗。原是柵中鵝。

### 竹堂巽禪師法嗣

#### 京口五州山無言澄天禪師

據室。三世諸佛。累代祖師。闡大機。顯大用。為法為人。選佛選祖。一段秘密公案。已被過量大人註腳了也。

## 廣仁能禪師法嗣

### 京口乳山萬壽中誠智禪師

盱縣梁氏子。過京口乳山。聞梵音有感。依廣仁能禪師得度。往池陽九華圓具。江浙間。歷參宗匠。上弁山。依濟舟洮三載。飄然而返。是夕禪窻閉雨。能問。得箇甚麼。師呈偈曰。撲落虛空碎。平教大地沉。可憐蕉葉雨。滴滴故鄉音。能頷之後命繼席。上堂。片雪輕飛大冶爐。不勞更下死工夫。明明拈出當陽看。原是衣中舊日珠。揮拂子云。者裏覷得。本自圓明。那邊放下。了無障礙。向上一路踏翻。直下一機軒豁。既無四賓主可分。何有五君臣可序。只得驅泥牛而出海。春耕紅破落花谿。跨石馬以朝天。曉踏綠開垂柳陌。三世諸佛。到此進步無從。歷代古錐。只好退身有分。祇如不涉進退一句。作麼生道。震威一喝云。擊碎寒潭月。癡猿何處窺。

## 青原下宗鏡十三世

### 焦山濟舟洮禪師法嗣(二人)

### 潤州焦山擔雲清鏡禪師

姓吳氏。嘉興海鹽人。少為諸生。能詩。嘗過金粟。閱大般若經。至如來所說十八空。有省。即捨家室。祝髮於海寧慶善寺。受寶華山渾律師戒。參焦山濟舟洮和尚。見一切殿宇禪堂。皆可記憶。如宿世焉。人亦異之。示眾。舉三祖信心銘云。至道無難。維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又舉五祖先為破頭山中栽松道者。嘗請於四祖曰。法道可得聞乎。祖曰。汝已老。脫有聞。其能廣化耶。倘若再來。吾尚可遲汝。師云。大小祖師恁麼說話。且道。是揀擇耶。非揀擇耶。是憎愛耶。非憎愛耶。今請諸兄弟。批判一上看。倘若未能。山僧即為批判去也。卓拄杖下座。示眾。良醫之門足病人。爐鞴之所多鈍鐵。焦山者裏。無禪可參。無法可說。無金剛圈與人跳。無栗棘蓬與人吞。一任弄無星秤子於不波亭上。兩脚踏翻生死海。唱無生曲於三詔坊前。一身挨過是非關。偶爾磕著。自然粉碎了也。設有箇日午打三更。面南看北斗底人到來。但向他道。參乎吾道一以貫之。即今還有知宣尼落處者麼。

## 潤州焦山巨超清恒禪師

桐鄉陸氏子。自幼能詩。投海寧慶善寺脫白。造隆覓岫雯律師圓具。因閱壇經不思善不思惡語。知有宗門中事。即登焦山。參濟舟洮。濟問。何處來。師云浙江。濟云。曾過許墅關麼。師云曾過。濟云。把將公驗來。師無對。自此親炙數載。得蒙印可。乾隆五十二年。遂繼焉。解制小參。春風漸和。春日漸長。時節若至。其理自彰。龍潭吹滅紙燈。德山隔江招手。雪峯九上洞山。玄沙[祝/土]破指頭。以至鴉鳴鵲噪。無非時節因緣。便可洞明者事。今當九旬期滿。聖制圓成。山門頭布袋阿師。呵呵大笑。且道。笑箇甚麼。人說今年勝舊年。上元定是正月半。佛誕上堂。麻三斤總沒交涉。乾矢橛貨真價實。三十二相殿裏底。橫三豎四。杖林山下竹筋鞭。七長八短。下兜率降皇宮。妄想執著。覩明星成正覺。執著妄想。城東老母不欲見。趙州老漢不喜聞。丹霞燒取舍利。雲門一棒打殺。仔細檢點將來。却是汾陽道的。結夏小參。焦山今年結夏。兩袖清風依舊。心將江水俱清。人與綠楊共瘦。來者湖北湖南。住者山東山右。犀牛扇子。一人一把。梅花紙帳。月明如畫。興來時。竹裏高吟山鳥驚。雲起處。窻前落筆龍蛇走。非仙非佛。亦經亦呪。有人驀地相逢。一時識也難透。若問此中消息。正是棟花時候。畢竟作麼生。卓拄杖云。究。

南嶽下三十九世

天翼翔禪師法嗣

潭州大瀉藏庵鋒禪師

武陵羅氏子。上堂。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栽松道者求寄宿。面皮厚多少。碓房俗漢上江舟。未跨船舷。好與三十棒。迷時師度。悟時自度。大小祖師。乘風而過。寄來三甕醬。要你添鹽。收來一面鏡。自照覺醜。扶起黃檗。踏倒水潦。一棒一條痕。一掌一握血。到此田地。堪報不報之恩。卓拄杖云。人歸大海方知貴。水到瀟湘一樣清。

奎章平禪師法嗣

徐州草堂允中會禪師

解制小參。把住泥牛畊夜月。放行木馬撞春風。以杖橫肩云。海濶從魚躍。自南自北。自西自東。

普潤濟禪師法嗣

蘇州珠明諦修本禪師

浙江嘉禾王氏子。母夢曼陀羅華投腹而生。年十三薙染。一日閱楞嚴七處徵心。有省。即參普潤濟之普明。親炙數載。得受信拂。出住蘇之珠明。以堂弟光賢為徒。竭力相承。廢復新而幢復建。上堂。終日拖犁拽耙。耕種自家田地。文章佛法全無。信口麤言細語。但看新珠明搖唇鼓舌。說青道黃。東山溪接西山水。南院花開北院香。所以法無定相。遇緣即宗。佛佛於此授受。祖祖於此相傳。世尊拈花。迦葉破顏微笑。達磨面壁。神光斷臂安心。黃梅夜遁。九江驛還把櫂。臨濟建黃檗宗旨。天童起太白家風。者裏明得。何妨平步青霄。其或未然。珠明今日失利。

## 潛修悅禪師法嗣(二人)

### 成都昭覺守仁定禪師

湖廣德安陳氏子。上堂。要知此事。如干將鑊錐。雖遇佛祖。難與爭鋒。世智辯聰。近傍不得。昭昭靈靈。迷瞞不住。無事甲裏。坐守不得。始是一切無礙底漢子。塵塵開道眼。處處不覆藏。其或未然。道業未成空白首。大千無處著羞慚。示道魁禪人。須向離名離相處承當。勿向筆尖舌尖上探討。雖是無跡無影。又却有憑有據。但非思量分別。之所能及。若從虛拳指上生實解。正是水底撈明月。且問闍黎。如何是你直下承當底意旨。魁拂袖便出。師云。也須珍重始得。

### 四川昭覺自光月禪師

衡州李氏子。小參。九旬把住脚跟。不容[糸\*系]毫走作。箇箇骨頭皆換。人人皮膚脫落。鐵牛卸却鼻頭繩。縱橫自在無束縛。姪房酒肆。劍樹刀山。天堂地獄。任大步以逍遙。惟高懷而廓落。只恐不是玉。是玉也大奇。設遇黑面老子。打算飯錢。又且如何。盲龜趁月天涯。跛鼈追風海角。起七小參。七晝七夜。萬緣放下。人境雙忘。寸絲不挂。忽然因地一聲。擡眸看見天下。

### 嶧岫旭禪師法嗣

#### 寶應一粟霈滄霖禪師

本城湯氏子。年十八。投嶧岫和尚出家。依文律師受戒。首參振一宗。次歸一粟。受本師衣拂。遂繼席焉。請佛上座小參。即此是佛錯。即此非佛錯。一粟。祇得將錯就錯。何以故。本來無位次。今日強安排。

### 休林岫禪師法嗣

#### 嘉興圓通心如靜禪師

平湖金氏子。投萬年休林大師出家。小參。金鑿刮眼裏翳塵。全憑妙手。叢林轉網紀法令。須是其人。一大藏教。是箇切脚。且道。切箇什麼。犀牛扇子。匝地清風。於此互作主賓。成就不思議化。

人人親證摩醯眼。箇箇洞明正法輪。山門。圓通門戶。潑天大開。師子嘯呻。須待伊來。且道。伊是阿誰。喝一喝。拽杖便入。

### 長慶安禪師法嗣

#### 無錫南禪靜蓀慧禪師

吳門程氏子。幼投本郡法華純白和尚薙染。造雲林巨濤果受具。徧參諸方。首謁憨初澹如諸尊宿。次造南禪。參長慶安。得蒙印可。後繼席焉。乾隆甲辰。退隱蘇之支硎山法音精舍。有禪宗心印。行世。

### 佩璋璜禪師法嗣

#### 廬山瞻雲素芳華禪師

上堂。昨夜抖擻肚腸。思量一夜。作一首不落法身頌子。今日舉似諸人。拈拂子云。甲子乙晝[○@—]。雙隻角麒麟。丙子丁晝[○@(| \*○)]。中午現明星。庚子辛晝[○@(○/一)]。獨戶出羣英。壬子癸晝[○@(\ /(\ \* ))]。三週慶百歲。惟有中心戊子己。不敢動著。動著即禍生。乃吐舌云。忙把琵琶半遮面。不令人見轉風流。

### 大曉徹禪師法嗣(十人)

#### 杭州天長天濤雲禪師

嘉定王氏子。弱冠。依豁崖和尚剃染。受具後。徧參南北宗師。及見大曉徹。印可。繼席香林金山天寧。小參。過得荊棘林。尚非是好手。何況死在平地。欲指你一箇路頭。怎柰我王庫內。無如是刀。若總不恁麼。露柱燈籠叫屈有分。事不得已。造箇口業。甘心墮拔舌犁耕。擊竹篋云。錢塘江上桃花水。蘇白堤邊楊柳風。小參。花枝爛漫。燕語呢喃。妙吉祥眉毛拖地。阿逸多鼻孔撩天。惟有東村王大哥。耳卓朔頭鬚鬆。不見天空地潤。不知春夏秋冬。終日饑餐渴飲。喚甕作鐘。水底懶撈明月。虛空好捉春風。任他晝夜滔滔水。今古奔流不向東。小參。三界無法。一性圓明。四大本空。六窻虛靜。三藏十二部故紙。一千七百則葛藤。提起也風行草偃。放下時海晏河清。白雲山谷原無我。黃葉飛空豈有心。師末

年。退隱山陰善福菴。丙戌冬示疾。眾請醫。師却之。眾請偈。乃笑曰。無偈便死不得耶。起坐如常。至臘月十九日。吉祥而逝。茶毗。頂骨不壞。塔于鎮江丹徒之南崗。

### 金陵佛國湛海宗禪師

貴州人。小參。西來意古佛心。晝見日夜見星。門前春水連溪綠。屋後青山色更新。靈雲見桃。豁開正眼。香巖擊竹。磕破頂門。會則途中受用。不會則世諦流布。小參。翻天關展地軸。紅爐焰裏。六月冰生。赤日光中。三伏凍冽。露柱燈籠。昨夜三更。與墻壁石頭。商量箇事。引得舜若多神。從空躍出。側耳偷聆。問訊蒲團上瞌睡漢。也是眼見如盲。耳聽若聾。早參。霜風開戶牖。寒氣上蒲團。騎牛覓牛的。打入荒草。抱贓叫屈的。轉見不堪。香林此際。撥轉乾坤。廓清海宇。據欵結案去也。以拄杖旋風打散。塔于月潭祖塔之旁。

### 鎮江金山江天滄洪注禪師

曬藏小參。牟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現前六櫃。無非如來藏。牟尼珠。畢竟在那一櫃。眾中還有點得出者麼。若點不出。金山不惜狼藉。不妨對眾打開。一任識取。卓杖云。急著眼。

### 金陵香林妙巖隆禪師

早參。陀羅尼法。神妙章句。觀音普門。圓通妙旨。包括三藏。頓超十地。教外別傳。無字經偈。信受奉行。諸弟子回向無上佛菩提。跛鱉盲龜跳梵天。稽首的依蘇悉帝。解夏。安居禁足。體遍十方。遊山玩水。了無踪跡。至於秋清月朗。暑退涼生。普天佛土。遍地禪關。伶俐漢就此承當。箇中人全身放下。更有奔南走北者。好與三十痛棒。早參。日食三餐。夜眠一覺。神通妙用。無不具足。更問如何若何。痛棒一頓打出。且道。香林還有為人處也無。良久云。知恩者少。

### 香林碧雲寶禪師

上堂。祖師印鐵牛機。印泥印水總全非。其他向上向下。末後最初。是甚熱碗鳴聲。今日山僧。終不拗直作曲。幸爾諸人。箇箇眉橫鼻直。雖然如是。非非想天。有幾人腳踏實地。

### 金山江天超宗榮禪師

上堂。拈拄杖云。俱胝一指頭。一生用不盡。江天一橛頭。且道。幾生用得盡。若識得一指頭。便明得一橛頭。明得一橛頭。德山臨濟是他奴。歷代知識。天下老和尚。莫不總被他穿却鼻孔。且道。山僧呢。卓一卓云。年來無力賴伊扶。

### 常州天寧定悟誠禪師

本郡陽湖人。於五峯山紹隆寺出家。上堂。舉楞嚴經云。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坐得眼中火出。走教腋底汗流。大地有同參。目前無異路。途中受用的。但能水草渾無欠。終日騎牛且覓牛。

### 常州天寧扶功明禪師

本郡周氏子。年弱冠。投修善庵淨玉師脫白。依金陵報恩圓具。遍歷諸方。後參大曉徹。遂受記荊。乾隆丙子。繼席天寧。乙未春。說菩薩戒竟。沐浴更衣而逝。凡上堂小參。不許記錄。故無傳焉。世壽五十九。塔全身於寺之北埜。

### 常州天寧納川海禪師

上海徐氏子。依隆覺敷律師受具。遍參名宿。後參大曉徹之天寧。為火頭。一日大問。如何是萬法歸一。師以火叉呈之。大云。一歸何處。師云。燒火滿竈紅。大云。火盡灰飛時如何。師云。佛眼覷不見。大頷之。

### 常州天寧德洪圓禪師

本郡李氏子。髫年。閱法華經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有省。便投天寧脫白。圓具後。參大曉徹。親炙數年。方膺合。繼席天寧。凡上堂小參。不許記錄。一日告眾云。三心不得。四大無家。便入寂。

### 自聞悅禪師法嗣

### 吳陵三昧見徹明禪師

金壇丁氏子 解制小參。火爐邊煨來的。銅頭鐵額。霜雪裏揀出的。玉骨冰心。既然。時至理彰。不免放一線道。南去北去。東去西去。濃陰不減來時路。添得黃鸝四五聲 據室。九龍溪口。叮公橋頭。有一句子。明歷歷光燦燦。諸佛覩不見。列祖夢不著。明上座。拈起也百谷風生。放下也千江水肅。驀喝一喝云。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

### 法南勝禪師法嗣(二人)

#### 常熟普仁一輪月禪師

上堂。荊棘林中插足。須是其人。虛空背上遊行。法輪大轉。塵塵剝剝。普現威光。物物頭頭。全彰正眼。破沙盆大家扶起。無文印信手拈來。不作奇特商量。亦非玄妙解會。若能直下無私。便見輝天鑑地。喝一喝。

#### 常州商山恒悟際禪。禪師

宜興許氏子 開爐上堂。天之高。地之厚。滄海之深廣。品物之不齊。高懸古鏡。列萬象於臺前。橫按鑊錐。截羣機於句下。若夫透脫一路。累他達磨眼睛突出。彌勒口門笑破。千手大悲。摸索不著。大智文殊。測度不出。只有街頭石敢當。風吹不入。雨打不濕。守默默地。却較些子。雖然。要悟則易。要迷則難。火爐頭無賓主話。總不許動著。若動著則禍生。

### 正宗道禪師法嗣

#### 江西瞻雲萬雲岫禪師

上堂。三日已前。在後堂寮。未曾減一絲毫。三日已後。據方丈位。未曾增一絲毫。不增不減。前後際斷。直下踢倒人我山。豎起智慧幢。不被名相轉移。不逐時節遷變。東湧西沒。隨緣自在。是乃諸佛菩薩。同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名無諍三昧 說戒上堂。向上一路。千聖不傳。而佛佛同證。宗乘一唱。三藏絕詮。而法法全彰。道遠乎哉。拄杖頭孤迥迥。縱橫得妙。聖遠乎哉。眉睫上圓陀陀。殺活自由。所貴當人直下搆去。則透頂透底。無欠無餘。說什麼一不殺生二不偷盜。不消咳嗽一聲。百雜碎也。其或立

功勳存知見。則波羅提木叉。誰敢動著一絲毫。何故。修證即不無。染污即不得。

### 德山海禪師法嗣

#### 錢塘鹽官薦福秀崖春禪師

上堂。擬心即錯。動念即乖。直饒火爐頭會得無賓主話。也只空費了許多漿水錢。稍知原委底。著著有出身之路。化鈍鐵作良金。鎔頑銅成法器。妙手雖彰。歸根得旨。猶未許在。且道。薦福具何眼目。

### 果宏德禪師法嗣

#### 江西頭陀微彩星禪師

入院。四山圍繞。樓閣重開。入門一句。不用安排。喝一喝。便入。

### 佛泉安禪師法嗣

#### 京都大覺月天寬禪師

上堂。豁開戶牖。萬象歷然。明頭也合。暗頭也合。因甚世尊三昧。迦葉不知。一步較易。兩步較難。縱然劒刃上橫身。冰稜上走馬。只解瞻前不解顧後。且道。諂譎在甚麼處。良久云。無人知此意。令我憶南泉 中秋。打開普光藏。吾無隱乎爾。有權有實。有照有用。木樨薰破山谷鼻孔。正好修行。正好供養。直饒拂袖便行。王老師猶少機關在 立春。僧問。如何是道。師云。如何是道。僧云。問大道。師云。此去京都六十里。云學人會也。師云。猶隔九關在。乃云。冰河焰發。碓嘴花開。黑漆拄杖生頭角。不萌枝上吐奇葩。木童嶺上歌無盡。石女溪邊笑轉睒。且道。笑箇甚麼。不解風從何處起。吹開無數白楊花 晚參。清秋氣爽西風急。吹破虛空露一竅。燈籠揚聲。露拄發笑。且道。笑箇甚麼。良久云。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呵呵。

### 粹如純禪師法嗣

## 京都覺生徹悟醒禪師

參萬壽純有省。受心印。首住廣通。足不出寺十五年。凡求指示者。以寸香為度。後奉命。住覺生寺。道益高而望益重。起七。佛性誰無。佛性誰有。三齧不見骨。一舉四十九。師子野干鳴。野干師子吼。咄咄咄。夜半日輪紅。面南看北斗。解七。舉禪板云。蒲團坐斷古今。脚踏踏結佛祖。火爐頭不容片雪。長空裏任布重雲。恁麼是去。變大地作黃金。供養上座。如其不是。喫水也須防噎。須知悉達太子。夜覩明星。見大地眾生。齊成正覺。大似棄海認浮漚。調達老。墮身在地獄。如比邱入三禪樂。也是乞兒見小利。大力魔王。當時若解道箇我待眾生界盡。乃至無有眾生名字。亦不發菩提心。却不妨始終丈夫。廣額屠兒。放下屠刀便了。更說甚我是千佛一數。好人不肯做。定要屎裏臥。雖然。山僧說却說得一丈。行尚行不得一尺。山僧固不肯諸子。諸子尤不肯山僧。且作麼生。置禪板云。得饒人處且饒人。

## 聞學禪師法嗣

### 杭州天目旅亭會禪師

嘉善張氏子。參東魯法師。令看東山水上行話。遍參十載。一日在崇福禪堂。聞雨聲打失鼻孔。乃趨見聞學定。機緣相契。遂記荊焉。上堂。半生抱拙水雲鄉。自覺冰霜已慣嘗。今日慚惶繼祖席。了無一法可商量。既無一法商量。作麼生與諸師。趁箇時節。好雲迎曉日。無物不風光。佛誕小參。身口意清淨。是名佛出世。身口意不清淨。是名佛滅度。正當恁麼時。還有釋迦老子麼。良久云。從今醜惡難遮掩。路上行人口似碑。

## 在權衡禪師法嗣

### 方塔平川舟禪師

上堂。拈拄杖云。豎窮三際而無內。含裹十虛而無外。入一微塵而非小。盈滿六合而非大。復舉善財入彌勒樓閣因緣。師云。彈指一聲。善財便得入重重樓閣。適來山僧搥鼓陞堂。汝諸仁得入也未。若未得箇入處。應須得箇出處始得。或有問學人。入也未入。何云出耶。向伊道。待慈氏下生。更為說破。小參。雲散長空淨。崔巍

萬八峯。聲聲紫燕語。擬欲寄飛鴻。者是我在老人寄示語也。此四句中。有一句全照全用全縱全奪。若人檢點得出。參學事畢。

### 天慧徹禪師法嗣(八人)

#### 揚州高旻了凡聖禪師

浙江海寧薛氏子。與友人張永昌。往衢州居洞。復投慧初和尚薙染。永昌。名世空。同師參方。夜坐石城橋上。遇遊俠三四人。以鐵棒打師曰。好和尚不打坐。打坐不是好和尚。師聞。覺有所入。後參崇福怡然和尚。時天慧徹。居首座。徵竹篋子話。師云。摩醯首羅三隻眼。座云。那箇是正眼。師喝一喝。一日覩露柱。便知情與無情悉皆成佛。即呈所得座云。子大事了畢矣。遂付衣拂。解七小參。一期之中。九七之內。言不蓋覆。語不囊藏。倘獲知音。將大海來。盛取大海去也。知我法門。有如此廣大。如此坦蕩。若是持鉢盂底漢。焉知他家筮籬大小。杓柄長短。驀拈拄杖云。能有幾人不喚作拄杖。卓一卓。又能有幾人喚作拄杖。擲杖歸丈室。起七。古之今之。若佛若祖。檢點將來。不無三錯。第一錯不合投師出家。第二錯不合參方行脚。第三錯不合打七參禪。若免得者三箇錯字。不妨橫眠倒臥。鼓腹謳歌。倘或踟思停機。高旻與諸人將錯就錯去也。擊禪板云。起。晚參。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會得箇中意。面南看北斗。拈拄杖。卓一卓云。是大神呪。是大明呪。是無上呪。是無等等呪。拄杖卓著方磚。因甚東海龍王頭疼。復卓一卓云。一雨普注。早參。三岔河畔有一物。豎窮三際。天中塔下有一物。橫遍十方。更有一物。在洋子之北。歐公之南。名喧宇宙。聲振大千。且道。是甚麼物。設或道得。大有我在。早參。昨朝入城。行路辛苦。夜間一覺。直至五板。忽然醒來。憶得無夢無想。主人公在甚麼處話。特特舉似諸人。仲冬猶寒。恭惟大眾萬福。早參。春風如刀。春雨如膠。盡大地人。在泥水裏。頭出頭沒。惟有赤肉團上無位真人。略較些子。驀召大眾。要知臨濟大師落處麼。遂展手云。一夜落花雨。滿溪流水香。解夏。壁角頭破草鞋[跳-兆+孛]跳。塞却金剛神鼻孔。若人識得。千里同風。其或未。山僧為諸人說箇道理。譬如饑人欲米而得其柴。動用一般。未免難以救饑。如病者欲取黃連而得名品菓物。雖甘美。未免不能療病。如行人欲朝北闕而往南走。勞苦無異。未免愈走愈遠。遂噴嚏云。還我草鞋錢來。小參。行年五十六。命窮真薄福。雖有幾畝田。夏秋不成熟。爭柰倉一空。搜尋無積蓄。坐對此浮圖。但能飽眾目。欲倩金剛王。擔入市間鬻。金剛亦云饑。聞言自顰蹙何如

賣。山僧皮骨無多肉。大眾忽停食待。聲同一哭。諸人且勿哭。山門書問頭。轉語人必速。師於乾隆丙子五月七日示寂。世壽五十七。僧臘三十三。塔于鎮江七里店之石壠。

### 揚州興化資福慧皎清禪師

中州人。參高旻。示以本來面目話。力究有慳。呈旻曰。丁一卓二。放三拋兩。本來面目。伸手見掌。旻云。洞山道。麻三斤。又作麼生。師云。口開便見喉。眼閉多言夢。一日十二時。時時作客送。送到勞勞亭。無聊抱絃弄。旻曰。未在更道。師云。忽然打破沙盆。露出家常茶飯。多吞不盡。少吐不盡。這回端不揖檀那。旻大喜曰。此子。慧性過人。舉以首眾。小參。文殊普賢。說理說事。錯。德山臨濟。行棒行喝。錯。將錯就錯。下箇註脚。就地書箇心字。懸空書箇必字。有人過此兩關。際清替他下涅槃堂。倘或未然。粒米寸絲。也須仔細。上堂。破常住却有三般物。一曰空心菩薩。二曰折脚香爐。三曰無烟火灶。僧問云。如何是空心菩薩。師云。內外一如。如何是折脚香爐。師云。動著便倒。如何是無烟火灶。師云。輕易燒不著。僧云。恁麼則與古佛同參也。師云。上座三寸甚濶。僧一喝。師亦喝。僧連喝二喝。師休去。來日見僧云。昨日何似今日。僧便喝。師云。者一喝。落在甚麼處。僧無語。師震聲一喝云。鹹水靚子飯從你喫。臨濟四賓主。未夢見在。一日索浴。更衣正坐。書偈云。有佛處不得住。老僧罪過。無佛處急走過。老僧罪過。不然。獲罪於天。無所禱也。老僧罪過。畢竟如何。橫案竹篋云。來時無口。去時無鼻。擲筆趨寂。塔于劉埠之西。

### 錢塘大雄山崇福曉峯良禪師

江西安福郭氏子。八歲。禮騰猷公雜染。年十九。納戒於吉州龍鬚山。遍歷諸方。無可意者。聞高旻鉗錘嚴密。往參得旨。後晦跡於吳門。無出世意。同門霽公。堅挽出住崇福。解夏示眾。江海之逝。豈棲遲于芳藻。雲漢之飛。未飲啄于清流。祇恐不是玉是玉也大奇。崇福三十年前。謳歌之野老。慣趨栖巢之漁父。三十年後。總不恁麼。何故。蟻子自來腥處走。示眾。他人行處我不行。他人住處我不住。不是與人難共合。從來緇素要分明。山僧昔日挑擔。懵懂出來。撞著箇無鼻孔漢。添得一擔顛顛。東觸西觸。忽然桶底脫落。始知善財童子學心經。從來不識元字脚。而今仔細思量。更有一箇難處。且道。那裏是難處。搖手云。不道不道。

## 揚州寶輪霽霖源禪師

湖廣陳氏子。卅歲出家。聞谷中有聲。猛然大徹。小參。登山到頂也。入水窮源也。一九二九三九寒徹骨。且道。生機一路。在甚麼處。咄云。絕對絕待。無在不在。匝地普天。頂光三昧。南北東西。一場慶快。若人佇思停機。辜負明州憨布袋。上堂。五千四十八卷。破爛故紙。拈放一邊。一千七百箇。陳年滯貨。置之勿論。乃拈拄杖云。拈新條行正令。直得羣狐滅跡。魔外潛踪。東京相國寺裏西廊下石獅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觸著帝釋鼻孔。新昌石佛。汗流如雨。驚得石敢當。有鼻無嘴。連聲道箇咩咩咩。乃喝一喝曰。無毛鷄子。撲地雙飛。汝等諸人。要知三玄三要落處麼。下座。解夏。腕頭無力。龜毛繩。縛得虛空緊峭。肘後有符。兔角杖。點得碓嘴花生。無位真人。不須把住。自然教伊進不得退不得。變作露地白牛。趁亦不去。若是東觸西觸。犯他國王水草。總不干寶輪事。何故。源長老信亦不立。早參。嘉州打大象。不是得力句。陝府灌鐵牛。不是親切句。西河弄獅子。不是轉身句。日觀峯頭覓的。不是最高句。大丈夫。語不離窠臼。焉能出蓋纏。卓拄杖云。擊碎壺中日月。掀翻劫外乾坤。有語非干三寸舌。能言豈是一腔心。阿呵呵好大哥。風流不在著衣多。結夏。開無鬚鎖。未為好手。挽虛空結。方是作家。猛虎舌上書字。烈燄光中喝采。拈起栗棘蓬。倒著金剛圈。舉著帝釋驚心。擊著二乘膽喪。薰風自南來。殿角生微涼。若起絲毫佛見法見。寶輪不用神力。二鐵圍山自入去也。卓拄杖云。以大圓覺牛脚馬脚。為我伽藍瓜籃菜籃。

## 安樂廣修圓禪師

上堂。拈一莖草。作丈六金身不難。拈丈六金身。作一莖艸不易。忽有人出來道。也不難也不易。饑來喫飯困來睡。山僧向伊道。箇未在。何故。儻侗禪和。如麻似粟。安樂做處也。要諸人共知。即起身云。急著眼覷。遂翻一筋斗。歸丈室。

## 金壇東禪道菴參禪師

江南常州武進童氏子。上堂。長坐不行之人。提脚不起。頂[寧\*頁]上好與一撈。長行不坐之人。放脚不下。脚板下好與一錘。擊拳瞬目之人。瘋氣纏染。更與三十痛棒。何故。劒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小參。七竅鑿開混沌死。智者過之。九鳥射盡乾坤黑。愚者不及。作麼生得恰好去。以無所思心。得大白。在力。

## 丹陽嘉山隆慶維圓勉禪師

閩之汀州寧化徐氏子。示眾。居一切時。不起妄念。空山無人。於諸妄心。亦不息滅。水流花開。住妄想境。不加了知。點即不到。於無了知。不辨真實。到即不點。恁麼也得。不恁麼也得。山僧無固無必。石鞏陳迹。華亭故態。吾不為也。有心用處翻成錯。無意求時却宛然。有麼有麼。良久。渭水垂綸。得璜便休。小參。有句無句。揭諦揭諦。如藤倚樹。波羅揭諦。樹倒藤枯。波羅僧揭諦。句歸何處。菩提薩婆訶。遂呵哈大笑曰。昔賢疑案。維上座明斷了也。三世諸佛。歷代祖師。百千法門。無量妙義。亦不消一彈指。竭盡無餘。還委悉麼。昔年出嶺來。今日入嶺去。只在此山中。雲深不知處(本分偈。本來成現。晴空閃電。霹靂一聲。裂娘生面文不加點。兒戲鬼臉。長大思量。慚惶無限我有一機。人誰識伊。昨朝吃飯。今日肚饑)。

## 天台省徹悟禪師

參天慧徹。禪堂供司水職十二年。一日舉足下單。踏破方磚。有省。大叫曰。十二年底。十二年底。維那問曰。十二年底甚麼。師曰。十二年來被鬼迷。今日腳踏實地。至方丈呈偈曰。覷破方磚。面目儼然。一微塵內。洞見大千。天曰。未在更道。師云。蚯蚓過海。蝦蟇上天。聰事不真。重說偈言。天頷之。後隱於華頂深處玉樹林。終身不出。

## 南嶽下第四十世

### 藏庵鋒禪師法嗣

### 芙蓉雙峯若呆慧禪師

常德寧邑黃氏子。結制。喝一喝云。臨濟。曹洞。為仰。雲門。法眼。總被麻三斤縛作一束。輾入阿耨達池。縱使口如利劍。早已打濕袈裟角。只待乾矢橛成等正覺。方知出頭有分。山僧見處。要望諸人高超物表。何以故。喝一喝云。月落不離天。

### 天濤雲禪師法嗣(六人)

### 杭州天長守約信禪師

小參。夫子不識字。達磨不會禪。一卷好心經。被箇歪嘴和尚念壞了。你還透得壞處麼。打一錘一塊腫。踢一脚一塊青。因甚麼蚊子上鐵牛。癩土聽雷聲。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小參。一拳拳倒妙高峯。就地拈來土是金。一踢踢翻圓覺海。滔天波浪浪是水。若果恁麼。天長。與你助彩。東西南北去。鑊湯爐炭去。劒樹刀山去。毒蛇頭上揩癢去。猛虎口裏橫身去。若也滴滴搭搭婆婆訶訶。只恐總去不得。何也。天長。從來不與人說媽媽禪。

### 金陵西天妙德起禪師

號元峰。浙江山陰呂氏子。年二十。投普照老宿出家。得戒于杭之天長。掩關三載。北禮五臺。遍參尊宿。後謁天濤雲于金山。上堂。問答本無交涉。棒喝亦然。虛設莫問張三李四。空懸一天星月。復卓拄杖云。一二三四五六七。入海筭沙徒費力。箇中消息報君知。彌勒釋迦同喫跌。小參。山僧。自小記得。四句伽陀。不免當陽拈出。揮拂子云。上大人孔乙己。化三千可知禮也。且問諸仁者。是甚麼義。小參。論玄宗談意旨。佛祖單提傳心印。打開寶藏妙無窮。得意忘言超智境。實無一法與君通。萬象森羅齊乞命。早參。禪無可參。道無可學。世尊拈花。早喪靈源。迦葉微笑。更添病目。山僧今日略呈醜拙。喫飯穿衣。無法可說。兩箇拳頭。一對伸出。早參。有夢有想。情塵未釋。無夢無想。天地懸隔。坐斷兩頭。觸處明白。直下承當。更添階級。擬議思量。白雲萬里。師年老。退居興教。以角虎雙修。嘉慶戊午正月十四日示微疾。眾請說偈。師曰。莫污人好。索浴更衣。移龕坐寂。

### 金山六益謙禪師

上堂。向上一路。人人鼻孔撩天。各各脚跟點地。放行也海濶天空。把住也無處迴避。今日金山。也不把住。也不放行。大家團團頭。同說家常話。知有的兄弟。杓柄短長。鍋子大小。常住日用。一一盡知。不知有底兄弟。柴米油鹽。銀錢使費。齋堂茶飯。種種現成。畢竟作何消受。若向三條椽下七尺單前。默默坐禪。如是消受。閻羅老。打你鬼肫臀有分。何故。金山者裏。不賣者箇滯貨。無禪到你參。無道到你學。顧眾云。還知金山為人處麼。去到諸方。切莫錯舉。

### 杭州天長海宇清禪師

上堂。買帽相頭。看席打令。未免取舍自殊。朝打三千。暮打八百。徒爾疲勞。天長。今日橫吹牧笛。不犯宮商。大家齊唱太平歌。合會共歡堯舜日。恁麼委悉。便請承當。其或未然。不免為諸人直截去也。十箇手指八箇叉。會得也。是捏目生花。若不會。若哉佛陀耶。

### 嘉興精嚴性愷禪師

上堂。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恁麼會去。木馬逐風嘶。不恁麼會去。泥牛海底走。馬子尿壺。掃帚畚斗。是山僧尋常用底。臨濟德山。是乾屎橛。汝等尿床漢。費山僧多少委曲。更向者裏。覓什麼羶。喝一喝。若是丈夫兒。不向那邊討。

### 嘉興精嚴琢三勤禪師

湖州德清許氏子。年二十八。投雲林在瞻和尚脫白。後參天濤雲。命看萬法歸一話。一日契旨。偈曰。一念回光雙眼瞎。泥牛裂斷黃金索。無毛鷄子潑天飛。四十九年錯註脚。陞座。一五又一五。大地即是土。甜瓜徹蒂甜。苦瓜連根苦。苦樂大家知。各自照門戶。因語識人。因苗辯土。無是無非。有賓有主。卓拄杖云。會也無。山猫不是老虎。小參。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會得箇中意。棗子囫圇吞。卓拄杖云。無端無端。小參。拈拄杖云。有頭有尾。無病無藥。眼睛橫生。鼻孔直落。見飯會吃。見衣會著。現成公案。不用造作。禾山打鼓。普化搖鐸。直饒會得也是絡索。

### 滄洪注禪師法嗣

### 常州天寧覺性是禪師

本郡江陰姚氏子。二十歲。造宜興銅官山。禮德梵和尚出家。徧參諸方。次謁滄洪注。命看未生前話。二年後。忽契悟。得授印記。上堂。空手把鋤頭。殺活縱橫得自由。步行橋水牛。不風流處也風流。人從橋上過。崑崙踏破洞庭波。橋流水不流。黃鶴樓前鸚鵡洲。還委麼。揮拂子下座。

### 碧雲寶禪師法嗣

### 嘉興精嚴躬穎義禪師

小參。殘春已過。孟夏到來。十方聚會。選佛場開。一箇箇壁立萬仞。搗破虛空。便見盡十方世界。是沙門一隻眼。盡十方世界。是圓覺伽藍。身心安居。平等性智。精嚴恁麼說話。大似畫蛇添足。若是過量人。著著有出身之路。還有過量人者麼。卓杖云。泥牛昨夜遭塗炭。直到于今不見蹤。

### 見徹明禪師法嗣

#### 泰州慈濟湛如真禪師

丹徒王氏子 據室。此是從上祖師。斷人命根處。拄杖子。今日在真上座手裏。即今銅頭鐵額到此。也須一一按過。不是與人難共住。大都緇素要分明 當晚小參。秋臨數日。桐葉初稀木樨香。含蕊南畝稻花肥。鐘鳴東海。塔影西溪。離聲離色。未許住泊。隨聲逐色。打折驢蹄。莫把青州棗。錯認鄭州梨。小參。水底不須撈月。虛空何處著楔。一法不見不知。正是抱贖叫屈。直饒純清絕點。脫體承當。脚跟之下。泥水一尺。何故。萬里不掛片雲。青天也須喫棒 大殿。丈六金身。千丈盧舍那身無邊身。菩薩量至梵天。不見其頂。正眼觀來。尚屬戲論。金佛木佛泥佛真佛。丹霞德山雲門趙州。各執己見。新長老合作麼生。展具云。齊之以禮 祖堂。不立一塵。不捨一法。世界本清平。何須神臂發。斷臂安心。將病與醫。致使大唐宗徒。行棒行喝。了無收煞。莫謂家醜外揚。貴圖授受直截。

### 定悟誠禪師法嗣

#### 常州聚湖寺頓悟禪師

浙江海寧人。參定悟和尚。印記繼席天寧 上堂。明明明。宛如紅日照乾坤。暗暗暗。普天匝地不見面也不明。也不暗。露出金剛一隻眼。且道。金剛眼在甚麼處。良久云。咄。

### 納川海禪師法嗣

#### 常州天寧淨德月禪師

本郡陽湖人 解制小參。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家舍途中。若人識得心。大地皆是土。途中家舍。於斯了然。不妨登山涉水。隨

處自在。揮拂云。若向者裏停思。縱饒經歷百城。也是趙婆呷醋  
除夕小參。今年遇[門@王]增一月。寒暑推遷今日畢。衲僧巴鼻祇  
如常。摩訶般若波羅蜜 解制小參。萬法歸一。有佛處不得住。一  
歸何處。無佛處急走過。三月無違。青州布衫重七觔。恁麼則不去  
也。三千里外漫流傳。上元定是正月半。摘楊花摘楊花。良久云。  
還識趙州麼 陞座。最初機。末後句。泥牛吼水面。木馬疾追風。  
有甚奇特。過得天寧門。方為好手。且道。天寧有何長處。卓拄杖  
云。直饒佛祖到來。也要從頭勘過 小參。今朝五月望旦。諸兄一  
齊雲集。驀豎拂子云。祖意教意全彰。虛空何必釘橛。

### 霈靈源禪師法嗣

#### 丹陽嘉山中和□禪師

上堂。麻三斤。須菩提巖中端坐。見吾法身。乾矢橛。萬里無雲天  
喫棒。克賓維那。罰錢趕出。文殊師利。喚不入門。倒却門前剎  
竿。弄獼猴伎倆。禮拜歸位而立。認奴作郎。者一隊漢。箇箇認影  
迷頭。嘉山者裏。仍可法堂前草深一丈。不肯將金針度與人。何  
故。諸方難見易識。我者裏易見難識。

### 了凡聖禪師法嗣(六人)

#### 無錫開利化南宏禪師

上堂。僧問。意句俱不到時如何。師云。描不成畫不就。進云。一  
種沒絃琴。惟師彈得妙。師喝云。誰是知音。乃云。菱花纔現。人  
境難逃。鑊錙全提。佛魔膽喪。遵寰中之敕。握閩外之權。斬新條  
令。掃除竹木精靈。截斷疑根。剖出佛祖心印。定龍蛇。須具閃電  
之機。分玉石。必有迅雷之句。百尺竿頭。使人人進步。萬仞巖  
上。要箇箇翻身。眾中還有進得步翻得身者麼。喝一喝云。一片白  
雲橫谷口。幾多歸鳥自迷巢 小參。花開樹樹開榭。榭上著葫蘆。  
葫蘆藤上結冬瓜。瓜中五味盡皆全。甜如蜜。苦如連。辣似番椒鹹  
似鹽。其中一種真酸味。相逢難以對人言。卓一卓云。薦。

#### 高郵善因最初心禪師

生平。於道自任。室中巖峻。衲子少有能近者 上堂。真無妄不  
立。妄無真不生。透過兩重關。猶落第二頭。所以臨濟大師云。向

第一句薦得。可與佛祖為師。第二句薦得。可與人天為師。第三句薦得。自救不了。設有箇出來道。不落階級。又作麼生。但向他道。今日不著便。

### 維揚高旻昭月貞禪師

徐州沛縣余氏子。幼依銅山潔生和尚出家。年二十。受具于宏濟律師。常誦法華金剛致疑。奮志參方。謁高旻了凡聖。參三不是話。有省。呈所得。了曰。誰教你坐在者裏。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師聞舉。豁然開悟。從茲日益玄奧。後繼席焉。上堂。綠陰深處。水足草足。碧玉階前。風清月白。千劫眼不借舌頭底。萬劫舌不借眼睛底。璿璣不動。寂爾恒通。大清國裏。不是無禪。只是無師。一釋迦二元和三佛陀。其餘是什麼碗脫坵華嚴期上堂。剖塵出經卷。了義絕言詮。阿字法門海。不隔一毫端。良久云。風鳴條雨破塊。朝來塔上鈴語碎。大方廣佛華嚴經。塵說剎說不思議。普賢行文殊智。樓閣門開。三摩鉢地。顧眾云。文彩全彰。各請自鑒。上堂。十方國土中。無刹不現身。昨日雨今日晴。馬嘶芳草地。牛臥綠楊陰。漁歌遠浦。蟬噪高林。金沙灘頭馬郎婦。不搽紅粉也風流。好大哥。夜來明月照千谿。無限獼猴探深影。喝一喝。小參。夜短睡不足。鐘聲披七條。山門佛殿。露柱燈籠。因我得禮。你塔鈴邗水。妙音觀世音。梵音海潮音。薰風南來。殿角涼生。甚麼處。是文殊被世尊攝向二鐵圍山。驀喚行者。濃煎茶來。小參。掃盡觸途滯程。頓開不二生涯。鑊湯為樂業。爐炭是安家。趙錢孫李。大寶法華。若起絲毫佛見法見。粗拳辣掌。不怕戴角夜叉。咄。突出無師句子。當陽獨露無遮。晒藏經小參。舉世尊臨入涅槃。文殊請再轉法輪。世尊咄曰。文殊。吾四十九年。未嘗說著一字。請我再轉法輪。是吾曾轉法輪耶。師云。大小文殊。被世尊熱瞞一上。莢灣今日路見不平。要與文殊作主。召眾云。可快將黃面老漢贓物。盡搬在殿前。青天白日。大家露佈一番。管教伊轉身不及。雖然。也是為他閒事長無明。小參。三登投子。九上洞山。三千里路。賣却布單。癡狂外邊走。一盲引眾盲。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乾。佛法徧天下。誰人不丈夫。一塵飛而翳天。一芥墮而覆地。擬心即錯。動念即乖。汝等遠涉山水。皆是去本逐末。還委悉麼。未動脚跟。好與三十棒。小參。拈起須彌椎。擊碎虛空鼓。狹路相逢。無賓無主。釋迦不是佛。達磨不是祖。放出楊岐三脚驢。踏殺玄沙一角虎。阿呵呵。休莽鹵。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示眾。諸人以我有佛法。我以佛法是冤家。不著趙州七斤衫。豈拈洞山三斤麻。饑即飯。渴即茶。終朝隨分足生

涯。惟有一箇決定說。庭前娑羅樹。年年放碧華。僧問。如何是道。師云。瓜州遠似揚州。問如何是禪。師云。山僧今日勞倦。僧便出。師云。不妨伶俐。問如何是學人本來面目。師云。牙齒一具骨。耳朵兩片皮。僧禮拜。師曰。好箇師僧。又恁麼去。僧參。纔跨門。師曰。後面是阿誰。僧回首。師云。業識茫茫。無本可據。師問僧。狗子還有佛性也無。僧云。無。師云。汝驢年。夢見趙州去在。僧。問如何是雲門北斗藏身意。師曰。月落寒潭靜。烏鷄半夜啼。僧曰。恁麼便是否。師云。不打者驢漢出去。師主席三十餘年。室中嚴明峻拒。不妄許可。事親最孝。有養母堂。乾隆五十年十月七日示寂。世壽五十七。僧臘四十七。塔于江城村之原。

### 維揚秋門陳居士

喜讀佛書。偶閱維摩經。至文殊菩薩問疾品。維摩念言今文殊師利與大眾十萬餘俱來我所。即以神力空其室內除去所有。乃豁然。得蘊界空。遂詣高旻。求入室。呈所得。旻曰。此是蘊空。未得性空。猶是門外事。士云。如何是門內事。旻曰。月落後相見。士乃頓悟前非。即呈偈曰。大地黑漫漫。相逢不相識。十聖三賢總不知。泥牛入海絕消息。旻頷之曰。且喜得入門也。士云。弟子從未出。何言入也。旻曰。放汝三十棒。遂築居士軒。長譚不二。臨終前一日。辭謝親舊。時至。沐浴更衣禮佛。端坐說偈。合掌謝眾而化。著述甚多。唯一貫吟。皆闡不二之旨。

### 揚州哲文袁居士

善繪雞。舉家茹素。參高旻。令參誰字。半載無入處。一日畫雞呈似旻。旻曰。雖然如活。爭柰不解啼。士曰。聲遍大千。旻把住曰。那裏是他發聲處。速道速道。士無對。自此晝夜力參。半夜忽聞雞叫。徹見淵源。清晨求證。旻曰。居士會也。士呈偈曰。錦雞啼破玉屏空。子夜閨浮日正中。情與無情同一舌。到頭無處覓渠踪。旻云。到頭原不識渠踪。士唯然。日精玄奧。一日喚家僮。敷座焚香。至午趺坐。令請秋門居士話別。門至問曰。正當恁麼時如何。士乃畫一○相。大喝一聲而寂。

### 揚州遯園尤居士

未弱冠入洋。不信佛氏。每見僧心若有物。忽舌下患一重舌。醫皆拱手。自知必死。聞秋門居士知坐禪。可了生死。往扣之。門一

見。即推出仍閉却。士大疑之。遂詣高旻。令參神前酒臺盤話。日夜參究。誓不歸。未幾。病釋然。一日欲登廁未及門。忽猛省曰。從今不受人瞞也。即趨方丈。呈偈曰。酒臺盤酒臺盤。答處何曾在問端。大道本來無背向。從今不被舌頭瞞。旻為之助喜。

---

##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

##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 [前往捐款](#)

---

##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

##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

##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

##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